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심 치 열 교수 지도

박사학위 청구논문

고전소설에 나타난 장애 형상화와

치유의 의미

2023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최지선

고전소설에 나타난 장애 형상화와
치유의 의미

심 치 열 교수 지도

이 논문을 박사학위논문으로 제출

2023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최지선

인 준 서

최지선의 박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23년 5월

심사위원장 강혜선 (인)

심사위원 정창진 (인)

심사위원 채기성 (인)

심사위원 김준형 (인)

심사위원 서희애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본 논문은 고전소설 속 장애인과 장애의 구체적 형상화와 치유 지향 서사의 의미를 살피고 문학이 이러한 장애의 서사와 과정에서 장애에 대한 인식과 담론을 어떻게 언중들에게 내재화했는지 살피고자 했다.

제 I 장에서는 기존의 구비문학과 시가문학을 중심으로 연구되던 고전문학 속 장애인 담론 및 형상화 연구의 편향성을 밝히고 그동안 상대적으로 미비하게 이뤄진 고전소설 속 장애인과 장애의 의미를 중점적으로 살피는 작업을 통해 고전문학 연구의 영역을 확장하고자 하는 연구 목적을 밝혔다. 또한 본 연구는 장애인의 서사적 형상화에 담긴 장애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을 도출할 뿐 아니라 고전소설 속 치유 지향성의 의미를 이해하고자 했다. 이에 따라 일반적 의미의 신체적 결손을 넘어 문학적 상징으로 표현된 장애의 형상도 연구 범주에 포함하고 이를 기준으로 연구 대상으로 삼는 고전소설 작품을 선별하고 확정하였다. 그리고 고전소설 속 장애 서사의 특징을 드러내기 위해 근대전환기 장애인이 등장하는 단형 서사 작품을 선정해 비교군으로 제시했다. 조선시대와 달리 근대전환기 하나의 상징체로 전환된 장애인과 장애가 등장하는 근대 단형 서사와 고전소설의 장애 형상화의 비교는 고전소설 속 장애와 치유 서사의 특성을 드러내기에 용이하다.

제 II 장은 우선 본격적 논의에 앞서 장애에 대한 개념이 조선시대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형성 및 변화해왔는지 통시적으로 살펴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시각 및 담론의 시대별 차이와 변화 양상을 밝혔다. 이를 통해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시각이 중세-근대-현대로 이어지면서 변화된 상대적 개념임을 확인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사용할 장애의 개념을 구체화하였다.

둘째로 선별한 고전소설 속 장애 서사의 형상화를 살피기 위해 장애 유형을 신체적 장애, 정신적 장애, 신체·정신적 장애로 구분했다. 그리고 본격적인 분석을 위해 여성 장애 서사와 남성 장애 서사를 나눈 후, 앞서 구분한 각 장애 유형별로 구체적 서술 양상과 서사 전개를 살폈다. 이는 고전소설 속 장애 형상화 양상이 남녀에 따라 서사 전개에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렇게 유형을 구분 후 각 장에서는 인물을 중심으로 구체적 서사 표현과 형상화를 살폈다. 이를 위해 소설 속 장애인과 그 주변 인물 간의 관계와 대응 방식, 작품간 비교를 수행하여 서사적 형상화에 담긴 의미와 장애를 바라보는 시선을 도출했다.

이렇듯 서로 다른 소설 속 장애가 가지는 의미의 다양성과 가족 및 공동체가 장애인을 대하는 방식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살피는 작업은 장애를 대하는 당대의 사회문화적 시각을 문학을 통해 짐작할 수 있는 하나의 방식이다. 또한 서사를 통해 하나의 담론과 시선이 어떻게 내재화되는지 이해하는 한 방법이기도 하다.

III장에서는 앞 장에서 살핀 서사적 형상화를 기반으로 서사 속 장애 담론과 치유 담론의 의미를 고찰했다. 근대적 의미의 의술이 없던 소설 속 시대에 장애와 장애인에게 부여된 서사적 의미와 담론을 고찰하고 실제적, 현실적 자기완성이자 서사적 귀결로 안배된 치유 서사에 내재된 의식을 살폈다. 결핍의 상태인 장애가 결핍을 채우는 치유의 서사로 진행되는 작품 간 유사한 구조 내에서도 각 작품은 장애와 치유에 대한 다양한 종류의 시선과 대응을 보여준다. 이러한 작품 간 인물 행동 양식의 같고 다름은 장애가 가지는 상대성에서 기인되는 부분이라 할 것이다. 문학이 다양한 인물을 통해 각자 다른 삶의 양태를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면 장애와 치유를 둘러싼 다양한 양상들을 살피는 것은 문학을 통해 장애 및 장애인의 삶을 이해하고 알아가는 하나의 방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조선시대에 공동체와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였던 장애인은 현대에 들어 도리어 구분과 배제의 대상으로서의 의미가 강화되었다. IV장에서는 이러한 변화된 장애인에 대한 시선의 단서를 고전소설과 근대전환기 단형서사 속 장애인의 형상화의

비교를 통해 소구하고자 했다. 이에 근대전환기에 등장한 과도기적인 문학 장르인 근대 단형서사 중 장애인이 주도적 역할로 등장하는 작품을 선별해 고전소설의 장애 서사와 비교 고찰했다.

본 논의는 그동안 고전소설 연구에서 특이한 흥미 요소를 결합한 인물형으로 간주되며 상대적으로 인물을 통해 그려지는 장애인의 삶에는 둔감했던 기존의 연구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서사 속에 드러나는 장애인으로서 겪는 삶의 양상에 주목해 그 의미를 도출하고자 했다. 또한 고전소설 속 장애인의 개념 확장을 통해 다양한 장애의 문학적 형상화 탐색을 시도했다. 그리고 고전소설뿐 아니라 근대전환기 서사 속 장애인의 형상을 단편적으로나마 살펴 장애인과 장애를 둘러싼 시각과 태도의 근대적 전환 양상을 확인했다. 근대의 장애 인식 전환은 현대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미쳤기에 이러한 탐색은 지금 우리가 가져야 할 바람직한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시각과 태도를 고민하게 하는 한 바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key word: 장애, 장애인, 장애서사, 치유, 치유서사, 장애담, 치유담, 고전소설, 추모, 기형, 신체 장애, 언어 장애, 맹인, 성 정체성 장애, 성불구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1. 연구목적	1
2.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4
3. 연구사	11
II. 고전소설 속 장애 인물 형상화	15
1. 장애의 개념과 범주	15
2. 장애 인물의 서사적 형상화	21
1) 여성 장애 인물의 유형과 서사적 형상화	22
2) 남성 장애 인물의 유형과 서사적 형상화	49
III. 장애와 치유 지향 서사의 의미	98
1. 장애 인물 형상화로 드러난 장애의 의미	99
1) 다른 몸에 대한 배제와 타자화	99
2) 개인의 희생과 자선으로 은폐한 사회적 책무	10

2. 치유 서사에 담긴 치유의 양면적 의미	111
1) 반드시 치유되어야 할 장애	111
2) 내적 자질에 대한 역설적 인식과 공동체적 삶의 긍정	119
IV. 장애 인식의 근대적 전환	129
1. 근대 단형서사 속 장애 인물 형상화	129
1) 장애 인물이 등장하는 근대 단형 서사와 특징	130
2) 사회 밖 타자화: 기형적 사회와 장애	136
2. 고전소설과 단형서사의 장애 및 치유 서사 비교	154
1) 고전소설과 단형서사의 장애 형상화 차이	155
2) 고전소설과 단형서사의 치유 형상화 차이	158
V. 결론	165
참고문헌	169
ABSTRACT(영문초록)	175

I. 서론

I. 서론

1. 연구목적

서사문학은 어떤 삶이나 존재가 일정한 선(線)에서 벗어나 있다면 그 차이를 설명하고자 하기에 현실 속 다양한 일탈과 갈등은 이야기가 되고 소설이 된다. 그렇기에 그동안 많은 고전 서사 연구자들은 소설 속 갈등과 일탈의 의미에 주목하여 유의미하고 다양한 연구를 축적해 왔다. 다만 신체적·외형적 장애나 결함 및 기형이라는 서사 요소와 이로 인한 갈등은 상대적으로 그 연구가 질적·양적으로 미비하게 이뤄졌다. 대부분의 연구 방향도 신체 장애를 고전소설 속 정형화된 인물에게 부여된 개성적 특성 혹은 유교 관념의 변화를 드러내는 요소로 분석하는 데에 그쳤으며, 최근 들어 소수자로서의 장애인물의 형상에 주목하는 연구가 이뤄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고전소설 속 장애와 장애인 연구가 부족한 이유는, 우선 고전소설 속 주인공이 재자가인형 인물인 경우가 대부분이라 신체적·외형적 기형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이며 간혹 주인공이 인외적 존재로 태어나거나 장애 혹은 비루한 외모를 가지고 태어나더라도 이는 통과 의례적 요소로 결국 결말에서 주인공이 본래의 아름답고 뛰어난 외형으로 변하기 때문이다. 둘째로 신체적·외형적 장애나 결함 및 기형을 가진 인물이 서사 상 기능적 인물인 경우가 대부분인 것도 연구자들이 이러한 인물 유형이나 장애 요소에 대해 덜 주목하게 한 원인이 되었다.

하지만 고전으로부터 근현대, 즉 설화, 무가, 가면극, 판소리, 고전소설, 근현대소설에 이르기까지 신체적·외형적 장애나 결함 및 기형을 가진 인물은 맹인, 앓은뱅이와 같은 실재적 신체 장애를 지닌 인물들을 필두로 금방울이나 김원과 같은 인외의

형태로 드러나는 외형적 기형의 형태까지 두루 등장한다.

이에 본 연구는 그동안 고전 서사 연구에서 서사 상 흥미 요소로 작용하거나 기능적 인물로만 언급되며 연구의 변방에 머물던 고전소설 속 장애와 장애인들의 장애에 대한 인식과 대응 방식을 중심으로 문학 속에 형상화된 장애의 형상화 양상과 치유 지향 서사를 구체적으로 살피고자 한다. 이에 일정한 선(線)에서 이탈된 몸으로 인식되는 장애 인물이 등장하는 고전소설과 단형서사를 대상으로 장애 그 자체에 주목해 서사적으로 장애 인물이 어떻게 대상화되며 그들의 성격, 행적에 주변인들의 시선과 대응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주목한다. 이는 서사문학 속에 반영된 당대인들의 장애를 바라보는 시선을 통해 실제 역사적 문헌이나 기록에는 드러나지 않는 이전 시대의 장애인을 둘러싼 담론을 소설을 통해 살피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고전소설에서 주인공의 장애가 결국에는 반드시 치유되는 서사적 귀결의 의미를 도출해보고자 한다.

질병과 장애가 없는 몸은 시대를 초월해 모두가 소망하는 공통 사항이다. 동시에 질병과 장애의 의미는 시대와 개체에 따라 주관적이고 상대적일 수밖에 없다. 과거엔 치유 혹은 치료가 불가능했던 질병과 장애가 현대에는 치유 가능한 질병과 장애가 되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질병으로 인식되는 신체적 특성이 누군가에게는 질병으로 인식되지 않기도 한다. 인식되거나 호명되지 않은 질병이나 장애는 당연히 치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즉 질병과 장애의 의미와 태도는 장애 당사자와 주변인들의 인식과 태도의 상호 관계 하에 형성되고 강화된다.

문학 속 장애인들의 장애에 대한 인식과 대응 역시 장애인을 둘러싼 주변인들의 태도와 상호적으로 조응하며 형성되고 변화하며 강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각 작품마다 장애 인물과 주변인들이 장애를 대하는 태도와 감정은 각각 개별적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이런 차이는 문학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장애 담론의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각 작품 속 장애 인물 당사자와 주변인들의 태도 및 반응의 양상을 면밀히 살핌으로써 문학 속에 그려진 장애 담론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그리

고 이러한 문학 속 장애를 둘러싼 시선, 대응, 태도들을 담론이라 칭한다면 이 담론들은 필연적으로 문학을 향유하던 당대인들과도 상호 영향 관계에 놓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고전소설 속 장애인과 주변인들의 장애를 인식하고 대하는 태도 즉 장애 담론은 사료만으로는 짐작할 수 없는 당대인들의 장애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짐작할 수 있게 하는 또다른 방법일 수 있다.

더불어 고전소설에서 특히 두드러지는 결국은 치유되어야 할 장애라는 서사적 귀결에 담긴 의미를 살피고자 한다. 고전소설에서 치유는 서사의 최종 목적이자 인물의 내적 욕망이며 사회적으로 인물이 인정받기 위한 성취의 기본으로 그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본고는 고전소설에서 형상화된 치유 서사를 통해 문학 속에서 장애 치유의 표면적·이면적 서사적 의미와 역할을 살핀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치유가 불가능한 장애의 치유담에 담긴 치유와 장애에 대한 시선을 도출하고자 한다.

또한 고전소설에서 나타난 장애와 치유 지향 서사와 다르게 나타나는 근대 전환기 단형 서사 속 장애인 형상화 방식을 통해 시대를 따라 변화한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시선과 태도를 살피고자 한다. 근대 전환기 문학 속 장애인의 도구화, 타자화의 강화는 현대에 들어 여전히 존재하는 장애인에 대한 배제와 차별 의식의 근간을 확인할 수 있는 지점이기에 이후 문학 속 장애인 형상화의 변화를 살피는 데에 유의미하다.

현대 장애인의 삶은 차별과 배제와의 투쟁이며 동시에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한 모색의 과정이기도 하다. 또 여전히 장애인을 돌보고 치유할 의무는 가족 공동체에 부과되고 있으며 그들이 겪는 고통의 부담은 제도적으로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현재의 우리가 과거의 유산 아래 형성된 존재라면 고전소설 속 장애와 장애인의 형상화와 치유 지향 서사에 담긴 장애 및 치유 담론은 현재의 우리를 이해하는 밑바탕이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런 관점으로 고전소설 속 장애와 장애인의 형상화 방식과 치유 지향 서사를 살펴 이를 통해 현재의 우리가 장애인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

한 올바른 사회적 담론과 태도를 모색하는 바탕을 마련코자 한다.

이는 과거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장애의 고통과 치유라는 환상과 투쟁하는 장애를 가진 존재와 그를 둘러싼 사회의 모습을 통해 진정한 공동체의 삶의 방식에 대한 고찰의 한 방향을 제시하는 의의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본격적으로 소설 속 장애를 다루기에 앞서 본고에서 언급할 장애의 범주를 규정하고자 한다. 장애를 질병이나 사고 등에 의해 지적, 정신적, 청각, 시각, 내장, 골격, 기형적인 면에 결함(impairment)이 생겨, 이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상태로 규정한다면, 외적으로 드러난 신체적 장애는 물론이고, 인물이 지닌 기형적 결함 역시 장애의 범주에 들어올 수 있다. 이에 본고는 신체적 훼손이나 기능의 상실로 국한된 장애의 범주를 넘어 문학 작품 내에서 신체적 기이함으로 보통 일반과 다른 몸으로 인식되는 추모나 인외적 특성도 장애의 관점으로 해석하고자 한다.

사전적으로 기형이란 괴이한 형체 혹은 보통 일반의 정상적인 형태와는 다른 생물의 형태로 정의된다. 이에 본고는 서사 내에서 당사자의 실제 능력이나 인식과 무관하게 사회적으로 보통의 일반과 다르거나 이질적인 상태로 인식되는 신체적 외형적 특성을 장애의 범주로 포함시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는 이러한 이들의 외형적 특성이 문학적으로 형상화된 장애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확연한 신체 훼손 혹은 신체 기능을 상실한 신체장애인과 더불어 외모의 기형인 추모, 형태의 기형인 인외도 장애로 규정하고 이러한 장애를 가진 인물도 연구 대상으로 포함한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 대상으로 삼는 장애 인물 유형의 조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 고전소설과 관형 서사 문학 작품 속에 등장하는 신체적·기형적 결함이나 장애를 가진 인물을 논의의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이에 따라 난쟁이, 시각장애인, 앓은뱅이, 절름발이, 외팔이, 병어리, 배불뚝이, 청각장애인, 곱추, 코뽕뽕이¹⁾, 애꾸 등의 장애 혹은 기형을 가진 인물들이 논의 범주에 포함된다.

둘째 사회와 가정 내 관계와 지위에 장애가 될 정도의 추한 외모 즉, 추모(醜貌)로 명시된 <박씨전>의 박씨와 같은 인물이나 식(食), 색(色)의 욕망을 강하게 가졌으나 추한 외모로 봉사들을 혼인 상대로 삼을 수밖에 없어 조롱받는 심청 서사 속 뽕덕어미과 인물도 장애의 한 유형으로 포함하기로 한다.

셋째 기형이라는 개념을 서사적 상징으로 확장하면 인외(人外)적 형태를 가진 금방울이나 김원도 장애가 상징화된 인물로 정의할 수 있다. 기형적 존재가 사람들의 일반적 인식 밖의 형태를 가진 이질적 존재라고 본다면 인간의 일반으로 규정된 사지(四肢)와 안면이라는 신체의 형태를 벗어난 존재 즉, 보통 일반의 신체의 정상적 형태를 벗어난 기형을 가진 존재로서 서사 문학적 장애인의 상징화된 인물군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 이런 기준으로 <김원전>, <금방울전>, <금송아지전>의 주인공과 같은 인외적 존재도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

추모와 인외적 존재를 장애의 유형으로 다루는 것은 이들이 추모와 인외적 형태일 때 당면하는 상황 및 주변인들의 시선과 대응이 실제 장애인들이 당면하는 것과 유사하게 서사 속에서 형상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넷째 지적·정신적 장애 유형에서 언어장애를 가진 <영이록>의 손기, 난독증을 가진 <김안국전>의 김안국과 같은 인물을 다룬다.

다만 지적·정신적 결함과 관련해서는 지적 능력과 사리분별 능력을 우선으로 한다는 현재의 기준²⁾을 고전 서사 문학에 대입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고전 서

1) 코가 기형적으로 큰 인물을 지칭하는 말로 짐작되며, 문헌철화집 『기문(奇聞)』과 구비 설화 「소경, 고뽕뽕이, 앓은뱅이 이야기」 『구비문학대계』 (경기도 강화군 길상면, 1981.7.17 김순이 제보) 등에 등장한다. 이야기 문맥 상 ‘코뽕뽕이’의 기형적으로 길고 큰 코는 장애를 가진 인물들과 동일 범주로 다뤄지고 있음을 설화 전승 상황을 통해 알 수 있다.

2) 2022년 10월 기준, 법원에서는 지능 지수를 지적 장애 판정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고 있다. THE FACT, 사회면 ‘법원 “지적 장애 판정 주된 고려요소는 지능지수”’, 2022. 10. 9일 기사.

사 문학 속 주인공이 어리석다고 평가되는 상태는 작품의 전반부에 국한되는 것이 대부분으로 결말에 이르기까지 그 상황이 유지되는 경우는 고전소설에서 찾아보기 힘들다. 이 경우 주인공의 어리석다고 평가되는 상황은 잠시 그 비범함을 숨기고 있거나 발현되기 이전 상황일 뿐이다. 야담이나 구전 설화에서 어리석은 인물이 서사의 중심 인물로 등장하는 경우에는 그 어리석은 행동과 말을 조롱하거나 반대로 이를 통해 당대 사회, 권력가, 사대부에 대한 풍자적 성격을 보이는 경우이다. 때문에 고전 서사 속 지적 결함을 가진 인물을 근현대의 지적·정신적 결함의 정의 안에서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서사 상 그 인물을 어리석고 아둔하다고 판단한 주변인과 사회의 대응을 살필 수 있다는 점에서 장애에 대한 사회적 태도를 살피기에 요긴한 자료이기도 하다. 이런 측면에서 <영이록>의 손기와 <김안국전>의 김안국은 이를 살피기에 적합한 인물이다.

다섯째 <방한립전>의 방관주는 자신의 태생적 성(性)을 숨기고 욕망하는 성(性)으로 살아가는 인물로 보고 성(性) 정체성의 장애를 가진 인물로 볼 수 있다. 이에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가진 인물³⁾로 방관주를 다루고자 한다.

본 연구는 사회·문화적으로 형성된 장애 및 치유 담론을 작중 장애나 기형을 가진 인물을 통해 살피고자 하므로 인물을 둘러싼 일정한 서사나 서술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여기서 담론이란 작품 속에서 장애를 바라보는 공동체나 주변인들의 시선, 혹은 인물에 내재된 스스로의 장애나 기형, 치유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아울러 지칭한다. 이는 인물과 인물을 둘러싼 당대 사회의 장애와 치유에 대한 태도와 시선, 대응 양상을 포함하기에, 장애나 신체적 기형 및 결함을 가진 인물들이 단순하게 기능적으로 등·퇴장하는 인물은 논의에서 제외한다. 이런 기준에 따라 장애나 신체적

3) 현재에는 방관주와 같이 내면과 외면의 성 정체성이 다른 것을 질병으로 인식하지 않는 젠더 관념이 확립되었지만 <방한립전> 창작 당시의 남녀의 고정적 성 역할 관념이 작품의 서사 전반에 걸친 인물의 성 역할 갈등에 영향을 끼쳤을 뿐 아니라, 서사 전반에 걸쳐 주요한 내용으로 등장하는 것에 주목해 당대적 관점으로 방관주가 보여주는 내적·외적 갈등을 성(性) 정체성 장애로 다루고자 한다.

기형 및 결함을 가진 인물 중 작품의 중심인물이거나 서사에 주요하게 관여하는 인물을 선별하여 논의를 진행한다.

연구 대상으로는 고전소설을 주 연구대상으로 삼고 장애 개념의 전환점을 살피기 위해 부차적으로 근대 전환기 신문 잡지에 실린 단형 서사 문학⁴⁾을 분석 대상으로 가져온다. 본고가 대상 작품의 범위를 소설이라는 문자 기록물로 한정하는 것은 기존의 고전문학 속 장애인에 대한 연구가 구비 설화, 속담, 민속극 등 일반 서민 계층을 중심으로 창작·전승되던 장르를 주로 다루거나 시가 문학을 중심으로 이뤄진 것을 보완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이런 시도를 통해 문헌과 구비, 서정문학과 서사문학을 아우르는 고전문학 속 장애를 다루는 장르적 특징과 의미를 총체적으로 그려볼 수 있는 하나의 바탕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고전소설 외에 1910년까지의 근현대 신문잡지에 수록된 단형 서사 작품까지 연구 범위로 포함한 것은 고전과 현대 사이의 과도기적 장르로 고전 서사 장르와 비교 자료로서 의의를 가지며 무엇보다 근대에 이르러 이전 시기와 달라진 장애인에 대한 시각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고전소설과 1910년까지의 근대 전환기 단형 서사 작품을 대상으로, 신체적·외형적 결함이나 장애 및 기형을 가진 인물이 작품 내에서 주요한 역할로 등장하는 작품을 아래와 같이 선별했다.

- (1) 고전소설 13편⁵⁾: 「박씨전」 「적성의전」 「심청전」 「한후룡전」 「유화기연」
「금방울전」 「김원전」 「영이록」 「방한립전」 「장화홍련전」

- 4) 서사적 논설은 이후 연구에서 단편서사물 혹은 단형서사문으로 규정되고 이는 다시 시사토론체 단편, 우의체 단편 등으로 세분화 된다. : 김영민(『한국근대소설사』, 솔, 1997), 정선태(『개화기 신문 논설의 서사 수용 양상』, 소명출판, 1999), 한기형(『한국 근대소설사의 시각』, 소명출판, 1999)의 논의들을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이 시기 신문연재 서사적 논설을 ‘단형서사’로 지칭한다.
- 5) 선별한 작품의 대상 텍스트는 각 작품군의 선본(善本)을 대상으로 삼는다. 특히 다수의 이본이 존재하는 <박씨전>과 <심청전>(창본 포함)의 경우도 이에 준한다. 장애 담론을 살피기에 더 적합한 텍스트가 존재할 수 있지만 우선 본고는 가장 널리 알려지고 여타 이본들을 아우를 수 있는 선본(善本)이 일반적인 당대인들의 담론을 살피기에는 더 유의미하다고 보기에 이를 대상으로 삼도록 한다.

「한조삼성기봉」 「김안국전」 「금송아지전」

- (2) 근대 단형서사 4편: 「장사와 난쟁이」 (1898), 「소경과 앓은뱅이 문답」 (1905), 「병인간친회록」 (1909), 「모르는 것이 곧 소경」 (1910)

선정된 작품들은 고전소설과 단형서사 작품 중, 신체적 · 외형적 결함이나 장애 및 기형을 가진 인물이 작품 내에서 주요한 역할로 등장하는 작품을 선별한 것이다.

본 연구는 장애인이 주요 등장인물로 등장하는 작품만을 연구 대상으로 삼기에, 앞선 장애인 서사 문학 연구에서 다뤘던 「춘향전」과 「변강쇠가」에 잠깐 등장하는 맹인, 「장화홍련전」의 의붓남동생의 후천적 장애는 본격적인 연구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기존 연구와 달리 본 연구는 신체적 장애 외에도 외적 기형이나 결함이 인물의 삶이나 생활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경우도 은유된 장애로 보기에 「금방울전」, 「김원전」, 「금송아지전」과 같은 기형, 「방한림전」의 신체와 정신의 부조화⁶⁾, 「김안국전」⁷⁾

6) 방관주라는 인물을 젠더적 관점에서 분석하거나 욕망 실현의 구조로 분석하는 관점은 다양하게 전개되어 왔다. 차옥덕, 『백년 전의 경고- 방한림전과 여성주의』, 아세아문화사, 2000; 장시광, 『조선시대 동성혼 이야기: 방한림전』, 한국학술정보, 2010; 장시광, 「<방한림전>에 나타난 동성결혼의 의미」, 『국문학연구』 6, 국문학회, 2001; 김경미, 「젠더 위반에 대한 조선사회의 새로운 상상: <방한림전>」, 『한국고전연구학회』 17, 2008; 김미령, 「『방한림전』에 나타나는 ‘양성성’과 가부장제」, 『한국문화융합학회』 6, 한국문화융합학회 전국학술대회, 2019; 이지하, 「욕망주체로서의 방관주와 자기애의 미덕 -<방한림전>에 대한 새로운 독법의 모색-」, 『국제어문』 82, 국제어문학회, 2019; 이유경, 「여성영웅소설에 나타난 젠더 정체성 형성의 양상과 그 교육적 의미 <홍계월전>과 <방한림전>」, 『고전문학과 교육』 43,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20; 한의승, 「여성의 주체되기와 살아남기- <방한림전>을 중심으로-」, 『동양고전연구』 89, 동양고전학회, 2022; 이지원, 「젠더 의식 중심의 여성영웅소설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 2022.

이러한 관점을 기반으로 하면서 방관주의 성 정체성 갈등과 우울감을 중심으로 다룬 연구는 서신혜, 「개인의 아픔으로 읽는 <방한림전>」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0,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0; 조현우, 「<방한림전>에 나타난 ‘갈등’과 ‘우울’의 정체」,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33,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6; 조홍윤, 「<방한림전>에 나타난 젠더 문제의 맥락 연구 - ‘남성 만들기’의 관점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56, 한국고전연구학회, 2022 등이 있다.

7) 김준형 역주, 『동상기찬』, 휴머니스트, 2021. 본고에서 칭하는 <김안국전>은 1918년 백무용이 <김신부부전>과 <동상기>를 한데 묶은 수권(首券)에 이어 80여 편의 야담을 주제에 따라 1~5 권으로 나누어 엮어 6권 1책으로 구성한 『동상기찬』에 실린 작품이다. 1권 재현(才賢)에 실린 <김안국전>과 다른 이야기이며, 역주서에서는 2권 덕혜(德惠)에 <김안국>으로 기재된 작품이다. 실존 인물을 주인공으로 내세웠지만 모두 허구인 이야기이다. 김안국이 안동에서 난독증을 극복하고 문재(文才)를 인정받는 부분이 이야기의 핵심이기에 <안동량전>이라고도 불린다.

의 난독증, 「박씨전」, 「심청전」⁸⁾, 「장화홍련전」, 「한조삼성기봉」⁹⁾ 속 여성의 추모도 장애 유형으로 분류하고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

금방울과 김원은 인물의 태생적 형태와 관련해 기존의 논의에서는 난생 모티프로 파악하며 신화적 속성에 주목해 영웅서사적 관점에서 분석¹⁰⁾하거나, 변신담¹¹⁾, 성장 서사로 보는 관점에서 인물들의 사회화 과정¹²⁾으로 이해하기도 했다. 그리고 난생 모티프의 관점에서 벗어난 관점에서 금방울의 경우, 신성재로서 여성 집단의 근원적 힘을 상징화한 것으로 보는 견해¹³⁾ 등이 존재한다. 이렇듯 금방울의 형태를 이물(異物)로, 김원을 기형으로 보고 형태적 특성에 내포된 의미 분석은 다양하게 시도됐으

-
- 8) <심청전> 속 뽕덕어미는 추한 외모를 가진 악인으로 그려지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연구는 정하영, 「심청전에 나타난 악인상」, 『국어국문학』, 97, 1987; 유영대, 「<심청전>의 여성형상-곽씨부인과 뽕덕어미를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0 등에서 다뤄지고 있다. 여기서도 악인으로서의 뽕덕어미는 외모보다 그 욕망 추구로 인해 악인형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고 보는 관점이 주를 이뤄 추모라는 부분에 대한 논의는 다소 희석된 상태이다.
- 9) 구선정, 「조선 후기 고소설에 나타난 罪罰을 통해 본 소수자 혐오 양상과 그 의미 - 醜貌·鬼物·幼蟲·病身の 형상화를 중심으로 -」, 『온지논총』 69, 온지학회, 2021. 구선정은 조선 후기 고소설에 나타나는 죄벌(罪罰)의 방식인 추모(醜貌)·귀물(鬼物)·유충(幼蟲)·병신(病身)의 형상화를 통해 조선 후기 고소설 속 갈등의 방식과 그 속에서 나타나는 소수자에 대한 혐오 원인을 고찰하면서 죄벌로 인해 못생긴 외모(醜貌)로 태어나고(<한조삼성기봉>), 흉악한 귀물(鬼物)이 되어 돌아온 (<완월회맹연>) 여성 인물을 고찰하며 추모(醜貌)인 여성이 끝내 행복한 결말을 맞이하지 못하거나 악인의 표상으로 그려지는 서사에 대한 고찰을 시도했다.
- 10) 서대석, 『군담소설의 구조와 배경』, 제이앤씨, 2008; 조동일, 「영웅소설 작품구조의 시대적 성격」, 『한국소설의 이론』, 지식산업사, 1977; 정상진, 「說話의 小說化와 金圓傳」, 『문화전통논집』 1, 경성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93; 윤경수, 「금령전의 신화원형적 모색」, 『한국고소설 동굴모티프 연구』, 태학사, 1999. 405-428쪽; 윤은정, 이명현, 「「금방울전」, 「김원전」의 영웅형상화 방식과 의미 - 설화의 수용과 영웅소설의 변주를 중심으로」, 『어문논집』 89, 중앙어문학회, 2022; 김용기, 「人物 出生譚을 통한 敍事文學의 變貌樣相 研究」, 중앙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 2008.
- 11) 김미란, 「고대소설에 나타난 여성 변신의 의미-금방울전과 박씨전을 중심으로-」, 『겨레어문학』 8, 겨레어문학회, 1983; _____, 「김원전 연구」, 『기전어문학』 2, 수원대학교 국어국문학회 1987; 이명희, 「<금방울전>의 변신 화소 연구」,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2007.
- 12) 최기숙, 「성장소설로 본 <금방울전>, <김원전>」 『연민학지』 7, 1999.
- 13) 신호림, 「<금방울전>에 나타난 금방울의 성격과 여성성의 의미」,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5,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2. 신호림은 <금방울전>을 금방울이라는 이물(異物)이 등장하여 서사를 이끌어나가는 독특한 작품이며, 그동안 금방울을 난생(卵生) 모티프로 파악하던 기존 논의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신성재(神聖財)로 간주함으로써 작품 내에 발현되는 여성성의 의미에 대해 고찰했다. 그는 신성재로서 금방울의 증여가 막씨-장원 부인-공주와 황후로 이어지면서 여성 집단의 상하계급을 모두 망라하며 여성 집단 전체로 확장되는 양상과 반대로 해룡 이전까지 남성의 접근이 금기된다는 점은 금방울을 통해 결핍을 해소하는 근원적 힘이 여성들에게 존재한다는 서사적 정체성을 드러낸다고 보았다

나 이를 장애의 관점에서 다룬 연구는 없었다. 본고에서는 이들의 형태가 문학적으로 은유된 장애라는 관점으로 보고 이를 분석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근대전환기의 장애인 서사를 살피기 위해 신문연재소설 속 근대 단형 서사 중 장애인이 주요 인물로 등장하는 4편을 선정하였다. 이 작품들은 각각 1898년부터 1910년대까지 신문에 연재되었던 단형 서사로, 한국 문학에서 본격적으로 장애와 질병이 시대적 우울과 맞물려 문학의 주요 요소로 등장한 1920년대 직전의 한국 문학 속 장애인의 형상을 확인할 수 있다. 근대 단형 서사의 내용은 장애와 치유 담론과 별반 상관없는 근대전환기 조선의 현실을 풍자하고 비판하는 시사 논설적 성격이 대부분이므로 장애 담론과 관련된 부분만 발췌하여 논의하도록 하겠다.

본고는 고전소설을 중심으로 장애인 형상화 서사의 구체적 양상을 살피고 이를 통해 장애와 치유 담론의 의미를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한 연구의 구체적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설 속 장애인물 형상화 분석을 위해 우선 여성 장애 인물과 남성 장애 인물로 나누어 각각 다르게 나타나는 장애의 유형과 형상화를 구분하여 살핀다. 이때 작품 속에서 장애 인물을 둘러싼 구체적 표현과 서사 전개를 중심으로 장애 인물 형상화 방식을 드러내고자 한다.

둘째, 인물이 작품 내에서 처한 상황과 행동의 동인을 통해 당대의 장애를 바라보는 시선과 내재화된 장애와 치유 담론을 도출하고 하고자 한다.

셋째 이러한 고전소설 속 장애 및 장애인물 형상화와 시선 분석을 바탕으로, 근대 전환기 단형서사와 비교를 통해 장애의 상징적 의미 변화를 살핀다. 근대에는 장애를 바라보는 시각이 이전 시대와 전혀 다르게 변화하였다. 이러한 시각의 급격한 변화를 근대전환기 문학 속에 등장하는 장애인 형상화를 통해 확인하고자 한다. 시대의 흐름에 조응하는 시기별 서사의 특성은 통시적으로 담론의 변화를 확인하는 문학적 차원의 작업으로서 의의가 있다.

이런 비교는 고전소설 속 장애를 바라보는 방식의 특수성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또한 궁극적으로 사회문화적으로 이어져 오며 형성되거나 변화된 장애를 인식하는 가치관과 태도를 살핌으로써 현재보다 긍정적인 장애와 관련된 사회적 담론과 태도를 고민할 수 있게 하는 바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 연구사

고전문학의 장애인 연구는 문헌과 구비로 나누어 살펴야 한다. 먼저 고전 문헌 및 문학을 대상으로 한 장애 및 장애인 연구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고전 문헌의 신체 장애인에 대한 연구는 『조선왕조실록』을 비롯한 문인들의 문집을 중심으로 조선 시대 신체 장애의 유형 분류, 장애인의 현실을 고찰한 연구와 가사, 민속극, 민요, 설화 등의 문학 텍스트 상의 장애인 형상화 방식을 고찰하는 연구가 이뤄졌다.

역사적 사실을 탐색한 전자를 통해 조선 시대와 근대 시기 신체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처우 등이 논의될 수 있는 제반이 마련되었고, 일부이지만 고전문학 텍스트 내 신체 장애인의 상징성, 작자와 향유 의식을 통해 사회적 통념을 읽어내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정창권¹⁴⁾은 조선 후기 각종 사료와 작품 등에 기록된 장애인과 장애에 대한 자료를 망라할 뿐 아니라 전근대 장애인의 사회적 현실과 장애에 대한 인식 등을 정리해 조선 시대부터 근대까지 장애인사의 총체적 정리 및 문헌 자료 정리를 시도했다. 심재우¹⁵⁾는 호적 대장 속 장애인을 정리해 실제 조선 시대 장애인의 양태 탐색을 고증하는 연구를 시도하기도 했다. 심승구¹⁶⁾는 조선시대 문헌 사료를 바탕으로 당대

14) 정창권, 『세상에 버릴 사람은 아무도 없다: 역사 속 장애인 이야기』, 문학동네, 2005; 정창권, 『역사 속 장애인은 어떻게 살았을까: 사료와 함께 읽는 장애인사』, 글항아리, 2011; 정창권, 『조선시대 장애인 예술가의 존재양상』, 『한국학연구』 38,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1; 정창권 외 3인 저, 『한국장애인사: 역사 속의 장애인물』, 숲대, 2014; 정창권·윤종선 등, 『소셜로 장애 읽기』, 지성인, 2018; 정창권, 『근대장애인사』, 사우, 2019.

15) 심재우, 「단성현 호적대장에 등장하는 장애인의 존재양태」, 『조선시대사학보』36, 조선시대사학회, 2006

장애인들이 능력 중심으로 관료에 등용되거나 각자의 분야에서 활동했던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 조선시대 장애인들의 사회적 활동과 사대부들의 장애에 대한 인식을 논의했다. 강혜종¹⁷⁾은 조선 후기 사대부 문집 속에 드러난 신체 장애에 대한 사대부들의 인식을 조망하고 장애인의 형상화 의미를 살폈다.

문학 텍스트 분석에서는 박희병¹⁸⁾이 장애인 형상화와 ‘병신’의 개념 변화를 탈춤, 가사, 민요 등을 통해 살펴 장애인에 대한 비하와 타자화가 조선 후기로 갈수록 강화되는 양상을 제시했다. 고전소설 속 장애인 연구를 살피면 조성렬, 김미순¹⁹⁾ 등이 『삼국유사』 소재 설화를 시작으로 「심청전」, 「춘향전」, 「장화홍련전」, 「변강쇠가」 등을 다뤘고, 구선정²⁰⁾은 「한후룡전」, 「유화기연」, 「영이록」을 장애인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특이한 영웅소설로 분석하고, 「유화기연」에는 조선 후기 남성에게 요구된 군자의 의미가 심(心)적인 것을 넘어 외형의 신체적인 요건으로도 이어졌다고 분석한다. 그리고 최근 고전소설 속 소수자로서 여성·장애인을 함께 다루며 추모로 등장하는 여성들의 서사로 『한조삼성기봉』, 『완월회맹연』을 분석하고 아울러 특이한 영웅의 형상인 『한후룡전』과 『유화기연』의 주인공들은 당대인들의 은폐된 신체적 불완전성에 대한 원초적 두려움이 드러난 인물로 보았다. 「유화기연」의 경우, 제3의 성으로서의 징후와 가능성을 가진 존재로서의 유춘을 다루는 연구가 진행되어 조선 후기 서사 문학 속 성 정체성에 대한 인식과 징후가 드러난 작품으로 분석²¹⁾하였으나 장

16) 심승구, 「조선시대 장애의 분류와 사회적 처우」, 『한국학논총』 38, 국민대 한국학연구소, 2012

17) 강혜종, 「신체장애에 대한 조선후기 문인의 인식과 형상화」, 『한국문학논총』 80, 2018.

18) 박희병, 「병신에의 視線」, 『고전문학연구』 24, 한국고전문학회, 2003.

19) 조성렬, 「문학작품을 통해서 본 한국인의 장애자관」, 단국대학교 대학원, 특수교육학과 석사논문, 1985. 이 논문에서는 고전문학 작품으로 「춘향전」「심청전」「변강쇠가」를 다루고 있다. 김미순, 「한국소설에 나타난 장애자관」,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90.

20) 구선정, 「장애인 간 연대를 통한 치유-〈한후룡전〉을 중심으로」, 『문학치료연구』 34, 한국문학치료학회, 2015; 구선정, 「〈유화기연〉을 통해 본 군자(君子)의 조건」, 『한국고전연구』 32, 한국고전연구학회, 2015; 구선정, 「〈한후룡전〉·〈유화기연〉·〈영이록〉에 나타난 ‘장애인’의 양상과 그 소설사적 의미」, 『고소설연구』 42, 한국고소설학회, 2016; 구선정, 「조선 후기 고소설에 나타난 죄벌(罪罰)을 통해 본 소수자 혐오 양상과 그 의미: 추모(醜貌)·귀물(鬼物)·유충(幼蟲)·병신(病身)의 형상화를 중심으로」, 『온지논총』 69, 온지학회, 2021.

21) 서경희, 「성 정체성에 대한 인식과 유동의 징후, 그리고 서사의 반동-〈유화기연〉의 ‘유춘’을 중심으로-」, 『열상고전연구』 55, 열상고전연구회, 2017.

에로서의 관점이 드러나지는 않는다. 심치열은 「유화기연」의 서사 문학적 특성과 한계를 중심으로 연구²²⁾하기도 했다. 이러한 일련의 고전소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본격적으로 장애인 문학 연구로 보기는 힘들다. 최근 이경하²³⁾가 『심청전』과 영화 〈코다〉의 비교를 통해 장애인과 보호자 간의 관계 서사를 분석했다. 그는 청각장애인 부모와 비장애인 딸이 등장하는 〈코다〉와 시각장애인 부친과 비장애인 딸이 등장하는 〈심청전〉은 모두 보호자의 과잉보호가 장애인의 자립을 방해하고 이는 장애인의 무능과 보호자의 희생을 당연시하는 서사로 분석하고 있다.

구전 설화에서의 장애인 연구는 바보 설화 연구²⁴⁾, 반쪽이 설화 연구²⁵⁾, 소경과 앓은뱅이 설화 연구²⁶⁾ 등 다양한 구비 설화 속 장애인물 설화의 서사적 상징성과 이를 통한 문학치료의 방법에 대한 연구를 비롯해 최근 들어 설화 속 장애의 의미와 시선에 대해 종합적인 인문학적인 고찰²⁷⁾을 시도하는 양상이 나타난다.

-
- 22) 심치열, 「『유화기연』, 기이성과 대중성의 서투른 결합」, 『인문과학연구』 36, 성신여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7.
- 23) 이경하, 「장애인 보호자의 관계로 다시 읽는 <심청전>-영화 <코다>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국문학연구』 46, 국문학회, 2022.
- 24) 강성숙, 「<바보사위> 설화 연구」,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3,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6; 이강엽, 「바보설화에 나타난 웃음의 의미와 기능」, 『열상고전연구』 32, 열상고전연구회, 2010; 이강엽, 「현우형제담(賢愚兄弟譚)의 경쟁과 삶의 균형」, 『문학치료연구』 41, 한국문학치료학회, 2016; 이강엽, 「바보설화에서 바보를 보는 시각과 공생의 문제」, 『구비문학연구』 51, 한국구비문학회, 2018; 김용선, 「<바보사위> 설화 속 '지적장애'의 징후-사위의 암기강박과 처가의 이해와 수용-」, 『한국문학과 예술』 38, 산국문학과 예술연구소, 2021.
- 25) 신연우, 「<외쪽이 설화>와 <지하국대적퇴치설화>에 보이는 자아의 자기실현 양상」, 『열상고전연구』 51, 열상고전연구회, 2002; 김기호, 「반쪽이 설화의 심리적 전이(轉移) 구조와 의미」, 『인문연구』 46,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4; 김나영, 「비틀어진 인물형상을 통한 인식의 전환과 변신의 의미 확장 가능성- <외쪽이 설화>를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13, 한국고전연구학회, 2006; 성정희, 「설화를 활용한 소아기 우울증 아동의 문학치료 사례 연구: <반쪽이>를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김지연, 「민담 <외쪽이>의 분석심리학적 해석」, 『심성연구』 32, 한국분석심리학회, 2017; 김용선, 「<반쪽이>설화 속 '신랑 승인'의 양상 재고- '공포 불안 폭력'의 이면을 중심으로」, 『동아시아고대학』 56, 동아시아고대학회, 2019; 정제호, 「<반쪽이>에 나타난 '장애'의 의미와 시선의 변화」, 『Journal of Korean Culture(JKC)』 51, 한국어문학국제학술포럼, 2020.
- 26) 백민정, 「<지성이와 감천이> 설화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02; 조낙현, 「『소경과 앓은뱅이 문답』의 시사비평과 알레고리에 대하여-알레고리의 소설적 발전」, 『국어교육』 90, 한국국어교육연구회, 1995; 신호림, 「소경과 앓은뱅이 서사의 불교적 의미와 구비문학적 수용 양상」, 『구비문학연구』 37, 한국구비문학회, 2013.
- 27) 권경숙, 「구비설화 속 장애인 이야기와 대중문화의 소통」, 『동남어문논집』 45, 동남어문학회, 2018; 권경숙, 「구비설화 속 장애인의 전기치화와 인문학적 가치 성찰」, 『동남어문논집』 51,

허용호²⁸⁾는 박희병의 논문에서 병신춤에 담긴 장애인에 대한 타자화와 배제가 연구 대상의 차이로 인해 나타난 결론이며 현재 전승되는 밀양백중놀이 속 병신춤이 실은 농민들의 장애 가장하기라는 것을 밝히고 이는 비장애와 장애의 경계를 넘어서게 하는 서사 장치로 이용된 것으로 박희병이 연구 대상으로 삼은 놀이와 1970년대를 거쳐 변화된 현재의 밀양백중놀이가 장애를 전혀 다르게 인식하고 표현하고 있음을 비교하여 밝히고 있다. 권선경²⁹⁾은 무당굿놀이에 등장하는 맹인이 ‘생산신, 사제자, 신체적 소수자’로 등장하며 이는 맹인에 대한 이중적인 시선으로 인해 나타난 양상으로 보았다.

지금까지 살핀 바에 따르면 장애인이 등장하는 문학 텍스트의 연구는 주로 설화를 중심으로 민속극 등 구비 문학에서 활발히 이뤄져왔으며 박희병에 와서 ‘병신’의 의미 변화 과정을 통해 민속극, 민요, 가사 등에 나타난 병신 즉 장애인의 형상화와 시선에 대한 인식을 다루기 시작했다. 이러한 경향은 이후 연구에도 영향을 끼쳐 장애에 대한 배제와 차별의 시선을 중심으로 문학 텍스트를 읽어내는 연구가 이뤄지고 있으며, 고전소설에서는 인물의 특이성, 서사 상 장애와 치유가 가지는 유교적 의미 등을 중심으로 연구되다가 최근 들어 소수자로서의 장애인물의 의미에 주목하는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2021.

28) 허용호, 「움직이는 전통, 변화하는 시선-밀양백중놀이의 장애 표현과 그 형상화 시선 연구-」, 『공연문화연구』 28, 한국공연문화학회, 2014.

29) 권선경, 「무당굿놀이에 등장하는 맹인의 성격과 의미」, 『한국무속학』 21, 한국무속학회, 2010.

II. 고전소설 속 장애 인물 형상화

1. 장애의 개념과 범주

사전적으로 장애는 신체 기관이 본래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정신 능력에 결함이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장애학에서도 장애를 질병이나 사고 등에 의해 지적, 정신적, 청각, 시각, 내장, 골격, 기형적인 면에 결함(impairment)이 생겨, 이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상태'로 정의하고 있어 사전적 장애의 개념이 보다 구체화된 내용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사회사적으로 장애의 개념은 계속 변화되어왔고 현대에 와서는 질병이나 사고의 유무와 상관없이, 개인 및 사회 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정서적 우울 등도 하나의 장애로 다뤄지는 실정하기에 그 개념을 단선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복잡하고 위험한 작업이다.

본 연구는 서사 문학에서 다뤄지고 있는 장애를 주 대상으로 삼아 그 장애 및 장애 인물을 둘러싼 담론과 시선을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기에 현대의 장애 범주와는 다른, 당대인들의 장애에 대한 인식을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연구 대상으로 삼은 조선시대부터 1910년대 전후의 당대인들의 장애관을 대략적으로 살필 필요가 있다. 다만 이러한 작업은 매우 미비한 사적 자료에 기댄 것이기에 단편적일 뿐 아니라 많은 추론이 포함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존재한다. 또한 역사적 기록으로 남아있는 인물들이 대부분 사대부 및 중인 계급 이상의 인물들에 국한되어 그 시대 전체의 계급이나 상황을 모두 아우르는 데에도 한계가 존재한다. 하지만 본 연구는 장애인사(史)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서사 문학 속 장애 인물을 통해 장애 서사 담론을 보는 것이기에 이러한 단편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서사 담론에서 발견되고 나타나는 장애인물의 형상화 방식에 따른 당대인의 가치관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조선 시대부터 1910년대에 이르기까지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대략적으로 살피고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 다룰 장애의 범주를 규정하고자 한다. 그

후 이 범주 안에서 다룰 수 있는 연구 대상의 범위를 한정한다.

조선 초기의 장애 담론을 살필 문학적 자료나 기록은 매우 미비하다. 그래서 이 시기 장애 담론을 살피기 위해서는 역사적 기록이나 문집을 통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이유는 첫째, 장애인이나 장애를 다루는 국문 문학은 조선 후기에 나타나며 둘째, 주로 문자 생활이 사대부층을 중심으로 한 한문을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셋째, 사대부들은 인간의 외적 상태보다 내면의 심성을 중시하는 성리학의 영향으로 외적인 신체 장애를 차별이나 구분의 이유로 보지 않는 경향이 강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신체 장애를 사회·문화적으로 차별이나 구분의 이유나 대상으로 크게 의식하지 않았으며 개인의 재능이나 심성을 보다 중시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실제로 조선은 신체적 장애나 손상을 다른 불행이나 고통과 특별히 구분하지 않았으며 장애인을 질병을 가진 사람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³⁰⁾.

이는 조선에서 장애를 폐질(廢疾), 신체적 결함이나 장애를 지닌 이들을 폐질인(廢疾人) 혹은 잔질인(殘疾人)이라 명명하던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칠 수 없는 병을 가진 사람이라는 의미의 폐질인이나 질병의 후유증으로 신체의 일부 기능이 달라진 사람을 의미하는 잔질인(殘疾人)이라는 명칭은 장애나 장애인을 비하하거나 능력 결함의 의미가 배제된, 그저 질병을 가진 사람으로 이들을 바라보는 사회적 태도가 담겨진 명칭이라 할 수 있다³¹⁾. 이 시기에는 정신적 문제를 가진 이들과 포괄하여 병신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으며 현대와 달리 가치판단이 배제된, 병을 가진 사람 즉 병인(病人)·병자(病者)의 개념으로 사용하여 장애와 질병을 가진 사람들을 아우르는 명칭으로 사용하였다.

조선에서는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신체적 장애와 무관한 기술을 익혀 스스로 직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고 보고, 장애인의 생활 능력이나 자립을 국가 제도가 돕기도 했다. 가령 소경의 경우, 국가가 맹인 악관(樂官)을 양성하는 기관을 운영하거

30) 정창권, 『역사 속 장애인은 어떻게 살았을까:사료와 함께 읽는 장애인사』, 글항아리, 2011.

31) 박희병, 「'병신'에의 視線-前近代 텍스트에서의-」, 『고전문학연구』 24, 한국고전문학회, 2003.

나 맹인 점복사를 기용하기도 했다.³²⁾ 실제로 앓은뱅이, 절름발이 등은 안경사, 맹인은 독경사나 악사 등 장애에 구애받지 않는 기술을 연마해 전문 직업을 가졌을 뿐 아니라, 절름발이나 한쪽 눈이 멀고도 정승이나 관리가 된 기록도 존재한다.³³⁾ 특이한 점은 높은 관직에 오르거나 사회적으로 활발히 활동하며 인정받은 장애인들의 장애 여부 자체를 굳이 기록으로 남기지 않는 태도가 드러난다는 것이다. 이들의 장애는 초상화나 실록의 기록, 주변인들의 기록 등을 통해 확인될 뿐이다. 이를 통해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신체적 장애 유무보다 그가 가진 능력을 중심으로 판단하던 당대의 담론을 짐작할 수 있다. 그렇기에 조선 초기에는 신체적 결함이나 장애가 사회적 진출에 다소간 어려움은 될 수 있을지언정 그 장애가 일반적 차별이나 차등의 이유는 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조선 초기의 장애인을 바라보던 차별 없던 시각은 전란을 거쳐 후기로 가며 비하나 차별적 시선이 드러나는 방향으로 변화된다. 전란 이후 맹인이나 장애인 점복사 양성 제도도 사라져 실제적 장애인 활동을 지원하는 국가 제도를 찾기는 힘

32) 「세종실록」 116권, 세종 29년 4월 9일, ‘慣習都監管絃盲, 當初倡妓未習絲竹杖鼓之時, 爲宮中宴享, 不得已而設也(…)’. 관습 도감(慣習都監)의 관현맹(管絃盲)은 당초에 창기(倡妓)가 사죽(絲竹)044) 과 장고(杖鼓)를 배우지 못하였을 때 궁중의 잔치와 제향을 위하여 부득이 설치했던 것이온데’

「세종실록」 54권, 세종 13년 12월 25일, “…관현의 음악을 맡은 장님은 …옛날의 제왕은 모두 장님을 사용하여 악사를 삼아서 현송(絃誦)의 임무를 맡겼으니, 그들은 눈이 없어도 소리를 살피기 때문이며, 또 세상에 버릴 사람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신의 어리석은 의견으로는 이미 도감에 소속된 18인 안에서, 그들이 연회에 모신 지 시일이 오래 된 사람은 동반 5품 이상의 검직(檢職)을 제수하고, 그 나머지도 모두 배참을 허용하고, …그들이 익힘을 기다려 예에 의거하여 참직을 주어서 자손들의 후일의 길을 열어 준다면, …점치는 장님에게 검직을 주는 것은 이미 그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사대부의 자손으로서 폐질이 있는 사람이 하나뿐이 아닌데, 이 무리들이 이미 벼슬할 도리도 없으며 또한 음직(蔭職)을 물려 받은 예도 없으니, 이것은 이른바 세상의 버린 사람입니다. …원컨대, 4, 5품의 검직을 주어 견해 구제하고, 이어서 전책에 써서 영구히 일정한 규정으로 삼으소서.”

“…管絃之盲, …古先帝王皆用瞽者, 以爲樂師, 委之絃誦之任, 以其無目而審於音, 且以天下無棄人也。 … 臣愚妄意已屬都監十八人內, 其陪宴年久者, 除授東班五品已上檢職, 其餘竝許拜參, … 待其慣習, 例加參職, 以開子孫後日之路 … 況卜盲檢職, 已有其例乎? …士大夫子孫廢疾者非一, 此輩既無筮仕之理, 又無承蔭之例, 此正所謂天下之棄人。 …願加四五品檢職以兼濟之, 仍膺典冊, 永爲恒。”

33) 정창권·윤종선 외, 『한국 장애인사』, 숲대, 2014. 세종 대 예법의 기반을 마련한 청백리 재상 허조(1369-1433)는 굽사등이였고 선조 대 정승인 심희수(1548-1622)는 앓은뱅이였으며, 광해군과 인조 대 재상 이원익(1547-1634)은 왜소증 즉 난쟁이였고, 숙종 대 청백리이자 소론의 영수였던 윤지완(1635-1718)은 후천적 질병으로 다리 하나가 없는 절름발이었다.

들다.³⁴⁾ 제도적으로 장애인의 자립과 훈련이 사라진데다가 조선 후기 백성들이 겪은 전란과 가난으로 인해 공동체의 구제와 돌봄의 대상이었던 장애인의 존재가 각 공동체에게 부담이 되어버렸으며 이로 인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차별 의식이 강화되기 시작한다. 일례로 많은 야담에서 장애인의 장애를 근거로 그를 놀리거나 조롱하거나 해학적으로 풀어가는 소화가 등장하거나 판소리나 가면극 등에서 장애를 가진 인물이 조롱과 비판의 대상으로 등장하는 등의 서사가 나타나는 데에서 이러한 변화를 짐작할 수 있다. 다만 이 이야기들이 이전에 비해 장애를 조롱하고 놀리는 근거로 이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현재와 같은 멸시나 배제의 시선보다 다함께 웃고 즐기는 해학적 성격이 강하다는 차이가 있는 것을 분명하다.

앞서 병인을 지칭하는 용어로서의 병신의 개념 역시 이 시기를 거쳐 근현대로 가면서 속되고 낮잡아보는 개념으로 의미가 변화되어 현재의 비속한 개념으로의 병신의 의미가 형성되었다³⁵⁾. 그리고 점차 병을 가진 병자와 장애를 가진 장애인을 구분하고, 신체적·정신적으로 지속적 결함을 가진 이로서의 장애인을 비속하게 이르는 말로서의 의미가 강화된 병신이 현대에 들어 고착화되었다. 이러한 의미 변화는 장애를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시선과 담론이 후대로 갈수록 강화되었음을 확인시켜주는 일면이라 할 것이다.

장애와 장애인은 근대전환기를 거치며 공적 관리 대상이 되기 시작하는데 이런 과정에서 장애와 비장애의 분리가 공고해지고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심화되었다. 근대 의학의 발전, 과학적 통계 및 민족을 중심으로 한 국가 개념의 형성은 추상적 인간의 유형을 정치·경제적으로 구체화 및 범주화하여 인간의 속성을 평균이라는 개념 아래에 분류하고자 했다. 이러한 인간의 분류는 필연적으로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하고 규정하는 사고방식을 공고히 하고, 비정상의 범주에 드는 존재를 사회로부터 분리하고 배척하며 이들을 정상의 범주로 치료하거나 재생시키는 것이 국가와 공

34) 「선조실록」 선조 39년 6월 11일, ‘(…)而女妓及管絃盲人, 亂後竝爲革罷.(…) 여기(女妓)와 관현(管絃) 악기를 연주할 맹인(盲人)을 난 이후 모두 혁파하였으므로’

35) 박희병, 「‘병신’에의 시선: 전근대 텍스트에서의」, 『고전문학연구』 12, 한국고전문학회, 2003. 309-361쪽.

동체의 의무라는 가치관의 내재화를 추구했다.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서양에서는 독일에 의해 주도된 우생학이며, 근대 조선에서는 조선총독부에 의해 건립된 장애인과 정신병자, 고아들을 따로 수용하고 교육하는 조선총독부 제생원의 설립이다.³⁶⁾ 즉 정상과 비정상의 개념이 모호하던 고대와 중세 시대와 달리, 근대의 문명과 국가의 확립 및 발전은 인간을 구분하고 분류하는 방식으로 발전해 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시기 일본에 의해 주도된 장애의 분류와 배제는 장애 학교, 장애인 수용 시설 및 장애 구역의 설정으로 나타난다. 장애를 가진 이에 대한 직업적 지원을 내세운 장애 학교나 치료를 명목으로 내세운 수용 및 구역의 설정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하는 기준을 제도화하고 명시하는 역할을 했으며 이전 시기 공동체 안의 구성원으로 살던 장애인들을 일상적 삶의 터전으로부터 배제하는 기능을 수행했다.³⁷⁾ 또한 국가적 구휼제도의 부재와 극심한 가난은 공동체나 가정 구성원들이 장애인들을 버리거나 학대하는 등의 사회적 문제를 낳는 원인이 되었다. 모두가 삶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던 극한의 상황에 처하자 자립적 생활이 불가능한 장애인의 존재는 문명과 함께 점차 사라지거나 은폐되어 간다. 이러한 장애인들의 처우 및 시선의 변화는 근대전환기 단형서사 문학 속 장애인의 양상을 통해 발견할 수 있다.

현재 일반적 개념의 장애는 정상을 기준으로 배타적 위치에 놓인 것들을 범주화한 개념이다. 특히 그것이 신체적 외형적 특성을 전제로 할 때 정상인을 중심으로 배타적 의미로서 장애인을 범주화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이는 본래부터 타고난 인간 본성의 조건이라기보다는 특성 사회의 정치·문화적 특징을 반영하며, 정상·규범의 대칭인 비정상·일탈의 위치에 장애와 기형을 놓는다. 그래서 장애·기형이라는 용어는 집단 및 문화의 형성 과정에서 인종, 민족, 계급, 성(性) 등과 연결되어 복잡한 의미를 구성하며 근대 이후 현재까지 발전해 왔다. 즉 현재 우리 사회에 형성된 장애와

36) 이방현, 「식민지 조선에서의 정신병자에 대한 근대적 접근」, 『의사학』 22권 2호, 대한의사학회, 2013. 529-578쪽.

37) 김은정, 『치유라는 이름의 폭력』, 후마니타스, 2022.

장애인에 대한 담론은 근대를 거치며 형성된 바가 크다.

이처럼 장애 담론은 중세-전근대-근대로 전환될수록 정상-비정상의 개념이 확립되고 장애와 기형을 비정상의 범주로 규정하며, 이들을 차별과 억압, 치료와 갱생의 대상으로 구분하여 대상화, 타자화하는 경향이 강화되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에서 보듯 장애에 대한 개념과 인식은 시대에 따라 상대적 의미로 변화해 왔다. 이에 위 논의를 바탕으로 본고에서 다루는 장애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자 한다.

우선 서사 속에서 부정적이고 열등한 것으로 취급되는 몸의 특성, 질병, 이상으로 규정되는 모든 차이를 광범위하게 장애로 본다. 즉 역사·문화적, 사회, 성별에 따라 다르게 규정된 인간다움이라는 기준에서 벗어난 상태를 모두 포괄하는 의미로 장애를 사용한다.

또한 물질성과 역사성을 담보한 유기체로서 몸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이 몸은 그가 속한 시공간의 역사적 문화적 맥락 안에서 상호작용하며 현존하는 존재를 의미한다. 이에 ‘일반, 온전한, 정상, 비장애’는 사회적으로 규정된 인간다움에 속한, 일탈되지 않은 위치를 표현하는 데 사용하기로 한다. 반대로 ‘일반적이지 않은, 온전치 않은, 비정상, 장애’는 그 규범 밖에 존재하는, 일탈되고 배제된 위치를 표현하는 용어로 사용한다.

이러한 개념에 따라 공동체에 의해 일반에서 벗어난 것으로 판단되는 모든 신체적 특성은 장애로 볼 수 있다. 또한 신체적 결손이나 기능 장애를 가진 인물과 더불어 사회적으로는 실제 장애인과 비슷하게 인식되고 있는 추모, 인외적 형태의 기형도 장애로 규정될 수 있다. 이에 외적 형체가 일반적 몸의 의미와 확연하게 구분되는 신체적 특성 외에도 사회적으로 부정되거나 배제의 근거가 되는 모든 신체적·정서적·지적 특성 역시 장애로 본다. 또한 사회적으로 이상(異常)으로 규정되는 성(性) 정체성 장애, 일상적인 사회 관계에 갈등을 일으키는 지적 특성도 하나의 장애로 규정한다.

장애를 다름에 있어 용어의 사용이 조심스럽고 그 의미가 지극히 상대적으로 사용되기에 본고에서 사용되는 위와 같은 표현의 의미를 미리 규정하고자 한다.

2. 장애 인물의 서사적 형상화

서사문학은 현재의 삶에 의문을 던지고 답을 찾는다. 그리고 삶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에는 일상과 일반이라 명명한 선(線) 밖으로 나간 눈에 띄는 다름이 왜 그러한지 이야기하는 것만큼 주요한 방법이 없다. 그래서 모든 장애는 서사가 될 수 있다.

여기서 장애는 장애인 자신이 인식하는 자신의 육체적 현실과 별개로 존재하며 또 다른 타인으로 인식되면서 그 낯선 형상으로 말미암아 비장애인들에게는 다양한 상징적 의미가 된다. 이 상징화를 통해 장애인과 장애는 세상이 지각하는 질서 밖에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되며 사람들의 내면에 불안과 공포 혹은 연민의 대상으로 자리잡는다. 장애인의 형상이 유발하는 이런 다양하고 복합적인 감정과 대응은 장애에 대한 시선 혹은 담론으로 명명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장애에 대한 복합적 관점들은 문화적, 관습적으로 사람들에게 내재화되어 왔다.

그리고 서사 문학 역시 내재화에 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음을 부정할 수 없으며, 이는 고전 서사 문학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서사적 내재화를 살피기 위해 본고에서 선정한 소설 13편의 장애의 유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신체적 장애	추모(醜貌)	〈박씨전〉 박씨 〈장화홍련전〉 허씨	〈심청전〉 뽕덕어미 〈한조삼성기봉〉 설여주
	시각 장애	〈심청전〉 심봉사 〈적성의전〉 적성의	〈한후룡전〉 후룡
	얕은뱅이	〈한후룡전〉 허영	
	기형	〈금방울전〉 금방울(금령)	〈김원전〉 김원

		〈금송아지전〉 금우
	성불구	〈유화기연〉 유춘
신체적· 정신적 장애	성정체성 장애	〈방한림전〉 방관주
정신적 장애	언어 장애	〈영이록〉 손기
	난독증	〈김안국전〉 ³⁸⁾ 김안국

각 작품의 장애 인물의 유형을 살펴보면, 시각 장애인이 주요 인물로 등장하는 작품이 3편, 성(性)적인 장애를 겪는 인물이 등장하는 작품이 2편, 지적·심리적 장애와 언어 장애를 가진 인물이 2편, 추모를 포함한 신체적 기형 혹은 장애를 겪는 인물이 등장하는 작품이 9편이라 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고전소설에서 장애를 바라보는 시선이 어떻게 형상화되어 주인공의 생애와 결정에 영향을 주는지 살피기 위해 우선 여성 장애 인물과 남성 장애 인물로 구분한 후 앞서 제시한 장애의 유형에 따라 장애 인물 형상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여성 장애 인물의 유형과 서사적 형상화

당대 문화가 아름다운 몸을 선(善)으로 보고, 기이하거나 장애가 있는 몸을 악(惡)이라고 인식하는 담론은 고전소설 속에서 재자가인 유형의 선하고 용감한 주인공 그리고 이에 대적하는 악한 인물의 유형을 통해 강화되었다. 이러한 서사적 강화는 일반적 몸의 기준에서 벗어난 존재에 대한 차별적 태도의 강화로 이어져 일반에서 일탈된 외적 형체를 가진 인물은 서사 내에서 실제 신체 장애인과 동일한 시선과 차별을 받는 서사가 전개된다. 그리고 이러한 담론과 시선은 〈박씨전〉의 박씨, 〈한조삼

38) <김안국전(金安國傳)>은 『동상기찬(東廂紀纂)』 권 2에 실려 있는 이야기로 <안동랑전(安東郎傳)>이라 하기도 한다. 중종 대에 판서와 대제학을 지낸 문장가 김안국을 주인공으로 한 단편 소설로, 실존 인물을 주인공으로 내세웠으나 인물의 내력 등 허구가 가미된 소설로 본다. 본고에서는 역주본인 김준형, 『동상기찬』, 휴머니스트, 2021에 실린 <김안국(金安國)>를 대상으로 분석한다.

성기봉)의 설여주, <심청전>의 뽕떡어미, <장화홍련전>의 계모 허씨, <금방울전>의 금방울의 모습에서 드러난다.

(1) 추모(醜貌)와 기형

<박씨전>의 박씨는 고전소설에서 추모(醜貌)를 대표하는 인물이다. 물론 이 추한 외모는 여러 서사적 상징과 구조적 의미를 내포하는 기호이기도 하다. 우선 작품 속에서 처음 등장하는 박씨 용모를 묘사한 부분을 보자.

그 용모를 보니 형용 흉측하여 보기를 염네론지라 얼기는 고석갓고 불근 중에 입과 코와 한데 닳고 눈은 달팽이 구멍 갖고 지불거지고 입은 크기가 두 쥬먹을 너허도 오히려 녀너허며 이마는 미독이 이마 갖고 머리털은 썩르고 심히 부흐니 그 형용이 춤 보재 못힐네라³⁹⁾

인용문은 박씨의 용모를 서술한 부분이다. 박씨의 부친 박 처사는 훈례날 기지를 발휘해 박씨가 친정에서 완전히 출가할 때까지 박씨의 용모를 시부와 신랑이 확인하지 못하도록 해 결국 시부와 신랑은 신부 집에서 쫓겨나듯 인가로 내려온 밤이 되어야 박씨의 용모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서사 전개를 통해 조선 시대에도 당사자의 추한 외모는 혼인에 큰 결격 사유였음을 알 수 있다. 박씨의 외모는 못남을 넘어 추모(醜貌)에 가까운 형용이라 보는 이가 차마 얼굴을 바로 볼 수 없을 정도여서 제대로 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데에 큰 장애 요소가 되며 그 외모 때문에 사회로부터 소외와 천대를 받게 된다.

39) 김기현 역주, 『한국고전문학전집 15: 박씨전·임장군전·배시항전』,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5. 고려대 도서관 소장 필사본 <박씨전>을 원전으로 삼아 역주한 책이다. <박씨전>의 이본은 100 여 종과 일제강점기에 나온 개작본이 있는데, 현전 최고본(最古本)이자 선본(善本)으로 인정되는 필사본은 고려대 도서관 소장 필사본이다. 본고에서는 이 책을 기본으로 <박씨전> 서사를 다루기로 한다.

㉞ 그 형용이 웃더타 흐리요. 한 번 보미 침 밧흐며 비쇼호고 수군수군허다가 일 시에 물결갓치 희여지나⁴⁰⁾

㉟ 상공의 부인이 상공더러 왈, “딤킨게셔는 하낫 즈식을 두어 허다헌 장안규슈를 다 바리고 허망헌 산중 사람의 말을 드러 즈식의 일상을 그릇치니, 남도 붓그럽고 집안도 낭피헐지라. 다시 칭각허옵셔 도로 보늬고, 다른 가문의 구훈허여어진 메나리을 으드면 웃더허을잇가.”⁴¹⁾

㊱ 이러무로 부인이 미워호고, 시벽이 쏘한 넉방의 거처를 전폐호니, 비복들도 박씨를 또한 박디호니⁴²⁾

㉞는 박씨가 시가에 도착했을 때 신부 구경을 온 사방 친척과 이웃들이 박씨를 처음 봤을 때의 반응이고, ㉟는 추한 외모의 며느리를 보고 상공 부인이 며느리를 내치고 다시 신부를 구하자고 이야기는 장면이며, ㊱는 박씨를 미워하고 박대하는 시모와 신랑의 모습을 보고 비복들마저 박씨를 박대하는 광경이다. 일가 친척들은 그 모습을 한 번 보자마자 ‘침 났으며 비소하고’ 시모는 추모(醜貌)인 며느리가 들어온 것이 그와 부부된 자식의 일생이 그르치고 집안의 낭패요 남 보기 부끄러운 일이라고 단언한다. 이처럼 추한 외모가 그 자체로 집안 전체의 사회적 관계와 지위에 영향을 끼치는 정도라면 이것은 사회로부터 부정하고 악(惡)으로 규정될 정도의 의미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집안의 분위기에 박씨보다 낮은 신분의 비복들마저 박씨를 박대하는 장면이 이어지며 박씨가 그 무엇도 아닌 추한 외모만으로 부정되고 차별받으며 집단 외부로 밀려나 버림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자체만으로 차별과 배제와

40) <박씨전> 7면.

41) <박씨전> 7면.

42) <박씨전> 7면.

멸시의 정당한 근거가 되어버리는 추한 외모는 외적 특성을 넘어선 상태로, 배우자의 일생과 집안을 망하게 할 수 있는 요소가 된다. 박씨의 추한 외모는 일상적 범위를 벗어난 형태라는 측면에서 신체적 장애나 기형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또한 박씨의 외모로 인해 그녀가 당하는 배제와 멸시의 시선은 실상 장애인에 대한 시선과 다르지 않다. 시선의 동질성으로 말미암아 고전소설에서 여성의 추모는 신체 장애와 유사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박씨의 외모가 신체적 장애와 같은 의미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은 이어지는 서사에서도 확인된다. 박씨가 겪는 다양한 배제와 차별이 신체적 장애인이 겪는 상황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아무도 그를 찾지 않고, 가정적 혹은 사회적으로 부여된 그의 역할을 부정해 사회적 인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도록 하며, 결국 고립되거나 고립을 자처하게 한다는 점이다. 고립되어 버린 박씨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기에 아무것도 안 하는 무능하고 악한 인물이 되어버린다.

박씨 독부 되어 슬푸물 먹음고, 밋일 밥만 먹고 잠만 즈고 믋스를 전폐하니, 일기 더욱 미워허며 꾸지람 지반의 가득히되, 다만 상공을 쏘여 면박을 못흐는지라⁴³⁾

사회적 존재로서의 지위를 박탈당한 박씨는 독부(獨婦)가 되어 ‘매일 밥만 먹고 잠만 자고 매사를 전폐하는’ 며느리이자 부인이 된다. 본래 게으르고 먹기만 하는 인물이 아니라 외부의 차별과 배제에 의한 것이지만 서사 속 누구도 박씨의 행동이 타인의 배제로 인해 벌어진 상황이라 말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거듭될수록 더욱 박씨에 대한 주변의 미움과 그의 고립은 강화된다.

고전소설의 서사에서 신체적 장애에 가까운 추한 외모에 대한 차별과 배제의 시선은 재자가인(才子佳人) 유형의 남녀 주인공과 대비되는 추한 외모를 가진 악인이라는 인물 유형을 만들었다. 이러한 유형화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심청가> 속 뺨

43) 「박씨전」 7면.

덕어미이다.

...그때 마침 그 근촌 사는 아주 흉악한 흠어미 하나가 있으되, 이름은 뺱덕이네
요, 별호는 뺱파라. 얼굴이 천고일색일는지 만고박색일런지 몰라도, 꼭 생긴 모양
이 이렇게 생겼던 것이었다.

생긴 모양 볼작시면 말총같은 머리털은 하늘을 가리키고, 뒷박이마에 해눈썹과
우명눈 주먹코요, 메주볼 송곳턱에, 입은 크고, 입술 두터 큰 궤문을 열어논 듯.
써레이 드문드문, 서는 늘어진 짚신짜이요, 두 어깨는 떡 벌어져 치를 꺼꾸로 세
워논 듯. 손길 생긴 뽀은 솔뚜껍을 얹어논 듯, 허리는 짚통 같고, 배는 폐문 북통
같고, 엉덩이는 부자집에 떡치는 안반 같고, 속옷을 입었기로 다른 곳은 못 보아
도 입을 보면 짐작이요, 수통다리에 흑각발톱 발맷시는 어찌 뻤던, 신발은 침척으
로 자가웃이 넉넉해야 계우 신게 되는구나.

생긴 모양이 이래노니, 눈 있는 사램이야 거들떠볼 이나 뉘 있으리오? 천상 차
지는 눈으로 못 보는 봉사님 차지인디, 꼭 봉사만 한 서넛 판을 내고 아직 서방
못 엮다가, 심봉사 전곡넉넉허단 말을 듣고는, ‘웁다, 내가 그 작자한테로 시집을
갔으면 한 때 떡 살구는 원없이 먹겠다’ 싶어, 동네 사람도 모르게 살짝 시집을
갔것다.⁴⁴⁾

위 인용 대목은 판소리 <심청가>에 나오는 뺱덕어미 대목이다. 이 외모 사설 대목
에서 묘사되는 뺱덕 어미의 외모도 일반적 외모에서 벗어난 기형에 가까운 추모(醜
貌)임을 알 수 있다. 뺱덕어미는 그 추한 외모로 인해 남성들이 상대해 주지 않으니,
봉사들만 골라 판을 벌였기에 심봉사 소문을 듣고 그의 후실로 찾아 들어간다는 서
술은 뺱덕어미가 심봉사 옆에 있게 되는 개연성을 확보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또한 이러한 추한 외모에 대한 상세한 묘사 뒤에 뺱덕이 심술 대목이라 불리는 뺱

44) 판소리 심청가 김연수 본(本).

덕어미의 행실이 열거되는 서술 방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선 뽕덕어미의 심술 대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뽕덕이네 이 뭍쓸년은 심봉사 그 불쌍한 전곡을 꼭 먹성질로 조져대는디 뽕덕이네 행동거지와 먹성 속은 이일주 말과 조금도 틀림이 없던 것이었다

(자진모리) 밤이면은 마을 돌고 낮이면은 낮잠 자고, 쌀 퍼주고 떡 사 먹고, 버퍼주고 옛 사먹고, 의복 잡혀 술 먹기와 빈 담뱃대 손에 들고 오고가는 행인들께 담배 달라 힐난허기, 머슴 잡고 어린양에 젊은 중놈 유인허기. 동인 걸어서 욕설허고, 초군들과 싸움허고, 여자 보면 내외허고, 남자 보면 쌍긋 웃고, 코 큰 총각 술 사주기, 잠 자면서 이 갈기와 배 끓고, 발목 떨고, 한밤중에 울음 울고, 이불 속에서 방구꾸기. 빼죽허면 빼죽허고, 빼죽허면 빼죽허고, 힐끗허면 힐끗허고, 힐끗허면 힐끗허고, 술 퍼먹고 활짝 벗고 정자 밑에서 낮잠 자기. 남의 내외 잠자는디 가만가만 가만가만 가만가만 들어가서 봉창문애가 입을 대고, "불이야!" 윈갖 악증 다 겪허여, 이 전곡을 모두 다 빨아먹은 연후에는 이삼일 먹을 양식만 남겨 두고 도망힐 작정으로, 오뉴월 가마귀 곤 수박 파 먹듯 밤낮없이 파 먹는구나.

추한 외모 묘사에 이어지는 이 대목이 심술 대목이라 명명되어 전승되는 것에서 이미 이 행실에 대해 부정적이고 그릇된 시선이 함의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열거된 뽕덕어미의 행실⁴⁵⁾을 보면, 누군가를 해치거나 잘못되도록 하는 악행은 아니다. 이 행실들은 그저 그가 잘 먹고 게으르고 심술궂고 음탕한 인물이라는 것을 보여줄 뿐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뽕덕어미를 고전소설을 대표하는 악부(惡婦)로 인식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심술 대목은 뽕덕어미 소개를 ‘뭍쓸 년’이 ‘불쌍한 심봉사’의 전곡을 먹성질로 조진다는 서술로 시작한다. 그녀가 과한 먹성으로 심봉사의 가산을 헐기에 그녀를 뭍쓸

45) 김연수(동초제) 판소리 다섯 마당 <심청가>, ‘뽕파의 그른 행실’ 대목, 신나라 뮤직, 2007.

년 즉 악부(惡婦)로 명명하고 있는 것이다

추한 외모로 봉사를 속이고 들어와 자식의 목숨값인 가산을 훔어 먹는 몹쓸 년, 이러한 병렬은 듣는 이들에게 자연스레 추한 외모를 가진 인물은 부정하고 악한 행실을 할 수 있다는 암시와 인식의 내재화를 유도하는 서술 방식이다. 추한 외모와 악한 행실의 인과적 연결이 자연스레 이어지게 하는 이러한 서술은 추한 외모를 악으로 규정하는 서사적 맥락을 형성하여 읽는 독자에게 내면화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고착되는 힘을 가진다.

실제로 현재의 독자들은 뽕덕어미를 고전소설 속 대표적인 악인형 인물로 인식하고 있으며, 현재뿐 아니라 당대에도 그는 악인으로 인식되었을 것이다. 뽕덕어미는 심청 서사에서 모든 봉사가 눈을 뜨고 심청과 관련된 모든 인물이 심청 덕으로 복을 누릴 때 유일하게 벌을 받는 인물 중 한 사람이고, 권선징악적 지향이 나타나는 고전소설에서 벌을 받는 인물은 악인이기 때문이다.

이는 앞서 박씨가 '매일 밥만 먹고 잠만 자고 매사를 전폐하는' 부인으로 서술되었던 지점을 떠올리게 하는 묘사이다. 조선 시대 서사 문학 속 대표적인 악부(惡婦)인 뽕덕어미의 행실과 영웅이자 현모양처의 대표적 인물인 박씨가 추모(醜貌)인 상황에서 서의 평가가 이처럼 유사하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뽕덕어미는 천성(天性)적으로 게으르고 식탐과 색탐이 많은 인물이라 박씨의 본성과는 대척점에 위치한 인물이다. 그럼에도 박씨의 사회적인 첫 평가는 뽕덕어미에 대한 평가와 다르지 않으며, 오로지 그 추한 외모라는 공통점 하나로 박씨는 작품 전반부에 주변으로부터 뽕덕어미와 유사한 평가를 받는다.

직접적으로 나열된 뽕덕어미의 행실을 서사 내적으로 악행이라 평가하는 것은 그가 가난한 서민에게 용납되지 않는 게으름과 과한 탐심을 가진 인물이기 때문이다. 과한 탐심은 서사 문맥적으로 뽕덕어미가 벌을 받게 되는 원인이 된다. 그는 상대가 봉사라는 약점을 이용해 추한 외모로 심봉사를 속여 후실 자리를 차지하는 사기 행각과 자식의 목숨으로 마련한 맹인 홀아비의 평생을 책임질 가산을 먹을 것으로 탕

진하는 그릇되고 과한 씩씩이와 식탐을 보인다, 정식 혼인은 아니라 하지만 지아비가 있는 여성이 벌이는 음행은 이후 젊은 봉사과 눈이 맞아 심봉사를 버리고 도망가는 악행으로 번지는 인성적 결함이 된다. 타인에게 행하는 관한 심술은 그가 공동체에서 꺼려지고 비난받는 담론은 형성하는 근거로 작용한다. 그리고 이런 악행을 일삼은 악부는 맹인 아닌 남성은 거들떠보지도 않는 추한 외모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인과적 연결이 문맥적으로 이어지는 서술 방식은 추한 외모에 대한 편견과 부정적 인식, 배제의 시선을 내재화하며 이야기라는 형식을 통해 유구하게 이어지도록 만든다. 이렇게 이야기는 지혜와 진실뿐 아니라 차별과 배제의 시선도 형성하고 매개하며 강화하는 도구가 된다.

실상 고전소설에서 여성의 추모는 신체적 결함이나 기능의 이상의 수반하는 신체적 장애가 아니면서도 그와 유사한 시선을 받고 있으며, 사회적 차별과 배제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뿐만 아니라 추모를 악한 행실로 연결하는 서사를 통해 추모의 여성에 대한 차별과 배제를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에 더해 추모를 곧 악의 현시(顯示)로 보는 시각이 나타나는 인물이 <장화홍련전>의 계모 허씨이다.

그 용모를 의논홀진디 난협은 한즈히 남고 눈은 통방울 갖고 코는 질병 갖고 입은 머여기 아가리오 머리털은 돛회술 갖고 귀는 자가 유난장이오 소리는 식량의 소리오 허리는 우으름은 허디 그중의 곰비팔이며 슈중다리의 쌍언청이를 겸혀였고 그 슈동이를 밋홀면 열즈발이느 되고 엽기는 콩명석 갖트니 그 형용을 참으 견되어 보기 어려운 중 그 용심이 더욱 불축하여 남의 못홀 노릇을 조츠느며 흥흥니 집의 두기 일시 남감이느 그러흐느 그것도 계집이라⁴⁶⁾

위 인용문은 작품 속 계모 허씨의 용모 형용 대목이다. 허씨가 가진 추모 묘사 이

46) 김동욱 편, 『영인고소설판각본전집』 5권, 『장화홍련전(파리동양어학교본 26장본)』, 나손서옥, 1975. 3면.

후 바로 용심이 더욱 불측한 인물이라는 서술의 병렬은 <심청가> 속 뽕덕어미의 서술 방식과 유사하다. 계모 허씨의 추모는 그의 악독한 심성의 현시(顯示)로 읽히도록 배치되고 독자에게 악인의 형상은 곧 추모로 인식되도록 하여 추모에 악(惡)의 형상을 덧입힌다.

허씨의 용모도 박씨와 마찬가지로, 일반적 형상을 벗어난 기이할 정도의 추모이다. 허씨는 계모로 들어와 전처 자식인 장화, 흥련과 갈등을 빚으며 결국 전처 자식을 모해하고, 살인이라는 범죄로 가정의 안녕을 파탄 내는 악인이기도 하다. 이렇게 악행을 일삼은 추모인 허씨라는 인물 형상은 추한 외모를 곧 악의 현시(顯示)로 동일시하는 고전소설적 가치관을 그대로 투영한 인물이라 할 수 있다.

반면 선한 인성을 가졌음에도 전생의 업보에 대한 징벌적 의미의 추한 외모로 태어나 평생을 배제와 멸시 속에 살다 죽은 인물이 있으니 <한조삼성기봉> 속 설여주가 바로 그 인물이다⁴⁷⁾.

<한조삼성기봉>⁴⁸⁾은 <옥환기봉>의 파생작으로 광무제로부터 버림받은 곽후 입장에서 새롭게 창작된 작품이다. 작가는 곽후의 입장에 서서, 당 현종 시대를 배경으로 <옥환기봉> 속 광무제, 음후, 곽씨와 주변 인물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설정을 통해 곽후의 복수담을 완성한다. <한조>의 설여주는 <옥환기봉> 속 광무제의 아름다운 애처 음후가 다시 태어난 인물이다. <한조>의 서사가 애초에 곽후의 복수를 위한 설원과 세 인물 간에 얽힌 인연의 업보를 해결하는 데에서 시작하기에 설여주는 시작부터 전생의 죄업에 대한 징벌을 받아 추한 외모로 태어나 전생의 업보를 감당하는 비극적 인물이다. <옥환기봉>의 곽후 입장에서는 남편과 자신의 자리를 빼앗은 용서할

47) 구선정은 「조선 후기 고소설에 나타난 罪罰을 통해 본 소수자 혐오 양상과 그 의미」(『온지논총』69, 온지학회, 2021)에서 소수자 집단으로 여성과 장애인을 다루며 <한조삼성기봉> 설여주를 추모로, <완월회맹연>의 여씨를 귀물(鬼物), <한후룡전>의 한후룡과 임허영, <유화기연>의 유춘을 병신(病身)으로 다루었다. 이전 그의 연구에 바탕을 둔 상태로 <한조삼성기봉>과 <완월회맹연>의 여성 인물을 추가로 다루면서 이전에 손기와 한후룡, 임허영을 영웅소설적 구조나 의미론의 관점에서 다룬 것과 다르게 본격적으로 장애인과 소수자 담론의 관점으로 작품을 분석하고 있다.

48) 임치균, 임정지 교수, 『한조삼성기봉』, 한국학중앙연구원, 2013. 한중연 장서각 소장 『한조삼성(漢朝三姓)』을 저본으로 교주하였다. 이후 본고에서는 <한조>로 통칭하기로 한다.

수 없는 인물이기에 <한조>에서 철저히 버림받고 멸시당하다 죽는다.

㉔ “...이제 윤회보복(輪廻報復)이 나에게 도라와 강세(降世)하되 부인 슬하의 의탁 고져 하오니 부인은 모로미 무이(撫愛)하시물 바라노이다.”

언과(言罷)의 난타업든 신령(神靈)이 너다라 기형괴석(奇形怪石)의 가면(假面)을 가져 선녀(仙女)의 낫치 쓰이니 음휘(陰后) 일성익호(一聲哀呼)의 우름 쇼릭 급 하니 노시 처음은 선오(仙娥)의 아름다운 모양을 깃거하더니 놀나 썩드르니 침 상일몽(枕上一夢)이라⁴⁹⁾

㉕ 희오(孩兒)의 작인(作人)이 크게 범상(凡常)하야 혼 곳 볼 거시 업스니 ... 노시는 크게 실망하야 몽식(夢事) 마즌 줄 놀나고 임의 나흔 즈식이라 홀일업셔 유모를 맞져 혼 구석의셔 기르더니⁵⁰⁾

㉖ 슈세(數歲)의 밋쳐 두역(痘疫)을 험히 하야 혼 허믈을 버시니 곳곳이 엷고 붉은 점이 막기쳐 일개 귀형(鬼形)이 도히야시니 쳐스는 어이업셔 말이 엷고 노시는 크게 통한(痛恨)하야 심(甚)이 불익(不愛)하야 슬하의 일시도 용납지 아니니⁵¹⁾

윤회의 보복으로 태어난 설여주는 태몽에서 아름다운 얼굴에 ‘기이한 괴석의 가면’이 쓰이고, 슬프게 우는 여인으로 등장한다. 태몽은 이미 설여주가 추모를 가지게 될 것을 암시한다. 태몽과 대응되듯 처음엔 그저 불만한 곳이 없이 못난 정도의 외모로 태어나 부모로부터 관심 밖의 아이로 자라다가 나이 삼 세에 이르러 천연두를 심하게 앓아 귀물에 가까운 추모로 변하는 불운한 인물이다.

꿈 속 음후의 얼굴에 씌 가면은 현생에서 천연두로 인한 추한 얼굴로 현시되고 설여주는 이때부터 부모의 박대와 멸시를 받으며 자란다. 모친인 노씨는 본래 악독한

49) 임치균 외 교주, 『한조삼성기봉』,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3, 32-33쪽, 권지일 19a-19b.

50) <한조삼성기봉>, 33쪽, 권지일 20a.

51) <한조삼성기봉>, 33쪽, 권지일 20a.

인물로 전혀 소생을 구박하여 남편인 설흠으로부터 늘 경계와 주의를 받은 인물이다. 노씨에게 설여주는 집안에서 후처인 자신의 입지와 남편의 애정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 존재였다. 그래서 범상치 않은 태몽 이후 설여주를 가진 노씨의 기대는 변변치 않은 설여주를 낳은 후 도리어 아이에 대한 박대로 변하는 원인이 된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설여주가 천연두로 인해 추한 외모로 변하자 이제는 자신이 낳은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딸을 ‘괴질흉면(怪疾凶面)’이라 칭하고 잠시도 곁에 오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뿐 아니라 꾸지람과 매질을 수시로 자행하는 모진 모성을 보인다. 이렇듯 설여주의 추모는 시작부터 전생 죄업의 징벌이며 현세에서 인물이 부모의 박대와 무관심을 받고 집안에 유폐되다시피 성장하게 하는 차별과 배제의 원인이 된다.

심지어 설여주는 <옥환기봉>에서도 <한조>에서도 악인이 아니지만, 곽후의 입장에서 남편인 광무제와의 사이를 갈라놓은 가장 큰 원인이 된 인물이기에 그 업보로 현세에서 추모라는 징벌을 받고 태어난 것이다. 전생에서 아름다운 외모로 광무제의 마음을 사로잡아 결국 곽후를 버림받게 한 원인이 됐던 인물인 음후가 설여주의 전생이다. 이에 설여주는 전생의 인연의 업보를 해소하기 위해, <한조>에서는 전생에 곽후였던 강왕에게 시집 가 그 추한 외모로 인해 강왕의 박대와 멸시로 고통받다가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추모라는 이유로 성장기에는 부모의 박대와 멸시를 받으며 유폐되다시피 자라고, 혼인 후에는 배우자로부터 버림받아 외롭게 살다 죽는 서사는 고전소설 속에서 추모가 어떻게 여인의 일생에서 장애 요소로 작용하며 부정적으로 형상화됐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서사⁵²⁾라 할 수 있다. 설여주는 추모로 인해 삶과 생애 전반에 걸쳐 고립되고 정신적·육체적 학대를 받았다. 온전한 딸도 부인으로도 인정받지 못한 표면적 이유는 서사 전반에 깔린 윤희의 인과응보이지만 그 안에는 추한 외모에 대한 차별과 멸시의 시선이 내재되어있다 할 수 있다.

<박씨전> 속 박씨의 추모 역시 <한조>의 설여주와 마찬가지로 전생 죄업을 결과

52) 구선정, 앞 논문, 87쪽.

로 현세에서 감당하는 징벌이며, 이러한 추모의 상태로는 주인공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기에 <박씨전> 속 박씨의 추모는 치유를 지향해 나아간다. 그는 전생 과업이 종료됨을 언질 받은 직후, 부친의 도술로 본연의 아름다운 외모를 회복하는데 이는 재자가인형 인물만이 주인공의 위치를 부여받는 고전소설 속 온전하고 아름다운 몸 에 대한 지향을 보여준다. 더불어 아름다운 외모로 탈바꿈한 박씨를 둘러싼 주변인 들의 태도 변화는 서사를 통해 여성이 미추(美醜)가 어떤 식으로 규제되고 대상화되 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박씨는 추모(醜貌)의 껍질을 벗고 아름다운 여인의 외양을 되 찾은 후 남편과 집안에 수용되며 비로소 자신의 위치를 제대로 찾아 비로소 자신의 능력을 사회적으로 제대로 펼칠 수 있게 되는 서사가 나타난다. 박씨가 추모일 때에 는 공동체로부터 자의 혹은 타의로 축출되거나 고립되고 멸시받는 서사는 영웅의 고 난 서사로 이 시기 시비 계화와 시부는 영웅이 공동체적 삶에서 배제되거나 벗어났 을 때 만나는 조력자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신체적 기형에 가까운 추모(醜貌)가 신체적 장애로 인식되고 배제의 근거가 된다 면, 외형부터가 인체의 형태에서 벗어난 존재는 당연히 공동체로부터 배척 혹은 경 계의 대상이 된다. 그 예로 <금방울전>의 금방울이 있다. 금방울은 인외적 기형으로 태어난 인물로 그 형체는 사물이나 스스로 주도적으로 움직이며 사람과 같은 의사 를 가진 존재이기에 장애의 문학적 형상화로 이해할 수 있는 인물이다.

문득 희복하고 도라보니 아희은 아니오 금방울갓튼 거시 금광이 찬란호거늘 막 시 이 경상엿 보고 덕경호여 고이 녀이고 신통이 역여 ... 지버다가 멀리 버리고 도라오니 방울이 구을녀 썩라오논지라 ... 막시 녀심의 헤오갓 너 팔직 기구호여 이갓튼 괴물을 만나타⁵³⁾

막씨가 낳은 것은 금빛을 발광하는 방울로 무생물에 가까운 형태이다. 출산으로 낳

53) <금방울전> 11면.

은 것이 방울이라는 데에 괴이함을 느낀 막씨는 방울을 버리고 돌아오나 방울은 계속 부인에게 되돌아온다. 막씨는 방울을 버리는 행위를 반복하다 결국 금방울을 받아들여지만 이는 자식으로 그를 수용한 것은 아니다. 막씨는 방울을 괴물로 인식하고 자신의 기구한 팔자 탓을 한다. 자식의 출생 상태와 산모인 모친의 덕을 연결하는 인과성의 근거가 객관적으로 전무함에도 고전 서사뿐 아니라 실제 현실에서도 많은 어머니들은 장애를 가진 자식의 출생을 자신의 죄업의 대가로 귀속시키는 태도를 보인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흔히 나타나는 자신에게 닥친 불행을 자신이 저지른 죄업의 결과 혹은 운명으로 돌리는 태도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태도는 서사 상에서 인외적 형체의 자식의 출생에도 적용되어 자신의 기구한 팔자 탓으로 괴물을 낳았다는 말을 모친 스스로 발화하는 서술로 나타난다.

괴물이란 무엇인가? 그것을 떠올릴 때 보통은 기괴하고 끔찍한 외형, 공포, 두려움 등의 복합적 감정이 먼저 연상된다. 괴물은 사전적으로는 괴상하게 생긴 물체 혹은 사람이라 정의되지만 일견 어떤 의미에서 이 외형적 특질보다 이들의 생김이 사람들에게 불안이나 공포를 불러일으킨다는 인지적·심리적 특질에서 더 정확한 정의를 찾을 수 있는 것이다.⁵⁴⁾

막씨가 금방울을 괴물이라 칭하는 발화에는 금방울을 기형적 외형을 가진, 그 본성을 알 수 없거나 본성을 초과해버린 존재⁵⁵⁾라 질서를 파괴한 것이기에 가급적 멀리해야 할 두려운 괴물로 여기는 인식이 나타난다.

실상 금방울은 전생의 억울한 죽음과 맺어지지 못한 인연 맺기 과업을 받아 현세에 태어난 인물이다. 막씨가 전생에 대한 징벌로 추모를 가지고 살았다가 탈각한다면 금방울은 현세에서 그녀에게 주어진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금방울의 형태로 태어난 존재라 일탈된 형태의 원인이 서로 다르다.

금방울의 과업은 전생의 인연을 현세에 완성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과업 수행을

54) 강상순, 「괴물은 무엇을 표상하는가 -한국 고전서사문학 속의 괴물-」, 『우리어문연구 55』, 우리어문학회, 2016. 43-73쪽.

55) 강상순, 위의 글. 45쪽.

위해 그녀는 주변인들의 인정부터 얻는 성장 과정을 보여준다. 그래서 비록 처음 막씨가 금방울의 기형적 형태로 인해 그녀를 버리지만 금방울은 계속 막씨에게 돌아와 그녀의 곁을 지키고 결국 막씨의 여생을 여유롭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존재가 된다.

실로 금방울은 출생 직후부터 스스로 움직이면서 신이하고 비범한 능력으로 금세 막씨의 애정과 주변인들의 관심을 얻는 서사적 전개를 보인다.⁵⁶⁾

방울이 점〃 즈라미 산의 울기틀 평디갓치 다니며 즈 툃와 마룬 툃없이 구을너 다니되 몸의 흠이 못지 아니하더라 이러구러 오릿미 즈연히 슝이 아라 저마다 구겨코져 하여 문이 메여 집어보미 빗치 더욱 찬나하고 부드러워⁵⁷⁾

위 인용문은 금방울이 이곳저곳을 다니며 비범성을 보여 신기한 방울의 등장예 주변인들이 주목하는 서사 대목이다. 사람들이 금방울을 보고자 막씨의 집 문 앞에 모여드는 것은 이형에 대한 호기심일 뿐 살아 움직이는 인격적 존재로 금방울을 인식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주목할 것은 금방울은 구(球)라는 형태를 통해 생명력과 운용력을 표현하고 있다는 지점이다.

금방울은 신화적 상징성과 여성 주인공의 특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주인공의 인세에서의 출생은 전생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구원과 인연회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기에, 출생부터 신성성과 생명력을 부각하는 방식으로 전개된다. 이뿐만 아니라 방울의 형태는 난생의 변용으로 볼 수 있고, 비록 외형은 방울일지언정 내면에 잠재한 존재는 여성으로서의 성(性) 정체성을 가지고 있음을 ‘혹 남즈가 집으려하면 싹히 박히고 썩러질 분 아니라 그몸이 맞치 불갓트여 손 다힐 길이 업느지라’와 같은 서술로 서사 면면에서 지속적으로 드러낸다. 그렇기에 여성이 사회적 활

56) 심치열, 「<금방울전>에 나타난 주인공의 조력적 면모와 의미」,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8,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4, 95-120쪽.

57) <금방울전> 12면.

동을 할 수 없다는 현실적 제약을 방울이라는 이형의 외형으로 극복하며 영웅성을 발휘하는 서사에서 방울이라는 외형 역시 남북 모티브의 변용으로 볼 수 있다.⁵⁸⁾ 그래서 금방울은 방울의 형체 그대로 기아, 고난과 능력 발휘라는 영웅 서사의 구조를 순차적으로 따르며, 그때마다 겪는 고난은 그의 비범함을 증명하는 기제로 작용한다. 또 이를 통해 금방울이 주변인들의 인정과 애정을 획득하는 서사를 보여준다.

일반적인 영웅 서사 구조 내에서 주인공의 기형과 탈락에 의한 완인으로서의 변신은 곧 그가 본래의 자기 위치 찾기 혹은 자기 증명을 할 계기로 작용하며 이때 서사는 장애없는 보통의 신체를 다른 형상보다 사회적으로 우위에 두는 서사적 의미를 부여한다.

일반적인 외형과 구별될 정도의 추모와 인외적 기형의 인물이 서사에서 형상화된 방식은 정상의 몸의 범위에서 이탈된 몸인 장애인의 형상과 유사하다. 이에 이들은 실제 신체적 결손 장애가 있는 이들과 동일한 선상에서 논의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일정한 상태를 벗어난 기이한 존재에 대해 사람들은 공포를 느끼고 자신의 삶에서 유리시키고자 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추모와 기형의 장애인의 서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살아있는 존재이기에 그들 곁에는 그들의 삶을 지지해주고 연민하는 주변인에 의해 삶을 지속하기도 한다.

박씨에게는 그의 본질을 알아주고 연민하고 지지해주는 시부 이 상공⁵⁹⁾과 한몸처

58) 금방울의 난생의 신화소적 성격에 대해서는 정상진, 「說話의 小說化와 金圓傳」, 『문화전통논집』 1, 경성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93; 윤경수, 「금령전의 신화원형적 모색」, 『한국고소설 동굴 모티프 연구』 태학사, 1999. 405-428쪽 ; 윤은정, 이명현, 「금방울전」, 「김원전」의 영웅 형상화 방식과 의미 - 설화의 수용과 영웅소설의 변주를 중심으로, 『어문논집』 89, 중앙어문학회, 2022; 김용기, 「人物 出生譚을 통한 敘事文學의 變貌樣相 研究」, 중앙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 2008 참고.

59) 상공이 겨오 정신을 추려 다시금 심각히되, ‘사람이 이갓치 취비하니 … 또한 인물은 일어하나 이또한 인칭이라. 만일 니가 박디하면 더욱 천지간 바린 사람이 될거신니, 아무케나 니가 중히 하여야 복이 되리라.’하고(150)

그러구러 시빅의 모부인이 며날리 니를 니여 십비 불너, 밥을 적게 쥬라. 호고 미워호고 박씨 아모리 덕이 잇스든 웃지허리요. 견디지 못하여 시비 계화로 하여금 혈 말습 잇소오니 상공계 엿주어라 하니 계화 상공계 알원디 상공이 즉히 계화를 짜라 박씨 잇는 방의 드러가니 박씨 주연 한숨호고 단정이 엿주오디 미부 얼굴이 취비호고 덕히이 업셔 군즈의게 쫓줄 웃지 못허

럼 그를 모시는 시비가 있어 그에게 심정적인 위로가 되어 주고 설여주는 부모조차 버린 이복 동생을 연민과 자애로 보살핀 형제들 덕분에 선하며 겸손하고 효성깊은 아이로 성장할 수 있었다.

경옥 경취 잔잉히 녀여 사랑호고 보호함을 극진이 하니 여취 비록 곱지 못하
나 본성(本性)이 어지러 점점 즈라미 인효공검(仁孝恭儉)하니 형미(兄妹) 더욱 어
옛비 녀이고 쳐스는 그 양순(良順)함을 저기 스랑호더라⁶⁰⁾

직접 낳은 모친조차 천연두에 걸려 험한 외모가 된 딸을 사랑하지 않고 한순간도 곁에 보이는 걸 용납지 않는데 도리어 이복 형제 자매가 이런 여동생을 불쌍히 여겨 사랑하고 보호하며 극진히 돌본다. 그제서야 부친은 못난 딸의 양순함을 사랑하기 시작한다. 낳은 부모는 딸의 못남을 못마땅해하며 돌보지 않는데 오히려 다른 이들이 가련하게 여겨 돌본다는 점에서 동일한 장애를 두고도 이를 대하는 인물의 대응이 다르다는 것과 이것이 본인들의 심성을 그대로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성이 간악하고 욕심 많은 모친은 딸을 통해 자신의 입지를 다지기를 원했던 인물이기에 본인 뜻대로 될 수 없게 되자 추모인 자식을 박대한다. 또 이미 현생의 계시를 알아 딸의 일생을 포기한 부친은 운명론자로 하필 이런 딸이 자신에게 태어난 것이 달갑지 않아 애초부터 방치하고 무관심으로 일관한다. 이와 달리 이복 형제 자매들은 버려지다시피 한 동생을 그 외모를 거리끼지 않고 사랑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점에서 그들의 선하고 편견없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알 수 있다. 그리고 형제자매 덕에 어진 모습으로 자란 설여주의 모습을 보고 무관심했던 부친은 그제야 그를 사랑하고 봐주기 시작한다. 그렇지만 여전히 부친 설흠은 자식의 추모를 부끄럽게 여기며 친구들의 아름다운 여아들과 설여주를 비교하고 그 형상을 타인에게 보일 바에

오니 후원의 협실을 창건하여 쥬압시면 일신을 감초와 거처호옵게 호옵쇼서 상공이 그 형상을 보고 탄식 왈 니 조식이 불초호여 이비 말을 듣지 아니하니 이는 다 니 훈계 모탄 탓시로다 조식을 닷시 훈계혈 거시이 안심하라 훈디(156)

60) <한조삼성기봉>, 33쪽, 권지일 20a.

야 평생 숨겨두고 보이지 않겠다고 단언하는 태도를 보인다.

㉞ “...너의 작인(作人)이 괴추(怪醜)해야 볼 거시 업거늘 가지록 염(厭)해야 박면누질(薄面陋質)이 기괴하니 쇼테(小弟) 비록 부녀 간이나 보기 슬커늘...”⁶¹⁾

㉟ “...괴악지 아닌 녀식을 어더 불미(不美)하미 여츠하니 설사 장성흔들 어떡가 동상(東床)을 쏘의나 싱각하리오. 출하리 심규(深閨)의 두어 타문(他門)의 시비를 취치 말며 내 폐륜홀지언정 가셔(佳婿)를 유의치 아니하노라.”⁶²⁾

㉞는 친우들 앞에서 딸의 불품없는 모습을 보이기 싫어서 설함이 하는 말이고 ㉟는 설함이 딸의 품성을 아끼면서도 오로지 추한 외모라는 이유로 부끄럽게 여기고 유폐하다시피 가르겠다고 다짐하는 말이다. 하지만 이렇게 남에게 보이지 않고 설여주를 기르는 바람에 설여주는 미인으로 소문이 나 강왕의 관심을 사서 결혼에 이르게 되니 부모의 은폐가 오히려 설여주의 불행을 일으킨 원인이 된다.

이러한 일련의 서사는 고전소설 속에서 장애인들이 그 기형적 외형으로 인한 고립과 배제의 시선도 받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가족과 같은 거주 공간에 머물 뿐 아니라 그들에게 애정과 돌봄과 연대를 보여주는 존재 역시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는 그들이 겪는 고난의 시간 가운데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연대와 조력의 힘을 보여주는 서사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러한 서사는 장애를 지금과 달리 병의 하나로 인식하고 장애인 역시 공동체에서 함께 살아가는 구성원으로 인식하던 당대 인식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비록 고립되어 누각에 살지언정 그곳 역시 집안의 일부분이라는 것에서도 장애인을 그 장애를 이유로 일상의 터전에서 분리된 다른 공간에서 수용하는 현대와는 다른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61) <한조삼성기봉>, 35쪽, 권지일 22a.

62) 임치균 교주 외, 위의 책, 39쪽, 권지일 25b.

또 장애와 장애인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구성원 간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추모인 박씨를 시부와 하녀는 연민과 돌봄의 태도로 대하지만 남편과 시모는 배척과 멸시로 대한다. 막씨도 처음에는 금방울을 괴물로 생각하고 버리지만 금세 금방울의 재주와 애교에 그를 곁에 두고 아끼는 태도로 변한다. 설여주도 그의 외모를 멸시하고 배척하는 모친과 무시하는 부친이 존재한다면 그런 그를 가련하게 여기고 사랑으로 아끼며 돌보는 형제자매들이 존재한다. 이렇듯 장애 및 장애를 대하는 인물들의 서로 다른 태도를 소설에서 보여주는 것은 장애인과 장애를 대하는 바람직한 태도는 무엇인가 하는 물음을 던지는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소설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 서사적 답을 치유라는 사건으로 제시한다. <박씨전>과 <금방울전>은 모두 여성 영웅소설 계열에 들어가는 작품이다. 그리고 <심청전>과 <장화홍련전>, <한조삼성기봉>은 영웅소설 계열이 아니다. 영웅적 인물에 해당하는 박씨와 금방울의 추모나 기형은 전생의 사건과 연결된 것으로 추모는 죄과에 대한 응보⁶³⁾, 인외적 기형은 전생의 인연의 과업 수행을 위해 부여된 현생의 외형이다. 그러므로 이들의 추모와 기형은 일시적인 것으로 전생의 응보가 종결되거나 과업이 완수되면 탈각 즉 치유에 이르게 된다. 치유 이후 이들은 각자 본래 자신의 자리를 되찾고 공동체의 온전한 인정을 받게 된다.

반면 영웅적 인물이 아닌 뺨덕어미, 계모 허씨, 설여주는 모두 추모를 벗어나지 못하고 서사적 귀결을 맞는다. 치유되지 않은 이들은 서사 내에서 악인으로 묘사되거나 설여주처럼 전생에 대한 응보이기에 인과적으로 치유될 수 없는 경우이다.

이렇게 소설의 계통적 차이, 인물의 전생의 유무 존재 여부, 서사 내적 동인 등의 요소는 치유 서사에서도 차이가 나타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63) 처수 그 짚을 불너 왈, “네 이제는 익운이 진히엿시니 허물을 곳치라.” 하니, … 이날 밤의 박씨 목욕하고… 축슈하고 방 드러 자든이, 잇튇날 평명의 이러나며 계화를 불너 왈 “니 간밤의 허물을 버섯시니, 디감게 엇즈와 옥함을 썩쥬옵쇼셔하라.” 할 제, 계화 보니 चु비흔 박씨 허물을 벗고, 옥 갖튼 얼굴이며 달 갖튼 티도 스람을 놀니며 향기 방안의 가득흔지라. ; <박씨전> 20면.

(2) 성(性) 정체성 장애

인간의 성을 사회적으로 남성 혹은 여성으로 나누는 이분법적 사고가 당연한 사회에서 그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사람의 고통은 짐작하기 힘들다. 여기 그러한 인물들의 고통이 <방한림전>의 방관주를 통해 나타난다.

음천궁(天宮)의서 호식(好色)하기를 방주(放恣)이하니 초생(次生)의 금슬지낙(琴瑟之樂)을 쫓쳐스니 스스로 죄(罪)를 아난다 ... 문곡성은 본니 남주(男子)미 남주의 스업(事業)을 하고 턱을이 희롱(戲弄)하야 여주(女子)되게하문 허명(虛名)으로 부부(夫婦)되야 천상(天上)의서 너무 방주(放恣)하물 벌(罰)이라⁶⁴⁾

방관주는 천상에서 금슬지락에 빠져 직무를 소홀히 한 죄로 현생에 이를 누릴 수 없는 벌을 받아, 내면은 남성의 성 정체성을 그대로 지닌 채 몸만 여성인 존재로 태어난 인물이다. 말하자면 방관주는 여성의 육체에 남성의 영혼을 가지고 태어난⁶⁵⁾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가진 인물이다.

어린 시절부터 여성의 의복이나 침선 등에는 관심이 없고 남성의 의복을 입기를 원하고 서적을 곁에 두는 행동으로 방관주의 지향성을 서술하는 서사는 사회적으로 고정된 남녀의 성 역할을 통해 그의 성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이기에 그 서술 자체부터 이미 성차별적이고 폭력적이다. 그리고 당대의 이러한 남녀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과 전제는 성(性) 정체성 장애를 타고난 방관주와 같은 인물에게는 몹시 고통스러운 상황일 수밖에 없다.

실로 <방한림전>의 방관주는 소설사적으로도 문제적 인물이다. 그가 성적 정체성 장애로 스스로의 육체적 성을 부인하고 여성의 몸이 아닌, 남성의 몸으로 사회적 성

64) 『방한림전』, 김동욱 편, 『나손본필사본고소설자료총서』, 보경문화사, 1991. 37a-37b.

65) 강서후, 『<방한림전>에 나타난 성(性) 정체성』, 목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논문, 2015년. 강서후는 방관주가 성 정체성(정체성) 장애가 있는 인물로 남성의 정체성으로 살아간 남성으로 영혜빙에 대해 가진 방관주의 감정은 이성애로 보는 것이 옳다고 보았다.

공을 이룬다는 점, 스스로 남성임을 거부한다는 점 등으로 당대 독자들이 방관주에게 투영한 모순된 가치관을 짐작할 수 있다. 그가 여성이지만 남성 중심 사회에서 누구보다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여성임을 밝힌 후에도 사회적 인정을 유지했다는 점에서는 여성의 사회 진출 욕구의 발현으로 판단할 수 있지만, 그 스스로가 자신을 남성으로 규정하고 지극히 남성 입장에서 가부장적 사고와 태도를 구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방관주의 쟁취가 여성의 쟁취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거두기 힘들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의 성 정체성 장애가 그가 여성으로 남성 사회에서 활동했다는 이슈에 묻혀 도리어 서사 상에서조차 제대로 다뤄지지 못하며 이야기의 기이함을 강화하는데 이용되면서 여성의 사회적 진출을 위해 동원되던 남북 모티브 이상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점은 당대 방관주와 같은 성적·젠더적 장애를 가진 이들의 사회적 소거와 무시를 함의하는 것이기도 하다.

조선에도 남녀의 이분법적 성을 초월한 인물이 실재했다. 사방지는 남성과 여성의 기관을 다 가진 채 태어난 양성인이었지만 조선의 성별 이분법의 관점에서는 아픈 사람으로 간주됐다⁶⁶⁾. 세조는 사방지가 여러 여인들과 간통하여 사회의 기강을 문란하게 만들었으나 병자이므로 처벌하거나 추국하지 말라고 여러 신하의 국문과 처벌 간청에도 불구하고 사방지를 사면해주었는데, 이때 세조와 서거정과의 문답 장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서거정이 대답하기를,

“과연 있습니다. 그 말에 이르기를, ‘하늘에 달려 있는 도리는 음(陰)과 양(陽)이라 하고 사람에게 달려 있는 도리는 남자(男子)와 여자(女子)라고 한다.’ 합니다. 이 사람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니, 죽여서 용서할 게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좌승지(左承旨) 윤필상(尹弼商)에게 이르기를,

66) 「세조실록」 28권, 세조 8년 4월 29일. …사방지는 병자(病者)이니 추국하지 말라.(…畝方知病者, 勿推)

“이 사람은 인류(人類)가 아니다. 마땅히 모든 원예(遠裔)와 떨어지고 나라 안에서 함께 할 수가 없으니, 외방(外方) 고을의 노비로 영구히 소속시키는 것이 옳다.”⁶⁷⁾

세상을 음양으로 구분하는 유교 철학에서 음과 양을 동시에 가진 몸은 세상의 규정에서 일탈된 존재로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은 인류가 아니’기에 인간 사회에서 차별할 기준도 없으니 차별받지도 않고 다만 인간 세상 밖으로 추방해야 할 존재일 뿐이다. 과연 사방지는 인류가 아닐까. 인류란 건 무엇일까. 인류, 남, 여라는 물질적 몸이 어떻게 사회적·문화적으로 규정되고 범주화되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사방지이다. 그리고 남성이나 여성의 몸 그리고 그 몸과 일치하는 행위를 강요하는 사회문화적 담론에서 일탈된 존재는 생애 내내 세상 밖으로 제외되고 인간으로 인정받지 못하며 고통받는다.

방관주는 남성으로서 자신을 인식하고 있는데 신체는 여성으로 태어난 인물이다. <방한림전>의 서사 말미에는 천상에서 남성인 문곡성이 부부간 운우지정에 몰두해 일을 소홀히 한 벌로 인세로 적강하며 여성의 몸으로 태어나 남녀간 즐거움을 알지 못하는 벌을 받은 것으로 서술된다.⁶⁸⁾ 이러한 서술에서 현재의 방관주의 여성의 몸은 전생에 남성인 문곡성을 벌주기 위한 징벌적 성격의 몸이며 현재 방관주의 내면이 남성이라는 사실이 확인된다.

신체적 성과 정신적 성이 불일치하는 이러한 상태를 성 정체성 장애 상태, 즉 트랜스젠더⁶⁹⁾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트랜스젠더는 스스로 자신의 성이 타고난 성

67) 「세조실록」 42권, 세조 13년 4월 5일. 居正對曰: “果有之。 其辭曰: ‘在天之道曰陰與陽, 在人之道曰男與女’ 此人非男非女, 殺之無赦” 上謂左承旨尹弼商曰: “此人非人類。 當送諸遠裔, 不與同中國, 可永屬外方邑奴。 ”

68) 기몽(奇夢)을 어든니 승상과 부인니 오색(五色)구름을 타고 내려와 아즈(兒子)의 손을 잡고 갈아디 우리난 본디 문곡성(文曲星)과 상허성(孀娥星)이런니 금슬(琴瑟)이 너머 진중(珍重)하고노 슈유불이(須與不離)하니 님스(任事)를 폐(廢)하니 상제(上帝) 미여이 역이스 티을(太乙)이 속이 고자하야 상제계 주(奏)하고 문곡성은 방가(方家)의 니치고 상허성은 영가(瀛家)의 니친니 문곡성은 본디 남즈(男子)미 남즈의 소업(事業)을 하고 티을이 희롱(戲弄)하야 여즈(女子)되게하문 허명(虛名)으로 부부(夫婦)되야 천상(天上)의셔 너무 방즈(放恣)하물 벌(罰)이라

69) 서신혜, 「개인의 아픔으로 읽는 <방한림전>」,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0, 한국고전여성문학

과 반대의 성이라고 인식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들은 인식에 머물지 않고 반대되는 성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며 자신의 타고난 성에 대한 불편함을 호소하며, 어려서부터 육체와 반대되는 성의 놀이, 행동, 태도를 보인다.⁷⁰⁾ 현재의 시점에서는 이를 장애로 인식하고 있지 않고 성적 선택의 자유를 인정하지만⁷¹⁾ 과거에는 이러한 상태를 규정하는 어떠한 관점도 존재하지 않았다. 방관주는 자신의 상태에 대한 이해를 구할 대상도 없이 홀로 자신의 아픔을 감내하고 자신이 인식하는 성 정체성인 남성으로 살기 위해 여성의 몸을 은폐하는 고통과 남성이 아닌 것이 들켜 사회적 지탄을 얻을 두려움을 견디는 인물이다. 이러한 사회적 남성의 역할을 추구하는 방관주의 상황⁷²⁾은 패싱(passing)에 가깝다. 패싱은 자신이 속하지 않거나 이전에 속하지 않았던 성별로 보이려는 행위로, 대부분의 패싱은 남자나 여자가 되라는 문화적 명령에 대응하며 경우에 따라 패싱을 자신이 선택한 성별로 보이려는 행위라고 정의할 수도 있다⁷³⁾. 방관주의 남복, 이성과의 결혼, 입양을 통한 자손 출생, 가장(假裝)은 모두 성공적인 남성으로서의 패싱을 위한 노력이라 할 수 있다. 패싱은 남복 개착 및 남성적 신체 특징을 강화하는 것, 사회가 요구하는 남성적 행동을 하는 것 등 일련의 사회가 남성적이라고 호명하는 모든 특성과 행위를 체화하는 행위 전반을 일컫기 때

회, 2010. 275-300쪽.

70) 최병무, 「성전환증의 진단 및 치료」, 『신경정신의학』 115, 대한신경정신의학회, 1993, 465-471쪽.

71) 2018년 WHO는 트랜스젠더를 장애로 규정하던 기존의 입장을 수정해 ‘성별불일치’로 명명하고 비병리화 범주로 묶었다. 이것은 가치있는 변화지만 트랜스섹슈얼과 패싱을 위한 트랜스젠더들의 의료적 치료나 투약 및 시술에 대한 의료지원 감소 등의 현실적 문제들을 동반하는 변화이기도 했다.

72) 조현우, 「<방한림전>에 나타난 ‘갈등’과 ‘우울’의 정체 - 젠더 규범의 균열과 모순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33,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16 참조. 방관주는 자신을 여성으로 호명하는 젠더 규범에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이자 존재하지 않는 아들로 순종하고 그 결과, 순종과 거부가 교차하는 불안정한 장소로서의 주체가 된다. 또한 <방한림전>은 후손 잇기와 가문의 번성이라는 당대의 이상적 모습을 포함하지만 그 이상적 가문의 탄생에는 역설적으로 가문의 종결이 각인되어 있다. 표면적으로 <방한림전>은 낙성의 입양으로 방관주, 영혜빙, 낙성으로 이루어진 가족은 완벽한 가부장제적 가족을 형성하지만 도리어 그로 인해 가부장제의 핵심인 방씨라는 남성 혈통의 계승이 단절되는 서사적 종결을 그리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 작품은 이적애적 젠더 규범이 그리 안정적이거나 일관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불안과 공포의 징후를 보여주는 작품이다.

73) 케이트 본스타인 저, 조은혜 역, 『젠더 무법자』, 바다출판사, 2015, 202-203쪽 참조.

문이다.

방관주에게는 여성의 몸 자체가 장애 요소이다. 그는 남성의 정체성으로 남성들에게 부여된 것-남복, 서책-을 좋아하고, 남성적 삶을 살길 원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능력을 갖추고 태어났음에도 타고난 몸이 그 몸의 주인을 억압하고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가 된다. 물론 이 아이러니를 통해 여성의 몸이 당대 어떻게 사회 주변부에 머물렀는지도 짐작케 한다. 그러므로 방관주는 여성과 성적 장애라는 이중고를 가진 인물이다.

이에 방관주는 작품 내내 자신의 몸을 한탄하는 인물이다. 삶의 동반자인 영혜빙을 만났을 때 그녀의 아름다움에 감탄하며 사랑하면서도 그녀에게 인간으로서의 즐거움을 평생 줄 수 없음과 그녀가 자신으로 인해 그러한 괴로움을 견뎌야 하는 현실에 대해 미안해한다. 사회가 성인의 온전한 남성에게 요구하는 혼인과 출생이라는 절차를 수용하고, 자신의 몸으로 버티거나 받아들이면서 겪는 방한림의 내적 괴로움은 서사 전면에서 내내 나타난다.

이러한 고난이 있을 때, 영혜빙이라는 적극적이고 자기 삶을 주체적으로 개척하고자 하는 용감한 여성이 혼인 대상으로 등장하거나 우연히 버려진 아이를 입양하게 되면서, 이들은 방관주의 장애를 은폐하고 사회적 순리에 섞일 수 있도록 지지해주는 조력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그리고 이러 조력에 힘입어 방관주가 얻는 부귀영화는 여성이 아닌 몸일 때 인물이 획득할 수 있는 많은 사회적 기회와 이득의 실체이기에 사회적으로 배제된 여성의 몸에 대한 인식을 재고케 하는 기회를 마련한다.

방관주가 겪는 갈등과 장애에 대한 이해자이자 조력자인 영혜빙은 장애인 주인공 남성의 고난을 전이받고 돌본 심청이나 채란공주와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방관주가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혼인으로 인해 내적·외적으로 갈등할 때, 영혜빙이라는 여성이 등장해 방관주를 갈등과 위기 상황에서 구해준다. 영혜빙은 가부장제 내에서 여성에게 주어진 역할과 억압에 반감을 가져 혼인을 거부하지만, 방관주의 비밀을 눈치채고 그에게 조력하면서 별다른 사회적 갈등 없이 스스로 원한대로 남성의 아래에 머

무는 가부장제 여성의 역할로부터 해방된다.

이때 영혜빙은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었던 방관주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조력자이자 고통을 분담하는 여성의 역할을 수행한다. 방관주는 그 외적 신체와 상관없이 스스로 자신을 사회적으로 남성으로 규정하고 있기에 장애 남성의 고난을 함께하는 여성의 역할이 영혜빙에게 주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구조로 읽힌다.

영혜빙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방관주는 비로소 사회적으로 온전한 남성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고, 이후 거리낌 없는 사회 활동의 제반을 마련하게 된다. 즉 영혜빙은 방관주의 가장 큰 고난과 장애를 해결해주는 해결자의 역할도 수행한다. 방관주의 고통과 장애는 영혜빙에 의해 해결되고 방관주는 더이상 사회적 감시와 경계를 두러 위할 필요 없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세상에서 방관주의 비밀을 아는 이는 유모와 영혜빙이 유일하다. 어린 시절부터 방관주를 기르고 부모 사후(死後)에도 방관주를 양육하고 보호한 이는 유모였다. 방관주의 부모는 자식의 ‘거동과 신앙이 날로 늙늙’해지고 글을 하나를 가르치면 열 통하는 재주를 몹시 사랑하고 아껴서 아들 없음을 원통하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딸의 뜻을 수용해 남복을 지어 입히고 여공이 아닌 시서(詩書)를 가르치는 등 딸의 남다른 점을 수용하는 개방적 태도로 대응한다. 부모의 용인 아래 자신이 원하는 대로 남성으로 자라난 방관주는 부모 사후(死後)에도 자신의 의지를 이어간다. 그리고 이런 방관주의 행동을 걱정하고 일반 사회가 요구하는 성 역할대로 살 것을 조언하는 것이 유모이다.

일일을 유모 주유량이 쇼저를 묘셔 말삼흐던니, 유모 고왈, 이제 쇼저의 방년이 구셰라 규리(閨裏)의 녀즈 십세의 불출문외(不出門外)라 흐온니 원컨디 공자(公子)난 도라 칭각흐시고 우온 거쥌(擧措)을 그만 굿치스 나종을 어즈럽게 말으스 선노야(先老爺) 부인 영혼을 평안이 흐쇼셔⁷⁴⁾

74) <방한림전> 2a면.

방관주를 이해해주던 부모를 8세에 여인 후, 관주를 키운 유모의 걱정은 기른 사람으로서 애정 어린 걱정이다. 이런 유모의 말에 방관주는 ‘너의 집심(執心)을 곳치며, 선부모의 뜻을 저바리이요. 너 맛당이 입신양명하야 부모의 후스를 빗느린니 어머니는 괴로운 열논(言論)을 다시 말나 너의 본스를 타인게 말을 말물 브라노라’고 엄하게 이른다. 나이 9세에 이미 방관주는 자신의 사회적 성(性)을 남성으로 확정짓고 남성 사대부의 삶을 살기로 마음 먹는다. 그리고 영혜빙을 만나기 이전까지 방관주의 비밀을 함께 나누고 지지해줄 수 있는 인물은 없었다.

유모는 방관주를 아끼는 마음이 커 그의 뜻을 따라 그 비밀을 엄하게 지키도록 집안을 단속하는 데에는 힘쓰지만 방관주의 심적 갈등과 괴로움을 토로할 수 있는 이해자는 될 수 없었다.

영혜빙은 방관주의 비밀과 고민을 온전히 공유하며 그의 육체를 은폐하는 두려움과 남성이 아닌 몸으로 인한 괴로움과 우울감을 이해해주는 유일한 인물이다. 특히 방관주가 위장된 몸을 인식하는 순간들은 그가 높은 관직을 제수받거나 남성으로 사회적 성취를 이룩하는 순간인데 이때에도 영혜빙은 가벼운 농담으로 그의 우울감을 떨치도록 돕고 분위기를 환기하는 인물이다. 다음의 인용문은 이러한 방관주의 우울감과 영혜빙의 역할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다.

㉞ 사랑이 눈을 드러 쇼져를 보고 녁쇼왈 부인니 학싱갓튼 가부를 만나실식 삼청춘의 너의 원비되야 봉관화리로 도으니 죠달하시물 흐레하노이다 영쇼져 화관을 기우리고 단순호치 현출하야 왈 이 다 현후의 은덕이라 승덕이 산악갓건이와 여즈 가부의 은총이 부미살이의 올흘지라 웃지 도로혀 앓기시난요 사랑이 덕소하고 쏘흔 남아 안니를 슬어하더라⁷⁵⁾

75) <방한림전>, 12b-13a면.

㉔ 할임이 혼변 보미 황년이 깃분 의식 나타나 옥면 화귀 우희 염작흔지라 심흔의 경탄티모하며 칭찬하야 저러트흔 식모적여 만고를 지우려도 다시 웃지 못할 거시로티 숙녀 즈기의게 도라와 신륵이 쫓쳐지고 일성이 락물함을 상양컨티 잔잉코 가석하나 다시 말막을세 읍셔 염심단좌하니⁷⁶⁾

㉕ 다만 부인니 날로하여금 인윤을 아지 못하고 공연이 춘광을 헛도이 맞춘니 ... 가련츠석이라 안석의 의지하여 천익를 바라보며 상양하미 남아가 못되물 늦기더라⁷⁷⁾

㉔는 방관주가 벼슬을 제수받고 집으로 돌아와 영혜빙과 나누는 대화이고 ㉕는 영혜빙을 처음 만난 방관주의 내면 서사이다. ㉔는 방관주가 죽기 전 장면으로 자신이 남자가 아님을 슬퍼하고 자신으로 인해 영혜빙의 일생이 매몰되고 인륵을 모르도록 살게했다는 연민과 죄책감을 토로하고 있다. 영혜빙에게 가지는 고마움과 미안함이란 죄책감은 늘 방관주의 내면에 자리한다. 영혜빙은 그에게 고마운 존재이자 자신의 아픔을 상기시키는 죄책감의 대상이기도 하다. 이는 심청의 죽음을 통해 개안의 기회를 얻었지만 자식을 앞세운 아버라는 죄책감으로 괴로워하던 심봉사의 모습이 방관주에게 겹치는 부분이기도 하다.

㉕에서 방관주는 관직을 제수받고 귀가 후 영혜빙에게 자신 덕분에 존귀한 자리에 오름을 축하한다는 냉소적 말을 건넨다. 이때의 냉소적 어조나 표현은 실상 자신에 대한 냉소이다. 은폐된 여성과 위장된 남성의 상태로 얻게 된 존귀한 지위는 그에게 씩쓸한 자기 인식의 순간이기도 하다. 이런 방관주의 마음을 눈치 챈 영혜빙은 웃으며 가벼운 농담으로 받아쳐 분위기를 환기하고 방관주를 '크게 웃게'함으로써 그를 간접적으로 위로해준다. 이렇듯 사회적으로 공인된 성(性)과 실제 성(性)의 불일치와 그로 인한 우울은 마땅히 기뻐하기만 해야 할 순간에도 방관주를 괴롭게 한다.

76) <방한림전>, 7b면.

77) <방한림전>, 30b-31a면.

이렇게 그에게 영혜빙은 지기지우(知己之友)인 동시에 애정의 대상이었고 원하는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준 인물이지만 동시에 사는 내내 자신의 장애를 일깨우는 동시에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인물이기도 했다. 자신의 고통을 함께 지고 가주는 인생의 동반자에게 느끼는 방관주의 괴로움은 당대 분명히 실존했던 성 정체성 장애인⁷⁸⁾들의 아픔과 괴로움을 상기시키는 서사이기도 하다.

방관주라는 인물을 통해 우리는 젠더적 측면에서 성(性)의 이분법적 가름이 개인에게 미치는 고통의 상황을 인지하게 된다. 남성 혹은 여성이라는 이분법적 성 역할의 구분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한 개인을 압박하고 이 틀에 맞지 않는 유형의 성을 배척하고 은폐하게 한다. 방관주는 사회적으로 규정된 성 역할로 인해 고통받는 인물로 여성의 몸으로 남성의 성 역할을 욕망한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신체를 억압하고 은폐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여성에게 사회 진출을 하지 못하도록 한 소설 속 시대와 방관주의 성 정체성 장애가 맞물리면서 독자들은 이 작품을 여성의 능력 발휘를 억압한 가부장제에 대한 저항의 서사로 읽기 쉽다. 하지만 방관주의 개인적 욕망만을 두고 본다면 그는 가부장제에 대한 저항의 의사가 없을 뿐 아니라 지극히 가부장제에 순응하고 그 제도 안에서의 자아 실현과 성공을 추구하는 인물일 뿐이다. 그렇기에 방관주를 통해서 여성주의적 시각을 이야기하다 보면 모순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방관주를 성 정체성 장애를 가진 인물로, 스스로를 남성이라고 인식하고 살면서 여성의 몸으로 남성을 위장한 채 살아가는 삶의 고통을 보여준 인물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의 삶에 대한 이해가 자연스럽다.

방관주는 여성 영웅이지만 박씨나 금방울과 달리 현세에서 확실하고 실재적 치유 즉 성 정체성과 신체의 일치기를 이루지 못한다. 다만 영혜빙과 아들이라는 존재로 사회적 가정을 완성하고 가장이자 사대부 남성의 삶을 온전히 누리고 가기 때문에 사

78) 서신혜, 위 논문, 291쪽 참조. 고운기(『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삼국유사』, 현암사, 2002)는 『삼국유사』의 「경덕왕충담사표훈대덕조」에서 해공왕이 늘 부녀자 놀이를 하였고 그렇게 지내기를 좋아하였다는 기록이 있고 이에 대해 일언이 ‘여자 아이일 것이 남자가 되었으므로’ 그렇게 되었다고 썼다는 기록을 바탕으로 해공왕을 오늘날의 관점으로 볼 때 성전환증 환자로 판단하였다.

회적으로는 성 정체성과 일치하는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방관주는 사회적 성 역할에서는 부분적으로 치유된 몸인 완인(完人)이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성취한 셈이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영혜빙과 정신적 사랑에 머무는 관계로 끝났기에 그의 치유는 불완전하다. 이를 전생 응보라는 서사적 인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방관주의 겉모습인 여성이라는 육체가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일으키는 장애 요소라면 이를 견어낸 후 그가 가진 내적 본질인 뛰어난 능력이 더욱 두드러지게 인식된다. 그렇기에 방관주의 불완전한 치유 서사는 오히려 외적 특성인 신체적 성(性)에 의해 부정된 개인의 내적 본성에 주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역설적인 인식을 드러내는 장치라 할 수 있다.

2) 남성 장애 인물의 유형과 서사적 형상화

여성 장애 인물의 신체적 장애에 추모와 인외적 기형 유형이 있다면 남성의 경우에는 추모가 장애로 작용하는 인물이 등장하지 않는다. <영이록>의 손기가 거무튀튀하고 불품없는 외모로 등장하기는 하지만 그의 못난 외모는 아름다운 아내와의 대비를 극대화하는 장치로의 의미가 강하다.

이는 여성 장애 서사에서 여성이 추모라는 이유만으로 고립되고 멸시받거나 악의 현시로 그려지는 것과는 다른 시선이다. 또한 여성 장애 서사 속 추모가 기형에 가까운 상태라면 손기는 못난 외모 정도로 판단되는 상태라 장애에 가까운 추모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분석 요소에서는 제외하기로 한다.

이는 고전소설에서 남성 신체의 미추(美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으며 남성에게 요구되는 사회적 역할의 수행 가능 여부가 서사적으로 장애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제 남성 장애 유형 중 인외적 기형부터 살피기로 한다.

(1) 기형(奇形)

남성 장애 인물 중 인외적 형체로 등장하는 인물에는 우선 <김원전>⁷⁹⁾의 김원이 있다.

부인이 선녀를 보려고 아희를 도라보니 아희는 업고 허무뎡냥흔 거시 이스되 모양이 둥글어 것춘 검고 속은 빗치 얼웅얼웅흔 거시 눈도 코도 업고 마치 슈박 모양 갓흔지라. ... 승상이 부인 희복흔물 듯고 ... 아희를 빗비 슬퍼보니 아희는 업고 고이흔 거시 것히 노혔는지라. 크게 놀나 흥격이 막혀 이욕이 말을 못하다가 부인드려 왈 희복흔 아희 어딴 잇는뇨. 부인이 총망중 참괴하여 무섭고 무식하여 디답흔 말이 업는지라⁸⁰⁾.

김원은 천상에서의 죄업으로 인세(人世)에서 검고 둥근 형태인데 속이 비치는 기묘한 생물로 태어난다. 사람이라면 응당 가져야 할 사지가 없이 태어난 기형의 존재를 목도한 부부는 출생 직전에 들은 ‘하늘이 정하신 일’이라던 천상 선녀의 당부마저 잇을 정도로 충격을 받고 ‘고금의 문견치 못흔 이런 변’이라 여기며 무서워하고 탄식한다. 그러나 부모의 놀람과 탄식보다 더 큰 문제는 주변인의 반응이라 할 것이다.

차차 소문이 들니미 노복과 사름들이 다 놀나는지라. 그 중 늘근 사름이 니르되 넷적의도 이런 날이 이셔 그 속으로써 디망이 나와 사름을 무슈이 살히흔고 작난이 비경하여 나라의셔 발군하여 계유 잡아 죽이고 그것 나흔 사름은 흥악흔 죄인이라 하여 턴지를 보지 못흔디 가두엇드가 굶겨 죽엿다 하더니 그 말을 들으니 네도 그런 날이 잇던가 보다. 그러커니와 세상닐을 측냥치 못흔리로다. 김

79) 인천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구활자본 고소설전집 19: 금방울전』, 은하출판사, 1984

80) <김원전> 6-7면

승상 성덕으로 이런 변을 당하니 ... 불상타 하고 제인이 다 추연하더라⁸¹⁾

김승상이 드디어 자식을 낳았다는 소식에 기뻐하며 축하를 보내던 주변인들은 낳은 자식의 형상을 듣고 놀라며 승상 부부를 불쌍히 여기는 데에 그치지 않는다. 기형아 혹은 인외적 존재의 출생과 관련된 전해지는 말을 공동체가 공유하며, 사지와 몸통, 안면도 없이 태어난 아이는 대망(大蟒)과 동일시되고, 사람을 해치고 난리의 근원이 되어 결국 죽임을 당할 존재, 어미 역시 그러한 죄업을 낳은 죄로 죽임을 당하게 할 존재로 여겨진다. 기이한 형체 즉 보통의 일반과 다른 형체라는 이유로 집안과 가족, 나라에 해를 끼칠 불길한 존재로 보는 것이다.

또한 김원의 기형을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신체의 문학적 상징으로 본다면 이 대목은 현실 세계에서 장애인을 가족과 공동체의 평안에 위협이 될 존재로 생각하는 시선이 함의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이후 김원의 서사에서 스스로 거동하지 못하는 장애인을 돌보는 가족 공동체와 유사한 서사가 등장하는 것을 통해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김원은 생산적인 어떤 일도 하지 못하고 대식(大食)과 기이한 성장만 지속하며 집안의 식량을 과하게 축낼 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크기가 팽창해 결국 가옥을 다 부술 것 같아 후원 누각으로 옮겨진다는 서사의 진행은 장애인의 출생으로 인해 빚어진 가계의 부담을 상징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집안 기동을 부술 정도의 성장과 대식의 비유가 가정이 진 큰 물질적·정신적 부담으로 읽힐 수 있기 때문이다

김원의 부모가 김원이 살아 움직이며 밥을 먹고 성장하는 것을 보고 그를 누각으로 옮기고 먹을 것을 주어 기르는 것은 양육자로서 책임을 다하는 자세이지만 한편으로는 그를 괴이한 것이라 칭하며 집안의 후원에 두어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은폐하는 태도는 기이한 형태로 태어난 존재에 대한 두려움의 시선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의식과 태도는 마을 사람들이 공유하는 대망 이야기에 의해 강화되고

81) <김원전> 7-8면.

당위성을 가지게 된다.

그거시 밥 먹는 터로 점점 크라 큰 동희만 하였는지라. 승상이 부인을 청하여 보고 크게 의혹하여 그로터 이후는 밥을 쓴치 말고 조석으로 먹이라 하고 미양 여것저것 하지 말고 일흠을 지어 원이라 하라 한다. 밥먹기를 장히 하며 점점 크라 큰 방안의 가득하니 더욱 흥하고 고이흠을 측량치 못하여 왈 원이 더 자라 면 방을 쫓을가 시부니 너른 집으로 옮기자 하고 노복을 명하여 나르되 이거슬 여러히 운전하여 후원 월영각의 가져다 두라 하니 비복이 계유 옮겨 월영각의 두고 조석을 공급하더니 슈년 지너의 한 섬 밥을 능히 먹으니 원이 점점 크라 방이 터지게 되느니라. 승상 부부와 비복들이 그 연고를 아지 못하여 답분분하여 주야 근심으로 지너더니 세월이 여류하여 어나덧 십여년이 되었는지라⁸²⁾

위 인용 장면은 김원이 밥을 먹는 족족 성장하여 그 크기를 집안에서 감당할 수 없게 되자 김원의 거처를 후원 누각으로 옮겨가는 대목이다. 유사하게 인외적 존재로 태어난 금방울은 둥근 구(球)의 형태로 자유롭게 밖을 굴러다니며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는데 형태적 특징을 이용한다. 반면 김원은 후원의 누각에서 움직이지 않고 그저 밥만 먹고 크기만 키우는 정적(靜的)인 상태로 기술된다. 이러한 차이는 두 인물 간 현세에 태어난 이유의 차이와도 연관이 있다. 금방울은 전생의 못다 한 인연 맺기 과업을 위해 금방울의 형태로 태어났다면 김원의 경우 전생 죄업의 벌로 태어났기에 집 안에서 검은 구형의 외피에 갇혀 업보를 감당하고 그 외형을 탈피 후에야 영웅성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

고전소설 속에서 기형의 장애는 인물이 가진 이능(異能) 혹은 비범함이 아직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상태로, 이 기형은 장애 있는 몸의 문학적 상징화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장애 상태에서 그를 둘러싼 주변인들의 애정, 돌봄, 기아, 배척 등의 반

82) <김원전> 10면.

응은 기형의 존재에 대한 사람들의 다양한 대응과 반응을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

김원의 서사는 일견 형태적 특이성은 금방울에 가까우나 기본 서사적 틀은 〈박씨전〉의 박씨와 유사한 구조를 보인다. 김원의 누각은 탈피 전 박씨의 피화당에 준하는 서사적 장치이며, 김원의 업보 완료와 천상적 능력 획득 과정이 천상적 존재의 고지에 의해 이뤄진 것, 탈피 후 남은 외형을 증거를 돌봐준 이에게 보여 증명하는 서사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김원은 금방울과 같은 활동성도, 박씨와 같은 비범성의 증명도 없이 그저 크고 먹기만 하는 존재로 현실과 괴리된 채 존재하기만 할 뿐이라 서사에서 이 과정이 그저 김원의 고립 그 이상의 의미를 갖지 못한다.

그래서 김원의 장애는 금방울이 능력 발휘를 위해 방울의 외형이 필요했던 것과 달리 작품 내에서 주인공이 주변인으로부터 고립되는 고난의 이유가 된다. 또한 추한 외모로 인해 주변인으로부터 배제된 〈박씨전〉 서사와의 유사성에서 김원의 기형이 추모(醜貌)와 유사한 서사적 상징화로 동일하게 서사 내에서 다뤄진다는 점도 알 수 있다.

김원처럼 전생의 업보에 대한 응보로 사람이 아닌 이형의 외피를 뒤집어쓰게 된 남성 장애 인물로 〈금송아지전〉의 금우태자가 있다.

금우태자는 전생 세존의 제자 금수 나한인데 손오공을 잡으러 가다 소를 잃고 손으로 밭을 가는 벌을 받은 선녀를 불쌍히 여겨 스스로 소로 변해 선녀의 밭을 갈아 주느라 임무 수행을 지체한 벌로 인간으로 태어나는 벌을 받았다. 이때 달아난 소는 현세에서 금우태자를 배 속에 넣어 길러준 암소로, 선녀는 태자의 모친인 보만후로 태어났으며 금수 나한은 전생의 응보로 인간으로 태어나자마자 납치되어 소 구유에 버려진 후 소에게 먹혀 그 뱃속에서 소의 외피를 두르고 금우(金牛)로 다시 태어난다. 애초에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소에게 통째로 먹혀 소의 외피를 입은 상태로 다시 태어났기에 금우태자는 소로 태어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금빛으로 빛나며 향기마저 나는 상서로운 금우는 바로 소문이 나 왕의 사랑을 받으며 왕 옆에 거하면서 사람처럼 먹여지고 길러진다.⁸³⁾ 이후 금우는 버림받은 모친을 찾아가 모친을

구완하는⁸⁴⁾ 효성 깊은 자식의 모습도 보인다. 하지만 아무리 비범하다 해도 형상은 짐승인지라 악인들의 모의에 의해 왕후의 약재로 간이 뺏길 생명의 위협을 받기도 하고, 능력 증명으로 공주의 남편 자격을 얻지만 도리어 공주와 함께 쫓겨난다. 금우태자는 신이한 외형과 말을 하는 재주⁸⁵⁾가 있지만 사람이 아니라 ‘소’이기 때문에 본래 자신의 것이어야 할 태자와 사위의 자리에서 배제된다. 그의 자기 증명과 인정 역시 박씨, 김원과 마찬가지로 탈각으로 인한 인간의 형상으로 변한 뒤 이뤄진다.⁸⁶⁾

김원과 금우태자의 인외적 형태는 실상 인물들이 겪는 고난에 해당한다. 이들은 전생 죄업의 응보로 이 시기를 견뎌내는 징벌을 받은 것이다. 사람의 형체가 아니지만 이들은 살아있는 존재로 먹고 성장하는 존재이다. 즉 주변의 돌봄과 구완 없이는 생존이 힘든 존재이다.

김원은 생산적인 어떤 일도 하지 못하고 대식(大食)과 기이한 성장만 지속하며 집안의 식량을 과하게 축낼 뿐 아니라, 방과 집에서 수용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선 크기가 되어 가옥을 다 부술 것 같아 후원 누각으로 옮겨진다. 과도하고 기이한 성

-
- 83) <금송아치전> 15-16면. 왕이 금송아지를 죽기 죽순인줄 모르되 죽연 턴류이 동호야 이럿듯 사랑히시고 금송아지는 비록 소 허물을 써스나 속은 슝이라 턴연의 지감이 잇스미 왕이 죽기 부친임을 아라보고 말은 못후나 머리를 드리 왕을 반기면서 흑 앞헤서 사뒤여도 보고 온갖 지효를 다후야 미양 왕을 반가이 짜르니 왕이 더욱 사랑후야 미일 금송아지를 다리시고 쥬야로 소일후시더라
- 84) <금송아치전> 18면. 금송아지가 미일 밤이면 와서 밀을 갈고 쫄 조흔 음식을 정히 무려다 압헤 노으니 보만후 몸이 편후고 조흔 음식을 먹음미 불승다후후야 금송아지를 이흠무마후며 금송아지는 정성것 모친을 바드더라
- 85) <금송아치전> 23면. 관음이 베틀가지로 머리를 세번 치며 무슴 쥬문을 후시며 언문속기를 부르시니 흠연 몸은 송아지나 슝의 말을 능히 후다..
- 86) 금우의 부친인 왕은 그가 자신의 자식인 줄 모르고 그가 신이한 존재이기에 사랑하고 아낀다. 모친은 그가 비록 소의 형상을 지녔지만 자신의 고행을 대신 해결해주며 애정어린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고 이후 꿈속 부처의 말을 들은 후, 처음에는 금우를 자신의 자식이라 믿고 아낀다. 하늘의 예지에 따라 왕의 부마 자격을 얻고도 사람의 형상이 아닌 소의 형상인지라 그는 부인인 공주와 함께 추방당한다. 공주만이 그의 형상에도 불구하고 예지를 믿고 말하는 소인 그를 자신의 남편으로 인정하고 함께 고난을 감수한다. 금우태자의 탈각은 하늘 선관이 내려와 그의 소의 외피를 벗겨주고 가는 것으로 해결된다. 금우의 존재는 부모와 장인에게 꿈을 통해 계시되고 유리국 왕 역시 꿈의 계시를 통해 산에서 은거하던 금우 부부를 찾아가 그에게 자신의 왕위를 양위한다. 소에서 인간의 형상으로 변한 금우태자는 비로소 사회적 지위를 회복할 수 있게 되고 악인을 징벌하고 본래 자신의 자리를 찾을 뿐 아니라 삼국을 아우르며 자손에게로 영화가 이어지는 서사적 결구를 맺는다.

장은 부모의 근심이 되고 사람이 아니기에 이름도 붙이지 않은 채 ‘그것’으로 호명하지만 부모는 김원을 버리지 않고 그에게 먹을 것을 아낌없이 주며 성장을 지켜본다. 이런 측면에서 김원의 장애 시기를 인간의 유년기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⁸⁷⁾

금우태자도 신이한 형상으로 말미암아 부친인 왕의 사랑을 받고 왕이 주는 음식을 먹으며 성장한 후 모친 앞에 나서서는 사람처럼 말도 하여 소의 형상으로도 모자간을 확인한다. 그리고 위험을 무릅쓰고 금우태자를 도운 어의 덕분에 목숨을 구하고 고국을 탈출해 자신의 새로운 삶을 일굴 수 있게 된다. 부인이 된 공주 역시 금우태자가 소의 형상임에도 그를 거부하지 않고 자신의 배우자로 받아들인다. 물론 공주가 소를 자신의 배우자로 받아들인 것은 간밤의 ‘스름이고 즘싱고 집복을 쳐 소리 나는 거시 즉 비우라’라고 한 예지를 따른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예지가 있다 하더라도 부왕이 분노하여 금송아지 함께 추방을 명령할 때에도 금송아지를 떠나지 않고 그와 동행하며 소가 말을 하는 것에도 놀라지 않고 그의 불운하고 기이한 삶을 위로한다. 그리고 소와 함께 학림산에 들어가 은거하며 공주였던 몸으로 ‘초막을 일우고 풀을 버허 즈리를 삼고 나물도 킶 먹고 산과도 싸셔’ 생활을 일구며 살아가는 일을 군소리 없이 받아들인다. 금우태자는 본국을 떠나 자신을 받아준 공주를 만나 가정을 꾸린 후에야 탈각을 하고 완전한 남성의 신체로 변한다. 이 부분에서 남성 주인공이 기형 혹은 장애를 가진 경우 자신의 거처를 떠나 새로운 인연을 맺은 후에야 장애를 극복하는 서사가 마련되는 특성을 <금송아지전>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이후 <유화기연>의 유춘, <적성의전>의 적성의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는 특성이다

이렇듯 김원의 부모가 사람이 아니라고 김원 출생 후 그를 버렸다면, 암소가 신생아인 금우태자를 상처 없이 삼켜 자신의 뱃속에서 보호하지 않았거나 이후 어의가 금송아지의 비범함을 알아채고 그를 살려 도망가게 도와주지 않았다면 실상 그들은 그 고난의 시기를 무사히 넘기기 힘들었을 것이다. 또한 자신의 배우자로 낙

87) 최기숙, 「성장소설로 본 <금방울전>,<김원전>」, 『연민학지』 7, 연민학회, 1999, 184쪽.

점된 것이 소라는 이유로 그 배우자 되기를 공주가 거부했다면 금우태자의 학림산 은거와 새로운 삶의 모색은 쉽게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다.

두 소설은 모두 영웅소설의 구조적 특성을 보인다. 하지만 주인공들이 가진 형체적 특성으로 말미암아 흔히 영웅소설 속 고난 시기에 주인공이 만나는 조력자 및 조력이 사뭇 다른 양상으로 등장한다.

김원에게는 김원을 버리지 않고 양육하고 보호해준 부모가 장애 시기의 조력자로 등장하는데 이는 장애 시기 김원은 이동이 불가능하기에 여타 영웅소설처럼 주인공의 공간 이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금우태자에겐 목숨의 위기가 닥칠 때마다 하늘의 섭리가 개입해 그의 목숨을 살리거나 그의 삶을 구완할 수 있도록 돕는 존재를 안배해준다.

이러한 서사적 특성은 연약하고 힘없는 존재인 주인공을 돌보고 구완하고 살리는 인물들을 통해 장애인들의 실제적 삶의 구완과 모습을 보여주는 지점이기도 하다. 앞서 여성 장애인물과 마찬가지로 서사 내 누군가는 그를 멸시하거나 배제하거나 축출하려 하지만 한편에서는 그를 구완하고 돌보고 돕는 인물이 등장해 그의 삶을 함께 견뎌주고 이끌어주는 것이다. 고전소설의 이러한 서사의 면면은 사회적 약자를 대하는 다양한 시선과 태도를 보여주는 동시에 공동체의 연대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보여주는 지점이라 할 수 있다.

(2) 신체 장애 : 맹인, 앓은뱅이, 성(性) 불구

남성 장애인물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신체의 한 부분에 결손이 있거나 기능적 장애를 가진 신체적 장애이다. 이는 다시 맹인, 앓은뱅이, 성(性) 불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한후룡전>의 후룡과 <심청전>의 심봉사, <적성의전>의 적성의는 맹인이고 <한후룡전>의 허영은 앓은뱅이이다. <유화기연>의 유춘은 성기의 분별이 없이 태어난 성 불구 장애인이다. 그리고 이 중 <한후룡전>의 후

룡과 허영, <유화기연>의 유춘, 경판계 <심청전>의 심봉사의 장애는 전생 죄업에 대한 징벌로 형상화된다. 그 구체적 내용을 살피면 다음과 같다.

가. 전생 죄에 대한 응보로서의 신체 장애

각 작품 속 인물의 장애 이유를 밝히는 대목을 살피면 다음과 같다.

㉞ 상지 말오스디 이제 경등의 죄를 다 스흐였는고로 다시 구작을 궤복흐나니 직심보중흐라 흐시거늘 후룡이 다시 니러 복지주왈 소신 등의 죄 천스유경이옵 거늘 이제 폐히 관전을 드리오스 궤흐의 죄를 다 스흐시니⁸⁸⁾

㉟ 상제의 주달흐여 귀즈를 지시흐나니 이는 텃상티을션으로 요지연회시의 옥익을 디취흐고 티음션져로 희롱흔 죄와 쇼변을 싹 좌석을 더러닌 죄로 상제 노흐스 병인으로 인간의 적강흐라 흐시기로…잘 길너 녁해 무궁홀거시오 병신은 죽 연 면흐리니 처음은 셔위흐나 장성흐면 공명부귀 일세의 빛나리라 흐시고…⁸⁹⁾

㊱ 농왕이 미소 왈 너는 전싱 초간왕의 귀녀로서 요지 왕모연의 술를 가음 알게 흐였더니 네 노군성과 스정이 이셔셔 술를 만히 먹이고 잔치의 술이 부족흐믹 도술턴이 옥테기 청죄흐딤 옥테 진노흐스 곶아스디 이는 텃존의 죄 아니라 술

88) 김기동 편, 『필사본고전소설전집』 21. 아세아문화사, 1983, 영인본 내에 수록된 필사본 「한후룡전」을 대상으로 삼는다. 본문 인용 시 임의로 띄어쓰기를 하여 인용한다. 「한후룡전」은 국문 필사본 1종, 국문 활자본 1종이 발견되었는데, 두 이본의 공통된 내용을 많이 담고 있는 이본은 서울대 필사본으로 활자본은 필사본의 장황한 묘사가 반복되는 사건을 일부 삭제하고 주인공의 영웅성 증명에 초점을 맞춘 구성을 보인다. 김미리, <한후룡전 연구>, 한국교육대학교원 국어교육과 석사, 2001. 7쪽 참조.

89) 이윤석, 김경미 교주, 『유화기연:숙녀지기』, 경인문화사, 2009. 본고에서는 동양문고 소장 필사본이 영인된 <유화기연>을 대상으로 삼는다. <유화기연>의 이본에는 필사본인 동양문고본(1905, 1909)과 활자본인 1918년 대창서원·보급서관 간행 『유화기몽(柳花奇夢)』이 있다. 활자본은 필사본과 내용 및 분량에서 큰 차이가 없이 필사본 말미 첨부된 첨기가 생략된 상태이다.

가음 으는 시녀의 죄니 즈셔히 스실혀여 동죄를 듀라 하시미 노군성을 인간의
 너쳐 스십 년을 무폐히 지너다가 널노 더부러 부네되여 네 성효를 낫트너라 하
 시미 노군성은 심현이 되여 인간의 적강흔 지 스십 년만의 널노 그 쫘이 되여
 텃상의셔 술 도적혀여 먹은터로 식신을 점지치 아니혀여 십삼 년을 비러 먹게
 하고 쫘 눈을 멀게 하며 규성의 비러먹이는 거슬 바다 텃상 과보를 밧게 정혀여
 계시니 전싱 보응과 금싱 고락이 다 텃정흔 쉬느90)

㉞는 <한후룡전>의 후룡과 허영 ㉟는 <유화기연>의 유춘 ㊱는 경판계 <심청전>의
 심봉사가 현세에 왜 장애 있는 몸이 되어 살아야 했는지 서술해 주는 대목이다.

이들은 모두 천상 혹은 전생의 죄에 대한 벌이 이승 혹은 현생의 장애로 발현된
 인물들이다. 근대적 의술이 발달하지 못한 이전 시기, 장애의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
 한 나름의 해답은 그것이 전생의 죄업에 대한 응보와 하늘의 섭리라는 것이었다.

고전 서사에 나타나는 이러한 장애의 이유 찾기 방식은 현실에 실재하는 장애인들
 을 떠올릴 때 무척 위험하고 폭력적인 발상이다. 장애가 죄의 결과라는 불교적 응보
 론은 자칫 현실에서 장애인을 죄인으로 취급하는 태도를 당연시하는 담론을 자연스
 례 형성하게 하는 근거가 된다. 이 작품들에서 장애인을 둘러싼 주변인들이 비소하
 고 침을 뱉고, 온전한 인간이 아닌 것으로 취급하고 박대하고 은폐하는 모든 행위를
 그래도 되는 것으로 만드는 최초의 원동력은 장애인의 장애는 죄의 결과라는 프레임
 에서부터 시작된다. 예를 들어 <박씨전>에 나타난 사회적 활동을 막을 정도의 추한

90) 김진영 외, 『심청전 전집』 3, 경판 24장, 박이정, 1998. 심청 서사는 크게 완판계와 경판계로 나뉘는데, 본고에서는 기존의 논의를 바탕으로 각 계통의 선본(善本)으로 거론되는 경판 24장본(전집 3권)과 완판 71장본(전집 3권)을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 심봉사의 안맹이 전생의 과업에 대한 응보로 서술되는 것은 경판에만 삽입된 대목이며, 경판에 비해 현실적 성격이 강한 완판에서는 전생 및 적강 모티브가 나타나지 않는다. 성현경은 문장체 경판 24장본은 심청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로 판소리적 특성이 강한 완판 71장본은 심학규를 중심으로 한 <심학규전>이라 해도 무방하다고 보기도 했다(성현경, 『한국옛소설론』, 새문사, 1995, 271-319쪽). 장석규도 심청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와 심봉사를 중심으로 한 이야기로 분석할 수 있다며 완판 71장본의 경우, 개안 이후의 후일담과 황후의 부친이 된 심봉사의 부귀영화를 이야기하는 결말을 후술하는 데에 주력하는 점을 그거로 들었다.(장석규, 『심청전의 구조와 의미』, 박이정, 1998, 21-24쪽).

외모가 사실은 그의 이전 죄업의 대가라는 발상은 그 장애를 대하는 사회적 태도 및 폭력성의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오히려 장애를 가진 이가 죄인이기에 감내해야 하는 당연한 것으로 강요하는 근거로 작용한다.

일반적으로 한국의 고전 서사는 전 공동체의 화합과 권선징악적 지향을 특징으로 한다. 그러나 그 결말에 등장하는 행복한 주인공과 주변인들 가운데 장애인의 형상이나 특징을 지닌 존재는 등장하지 않는다. 죄의 결과로서의 장애라는 인식은 행복하고 온전한 그림에 포함될 수 없기 때문이다. <심청전>에서 심청의 효와 자식을 보고 싶은 아버지의 강한 열망에 감복한 하늘의 기적으로 심봉사가 개안할 때, 그 자리에 있던 모든 봉사들이 함께 개안하며 광명의 기적을 경험하고 감격하지만, 뺨덕어미와 도망간 황봉사만 개안하지 못하는 서사는 장애가 죄에 대한 징벌이라는 서사적 의미를 강화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장애에 대한 배제와 차별의 암묵적 내재화는 장애를 대하는 주변인의 태도에 사회문화적으로 영향을 주고 동시에 그 이야기를 공유하고 전하는 과정에서 서사문화적으로 더욱 공고히 강화된다.

이러한 인식과 태도의 내재화는 현재 우리 문화와 언어적 습관에도 남아있다. 평상시 생활하면서 무언가 불행한 일을 겪거나 만나게 되면 자연스레 이게 다 내 전생의 죄 때문이라고 말하는 상황을 종종 대면하는데, 인간의 힘으로 어찌지 못하는 상황을 불행과 불운에 기대어 이해하려는 태도는 개인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장애에도 적용되는 서사적 진술과 자연스레 상응한다.

㉞ 후룡의 나히 십삼세의 니르러 즈뫓 지각이 쾌히 잇는지라 그 안즌병신을 츠즈보고 곶오되 우리 양인이 전칭의 죄악이 심중하여 말질의 병신이 되엿는지라⁹¹⁾

91) <한후룡전> 권지일 8면.

㉔ 너 무슨 죄옥으로 병인이 되어 나서 부모가 불효되고 조선형화 너게 와 끈칠 뿐 아니라 저런 절세 ㄹ인으로 규리의 늑모르는 서툼을 끼치게 하며⁹²⁾

㉕는 맹인인 후룡이 옆집의 앓은뱅이 허영에게 함께 가출할 것을 설득하는 부분에 나타난 발화이고 ㉔는 남녀분별없이 태어나 남성으로 자란 유춘이 이를 숨기고 혼인할 때 스스로 자탄하며 하는 말이다.

두 인물 모두 태몽을 통해 전생의 죄로 인해 병인으로 태어나 그 업보가 다 끝난 후에 귀하게 될 것이라는 예지를 받았지만 그럼에도 두 인물 모두 인생 초반의 스스로의 장애에 대한 시선에선 후일에 대한 기약이나 희망은 없고, 현재의 장애로 인해 겪는 괴로움과 자탄만이 존재한다. 태몽은 서사 전체적으로 주인공이 결국 완인(完人)이 되고 행복한 결말을 맞이할 것이라는 복선이지만, 실제 서사 전개에서 주인공들이 이를 의식하고 있는 지점은 드러나지 않을 뿐 아니라 부모 역시 자기 자식의 태몽을 인지하면서도 이에 대한 확신은 가지지 못하고 자식의 장애를 한스러워하는 모습만이 주로 부각된다.

결국 자신의 처지와 부모의 한탄을 견디지 못하고 후룡은 가출하여 거리에서 굶어 죽는 것이 집에서 부모의 근심이 되어 불효하는 것보다 낫다고 믿고 이를 실행에 옮긴다. 이때 후룡의 모친은 마지못해 자식의 출가를 허락한다.

반면 유춘의 장애는 타인이 눈치채기 힘든 장애이기에 부모가 이를 숨기고 키우는 것이 용이했다. 이에 유춘은 후룡과 달리 부모의 귀애와 보살핌을 받고 무사히 자라난다. 그래서 유춘의 장애는 그가 장성한 후 구혼과 혼인이라는 서사가 전개되어서야 주된 갈등 요소로 부각한다. 유춘과 부모는 무의식적으로 그 장애를 무시하며 비장애인에 자아를 의탁하며 살아왔지만 장애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인 혼인과 초야 앞에서는 인물들의 이러한 소극적 대응이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결국 자식의 장애를 밝히기 싫어서 혼인을 거부하지 않고 자신도 확신하지 못하는 예언으로

92) <유화기연> 권지일 31면.

합리화하며 자식을 혼인시킨 부친 유처사의 잘못과 그런 부모의 혼인 사기를 암묵적으로 동의한 유춘의 행위는 그가 온갖 비난을 받고 처가에서 쫓겨나는 처지로 전락하는 사건을 유발한다.

이를 보면 후룡과 유춘은 모두 선천적 신체 장애인이지만, 그 장애가 타인의 시선에 노출되는가에 따라 부모가 자식을 대하는 방식에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유춘의 부모는 오래도록 기다린 자식을 낳았지만 하필 음양을 모르는 병인(病人)을 낳았음을 알고 출생 직전 선녀의 당부에도 불구하고 당장은 ‘슬프고 애달픈’ 마음이 앞선다. 하지만 자랄수록 드러나는 아름다운 용모와 영특함에 처사가 ‘애중하며 너무 숙성(夙成)함을 우려’하는 것은 사랑하는 자식의 불구 상태가 드러날까 걱정스럽기 때문이다.⁹³⁾ 유춘은 뛰어난 재주와 용모에도 외롭게 성장하는데⁹⁴⁾ 이런 자식의 우울함을 걱정한 처사가 유춘을 사찰에 보내 마음이 좋아지면 신기(身氣)도 열릴 수 있다고 제안하고 이를 들은 처사 부인은 아들을 ‘일시(一時)를 못 보면 삼추(三秋)거늘 오래 멀리 보내고 어찌 견딜’지 걱정하면서도 자식을 위해 유춘을 사찰로 보내 수양하도록 한다. 유춘의 성장은 부모에게는 기쁨이면서 동시에 걱정도 같이 커지는 이유이다. 남성이 15세에 이르면 소설의 시대에는 혼인 이야기가 나올 시점이고, 유춘 본인 역시 성장할수록 자신의 성 불구로 인한 근심과 우울이 더할 수밖에 없다. 유춘의 나이가 찰수록 이를 더이상 숨기기가 힘들어지니 자연스레 소설의 서사는 유춘의 우울함을 이유로 삼아 그가 출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리고 이 출가로 말미암아 결국 유춘은 병부상서 화영의 눈에 띄어 그 집 사위가 된다. 그러므로 유춘의 출가는 유춘의 인생의 전환점으로 작용한다. 다만 이 전환점 역시 부친이 아들의 장애를 남에게 발설하기 싫은 마음으로 허훈한 것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니 유춘의 부친은 자식을 사랑하는 것과 별개로 자식의 장애를 겉으로 드러내기를 꺼리고 그로 인해 타인을 속이기를 택하는 양가적인 부모의 마음을 보여주는 인물이라 할 수 있

93) 처사가 인중하며 너모 숙성함을 오히려 우려하더라(<유화기연> 22쪽, 권지일 11면)

94) 홀로 서당에서 독서하니 무료하기 심하여 울울허거늘(<유화기연> 23쪽, 권지일 12면)

다.

박대와 은폐, 그 무엇도 진정 올바른 방식으로 장애를 대하는 방식이라 할 수 없다. 장애가 있는 몸은 잘못되었는가. 장애를 드러내는 것이 왜 문제인가. 후룡의 부모가 보여주는 자식의 장애로 인해 겪는 번거로운 돌봄의 무게라는 서사적 근거는 장애로 상징화된 약자에 대한 공동체의 태도를 짐작케 하며, 장애를 은폐하는 유춘의 부모는 한 가지로 규정된 완인(完人)의 형체에서 벗어난 존재에 대한 왜곡된 시선을 보여준다. 자식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회피하고 은폐하는 것은 부모로서의 진정한 사랑이라 할 수 없다. 오히려 이것은 무언의 폭력으로 그 자식의 존재를 부정하는 행위이다.

또한 이 작품들에서, 주인공은 이러한 괴로운 내적, 외적 심리적 갈등을 겪은 후 결국 그 장애 때문에 자의든 타의든 가정에서 나가거나 내쫓기게 된다. 이러한 서사는 장애인을 가정으로 상징되는 사회 및 공동체에서 축출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요소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동일하다. 그 이유가 서사 전면에서 부모께 근심이 되는 불효를 행할 수 없다거나 사기 결혼을 당한 피해 당사자의 분노라는 이유가 제시된다 해도 결국 장애인의 집단으로부터의 축출이 일어나는 것은 분명하다. 게다가 이 이유들은 장애인의 축출의 당위성을 변론하여 그 폭력성을 위장하고 은폐하려 하는 시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서사 전개는 장애인의 장애가 그를 집단으로부터 축출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당위적 시선을 대중들에게 내재화하고 형성한다. 심지어 이 작품들은 당대 대중이 소비하던 대중 서사 문학이었기에 이야기가 가치관을 형성하고 내재화하는 힘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나. 돌봄과 여성의 고난 전이

고전소설 속 가장 눈에 띄는 장애인은 단연코 <심청전>⁹⁵⁾의 심봉사이다. <심청전>

95) 심청 서사를 지닌 작품군은 통칭 <심청전>이라 칭한다. 서사 분석을 위해 본고에서 활용한 이본들은 『심청전 전집』 1-12 (김진영 외, 박이정, 1998-2004)에 수록된 이본을 대상으로 한

의 이본 계열은 경판과 완판계가 확연히 다른 서사 전개를 보여주는데 특히 심봉사의 인물 형상화에서 그 차이가 두드러진다.

완판계의 심봉사는 장애인이지만 자식에 대한 지극한 애정으로 양반 남성의 체면에도 구걸을 해 딸을 정성으로 키워낸다. 그래서 완판본에서 심청의 지극한 효성은 심봉사의 자식 구완에 대한 보은의 의미도 가진다. 이와 달리 경판본에서 심봉사는 부인 사망 후 극도의 슬픔으로 인해 눈이 먼 인물로 가정의 가난과 돌보는 여성의 부재가 함께 일어나는 서사적 진행을 보인다. 완판과 달리 경판계 〈심청전〉에서 돌봄과 고난이 여성 주체로 전이되고 이입되는 서사가 강화되어 심청의 희생과 효성을 강조하는 서사적 진행이 강화된다.

이러한 계통 간 서사 차이에서 동일한 장애를 가졌다 하더라도 자신의 장애를 대하는 장애 당사자의 태도에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부인의 사망에 절망하고 슬퍼하는 것은 두 계통의 심봉사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지점이지만 부인 사망 후 가정과 자식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행동하는 인물은 완판계의 심봉사에게서만 나타난다. 이러한 형상화는 이후 맹인 잔치를 위해 상경하는 대목에서도 경판계의 심봉사의 상경 대목에는 없지만 완판계에서는 방아 찧기를 통한 밥벌이 등이 등장하여 생계를 꾸려나가는 장애인의 면모를 보여주는 차이가 나타나 동일 작품군에서도 장애를 바라보는 언중의 시선과 형상화 방식이 다름을 확인할 수 있다.

심봉사의 장애 시기와 이유도 두 계통이 다르게 나타난다. 경판은 심청을 주인공으로 한 효행담이 중심 서사를 이루며 심현이 공명에 뜻 없이 살다가 부인의 죽음 이후 극심한 사별의 슬픔과 가세가 기우는 상황을 겪으며 질병이 심해진 결과 안맹한 것으로 나온다면, 완판본의 심학규는 누대 명문거족이었으나 가운의 불행으로 삼십 전에 눈이 멀고, 이미 안맹한 상태에서 부인이 심청을 잉태한 것으로 나온다.

〈심청전〉속 심봉사의 장애는 그의 무능력과 약함을 상징하는 장치이기도 하다. 가부장제에서 무능력한 남편을 돌보며 헌신하던 아내는 가문의 존속을 위한 자식의

다. 또한 경판은 경판 23장본을, 완판은 완판 71장본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한다.

출생으로 임무를 완수하고 자신의 역할을 갖 태어난 딸인 심청에게 넘기고 죽는다. <심청전> 속 심봉사 가문의 여성들은 모두 가문과 심봉사를 위해 존재하는 인물들이다.

무능력과 가난 그리고 여성의 돌봄, 장애인인 심봉사와 연관된 이 서사는 조선 시대 장애인 가정의 모습의 실제적 재현이라 해도 무방할 것이다. 맹인들이 점복사나 독경사로 활동하며 다른 장애인들에 비해 부를 축적하거나 사회적 지위를 획득하여 가정을 이루고 안정적으로 살아간 경우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대다수의 맹인을 비롯한 장애인들은 비장애인들에 비해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거나 직업을 가지는 것이 쉽지 않았고 그로인해 가난한 형편인 경우가 많았다.⁹⁶⁾

그러므로 <심청전>에서 맹인인 심봉사가 부인 부재 시 가난한 형편에 처하는 서사가 계통을 막론하고 공통적으로 나타난 상황은 실제 조선의 장애인들이 처한 현실적 상황의 재현으로 봐도 무방할 것이다.

특히 선천적 신체 장애인인 후룡, 허영, 유춘 등과 기형의 형태로 태어나 성장을 거듭한 김원과 같은 존재는 부모와 주변인의 돌봄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한 존재이다.

<한후룡전>에서 후룡의 부모는 자식이 없어 근심하던 중 후룡 모친이 꿈에 노승으로부터 귀한 보물이라며 ‘깨진 기와’를 선물 받지만 이를 하찮게 여겨 땅에 버리고 돌아오는 꿈을 꾸 후 아들 후룡을 낳았다.

㉔ 몽중에 뵈던 중이 상운을 응위하여 공중의 내려 압히 일으러 그 기와를 더지 더니 정신이 즈연 혼미중의 회복하여시니 그 기와 변하여 으히 된가흐느니라 싱이 더희하여 곶오되 이는 하늘이 쥬신비라. 엇지 깃부지 아니리요 ... 문득 보니 양안이 희고 동주 분명치 아니커늘 부뵈 것거하는 중 2장 고이히 녀이더니 으히 점점 즈라 더인하여 텃디를 보지 못하고 멍목 병신이 되니 부뵈 그 형상

96) 김난주, 「문화전통의 계승과 시각장애인 직업재활 측면에서 본 맹인 점복업」, 『장애와 교육』 19,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2009, 41쪽.

을 가금이 녀이며 신세를 슬허히더라⁹⁷⁾

㉞ 후룡이 점〃 즈라되 뒤소변을 임의로 못보고 미양 부뎨 닛그러 후정의 출입
히니 일변 불상이녀이며 일변 괴로이 녀이를 마지 아니히더라⁹⁸⁾

후룡은 부부가 늦게야 얻은 귀한 아들이다. 출생 전 태몽을 통해 귀한 아이라는 예지도 받았다. 하지만 태몽 속 ‘깨진 기와’는 불길한 암시를 던지는 바 실제 태어난 아이는 앞을 보지 못하는 맹목병신이다. 집안의 대를 이룰 귀한 아들이 장님이라는 것에 놀라면서도 부부는 아이의 신세를 가련히 여기고 슬퍼한다. 그리고 아이가 성장함에 따라 가련함과 함께 돌보는 사람으로서의 괴로움도 함께 생겨난다.

부모가 후룡의 장애를 깨닫고 나서 ‘그 형상을 가금이 녀이며 신세를 슬허히더라’는 서술은 부모 자신의 신세가 아닌 장애인으로 살아가야 할 자식의 신세를 미리 걱정하고 염려하는 부모의 마음이다. 그러나 이런 부모도 자식이 성장하면서 불쌍하여 마음이 아프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식을 구완하고 돌보는 이 상황이 괴롭기도 하다. 이러한 후룡 부모의 마음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가질 수 있는 마음일 것이다. 자식으로 사랑하는 것과 별개로 장애인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장애인을 돌보는 가정이 가지는 괴로움은 단순한 병자를 돌보는 것과는 다른 고통을 수반하기도 한다.

후룡의 부뎨 듯고 탄식 왈 그 으히는 오히려 녀집 으히보다 낫도다 그으히는 비록 안즌병신이나 양안을 보미 안즈셔 가스를 보슬필망정 부모기 괴로오른 별노 업거니와 우리 으히는 쓸곳이 전혀 업다 히고 미양 슬허히더라⁹⁹⁾

97) <한후룡전> 권지일 4-6면, 김기동 편, 『필사본고전소설전집 21:한후룡전』, 아세아문화사, 1983. 인용한 본문의 띄어쓰기는 필자가 임의로 한 것이다. 이후 본문 인용은 작품명과 면수만 표기한다.

98) <한후룡전> 권지일 7-8면.

99) <한후룡전> 권지일 6-7면.

이 장면은 후룡의 부모가 앓은뱅이로서 적어도 앓아 집 지키기라도 하는 허영이 자신들의 장남 자식인 후룡보다 낫다는 한탄을 표현하는 장면이다. 이것을 단순히 쓸모의 문제로 다룰 수도 있지만, 이 서술에서는 병자와 장애인의 차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질병을 앓는 병자는 병이 나으면 정상의 생활을 영위하고 사회에서 제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병이 나으면 사회적 완인(完人)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신체적 장애는 질병과 달리 완인의 가능성이 전무하다. 외과적 치료나 보조가 불가능에 가까운 소설 속 시대에서 장애는 나올 가망성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에 장애를 가진 가족, 그것도 자식은 부모에게 당연히 근심과 걱정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 신체적 장애를 가진 자식이 성장하여 성년에 가까워질수록 부모의 근심은 더해지기만 한다. 이는 자식의 장래와 인간 구실에 대한 걱정도 있지만 갈수록 돌봄의 괴로움과 무게가 더해지며 힘겨워지기 때문이다. 서사 내에서 후룡이 자랄수록 돌봄의 괴로움이 가중되는 것을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문제인 배뇨로써 다루는 것도 장성한 장애인을 다루는 것이 단순히 의식주를 제공하는 것 이상의 다양하고 복잡하면서 겉으로 일일이 말할 수 없는 문제를 직면하는 일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제시하는 단락이라 할 수 있다.

더불어 돌봄의 괴로움 외에도 〈한후룡전〉에는 장애인 자식을 키우는 부모의 마음도 드러난다. 위 인용문에서 후룡의 부모의 탄식 중 다른 집 앓은뱅이 자식과 비교하여 ‘양안을 보미 … 부모기 괴로오른 별노 업거니와 우리 ㅇ히는 쓸곳이 전혀업다 호고 미양 슬허’한다. 자식의 성장이 부모에게 괴로운 것은 돌봄의 문제뿐 아니라 그가 제대로 사람 구실을 할 수 있을가에 대한 걱정도 한몫을 한다. 앓은뱅이는 눈이 멀쨍해 그 눈으로 사물을 살펴볼 수나 있지만 우리 아이는 부모 없이는 대소변도 홀로 처리할 수 없는 상태이다. 이런 자식의 삶에 대한 걱정은 슬픔으로 표현되고 이러한 발화를 곁에서 들으며 자란 자식인 후룡은 결국 부모에게 근심과 슬픔만 드

릴 바에야 집을 나가 죽더라도 부모 곁에서 자신이 보이지 않는 것이 낫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앞으로 변하지 않거나 혹은 더해질 괴로운 상황을 매순간 목도하는 삶의 고통이 어떠한지 짐작하기는 힘들다. 답답하고 막막한 심정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는 상황에서 어린 자식의 출가 의사를 들은 모친 윤씨는 처음에는 말도 안된다고 하며 허락하지 않지만 후룡의 강한 출가 의지 앞에서 ‘마지못하여 눈물을 지고’ 아들을 보낸다.

그리고 집안에서 자식을 구완하고 돌보는 여성이 돌봄을 포기할 때 아버지인 남성은 집 밖에 있다가 등장해 모친 어미인 여성을 질책한다.

츠시 한성이 벗과 주효를 출여가지고 유산갓다가 도라와보니 후룡이 업는지라 부인더러 무른듯 부인이 덕왈 건넌집 허영하고 거처업시 비러먹어 나갓다 허거늘 한성이 덕경왈 부인이 박정허미 엇지 이의 이르뇨 즉시 흥니를 슈습허여 후룡을 츠즈갈시 스변팔방으로 츠진들 엇지 츠즈리요 혈일 업셔 도라와 부인을 덕하여 왈 부인은 엇지 전일 몽스를 상각지 못허시뇨 기왜 썩여시문 그 병신을 표허미요 허복시의 셔귀 신이허믄 비록 병신이나 너두의 반디시 귀히 될지라¹⁰⁰⁾

위 대목은 <한후룡전>에서 귀가한 후룡의 부친이 후룡이 모친 허락 하에 출가한 것을 알고, 부인의 부덕함을 비난하는 대목이다.

집안에 부인과 혼자서는 거동이 불가능한 아들을 두고 남편이자 아버지인 한생은 벗과 외유를 나갔다 돌아온다. 후룡은 장님으로 홀로 거동을 할 수 없어 ‘점점 즈라덕 소변을 임의로 못보고 막양 부피 닛그려 후정의 출입’하는 지경인 아이인데 부친인 한생은 이런 자식의 돌봄을 부인에게 위임하고 자신은 한가로이 친구와 외유를 즐긴 것이다. 이는 자식의 출생과 양육의 의무뿐 아니라 돌봄마저 여성인 모성에게 위임하는 당대 고정적인 성 역할에서 기인한 행동일 것이다. 여기서 그 당대적 관점으로

100) <한후룡전> 권지일 11-12면.

우리가 아닌 행보라는 점을 문제 삼아야 한다. 게다가 한생은 자신의 부재 시 부인이 한 후룡의 행보에 대한 결정에 대해 그의 인격적 결함과 생각 짧음을 들어 비난하며 그로 인해 닥칠 양화를 걱정한다. 이러한 그의 발화와 행동은 이미 자식을 죽을 길로 몰았다는 죄책감을 가진 후룡의 모친이 이후 이로 인한 재앙의 원인조차 자신의 부덕으로 돌리도록 만든다.

돌보지 않으면서 돌본 이의 결함과 실수를 비난하고, 그로 인해 벌어질 불행마저 돌봄의 주체였던 여성에게 책임 지우는 남성이자 가장의 모습은 당대 가족 내 장애인을 포함한 병인의 돌봄의 책무가 누구에게 주어졌는지, 여성이 어떤 돌봄의 의무라는 틀에 얽매어 고통받았는지 보여주는 서사라 할 수 있다.

장애인 가족을 돌보는 고됨과 장애에 대한 한탄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작품은 〈심청전〉이다. 경판본 〈심청전〉의 심현은 부인 사후, 가세를 점점 탕진하고, 질병을 얻어 누운데다 안질까지 걸려 장님이 된 인물¹⁰¹⁾이다. 부인의 죽음 이후 슬픔으로 인해 와병하여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여 가난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과 이후 안맹하여 지척을 분변치 못하는 서사적 전개는 경판본의 심현이 완판본과 달리 부친으로서 심청을 구완하는 서사가 없어 이후 심청의 효 서사를 더욱 강화한 전개라 할 것이다.

안맹한 심봉사는 가산을 돌볼 수 없었고 이미 있는 가산을 쓰고 살 수밖에 없다. 완판에서는 이에 심봉사가 어린 심청의 젖동냥부터 아이가 자라는 동안 구걸로 집안의 생활을 연명해나갔다면 경판에서는 심청 나이 3세에 모친이 사망하고 가산을 헐어가며 살다보니 어느새 심청이 부친을 봉양할 수 있을 만큼 성장하게 되는 서사로 전개된다. 완판의 심학규는 그의 삶을 지지해주던 아내를 잃은 슬픔에도 자식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과 책임감으로 양반 체면을 버리며 어린 심청을 키우고 돌본다. 이

101) 정시 홀연 득병하여 맞춥니 세상을 버리니 공이 크게 비도하여 네를 갖초와 안장하고 녀의를 품고 듀야 슬허허이 청이 쏘흔 모친을 부르지져 호읍허니 그 부녀 정경을 참으 보지 못홀너라 공의 가세 점점 탕진허며 질병이 침면허여 상석을 찌누지 못허는 등 쏘 안질롤 어더 슈월이 못허여 지척을 분변치 못허미 심계 더욱 망측허여 약간 가산을 진미허여 조석을 이으니 괴식이 엄엄흔지라. <경판 심청전>

러한 장애인 남성과 어린아이의 삶은 공동체의 연민과 돌봄의 시선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는 마을 아낙네들의 언제든 젖을 얻으러 오라는 발화와 맹인 아버지와 어린 딸이 먹을 양식을 나눠주는 돌봄과 자비의 태도로 나타난다.

어린 심청이 자라나 구걸로 부친의 조식을 공양하는 서사는 <심청전> 계통의 공통 서사로 나타나는 심청의 지극한 효성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어린 심청을 불쌍히 여긴 마을 공동체가 밥 주기를 아까워하지 않으니 심봉사는 가족과 마을 사람들의 돌봄 아래 생계를 유지하는 인물이다.

완판과 경판 모두 심봉사는 공명(功名)에 뜻 없이 살았다고 기술되는데 이것은 그가 유교 사회가 요구하는 남성의 역할에서 먼 인물이라는 특성을 형상화한 것이다.¹⁰²⁾ 그의 안맹은 그를 둘러싼 현실의 악화에서도 가부장인 그가 받을 수 있는 사회적 비난을 면제받게 해주는 요소이다.¹⁰³⁾ 본래 돌봄의 주체여야 하지만 안맹으로 돌봄의 대상이 된 심봉사와 본래 돌봄의 대상이어야 했으나 돌봄의 주체가 된 심청의 뒤바뀐 역할 관계는 바로 심봉사라는 인물이 가진 당대 고정적 사대부와 가장의 역할의 전복성에서 기인한다.

또한 이 돌봄의 역전은 심봉사의 고난인 장애가 심청에게도 전이되어 심청이 심봉사와 함께 그 고난과 극복을 함께 감당하는 역할을 수행토록 한다. 심청의 돌봄은 아비뿐 아니라 생계 전반에 걸쳐 있어, 당대 여성이 가진 삶의 고통을 그대로 투영한 것이기도 하다.

심청이 이 날부텨 밥 빌너 나설 제 원산의 히 비치고 압마을 연기 나면 현 빅
중의 단임 치고 말만 나문 뵈초뵈 압섭 업난 접져고리 이령저령 얼메고 청목 휘

102) 이와 관련하여 심봉사를 안맹으로 조선시대 지배집단의 헤게모니적 남성성에서 떨어져 주변화된 남성의 삶을 살아갔지만 온전한 남성 젠더의 형상을 충족하기 위해 움직이는 인물로 보고, 그 결과 조선 후기 양반과 평민에게 요구되던 남성성의 기준이 혼합된 상태가 구현된 인물로 심봉사를 보기도 한다. 이재은, 「<심청전> 속 심봉사의 남성 젠더 실천 양상과 그 의미」, 『구비문학연구』 53, 한국구비문학학회, 2019.

103) 윤인선, 「심봉사의 안맹과 전환 장애」, 『한국융합학회논문지』 v.8 no.4, 한국융합학회, 2017, 287-295쪽.

양 돌너 쓰고 보션 업시 밧을 벗고 뒤척 업난 신을 끌고 현 박아지 엽푸 씨고 단지 늦근 밧여 손의 들고 엄동설흔 모진 날의 치운 조를 모르고 이 집 저 집 문압문압 드러가셔 익근이 비난 말리 ... 이러타시 공양흐며 춘하추동 사시절 업시 동너 걸인 되야더니 ... 직질이 민첩흐고 침선이 능난흐니 동너 바누질을 공밥 먹지 안이흐고 싹을 주면 바다 뒜와 부친 의복 찬수흐고 일 업난 날은 밧을 비러 근근이 연명흐여 가니¹⁰⁴⁾

인용한 대목은 완판본 <심청전>에서 장애인 가족을 돌보는 가장 역할 수행을 자처한 심청의 고단한 삶을 서술한 부분¹⁰⁵⁾이다. 어린 심청이 엄동설한에 낡은 의복으로 동냥을 나가는 처량함과 성장 후 샅바느질로 부친을 봉양하는 장면은 가족의 장애와 가난이라는 이중고를 겪는 심청의 삶의 고단함을 강조하고 이를 통해 심청의 효행을 드러내는 구실을 한다. 가정 살림을 책임질 뿐 아니라 가족 구성원이자 장애인의 돌봄 의무마저 여성인 심청이 지게 되는 이러한 서사는 선한 의지의 돌봄과 효 이데올로기로 포장된, 개인에게 강요되는 억압이라 할 수 있다.

심청이 개인이 아닌 효녀로서 전형적 인물이라는 점은 부친의 소망-개안(開眼)이 곧 그녀 자신의 일생의 소망으로 치환되는 것에서도 드러난다. 이러한 심청의 형상은 당대 여성 독자들에게 교육적 의미로 작용하여 효녀·효부 형상을 내재화하는 데 기여했을 것이다.

한편 부모를 돌보고 치유하려던 효자가 악인에 의해 후천적 맹인이 되는 서사도 있으니 <적성의전>¹⁰⁶⁾이 그것이다. 여성인 심청이 죽음을 통해서 가능했던 돌봄과

104) <심청전> 완판 71장본

105) 이는 경판과 달리 완판의 심학규가 안맹 후에도 자식을 살리기 위해 애쓰는 부정(父情)이 드러나는 장면이 앞서 서술된 것과 대응되는 서사 전략이기도 하다. 심학규의 돌봄이 확보된 만큼 심청의 효성을 드러내는 서사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106) 인천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구활자본 고소설전집』 31:『적성의전』, 은하출판사, 1984. <적성의전>의 이본은 방각본 11본, 구활자본 5종, 필사본 16종인데, 이중 방각본은 완판 3종, 경판 6종, 안성판 2종이 전한다. 완판본은 모두 상하 합권 1책 74장이다. 완판본은 필사본의 저본이 된다. 경판본은 23장본만 공개되었고 이들은 이후 구활자본의 저본이 된다. 본고는 경판 23장본을 대상으로 본문을 인용한다.

구완의 의무에서의 탈출이 성의는 자신의 육체적 장애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장애의 성격이 달라진다. 효녀인 심청이 부친의 안맹을 치유하기 위해 자신의 죽음을 대가로 내놓는다면 적성의 역시 목숨을 걸고 부모의 치료약을 구한 후, 불의의 기습으로 시각 장애인이 되어 바다로 버려진다.

심청의 인당수 인신공희와 적성의의 안맹과 바다 표류는 모두 부모의 장애 혹은 질병 치유를 위한 자기희생의 결과이다. 다만 이 희생으로 여성인 심청은 현실적 죽음과 재생을 통한 고난 극복의 서사가 전개된다면 적성의는 가정 내에서 그에게 부여한 역할에서 벗어나 넓은 세계로 진출해 자신의 삶을 살게 되는 서사로 전개된다. 또한 영웅소설에서 주인공이 겪는 기아와 조력자 도움, 고난을 유발하는 사건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의 장애는 여성 주인공이자 성의의 치유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채란 공주와 유교의 남녀유별의 관습을 뛰어넘어 인간적 교류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서사적 장치로 작용해 남녀 주인공의 만남과 결혼에 결정적 역할을 수행한다.

㉞ 성의는 주야로 불탈의대하고 탕약을 맛보아 봉양하며 하늘의 축슈하여 불초자 성의로 덕명하고 모후의 병을 낫게하여 주옵쇼셔 ... 쇼직 비록 년쇼호오나 셔천의 가서 일녕쥬를 어더올가 호느이다 왕 왈 너 아희 성호 지극호나 셔역은 하늘 가히라 만리창파의 엇지 인간으로 득달하며, 약수를 엇지 건너리오!...107)

㉟ 성의 형의 불인지심을 모르고 일녕쥬를 주며 모후의 환세를 무르니, 향의 약을 밧고 왈 현재 셔난 후로 병세 일랑이시미 현재 오기를 고딕호엿노라 성의 왈 환휘 여츄즉 급히 약을 쓰면 쾌복호시리이다108)

㊱ 향의 불승분노하여 다라드러 성의의 두 눈을 지르고 비를 업지르니 성의 눈의 필을 흘니고 파션호 조각을 의지하여 무변덕희의 정처업시 흘러가니 아지못

107) <적성의전> 2-3면. 이후로 인용한 원문의 띄어쓰기는 본고가 임의로 한 것이다.

108) <적성의전> 13-14면.

계라! 창천이 효주를 보전 하신가¹⁰⁹⁾

㉞ 나는 처란공주의 시비 빅옥이라. ... 공자는 멍인이라 무삼 허무리 잇스리오
수고로이 상각지 마르시고 나를 쓰라 가시미 엇더 하신잇가¹¹⁰⁾

㉟ 이적 공쥬 옥수로 봉셔를 들고 그 보지 못흐믈 혐의치 아니하여 낭〃흔 소릭
로 흥운유수갓치 넓어 들니다가 천만 의외의 눈을 썬 유정이 숲히믈 보미¹¹¹⁾

㉞~㉟는 성의의 지극한 효성을 ㉞는 성의가 장애를 얻게 되는 과정을 보여준다면,
㉞는 성의의 안맹이라는 장애가 오히려 동갑 여성이자 고귀한 신분인 처란 공주를
대면할 수 있게 해주는 근거가 되는 장면이다. ㉞는 기러기가 몰고 온 모후의 편지
를 처란 공주가 읽어주자 성의가 눈을 뜨는 장면이다.

<적성의전>에서 처란 공주는 타국에 온 맹인인 성의의 비범함을 먼저 알아보고 그
와 정서적으로 교류하며 그를 위로하고 살피주는 인물이다. 성의에게 연민과 호기심
을 느낀 처란 공주는 그를 수시로 불러 대면하면서 정서적·인간적 교류를 통해 상호
간 호감의 감정을 쌓아간다. 이 과정은 이후 성의가 개안 후 처란 공주와 인연을 확
정하기 이전 감정적 연대 과정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그리고 이때 당대
남녀유별이라는 유교적 이데올로기를 거스를 수 있는 서사적 장치로써 성의의 안맹
이 주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처란 공주는 먼 타국에 장애를 얻은 상태로 오게 된 성
의의 괴로움과 외로움을 안타깝게 여기고 공주의 신분과 그가 남성이라는 점을 걱정
하면서도 성의를 걱정해 그를 수시로 불러 위로하며 타국에서 성의의 정신적 위안이
되어주는 인물이다. 이러한 심정적 유대와 지지는 타국에서 쓸쓸히 신세를 슬퍼하며
지내던 성의에게는 유일한 기쁨이요 위로였다.

109) <적성의전> 16면.

110) <적성의전> 22면.

111) <적성의전> 35면

벽옥이 뒤왈

“...그중 고국을 썬나 말니 타향의 고초하는 스름의 맛음이야 일너 무슘 흐리잇
고! 소동을 혼번 청하여 저의 외로운 맛음을 위로하면 조흘 듯하외다.”

공쥬 왈

“인정이 본딤 그러하나 외간의 남즈를 즈로 불너보미 예모의 손상홀가 져허 심
히 난쳐하도다. 그러나 네 임의 발설하여스니 청하여 오라.”

벽옥이 즉시 후원의 나아가 성의를 부르니, 이썬 성의 맛춤 잠을 곱히 드럿다가
... 공쥬의 시녀 벽옥이라, 반가온 맛음 증양업서 잠간 헤오되 ‘앗가 썬이 비상하
니 오날날 일정 조흔 일이 ”슬났다’¹¹²⁾

위 인용문처럼 공주는 외간 남자를 자주 부르는 것이 체모를 상하게 하는 일일까
걱정하면서도 성의를 아끼고 보고 싶은 마음에 시녀의 부추김에 힘입어 밤낮을 가리
지 않고 성의를 불러 그와 마음을 나누고 위로하니 울적하고 쓸쓸한 타향살이 중 성
의의 기쁨은 채란공주를 만나는 것뿐이었다.

게다가 결정적으로 기러기가 물고 온 모후의 편지를 받는 장면도 공주가 성의를
불러 둘이 함께 있던 순간이어서 안맹한 성의를 대신해 공주가 모후의 편지를 읽어
성의를 치유를 도운 조력자의 역할도 수행한다. 이렇듯 채란 공주는 안맹한 상태에
서 궁중에서 거하며 물질적인 어려움 없이 편히 생활하던 성의가 스스로 자신의 슬
픔과 외로움만은 어찌할 수 없어 할 때 이런 성의의 결핍을 채워주는 인물이다. 그
리고 이후 개안한 성의와 공주는 인연을 맺으니, 이런 점에서 성의의 장애는 심청과
심봉사의 고난으로서의 장애와 다른 의미를 가지며 그 자신에게 죽을 위기와 고통을
유발하긴 했지만 궁극적으로 부모의 곁을 떠나 세계 속에서 자아 찾기라는 서사의
목적에 달성케 하는 긍정적 요소라고도 하겠다.

112) <적성익전> 31면.

한편 장애인인 남성 주인공은 가정 내에서는 자신의 장애를 제대로 실감하지 못하다가 여성이 부재한 상황 혹은 가정 밖에서 홀로 살아남아야 하는 상황에서 비로소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고통을 직면한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심청전>의 심봉사와 <한후룡전>의 후룡과 허영이다.

심봉사는 봉사 잔치에 참석하기 위해 상경길에 오르는데 완판에서는 뺨덕어미가 도중에 도망하고 난 후, 홀로 상경하는 도중에 겪는 옷 도난과 같은 고난이 비교적 자세히 서술되어 장애인들이 가정 밖 공간인 현실 세계에서 당면하는 문제를 보여준다.

세늬가의 의관과 보짐을 버셔 노코 목욕하고 나와보니 의관 횡장이 간 곳 업거 날 강변으로 두로 사면을 더듬더듬 더듬난 거동은 산영 미초리 너임 맞친 성부 르게 이리저리 더듬은들 어긋 잇슬손야 심봉사 오도가도 못하여 방성통곡홀 제 익고익고 낙양천리 멀고 먼 질의 엇지 가리 네 이놈 좀도적놈의 식기야 너거슬 가져가고 날 못홀 일 시기년야 허다흔 부자집의 먹고 쓰고 남는 직물리나 가져다가 빨거시제 눈먼 놈의 거슬 갖다 먹고 윈전홀가 궤모 업셔쓰니 뉘게 가서 밥을 빌며 의복이 업셔쓰니 뉘라셔 날을 옷슬 주리 귀먹장이 전동발리 다 각기 병신 쉽다 흐되 천지 일월성신 흑빅장단이며 전흐만물을 분별커늘 언의 놈의 팔자로셔 소경이 되야난고¹¹³⁾

<심청전>에서 심봉사는 익숙한 가정 내 공간을 벗어나 홀로 낯선 가정 밖 세계를 맞닥뜨리게 된다. 현실은 녹록하지 않아, 눈먼 그의 장애를 이용해 누군가는 심봉사의 의관을 훔쳐가고, 어린 목동은 맹인인 그를 얽잡아 보고 희롱하며 서민 아낙들에게 밥을 얻어먹기 위해 자신의 양반 신분을 잊고 방아찝는 노동을 제공하고 그들과 같은 위치로 내려가 희롱을 주고받으며 살아남아야 한다¹¹⁴⁾. 이런 일련의 장면들은

113) 완판 71장분.

114) 산길에서 만난 목동의 심맹인 희롱 장면이나, 방아찝기 장면은 당대 유행한 잡가와 민요를

조선 후기라 하더라도 여전히 신분제가 공고한 사회에서도 신분보다 그의 장애가 더 그를 대우하는 중요 요소로 작용하며, 장애인들이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의 조롱과 희롱의 대상이 되는 당대 현실의 모습을 보여준다. 가정과 공동체 안에서 심봉사의 장애를 두고 희롱하고 수모를 주는 이는 없었다. 모두가 그를 안쓰럽게 여기고 함께 돌봐주었다. 그런데 그 공동체를 이탈하는 순간 그는 사회적 약자로 부당한 대우에도 인내하고, 살기 위해 자신의 사회적 정체성을 잊어야만 한다. 이는 역설적으로 가정 내 혹은 공동체 내부의 구성원이 장애인의 고난을 어떻게 함께 전가 받아 감당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다만 심봉사의 맹인 잔치 상경길의 서사는 실제 가정을 벗어난 장애인들이 만나는 현실 세계를 단편적이고 해학적으로 그리고 있어 실제 현실의 고통을 있는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반면 <한후룡전>에서 후룡과 허영이 겪는 수난은 한결 현실적이고 고통스럽다.

㉔ 후룡이 허영을 업고 그 고기를 넘어갈식 눈이 다른 스톱의게 이시니 텅인의 형뵈 엇지 온전하리오 괴같이 심흔口 혼를 혐기하니 능히 나오가지 못하여 다시 허영을 내려 노코 노변의 안주 쉬더니¹¹⁵⁾

㉕ 항우갓튼 범이 당전하여 다라들거늘 허영이 능히 것지 못하고 다만 범의 꼬리를 잡고 죽기를 무릅써 쓰르며 후룡은 비록 것기는하나 능히 보지못하니 죽을 줄 알고 썰니 다라나니 인하여 범은 점〃갓가이 오고 압흔 보짐 못하고 죽기를 무릅써 두손을 부릅썩고 눈을 희번口이며 다라나더니¹¹⁶⁾

㉔는 가출한 후룡이 앓은뱅이인 허영을 업고 길을 가는 장면이다. 맹인인 후룡이 허

향유과정에서 삼입하며 해학과 골계미를 부여하기 위한, 작중 흥을 돋우기 위한 장면일 뿐 아니라, 방아타령은 민중의 생명력을 보여주는 부분이나 본고의 논의와 별개의 특성이므로 논외로 두기로 한다.

115) <한후룡전> 17면.

116) <한후룡전> 17-18면.

영의 다리가 되고 허영이 후룡의 눈이 되어 서로 도와가며 길을 가지만 어린 두 장애인 이동은 결코 쉽지 않다. 그리고 바로 이어 ㉔의 범의 습격 장면¹¹⁷⁾이 나온다. 범에게 습격당하는 일은 비장애인인 사람들에게도 공포스러운 사건인데 심지어 도망갈 수도 없는 앞은뱅이와 달릴 수 있다 하더라도 보이지 않아 도망의 방향을 옳게 잡기 쉽지 않은 맹인의 경우에는 살길이 요원한 순간이다. 두 사람을 살린 건 범 앞으로 달려드는 것일지도 모르는 공포를 극복하고 도망간 후룡의 용기와 달릴 수 없어 앞은 자리에서 잡아먹힐 위기에도 범의 꼬리를 잡고 매달려 끝내 살아남은 허영의 삶에 대한 집념과 기지이다. 두 사람은 이렇듯 죽기 살기로 매 순간을 견디고 극복하며 자신의 선의(善意)를 계속 증명¹¹⁸⁾해가면서 결국 천상 죄업의 대가였던 장애를 벗어날 수 있게 된다¹¹⁹⁾.

반면 선천적 장애이거나 후천적 질병으로 장애를 얻은 여타 장애 남성 주인공들과 달리 <적성의전>의 적성의는 형 향의가 동생을 해칠 의도로 두 눈을 찢러 맹인이 되는 인물이다. 게다가 그는 형의 배신과 장애라는 심리적, 신체적 충격을 받자마자 바로 바다에 버려져 뱃조각에 실려 풍랑을 견디는 고난을 당하게 된다. 이런 면에서 성의의 장애는 극단적으로 가정 외부로 축출되며 그가 겪는 고난 그 자체이다.

㉔ 향의 불승분노하여 달여드려 성의 두 눈을 칼노 질너 썩니 비 안의 엽더지며 양안 피가 흘너 옥면을 적시느니라. 성의 탄 비 쪼각을 썩쳐 한 쪼각 우의 안치고 물결 우의 밀치니 아지 못겨라. 그 사칭을 뉘라셔 알이요? 천지신명 허사 효자를 보존케 하실가 종말을 불지여다.¹²⁰⁾

117) 범의 습격은 호랑이 꼬리를 잡고 버틴 허영과 천운으로 나무에 끼인 호랑이로 인해 후룡과 허영에게 호랑이를 잡은 의인이라는 자격을 부여해 두 주인공의 영웅적 행보의 첫 시작으로 작용하는 장면이기도 하다.

118) 신호림, 「소경과 앞은뱅이 서사의 불교적 의미와 구비문학적 수용 양상」, 『한국구비문학회』 37, 한국구비문학회, 2013.

119) 죄업의 마무리 이후 천상으로 돌아갈 수 있음에도 부모에 대한 효와 현세에서의 삶에 미련을 가진 두 인물의 현세에 머물며 금의환향과 가정과 국가 회복이라는 영웅적 행적이 이어지는 후반부 서사는 충(忠), 효(孝)라는 유교적 가치 지향을 보인다.

120) <적성의전> 16면.

㉔ 잇디 성의 한 쪼각 널을 의지하여스니 두 눈이 폐팅이딴 천지일월성신이며 만물을 엇지 알리오 동셔남북을 엇지 분별하며 흑백장단을 어이 알리오 ... 삼일 삼야만의 널넛히 다〃는 곳이 잇는지라 놀너여 손으로 어로만지니 큰 바우라 기여 올나가 정신을 수십하여 바회를 의지하고 안자 ... 오작이 지작괴는 소리 자연 집피난 거시 잇거늘 이는 곳 실과라. 먹은즉 비 부른지라 ... 인하여 오작의 게 사레하고 인하여 바우에 너려 죽님을 차자가니 ... 그 중의 한 덕가 금풍을 짜라 스사로 응하여 우는지라 ... 우는 덕를 차자 잡고 남 중의 칼을 너 덕을 베어 단져를 만드러서 한 곡조를 부니 소리 쳐랑하여 산천초목이 다 위로하여 감동하는듯 하니¹²¹⁾

㉔는 향의가 성의의 두 눈을 찢러 눈을 상하게 한 후 바다로 성의를 떠미는 장면이다. 이전까지 향의에 비해 우월한 능력을 가졌던 성의지만 장애를 얻은 후 속수무책으로 바다에 버려져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된다. ㉔는 바다에 삼일 밤낮을 떠다니던 성의의 막막한 상황과 그 와중에도 삶을 포기하지 않은 성의가 결국 신비로운 바위 섬에 다다라 오작의 도움으로 식량을 얻고 기이한 소리로 우는 대나무를 발견하여 피리를 얻는 장면이다. 이 피리는 후에 성의가 승상에게 구해지고 공주를 만나게 되는 결정적 계기를 마련하는 소재이기도 하다.

앞서 두 작품 <심청전>이나 <한후룡전>과 달리 이 작품에서만 주인공의 고난에 오작(烏鵲)과 신이한 대나무의 인도 같은 하늘의 힘이 개입해 주인공을 돕는 것은 심봉사나 후룡, 허영은 장애를 얻은 후 비교적 오랜 기간 가정 내에서 돌봄을 받으며, 자신의 장애를 다루고 헤쳐나가는 방법을 익혔지만 성의는 갑작스럽게 불의의 기습으로 장애를 얻자마자 바다에 던져진 상황이라는 차이점에서도 기인한다.

또한 바다라는 공간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심봉사와 후룡, 허영이 가정 밖으로

121) <적성익전> 18-19면.

나가 현실의 고난과 맞닥뜨리는 공간은 사람들의 거주공간인 마을이나 산 등 육지라는 공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다. 육지는 현실의 공간이자 사람들에게 이해 가능한 공간이기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도 기지나 끈기, 적응력 등 인간의 이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대응 및 해결책을 그려낼 수 있다. 그러나 당시 바다는 미지의 공간이자 공포의 공간¹²²⁾이다. 그러므로 현실적 방법이 아닌 하늘의 힘이나 신이성이 서사적 해결책으로 개입하게 된다. 사람들의 이해 범주를 벗어난 공간에서 구안해 낼 수 있는 현실적 해결책이 미비하기 때문이다.

다. 장애와 유예된 삶

〈유화기연〉의 유준은 성 불구 장애를 타고나 그 장애가 삶을 어떻게 유예시키고 주체성을 소거시키는지 보여주는 인물이다. 이를 ‘접힌 시간¹²³⁾’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접힌 시간은 장애를 가진 몸의 시간성과 현존성을 인정하지 않고 치유되기 이전까지 유예된 삶의 시간이며 인간성이 삭제되는 일련의 상황을 가리킨다.

㉔ “이 아이 비록 남녀를 아직 분치 못하나 실은 남자라. 일후 장성하여 길시를 만나면 귀불가언이요, 문호를 창성하고 명만사해하리니 … 배필은 천정연분이 매인 곳이 이어 구혼하기를 간곡히 하리니 사양치 마르소서.”¹²⁴⁾

㉕ 배 아래 남녀 표적이 없고 밋밋하거늘 가장 의괴하여 짐짓 살펴보니 남자도 아니요 여인도 아니요 다만 작은 구멍이 있는지라.¹²⁵⁾

122) 이승은, 「고전소설 속 바다 형상과 근대적 변모」, 『고전과 해석』 27, 고전문학한문학회, 2019. 91-118쪽.

123) 김은정 저 강진경·강진영 옮김, 『치유라는 이름의 폭력』, 후마니타스, 2022. 김은정은 이 책에서 치유되지 않은 상태, 치유가 유예된 상태의 장애인들의 삶, 장애인들이 사회로부터 배제되고 인간성이 삭제되는 일련의 상황을 ‘접힌 시간’이라는 용어로 설명한다. 본고에서는 김은정의 ‘접힌 시간’이라는 용어와 그 정의를 논의 전개를 위해 차용하도록 한다.

124) 이윤석·김경미 교주, 『유화기연·숙녀지기』, 경인문화사, 2008, 21쪽. 이후로 본문의 인용은 쪽수만 표시하기로 한다.

유춘은 천상 태을선일 때 선녀를 희롱하고 소변으로 좌석을 더럽힌 죄로 현세에 남녀구분이 없는 존재로 태어난 인물이다. 다만 출생 시 선녀의 말로 그가 남아라는 것을 짐작할 뿐이다. 또한 선녀의 예언을 통해 독자는 유춘의 장애가 언젠가는 해결되고 그것이 귀인과의 혼인과 연관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게 된다.

이것이 문제다. 작품의 주인공 유춘은 작품 전반부 즉 옥낭을 만나 장애가 해결되기 전까지 주인공이면서도 작품의 전면에서 밀려나 있는 수동적인 인물이다. <유화기연>은 총 7권 7책으로 구성된 필사본¹²⁵⁾인데, 7권 중 3권 중반까지가 주인공의 성 불구로 일어나는 에피소드와 이를 해결하는 과정¹²⁷⁾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서사는 유춘이 장원급제 후 외적의 침입을 막고 반란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부인인 화소저의 원수인 장평에게 원수를 갚는 등 집안과 국가의 혼란에 대응하는 유춘의 활약상이 주가 된다. 즉 후반부는 주인공이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드러내는 전형적인 귀족 영웅담이라면, 전반부는 주인공의 결함인 성 불구를 둘러싼 갈등과 해결담이라 할 수 있다.

작품의 전반부에서 인물의 다른 특성은 서사 이면의 배경이 되고 독자와 서술자, 작중 인물 모두의 관심은 오로지 유춘의 장애와 치유에 집중되어 있다. 인물이 가진 뛰어난 외모와 자질, 효성도 그의 장애에 밀려 주목받지 못한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주인공 남성의 장애가 치유 혹은 제거되지 않는 한 그의 다음 서사 즉 다음 행보는 이뤄질 수 없다고 여기는 서사적 전제를 증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출생부터 18세까지 유춘의 삶은 접힌 시간으로 유예되고 가정과 사회적으로 병인이라 낙인찍힌 채 은폐되고 삶의 행보가 정지된다.

유춘의 부모는 자식의 장애를 슬퍼하면서도 그 장애가 남들 눈에 띄지 않을 수 있는 장애라는 점, 유춘이 효성 깊고 똑똑하며 겉보기에는 누구보다 뛰어난 외양을 지

125) <유화기연>, 42쪽.

126) 앞의 책, 3-13쪽. 관련 내용은 <유화기연 해제>에서 참고.

127) <유화기연> 권지삼 29장까지 성불구 장애와 관련된 갈등과 해결담이 제시된다.

닌 남아라는 점을 이용해 그 장애가 눈에 띄지 않도록 그를 집 밖에 거주하도록 한다. 그것이 아들의 수학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남들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그를 보내면서 장애가 완치되기 이전 아들의 가정 내, 공동체 내부의 삶을 소거하고 그를 사회로부터 은폐하는 것이다. 유춘은 오로지 유춘의 장애를 아는 부모와만 소통한다¹²⁸⁾. 고전소설에서 남주인공의 출생은 곧 그가 입신양명과 혼인을 통한 가문의 번성을 책임지는 주체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유춘은 뛰어난 자질에도 불구하고 그의 장애가 완치되어 완인의 몸을 가지기 전까지 사회 진출을 도모하려는 조짐조차 보이지 않는다.

자아가 소거된 듯한 유춘의 지극히 낮은 자존감은 자신의 혼인과 관련해서도 나타난다. 우연히 화상서의 눈에 들어 호감을 샀지만 설마 자신의 부친이 자식의 장애를 밝히기를 꺼려 혼인을 수락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던 상황에서 부모에 대한 어떤 원망도 없이, 이 일로 어려움을 겪으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무리한 혼인을 효심으로 받아들이는¹²⁹⁾ 유춘의 모습에서는 자신의 삶에 대한 주인 의식을 전혀 발견할 수 없다.

게다가 장애를 가진 유춘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망인 성욕도 없는 인물이다. 장애가 치유되기 이전엔 무성애자에 가까운 그는 13세에 혼인하여 15세가 되도록 어떤 이성애적 행위나 표현을 하지 않는 인물이다. 그가 가지는 감정은 오로지 혼인 시 화소저를 만난 후 그 빼어남에 감탄하면서도 자신의 장애로 인해 그녀로 하여금 인륜을 모르게 하고 그 인생을 매몰시킨다는 자책감과 자신의 장애에 대한 분통함과 생애 대한 우울함뿐이다.

㉞ …생이 대희과망하나 자기 일을 생각하니 분통함이 극한지라. 내심에 헤아리되, ‘내 무삼 죄악으로 병인이 되어 나서 부모께 불효되고 조선향화 내게 와 끊칠

128) 작품 내에서 스승 아래에서의 수학 과정은 요약적 진술로 제시될 뿐 자세한 생활상은 전혀 묘사되지 않는다.

129) “…야야(爺爺)가 허락하신 바에 내두지사(來頭之事) 비록 유난(有難)하오나 증이파의(甌已破矣)라. 설마 어찌 하오리까?…” <유화기연>, 35쪽.

뿐 아니라 저런 절세가인으로 규리의 남모르는 설움을 끼치게 하며…심사 맹동하니 울울묵좌하여…¹³⁰⁾

㉔ 소저가 나이 차고 세사를 쾌하는 부부의 교합하는 이치를 자연히 알고 마음에 생각하되… 우리 부부는 성혼 수재에 군자가 날 대접이 여상하고 은정도 없지 않은 듯하며, 또 형제 웅위함이 영웅지상이니 남의 이십 세 장부나 다름이 없거늘, 화촉동방에 무일불동침하나 냉담함이 심하여 약수가 가리운 듯하니…¹³¹⁾

반면 화소저는 혼인 후 몇 년이 지나도록 자신을 아끼면서도 동침하지 않고 냉담한 남편의 행보를 이해할 수 없어 번뇌에 빠지게 된다. 결국 한여름 의복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낮잠을 자던 유춘을 보고 그의 장애를 확인하게 된 후 이 사기 결혼에 놀라고 자신의 여인으로서의 삶이 끝났다는 생각에 고통받는다. 이 작품은 제목부터가 ‘유씨와 화씨의 기이한 인연’이기에 독자는 모두 화소저와의 인연을 통해 유춘의 장애가 치유되리라 기대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정작 화소저는 성불구 남편을 만난 여성의 고통을 드러내는 인물일 뿐이며 그의 장애를 치유하는 데 기여하지 않는다. 그녀가 차마 이 상황을 부모에게조차 말하지 못하고, 남편에게는 따지지도 못하며 홀로 속앓이를 하는 모습에서 독자는 가부장제와 남녀의 위계가 높은 신분의 여성에게 가한 관념적 굴레를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소저가 이후로는 만사에 뜻이 없어 … 자연 옥모가 추춌하고 설부가 수척하여… 주야 신세를 생각하며 초창 탄식뿐이라. 상서 부부가 여아의 형모 전과 다름을 보고 신병이 있는가 하여 의약으로 치료하나 종무효험이라 우려함을 마지아니하며¹³²⁾

130) <유화기연>, 37쪽.

131) <유화기연>, 41쪽.

132) <유화기연>, 42쪽.

날로 수척해가는 딸을 걱정하는 모친에게 화소저는 결국 사실을 털어놓고 이를 알게 된 부친에 의해 유춘은 본가로 쫓겨난다. 쫓겨난 유춘은 심사의 우울함을 견디기 위해 집을 나와 청허 도사를 찾아가 3년의 수학을 마친 뒤, 도사의 말에 따라 하산하면서 본가가 아닌 장안(長安)으로 가 기생 옥낭을 만난다. 기생 옥낭은 아버지의 장례를 위해 스스로 기생이 된 처녀로 빼어난 미모와 자질로 가장 높은 위치의 기생이 되지만 다른 남성에게는 몸을 허하지 않은 인물로 나온다.

또 옥낭은 유춘을 만난 뒤 평생 낭군이 될 사람을 기다렸다면 유춘에게 모시기를 청하는 지인지감력이 있는 인물이다. 또한 기생이라는 그녀의 신분과 업(業)은 화소저와 달리 유춘의 장애를 발견했을 때 물러나지 않고 다시 자세히 보기를 청할 수 있는 서사적 기반을 마련하며, 결국 유춘의 장애를 옥낭이 고쳐 유춘을 완인으로 거듭나게 해주는 서사적 맥락을 만들어내는 지점이기도 하다. 이런 면에서 이 작품의 제목에서 암시한 바와 달리 작품에서 유춘의 장애와 관련하여 중요한 여성이자 기이한 인연은 화소저가 아닌 옥낭이라 할 수 있다.¹³³⁾

그대는 내게 큰 은인이라. 어찌 청죄하리오? 나의 평생 원한을 설(雪)하고 이제는 음양을 통하게 되며 꽤히 장부되니 내 무산 한이 있으리오? ... 남녀교합을 임의로 하니, 운우지락이 무르녹아...¹³⁴⁾

옥낭의 과감한 행동으로 숨겨진 신념이 드러난 후 유춘은 드디어 장부가 되었다고 말한다. 이미 겉모습은 누가 보더라도 완전한 장부의 모습임에도 장애가 있다는 것

133) 심치열, 「『유화기연』, 기이성과 대중성의 서투른 결합」, 『인문과학연구』 36, 성신여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7, 25-47쪽. 심치열은 <유화기연>에서 '소설 제명으로 보여지는 기이한 인연은 실제로 화소저가 아닌 옥낭이며, 유춘은 기이성을, 화소저는 이러한 기이성을 노출 및 확인하는 과정에서의 기이성을, 옥낭은 노출된 기이성을 치료하는 과정에서의 또 다른 기이성을 각각 드러내면서 서사적 호기심을 발산하여, 상대적이고 다양한 시각에서 기이함이라는 서사적 축을 형성하며 독자의 흥미를 끄는 서사적 장치'라고 보았다.

134) <유화기연>, 81-82쪽.

만으로 자신을 장부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자존감 낮은 심리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제 그는 신체적 장애가 치유된, 온전한 몸을 가진 완인이 되었다. 장애가 있던 유춘을 가리키는 병신, 병인에 대한 폄하적 시선과 이와 대비되는 완인이라는 표현의 배치는 장애를 가진 몸을 불안전함에 귀속시키는 차별적 가치관을 보여준다.

그리고 서사는 이제 유춘의 완인됨을 증명하는 데에 주력한다. 그 첫째가 남녀교합을 아무 문제 없이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고 이는 곧 부인인 화소저와의 재결합과 제목에서 예비한 인연의 완성을 이루는 기본 전제가 된다. 그 증명을 옥낭과의 관계에서 성취하고 이제 완인된 남성에게 부여되는 사회적 가치 증명에 주력한다. 그것이 작품 후반부 문무 장원급제, 가문으로의 복귀, 거듭된 전쟁과 난리 평정, 화소저와의 재회 및 결합, 화상서의 인정, 자손 대대로 부귀영화를 지속하는 서사를 통해 이뤄진다. 이를 서사적 완결성 면에서 과한 군담의 결합으로 애초의 작품이 가진 기이성을 훼손하는 미흡하고 서투른 지점으로 지적¹³⁵⁾할 수 있지만, 판단의 기준을 바꿔 '장애 없음'의 증명에 주력한 서사로 이해한다면¹³⁶⁾ 이 작품의 방대한 군담의 분량에 대해 다른 의미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신체적 완치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유춘은 이성애와 결혼 그리고 사회적 젠더화 과정을 통해 자신의 정상성을 증명하고 재현할 필요성을 요구받는다. 이에 <유화기연>의 작가는 이 증명과 유춘의 완인성의 강화를 위해 문화적·서사적 인식 과정의 확

135) 심치열, 위 논문. 37-42쪽 참조. 심치열은 <유화기연>은 제목에서도 드러내듯 군담소설적 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군담적 요소를 장황하게 4권부터 7권까지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는데 그 유기적 연결성이 미흡하여 서사의 기대감이 반감된다고 보았다. 또 군담 화소의 분량이 많은 이 작품의 특성에 주목한 엄태웅(『세책본 영웅군담소설의 서사 지향-기존 연구 고찰을 중심으로-』, 『민족문화연구』65,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14, 587-624쪽)은 그로 인해 이 작품을 '유춘전' 정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136) 서경희, 「성(性) 정체성에 대한 인식과 유동의 징후, 그리고 서사의 반동-〈유화기연〉의 '유춘'을 중심으로」, 『열상고전연구』 55, 2017. 403-436쪽. 서경희는 유춘이 남성도 여성도 아닌 제3의 성에 대한 징후를 드러내는 인물이지만 서사 내에서 남성적 삶을 요구받고 이에 응하는 삶을 살아간 인물로 보고 있다. 그러면서 후반부의 통속적 영웅담은 유춘의 시련의 근본적 원인이던 성정체성 불일치에 대한 흔적을 태도나 행동에 남기지 않고 성공한 남성으로서의 모든 것을 갖추고 드러내는 데 집중하여 진짜 남성, '완인'임을 증명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며, 강한 남자로서의 기질을 강조하고 강화하는 이 서사가 이성 중심의 성정체성의 내면화를 유춘에게 강요하는 억압의 서사라고 평가하고 있다.

장을 시도한다. 이를 위해 남녀교합의 성공적인 상황, 문무 장원급제, 군담 화소의 나열, 가문 회복 등을 장황하게 느껴질 정도로 배치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문화적으로 유춘의 남성으로서의 완인됨을 증명하는데 주력하는 후반부의 서사는 장애인이었던 유춘의 이전 삶 즉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가정적으로도 사회적으로 배제된 접힌 시간에 대한 보상적 삶이다. 하지만 동시에 장애인이 치유 이후에도 사회문화적으로 자신의 장애가 치유됐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고군분투해야 하는 실제적 어려움을 서사적으로 형상화한 것이기도 하다.¹³⁷⁾ 그러므로 유춘이 전란을 진압하는 과정 사이에도 몇 번이나 옥낭을 찾아가 남녀교합을 하는 행보가 거듭 배치된 것은 바로 유춘의 성불구 장애가 완치되었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증명하기 위한 서사적 안배라 할 수 있다.

이렇듯 고전소설 속 남성 장애인물들은 대부분 영웅적 인물로 신체적 장애는 그들에게 고난의 상징으로 작용하며 결국 반드시 치유를 향해 나아간다. 그리고 이들이 장애인인 시기 이들은 자신에게 가해지는 배제, 축출, 차별을 경험하는 동시에 곁에서 그들을 연민하고 돌보는 존재와의 관계 역시 경험한다. 이들은 선천적 장애인의 경우 가정 내에서 성장하면서 낮은 자존감과 고립된 상황 등을 겪고 가정 밖으로 나가면 현실적 고난을 겪으며 내적 성장을 이룬다.

유춘은 처가에서 축출된 후에야 사대부 남성으로서의 사회적 성공을 다짐하고, 후릉과 허영은 가출 후 덕업을 쌓으며 존재 증명을 통해 치유되고 성공해 귀환할 수 있었다. 심봉사는 심청을 잃은 후 집 밖으로 나와 잃어버린 딸을 만나러 가는 고행의 길을 거친 후에야 가정의 회복, 치유의 기적을 경험한다. 이는 여성 장애 인물인 박씨가 자신이 머무는 공간 내에서 업보로서의 장애를 감당하다가 치유되는 서사와 비교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김원의 경우에는 박씨와 유사하게 누각에서의 고립으로 업보를

137) 김은정, 앞의 책, 271-272쪽. 김은정은 ‘(장애가) 의학적으로 완치가 가능하다고 해도 이는 문화적 치유로 저절로 이어지지 않으며, 이로 인해 완치된 사람을 완치되었다고 인식되게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개입(이성애, 결혼, 젠더화 과정)을 통해 그 의미가 문화적으로 강조되어야 했고, 그 과정에서 완치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장애의 표식이 되기도 한다’고 보았다.

감당하다 본래 모습으로 탈각을 이루기에 일반적 남성 장애 인물의 치유 서사와 구별된다.

이를 통해 남성 장애 인물이 장애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홀로 장애를 감당하고 마주하는 것이 서사적으로 요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렇게 장애인이 자신의 장애를 마주하는 과정에서 삶과 인간성에 대한 긍정이라는 서사적 관점이 드러난다.

〈심청전〉의 심봉사는 자식을 앞세우고 슬픔과 병신된 몸으로 살아야 하는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삶을 포기하지 않는 인물이다. 슬픔과 외로움으로 고립되어 살아가는 심현을 살리는 건 죽기 직전까지 그를 걱정해 음식을 마련하고 주변인들에게 부친을 부탁한 심청의 효성어린 마음, 심현의 처지를 딱하게 여기고 그를 구완할 양식을 주고 간 뺏사람들과 이를 탐내지 않고 잘 보전하여 정성으로 심현을 보살핀 이웃들이다. 〈유화기연〉의 유춘도 혼인 후 처가에서 장애가 발각돼 쫓겨난 후 그를 애정으로 감싸주는 부모가 있기에 집으로 돌아와 상처를 회복하고 다시 살아갈 방법을 모색할 수 있었다. 이렇듯 두 인물이 장애로 인해 고통받으면서도 삶을 영위하고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주변의 애정에 힘입은 바가 크다. 그리고 이들이 보여주는 끝까지 생을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생의 의지야말로 치유 서사를 만드는 장 큰 동력이 된다.

이렇게 고전소설은 장애인물과 그 치유를 통해 장애와 돌봄의 고통뿐 아니라 강인한 당사자의 생(生)의 의지, 장애인과 함께 살아가는 주변인들의 자비와 연민 등 보통의 사람을 살아가게 하는 인간성과 공동체에 대한 긍정을 드러내고 있다.

(3) 정신적 장애 : 난독증, 언어 장애

고전소설 속 정신적 장애를 보여주는 인물로는 〈김안국전〉의 김안국과 〈영이록〉의 손기가 있다. 먼저 〈김안국전〉의 김안국의 서사를 살피도록 한다.

6권 1책으로 편찬된 『동상기찬』에서 〈김안국전〉은 제2권 덕혜(德慧)에 실려있는 이야기로 난독증으로 고통받는 남성 장애인이 지혜로운 부인을 만나 자신의 장애를

치유하고 사회적인 성공을 거두는 이야기다. 실제 역사적 인물인 김안국과는 별개의 인물로 허구적 이야기로 판단된다.

김안국이 기형 혹은 신체 장애를 가진 남성 장애 인물과 차이가 있다면 그의 장애가 치유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앞선 작품들은 모두 하늘의 섭리나 기적에 의해 장애가 치유되었다면 김안국의 장애는 아내 이씨의 부단한 인내와 노력에 의해 치유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이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작품의 구체적 서사를 살펴보고 하겠다.

김안국은 당대 대제학 가문의 장손으로 비범한 외모까지 갖춰 부친의 기대 아래 성장했으나 글자를 읽지 못하는 장애로 인해 결국 부친으로부터 살해 위협과 함께 가문에서 쫓겨나는 고난을 겪는다.

㉔ 안국이 태어날 때에는 눈이 맑고 이마도 넓은 데다 용모도 빼어났다. 숙은 안국을 애지중지하며 말했다. “이 아이야말로 참으로 우리 집안의 자손이지!”¹³⁸⁾

㉕ 밤낮으로 글을 가르쳤다. 때로는 심하게 꾸짖으며 문자를 이해할 수 있는 온갖 방법을 다 써보았으나, 끝내 ‘하늘 천(天), 따 지(地)’ 두 글자도 깨우치지 못했다. … 김숙은 괴로움에 한탄하다가 눈물까지 흘렸다.¹³⁹⁾

㉖ “…또 나는 저 물건만 보면 울화가 치밀어 골머리까지 쭈셔대는지라. …” 이에 안국을 보이지 않게 할 방법을 생각해보았다. 차마 죽일 수는 없고, 그렇다고 아무 곳으로 쫓아내면 종적이 드러날까 걱정스러웠다.¹⁴⁰⁾

㉗ 숙은 안국을 그에게 맡기며 말했다. “…죽여버리고 싶은 생각이 하루에도 몇

138) 김준형 역주, 『동상기찬』, 휴머니스트, 2021. 209쪽.

139) 김준형 역주, 앞의 책, 210쪽.

140) 김준형 역주, 위의 책, 210쪽.

번씩 드네. ... 바라건대 이 아이를 데리고 가게. ... 안동 백성으로 살아가게 만듦으로써 세상 사람들이 모르게 해주게.”¹⁴¹⁾

㉞ “지금부터 나는 너를 자식으로 여기지 않겠다. 너 또한 나를 아버지로 생각하지 마라. 다시는 서울에도 올라오지 마라. 만약에 올라온다면 너를 죽일 것이다.”¹⁴²⁾

위에 인용한 본문은 김숙이 아들 안국의 장애를 알기 전에는 아들을 귀애하다가 아들을 글자를 깨우치지 못하자 괴로움에 한탄하다 못해 자식을 증오하고 죽이고 싶어하는 지경에 이르는 심정을 보여준다. 안국의 심정은 이 대목까지 일절 작품 속에서 드러나지 않는데 자신을 가련히 여기고 안동으로 데려온 숙부 김청이 연유를 묻자 그제야 ‘이야기를 들으면 정신이 맑아져 ... 한 번만 들으면 다 기억해 재현할 수 있지만, 그러나 문자는 어떻게 해도 이해할 수가 없었’음을 고백한다. 사대부 남성인 아버지 숙이나 숙부인 청은 안국의 들은 것을 모두 기억하는 총명에는 전혀 주목하지 않으며 다만 안국이 글자를 깨우치지 못하는 것을 한탄하고 가문의 존속을 위협하는 장애를 가진 자식을 없는 자식으로 만든다.

이렇게 안동에 와서도 방치되던 안국을 안동 좌수 유신이 우연히 보고, 안국이 번듯한 외모를 지닌데다 대제학 가문과 사돈 관계를 맺는 것만으로 의미가 있다고 여겨 딸과 안국을 혼인시킨다. 실상 오갈 데 없는 신세였던 안국은 사대부 남성으로서 굴욕적인 처사를 당하면서도 이 혼인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혼인 후 처가살이하면서도 안국은 처가의 누구와도 교류 없이 방안에 틀어박힌다. 부인 이씨는 안국이 사대부 남성으로서 독서도 안 하고, 가족과 교류도 없이 방 안에서 빈둥거리기만 하는 상황이 답답하면서도 남편이 글 얘기만 들으면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인내할 뿐이다.

141) 김준형 역주, 앞의 책, 211쪽.

142) 김준형 역주, 앞의 책, 211쪽.

본래 아내 이씨는 집안의 남성들이 모두 문장에 재주가 있어 자신도 여자 중 문장 가였기에 교육지책으로 남편에게 무료함을 달랠 겸 자신과 더불어 이야기나 하자며 남편에게 역사책 한 권의 이야기를 해준다. 이에 안국은 한번 듣고 그 이야기를 쪽 외워내는 신통함을 발휘한다. 이씨는 남편의 총명을 알아채고 밤낮으로 성경현전(聖經賢傳)을 모두 이야기로 말해주고 안국은 이를 한번 듣고 틀리는 것 없이 외워낸다. 안국은 부인이 들려주는 이야기가 실은 그가 평생을 기피하던 글이란 것을 듣고 비로소 글을 배워보고자 한다. 부인의 도움으로 글을 보기 시작하여 이후 스스로 능히 글을 읽어낼 수 있게 되자 이후 밤낮을 잊고 글읽기에 몰두한다. 부인 이씨는 이에 글씨 쓰기까지 안국에게 가르치니 안국이 비로소 글짓기의 묘법을 깨달아 거침없이 문장을 짓게 된다.

부인은 남편이 글을 읽고 쓰기를 터득하자 남편의 출입을 설득해 안국은 장가간 후 십 년 만에 처음으로 사랑으로 나아가 처가 식구들을 놀라게 하고 이후 날로 일취월장하여 영남 일대 제일의 문장가로 인정받는다. 나라에서 별시가 열리고, 부인은 부친의 명에 따라 서울 가기를 두려워하는 남편을 설득해 별시에 응하게 하고 안국은 별사에서 장원급제하여 비로소 부친의 인정을 받는다.

소설의 배경이 된 시대에는 난독증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전무하다. 실제 난독증을 인식한 것은 서양에서도 불과 1세기 전이며 의학적으로 수용된 것도 1970년대 이후야 이루어졌기 때문이다.¹⁴³⁾ 난독증의 가장 큰 문제는 단지 글자를 읽지 못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능이 낮은 것으로 오인될 수 있다는 점이다. 작품 속 김안국 역시 들은 것의 양과 상관없이 한번에 외우고 뜻을 깨우치는 총명함을 가졌음에도 이런 재능은 주목받지 못하고 오로지 그가 글자를 읽지 못하는 것에만 주목해 제대로 가정과 사회에서 요구하는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저능한 천치로 취급받는다. 이런 안국의 불행과 글자를 보기만 해도 머리가 깨질 듯한 고통을 보듬으며 그의 숨겨진 재능을 개발하고 발현시킨 것은 모두 부인 이씨였다.

143) 셸리 세이워츠, 조나단 세이워츠 지음, 정재석 옮김, 『난독증 이겨내기』, 하나의학사, 2021.

㉔ 문장의 의미를 직접 드러내는 대신 비유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을 통해 남편의 재주가 어떠한지나 시험해 보고자 해서 “... 들은 이야기를 첩에게 도로 들려주실 수 있으신지요?” “그러지요.” 이야기를 외워 말하는데, 빠지거나 틀린 곳이 없었다. 아내는 ... 생각했다. ‘이 사람은 탁월한 재주를 가졌는데, 뭔가에 꼬여서 막혀 있었던 것뿐이구나. 내 반드시 그의 고인 것을 풀어 밝은 것이 밖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만들어 보리라.’¹⁴⁴⁾

㉕ 밤낮으로 이야기를 한 후, 그것을 다시 들려달라고 했다. ... 아내는 또 글 짓고 글씨 쓰는 법도 가르쳤다. ... 아내는 그를 문 밖으로 나가게 하고 싶었지만 그럴 만한 이유를 찾지 못했다. 이에 경전을 인용하여 이야기로 꾸며서 말했다.¹⁴⁵⁾

㉖ 안국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아버지께 들킬까 봐 두려웠다. 다른 데로 가려 해도, 모든 곳이 낯설었다. 방황하고 있자니 탄식이 절로 났다. ... 결국 갈 만한 곳은 유모 집뿐이었다. ... 유모는 놀랍고도 반가워, 문 밖까지 나가 손을 잡아끌며 맞이했다. ... “상공께서 서방님이 오신 것을 혹시라도 알게 되면 반드시 큰일을 낼 테니, 서방님은 골방에 계시면서 다른 사람에게 들키지 않도록 하십시오.” ... 유모는 남모르게 부인을 찾아갔다. “안동 서방님이 손네의 집에 와서 머물고 있습니다.”¹⁴⁶⁾

㉔는 부인 이씨가 글자라면 두통부터 난다며 글읽기를 거부하는 남편의 뜻을 거스르지 않으면서도 그의 재주를 확인하는 장면이고 ㉕는 이후 이씨가 밤낮으로 온갖

144) 김준형 역주, 앞의 책, 216쪽.

145) 김준형 역주, 위의 책, 218쪽.

146) 김준형 역주, 위의 책, 221쪽.

사서(史書)와 경전(經傳)을 이야기로 들려주고 결국 글자에 흥미를 느낀 안국이 글과 문(文)을 깨우친 후 사랑방으로 나가 사대부 남성들과 교류하도록 설득하는 부분이다. 아내 이씨의 설득에 따라 세상과 교류한 안국은 이후 문장가로 이름을 날리게 된다. ㉔는 과거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서울로 상경한 안국이 본가에 돌아가지 못하고 방황하다 결국 키워준 유모를 찾아가고 유모가 안국을 배려해 모친과 은밀히 만날 수 있도록 숨기고 도와주는 대목이다.

안국은 친부로부터 가문의 존속을 위태롭게 하는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살해 위협과 출가를 당했고, 주변의 어떤 남성도 안국의 장애의 본질을 알아채지 못한다. 이와 달리 아내 이씨는 남편을 세심히 돌보고 지켜보며 인내로 그의 능력을 발휘시키고 장애를 치유한다. 소설 속 남성들이 외적 성취와 능력만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대를 공동체 안으로 수용하거나 배제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과 달리 작품 속 안국의 주변 여성들은 안국의 내면과 상처를 먼저 살피고 돌보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는 아내 이씨는 물론이요 별시 응시를 위해 상경했을 때 본가로 갈 수 없어 찾아온 안국을 보살피고 배려하는 안국의 유모라는 인물을 통해서도 드러난다. 이러한 서사에서 여성에게 부여된 돌봄과 치유의 역할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김안국의 서사는 인연의 의미를 되새기게 한다. 『동상기찬』에 실린 거의 모든 이야기는 ‘혼인’과 관련되어 있으며 우리나라 야담에 등장하는 거의 모든 여성 인물이 등장한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여성에게 주목한다. 불우한 처지에 있던 인물이 혼인을 통해 자신을 인정해주는 사람을 만나는 내용을 위주로 실은 이 야담집은 실상 ‘나를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¹⁴⁷⁾ 난독증으로 가문으로부터 축출된 안국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의 재능을 알아보고 지원해주는 아내 이씨는 안국이 만난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며 이러한 인연을 만난 이후에야 재능이 빛을 발하는 치유와 극복의 서사는 인연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한다. 더불어 이 작품이 ‘덕혜(德慧)’에 실렸다는 점은 안국의 치유를 도운 아내 이씨의 덕을 기리

147) 김준형 역주, 위의 책, 9-14쪽.

는 것이 이 서사의 주된 목적임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실제 작품 말미에 안국의 난독증이 아내로 인해 치유된 것을 안 부친은 며느리를 당장 불러들여 큰 잔치를 열며 “내 아이가 문장을 이뤄 선조의 유업을 빛내게 한 것은 모두 이 신부의 공입니다”¹⁴⁸⁾라고 치하한다.

남성인 부친이 가문의 존속을 이유로 장애에 대한 이해 없이 안국을 버릴 때, 여성인 이씨는 안국의 장애를 이해하고 배려하여 그에게 맞는 방식으로 접근해 그의 장애를 극복하고 치유할 수 있도록 돕는 지혜와 덕을 발휘한다. 장애 남성 주변의 여성이 그를 돌보고 연대하여 치유에 이르도록 돕는 서사가 이 작품에서도 발견되는 지점이다.

<영이록>의 손기는 태몽과 출산 과정에서 비범성이 암시되었음에도 중증 장애를 지닌 채 태어나 부모의 한탄과 연민의 대상이 되는 인물이다.

㉞ 일일은 상셰 부인으로 더브러 동실 일몽을 어드니 텃문이 열니고 벽녁 소리 진동 흐더니 말만 흐 별이 썩러져 상셔의 빗치 부인 침실의 흘러 들거늘 놀나 치니 남가의 흐 꿈이라¹⁴⁹⁾

㉟ 향너 집의 가득 흐고 신선의 풍뉴 소리 나더니 아히 나며 풍용이 고기(高奇) 흐고 골법(骨法)이 비상흐나 다만 병이 만하 위턱흐기를 즈로 흐고 일곰설의 말을 못흐고 열설의 능히 것지 못흐고 쏘흐 성되(性度) 침중흐고 속이 불그나 것 츠로 감초아 흐 어림장이¹⁵⁰⁾ 꺾트니 일기 다 치공저라 부르고 상셔와 부인이 그 디각이 분명티 아니흐물 잔잉흐야 스랑이 데자 둥 즈별흐고 길몽이 증험업스물 괴탄 흐더라¹⁵¹⁾

148) 김준형, 앞의 책, 227쪽.

149) 임치균·허원기 교주, 「녕이록」,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0. 22쪽. 앞으로 본문 인용은 이 책을 기반으로 하며 쪽수만 밝히기로 한다.

150) 일정한 숫대가 없는 어리석은 사람

151) <녕이록>, 22-23쪽.

㉞는 손기의 비범한 태몽이며 ㉟는 기이한 출생에도 불구하고 자랄수록 병을 얻어 말을 하지 못하고 걷지 못하고 내면의 비범함을 감추어 겉으로는 어리석은 이로 보이는 손기의 모습을 서술한 대목이다. 손기는 길몽과 출생 시의 신령함에도 불구하고 말하지 못하고 걷지 못하며 어리석은 모습으로 자라 치(癡)공자라 불리는 신체 및 언어, 지능 장애를 가진 인물이다. 그는 장애로 말미암아 사회적 활동이 불가능한 상태에 가깝다. 부모는 자식의 장애를 안타까이 여기고 돌보지만 서사 이면의 맥락에서 그가 치공자라 불렸다는 지점에서 부모의 애정에도 불구하고 주변인들이 그에게 가지는 멸시의 시선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부정적 상황은 형욱이 빼어난 딸 계아의 사위 찾기를 하던 중 천기자라는 도인을 통해 손기를 알고¹⁵²⁾ 그를 사위로 맞아들이면서 강화된다. 손기의 부모는 형욱의 청혼에 자식의 장애에 관한 어떤 언급도 없이 ‘아들이 어려 혼인할 데 없음을 민망히 여기더니 이제 재상 집안의 절색 소저’로 청혼이 있음에 다행이라 여기며 바로 승낙한다. 손상서 부부가 장애로 인해 치공자라 불리는 아들을 아무 거리낌 없이 남의 집 사위로 보내는 부분에서는 유춘의 부모와 같은 망설임의 여지도 등장하지 않는다. <영이록> 속 손기는 여타 다른 고전소설 속 주인공들과 비교해도 장애의 강도가 매우 강한 중증 장애인이다. 반면 서사는 이런 손기의 장애가 아무것도 아니란 태도를 견지한다. 왜냐하면 장애인인 그는 도사의 예언처럼 신선의 령(靈)을 아직 숨기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세상의 평가나 시선은 손기에게나 서술자에게나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장애를 가진 손기의 서사는 작품 내에서 세속적인 평가의 부질없음을 증명하기만 하면 족하다.

본가에서 처가로 의 이동은 애정 어린 보살핌의 영역을 벗어나 세상으로 나간 장애

152) 니부상서 손노야의 데 삼위(三位) 공지니 것치 비록 청탁의 더러오미 이시나 속의논 농곳튼 디혜를 품어시니 디하의 영웅이오 텃상의 신선이라. … 용되 곱디 아니호고 문지 나타나미 업스니 벽벽이 허흔홀 재 드물디라. … 이 사롭이 아직 테기(滯氣; 막힌 기운) 흑당끼이여 문명이 세상의 들리지 못호나 나히 삼십이 장근호야 … 누른 괴운이 통호면 일흠이 텃하의 진동호고 귀호를 가히 니르디 못홀디라. <영이록>, 34-35쪽.

인의 험난한 삶을 그대로 보여준다. 혼인날 손기의 거무튀튀한 얼굴, 작은 키, 추하고 더러운 외모에 장모를 비롯한 처가의 식솔들은 경악하고 놀란다. 그 옆에 선 계아의 빼어난 외모로 인해 손기의 못남과 장애는 더욱 부각될 뿐인 서사의 진행은 처가에서의 손기의 처지를 예감케 한다. 실제로 처가 사람들이 그를 어리석은 신랑이라 부르니 노복들도 공경하지 않는 등 손기는 처가에서 학대와 멸시를 당한다.

손싱이 성네 후 소저 침소로 도라가 다만 늦도록 줌자고 음식을 만나면 먹을 썩름이라. 일개 일궤라 어린 신랑이라 하고 가동 노복이 쏘흔 경디티 아니하니 손싱이 역시 어즈로운 머리와 버산 발로 의관을 아니하고 다만 소저 방둥의 곱히 쳐하야 소리를 내디 아니하니 쇼저의 즈미 일시의 사름으로 디접지 아니하느니라. 손싱이 더욱 귀먹으믈 일궤라 어린 거스로 즈쳐하야 비록 참정이 녀의 방둥의 니르러 못는 말이 니셔도 모르난 드시 응디치 아니하니 참정이 모음의 의심이 업디 아니하되 도스의 말을 곱히 못는디라 오리혀 리드리미 잇는 듯하야 종시히 둥디하미 업디 아니하고 ... 참정의 장자는 쏘흔 인물이 영오총명흔 사름이라. ...손 보호하고 가동을 엄히 계틱하야 감히 흘디티 못하게 하니...¹⁵³⁾

손기는 처가 사람들의 박대에 반응하지도 않고 누구와도 대화하지 않는다. 의관을 제대로 갖추지도 않으며 다만 신방에 들어가 먹고 자기만 한다. 자녀 중 가장 뛰어나다 칭송받던 계아의 유별난 신랑찾기의 결과 들어온 못난 신랑이기에 손기에 대한 집안 식구들의 혐오의 강도는 더욱 강할 수밖에 없다. 다만 가족 중 장인 형 참정과 장자 형 한림만이 그를 배려해 주며, 부인 계아가 손기를 남편으로서 존중하고 섬기며 그와 가정 구성원 간의 통로가 되어 줄 뿐이다. 이렇게 몇몇 인물을 제외하고 작품에 나오는 주변인들은 손기의 외모와 함께 제대로 말도 못하는 상태의 그를 어리석은 바보라 여기고 조롱하고 멸시하며 놀림거리가 되도록 방치한다.¹⁵⁴⁾

153) <영이록>, 36-37쪽.

154) 임치균, 「영이록 연구」, 『고전문학연구』 8, 한국고전문학회, 1993. 327-351쪽. 형참정과 형

장애를 벗기 이전의 손기의 이런 상황은 고전 서사에서 빈번히 등장하는 바이다. <김원전>의 김원 역시 검은 구의 기형적 형태를 벗기 이전까지는 후원에 머물며 먹기만 하는 존재였다. <박씨전>의 박씨 역시 장애를 벗기 전 고립된 채 시대 구성원의 박대를 받는다.

또한 고전소설 속 남주인공의 과한 장애는 그들의 시간을 멈추고 접힌 상태로 만든다. 유의미한 성장이나 이동이 없는 그저 살아있기만 한 삶이라는 류의 서사는 외형적 장애나 기형에 대한 부정적 가치관을 투영한 결과이다. 신성한 령(靈)이 아직 발견되기 이전이기에 보여지는 손기의 중증 장애 상태는 역설적으로 부정하 령(靈)이라면 외형적으로 이러한 장애로 구현될 수 있다는 상대적 전제를 함의한다. 손기의 못난 외모는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을 강화하고 그의 남과 소통하지 못하는 언어 장애는 더욱 그를 사회와 가정으로부터 고립시키는 원인이 된다.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에 대한 배려가 당연한 것이 아니듯 역으로 그에 대한 조롱과 폄하, 고립도 당연한 것이 아니다. 하지만 그 당연하지 않음에 대한 인식이 없는 처가 사람들의 행보는 이러한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배제의 문제를 은폐하고 도리어 당연시 한다.

손기 역시 유춘이나 김안국과 마찬가지로 지극히 낮은 자존감으로 사람 대하기를 두려워하며 스스로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숨어 살기를 원하는 태도를 일관한다. 특히 같은 집안의 사위로 소운성이 들어오면서 그 대비가 뚜렷해 집안에서 손기의 자리는 더욱 작아지고 조롱과 멸시의 강도는 가중된다.

㉔ 부인이 허허 우어 곶오덕 “내 원간 손싱의 흐리고 완둔흐믈 질증흐니 찰하리 광망흐 선빅를 어들지언정 눈박힌 고기덩어리를 취지 아니리니 소싱의 기운이 멩닐홀수록 첩의 막음의 마즌지라¹⁵⁵⁾...”

한림을 제외하고는(사실 이들도 손기의 능력을 인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모두 손기를 경대한다. 특히 장모는 소운성과 대비하며 손기를 미워한다.(334쪽)
155) <녕이록>, 41쪽.

㉔ …흐나흔 손낭으로 해야곰 더러오를 새 슝의게 보디 아니흐미 제계 규편
 흐고 들흔 내 몸이 니셔 신인의 음식기거 슬피미 맛당흐니 진실노 낭편흔 도리
 라.”¹⁵⁶⁾

위 두 인용문에서 ㉔는 사위로 소운성을 들이기를 고민하는 남편 형공에게 부인이
 손기와 같은 아둔함을 가진 ‘눈박힌 고기덩어리’ 사위보다 차라리 맹렬한 사위가 낫
 다며 소운성으로 사위 삼기를 강권하는 장면이고 ㉕는 소운성이 새로 사위로 들어오
 면서 남편 손기가 후원으로 물러가 숨어 지내기를 원한다는 딸 계아의 청에 형 참정
 이 옳지 않다고 반대하자 부인이 나서서 ‘더러움을 새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편이
 더 좋다며 손기 내외가 자식과 함께 후원으로 물러감을 허락하도록 권유하는 장면이
 다.

그리고 맹렬한 기운에 뛰어난 자질로 이미 높은 지위로 출세한 사위인 소운성은
 은폐된 듯 자취를 알 수 없는 손기를 찾아와 그를 조롱하고 놀림으로서 자신의 위세
 를 강화하려는 인물이다. 작품 초반 소운성과 손기의 대립¹⁵⁷⁾에서 손기는 철저히 약
 자이자 패배자가 된다. 심지어 손기는 그에 대한 소운성의 모멸적 태도와 조롱에 제
 대로 항의하거나 대응하지도 못하는 무능하고 모자란 태도만 보인다.

…목을 움치고 손으로 뚫출 스글거 괴상이 수참흐야 붓그려흐는 비치 늦척 꺾
 흐거늘 상세 손싱인 줄 슷치고 거긋 모러난 테흐야… 크게 놀나는 체 흐야 굴
 오덕

“샤기(邪氣) 정인(正人)을 범티 못흐느니…엇지 빅쥬의 비단 돛우히 기험(崎險)

156) <녕이록>, 43쪽.

157) 손기와 소운성 간의 대립담은 민담에 못난 사위남 혹은 사위대립담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관련하여 임치균, 앞 논문, 337-339쪽, 손찬식, 「『녕이록』의 민담수용양상」, 『국어교육』 49,
 한국국어교육연구회, 1984. 227-247쪽, 김용기, 「고소설의 못난 사위담을 활용한 자기 서사
 글쓰기 - ‘이경작, 소대성, 손기’를 중심으로 -」, 『한국문학과 예술』 38, 숭실대학교 한국문학
 과 예술 연구소, 2021, 5-36쪽 참조.

흔 낚기시 옛보논뇨?¹⁵⁸⁾

혼인 후 처가에 살면서도 한 번도 얼굴을 볼 수 없는 손윗동서인 손기를 보러 형씨 집안의 뱃놀이에 찾아온 소운성은 손기란 것을 눈치채고도 그 보잘것없는 모습을 조롱하고 모욕주려고 일부러 모른 척 그를 귀한 자리에 끼어든 귀신, 도깨비라고 칭한다. 또 시 대결에서 시를 짓지 않고 가만히 앉아있기만을 고수하는 손기에게 모욕감을 주기 위해 별로 손기와 억지로 짝이 된 기생 반선의 얼굴에 먹칠하고 손기에게 술 대신 강물을 떠먹도록 하나 손기가 ‘얼굴을 배 밑바닥에 박고 일어나지 않자’ 손기의 뒤통수에 물을 부으라고 명한다. 이때 좌중은 이런 손기와 소운성을 보며 입을 막고 웃어댈 뿐 아무도 소운성의 행위를 말리지 않는다. 주변인들은 손기와 소운성을 비교하며 손기를 더욱 천대하고 그의 아내가 된 계아를 불쌍히 여길 뿐 아니라 소운성이 손기를 괴롭히는 행위를 방관한다.

손싱이 이 썩 퍽박흐미 심흔지라 가슴 가운데 일백 잔납이 썩노는 듯 흐터
일언을 못흐고 다만 강개흔 눈물이 귀밧티 흐르물 썩닷지 못흐거늘¹⁵⁹⁾

손아랫동서인 소운성의 주도로 모욕당하는 상황에서도 손기는 한마디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바닥에 박고 눈물만 흘릴 뿐이다.

그리고 이 순간 손기의 내면 의식을 서술하는 장면이 서사 상 처음 등장한다. ‘가슴 가운데 일백 잔나비(원숭이)가 뛰노는 듯’ 가슴을 진정시키지 못할 정도로 분하지만 언어 장애로 인해 아무런 항의나 저항도 하지 못하고 단지 눈물만 흘릴 뿐이며 심지어 정신이 혼미할 지경이라 눈물을 흘리는 것도 깨닫지 못한다는 서술은 주인공 손기가 처가를 뛰쳐나오기 직전 그의 가출 동인을 확실히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하다. 이 사건 이후 손기는 처가를 나와 동약묘로 가, 홀로 천서 세 권을 수학한 후 돌

158) <녕이록>, 48쪽.

159) <녕이록>, 54쪽.

아온다. 이제 손기는 겉모습은 동일하지만 내면은 이미 신선의 도력을 얻은 인물이다. 태몽과 도사의 예언대로 본모습인 신선의 경지를 얻은 손기는 소운성을 도력으로 혼내주고, 소운성의 아들을 살리고,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는 등의 능력을 증명하며 인정받는다.

장애를 가진 상태에서 그는 방이나 거처인 후원 내부에만 거주하며 아내와 자식 이외에는 그 누구와도 교류하지 않는다. 이때 그를 대하는 주변은 그를 천대하고 멸시하고 사람이 아닌 눈 있는 고깃덩어리, 도깨비, 귀신이라 부르기를 서슴치 않는다. 그의 인격은 소거되고 손기의 내면도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그러나 언어 장애가 사라져 자신을 표출할 수 있게 된 손기의 뛰어난 능력 앞에서 주변의 반응은 이전과 전혀 다르게 나타난다. 그들은 손기의 변화를 처음엔 믿지 못하다가 그가 읽는 서적과 치병(治病)의 행적, 도술의 증거를 목격하고 비로소 그의 변화를 인정하고 예찬한다. 이러한 주변의 태도 변화는 단지 장애 유무에 따른 결과이다. 소운성이 나타나기 전까지 손기가 느끼는 고통이나 억압과 고독은 서사 밖으로 밀려나 있으며 서사 내에서는 그저 손기의 장애라는 외형적 특성만이 부각된다. 그러나 소운성이라는 인물이 등장하고 손기는 처음으로 내면의 격동을 느끼고 현재의 처지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정서적 변화를 겪는다. 손기는 '본가→처가→동약묘'라는 공간 이동을 하며 '지체, 지능, 언어장애→언어장애→신선'의 형상으로 변화하며, 예정된 미래의 자신의 본래 형상을 찾아가는 여정을 보여주는 인물이다.¹⁶⁰⁾

가정과 사회가 그에게 요구하는 온전한 몸의 형상이 되어가는 손기가 보여주는 일련의 서사는 고전소설 속에 반영된 당대의 온전한 몸의 형상 추구 담론이자 불완전한 몸에 대한 공포와 배제의 시선이라 할 수 있다.

160) 이를 정동(情動)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좁은 의미에서 정동은 어떤 사람이 특정 상황(공간, 공간에 속한 사람과 사물, 공유하는 시간의 궤적의 총칭)에서의 정서적 움직임으로 정의할 수 있다. 정동 이론적 측면에서 욕망하고 운동하고 사유하며 경청하는 현존하는 몸은 다양한 사회적 힘들이 교차하는 상호 작용과 내부작용을 거쳐 약속되거나 예측되는 '되기'를 반복하고 지속한다. 이런 측면에서 한 개인의 몸은 개별적이고 내면적인 역사의 장소인 동시에 연결된 다른 신체의 역사성을 가진다. 동아대학교 젠더어팩트연구소 저, 『약속과 예측』, 산지니, 2020. 8-9쪽.

배제된 장애인으로서의 손기의 접힌 시간에 대한 보상은 유춘과 마찬가지로 이후 손기가 제후보다 높고, 임금에게조차 공경받는 호국사천사(護國師天師) 지위에 오름으로써 보상받는다.

손기와 유춘의 서사 전개는 상당 부분 유사성을 보인다. 유춘 역시 손기와 마찬가지로 ‘본가→처가→장안’이라는 공간 이동을 통해 ‘미성숙한 남아(男兒)→사회적 남성→육체적 남성’으로 변화하며 자신의 장애를 극복하고 되어야 할 자신의 본래 형상을 찾아가는 여정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유춘의 경우 신체적 장애인 성불구뿐 아니라 낮은 자존감 및 부모와 분리되지 못하는 미성숙한 자아였다가 처가에서의 축출과 아미산 수련을 거치며 사회적 남성으로서의 의지를 다지면서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고 그 이후에야 장안에서 기생 옥랑을 만나 신체적으로도 완전한 남성의 형상을 얻게 되는 치유 서사를 보여준다. 심리적·육체적으로 인물이 가지고 있던 장애를 해결하고 난 후 유춘은 비로소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고 이전에 잃었던 남편의 자리를 회복하고 사회적 인정과 영화를 얻는다.

이렇듯 두 작품 모두 서사 내적으로 약속된 ‘되기로 한 몸’의 완성에 대한 보상이 확실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질병과 장애 없는 몸에 대한 강한 치유 열망 서사는 그 자체로 장애 없는 몸에 대한 강한 희구를 표현하는 것이되 이면적으로 장애 있는 몸에 대한 차별의 시선 역시 내포한 양면적 성격을 보여준다.

Ⅲ. 장애와 치유 지향 서사의 의미

서사문학에는 세상에 대한 탐색과 이해 방식이 담겨있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서사문학은 사람들 사이의 차이를 이해하는 데에 주목한다.

이야기 속에서 장애는 한 마디로 다름이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걷고 보고 말하고

느끼는 방식이나 정보를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방식은 하나라고 가정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정에서 벗어난 일탈로서의 장애는 그러므로 이유가 필요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또 이야기 속 장애인과 그 주변의 시선과 대응은 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서로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혹은 대해야 하는지를 일깨워주며, 사회가 장애와 비장애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말해준다. 근대 이전 과학이나 의학이라는 도구를 갖기 전 인간은 장애를 하늘의 섭리로 설명하고자 했다. 기적이거나 하늘의 섭리를 통해 서사는 선(線)에서 일탈한 몸인 장애에 질서를 부여하고, 상상할 수 없는 것에 정당한 이유나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게 되었다.

현실에서 장애인들은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적 배제를 경험한다. 직업의 기회나 이동의 방법에서도 그들은 일반과 다르기에 배제되거나 차별받는다. 그러므로 장애 문제는 사회적 배제와의 상호 관련성 하에 이해될 수밖에 없다.

1. 장애 인물 형상화로 드러난 장애의 의미

1) 다른 몸에 대한 배제와 타자화

고전소설에서 소설 속 장애인 주인공들은 자신들에게 본래 주어지거나 그들이 수행해야 할 사회적 위치에서의 배제를 경험한다. 이때 배제의 양상은 장애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그려진다.

후룡과 유춘은 모두 선천적 장애인이지만, 그 장애가 타인의 시선에 노출되는가에 따라 부모가 자식을 대하는 방식에서 차이가 나타난다. 이런 차이는 장애인의 다른 몸을 다름이 아닌 틀림으로 규정하는 것은 장애인이 아닌 비장애인에 의한 것이며 이 규정이 장애인을 타자화시키는 첫 시작이란 것을 보여준다. 마찬가지로 타인의 시선과 판단에 의해 강제로 타자화되는 장애인의 자리와 그 담론의 형성을 <박씨전>

박씨, 〈한조〉 설여주, 〈영이룩〉 손기 등에서도 다양하게 확인할 수 있다.

박씨와 설여주의 추모는 실상 엄밀한 의미의 신체 장애가 아니지만 소설 속에서 그들을 대하는 타자들의 태도와 시선이 일반의 신체 장애를 대하는 방식과 유사하기에 서사적으로 ‘장애인’으로 자리매김하여 살아간다. 박씨의 부친은 박씨의 추모를 숨겨서 박씨를 이시백과 혼인할 수 있게 했으며 설여주의 부친도 자식을 사랑하면서도 추모인 외양은 부끄럽게 여겨 그녀를 은폐하여 키웠다. 그리고 박씨와 설여주에게서 나타난 추모 은폐와 혼인 후 출가 이후 이어지는 멸시과 고립의 서사는 그 은폐성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녀들의 외모가 남편과 시댁 식구들에게 드러날 때 부정적 반응을 강화시키는 요소가 된다.

여성의 추모가 혼인 생활에 큰 결함으로 작용하는 이러한 서사 진행은 남성 장애인물에서는 드러나지 않는 여성 장애 인물만의 독특한 지점이다. 이런 특성은 〈영이룩〉의 손기 역시 거무튀튀하고 못난 외모를 가진 인물로 등장하지만 이것이 박씨나 설여주, 뽕덕어미, 계모 허씨같은 가치 판단의 영역으로 다뤄지지는 않으며 손기가 언어 장애를 치유하여 선인의 도를 얻은 후에는 그의 외양에 대한 언급이 전혀 나오지 않는 것에서도 남성에게 있어 미추의 영역은 판단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남녀간 서사 내 주변의 시선과 대응의 차이는 장애가 몸의 주체, 몸이 처한 사회적·문화적 상황 등과 조응하여 결정되는 상대적 개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대목이라 하겠다.

이처럼 타인의 시선에 의해 규정되는 장애는 당사자의 능력과 무관하게 그들을 바라보는 타자의 시선과 대응에 의해 ‘장애’로 규정된다.

〈영이룩〉의 손기는 처가의 후원에서 자식의 가족인 부인 및 자식들과 어울릴 때에는 편안하게 아이들과 자연스러운 부자 관계를 형성하고 부인과도 어려움 없이 소통하며 지낸다. 그의 언어 장애는 그를 아끼고 배려하는 대상과 함께 할 때에는 사회적 관계 형성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반면 그의 언어 장애를 혐오하고 멸시하는 장모나 처가 식솔들 앞에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위축되고 긴장된 상태

로 대응한다. 손기의 이런 모습을 마주할수록 점차 사람들의 조롱과 차별은 강화되어간다.

그리고 이렇게 가정 공동체에서 차별과 존재의 부정을 겪은 장애인들이 결국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출가, 가출, 은거하게 되는 서사 전개 역시 폭력적 내재화의 서사가 담겨 있다. 장애를 최악의 결과로서 개인이 겪는 고통이라 여기는 시선뿐 아니라 그 장애를 사회와 집단 내 수용 및 용인의 판단 요소로 바라보는 시선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남과 다른 신체적 특성을 최악의 결과로 여기는 가치관은 인물로 하여금 죄악감을 가지게 하고, 다수의 작품에서 이들을 둘러싼 제일 첫 번째 사회적 관계인 부모가 장애를 한탄하고 경시하거나 은폐하는 행위는 이들의 죄악감과 고독감을 강화한다.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가정 내 갈등은 장애인으로 하여금 이 공동체에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 은폐되거나 사라져야 할 존재로서의 자아를 형성하게 만드는 요소들이다.

〈김안국전〉의 김안국은 명문가의 장손으로 태어나 14세가 되도록 글자를 읽지 못해 결국 버림받는 인물이다¹⁶¹⁾. 안국의 부친은 ‘우리 선조의 혁혁한 명성이 장차 저 아이의 대에 이르러 떨어지게’ 되는 것을 걱정하며 ‘조상을 욕되게 하는 자식을 두느니 차라리 자식이 없어 제사를 치르지 않는 편이 낫다’고 판단한다. 그리고 차마 아들을 죽일 수는 없기에 서울을 방문한 종제 청에게 안국을 붙여 보내는 방식으로 안국을 안동으로 추방하고 훗시 후에 본가가 있는 서울로 올라와 사람들에게 장애를 들킬 여지를 만든다면 죽이겠다는 엄포로 안국을 위협한다. 그리고 이러한 형님의 처사를 잔혹하다고 여겼던 청 역시 안국을 데리고 와 그가 글자를 읽지 못하는 것을 확인 후 형님이 그럴만했다고 동감한다. 이러한 안국 부친의 처사는 현재의 시점에서 보면 잔혹한 아버지처럼 여겨진다. 그러나 처음에 형님의 처사의 부당함을 비판하

161) 김준형 역주, 『동상기찬』, 휴머니스트, 2021.

“저는 전부터 한담(閑談)이나 이야기를 들으면 정신이 맑아져서, 밤낮으로 천 마디 만 마디를 듣는다 해도 한 번만 들으면 다 기억해 재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자는 어떻게 해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문(文)’이란 한 말만 들어도 정신이 혼미해지고 머리도 쭈신답니다. 숙부님께서 죽으신다면 죽겠습니다만, 문자는 정말로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212 쪽).

며 안국을 맡은 청의 형님의 행동에 대한 긍정적 언사가 이어지며 부친의 처사가 결코 지나친 것이 아니라는 서사적 당위성을 부여한다. 이를 통해 사대부 가문에서 문장을 읽고 쓸 수 없는 난독증을 타고난 안국의 장애가 무척 심각한 장애로 인식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 조선에서는 간질, 곱추, 애꾸, 간질자 등의 장애를 가지고도 높은 지위에 올라 벼슬을 했던 바¹⁶²⁾ 여타 다른 신체 장애에 비해, 난독증은 글자를 읽지 못해 학문 수양과 관직 진출이 요원한 원인이 되기에 이는 곧 사대부 남성이자 장손으로서 제대로 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의미한다. 즉 난독증에 대한 인식과 치료 방법이 부재한 작품 속 상황에서 안국의 장애는 문장으로 명망높은 가문의 존속을 위협하는 것이었다. 말하자면 김안국은 그에게 요구되는 가정과 사회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자식이었다. 김안국 부친의 절망과 분노는 자식의 능력 미달에 대한 실망보다 가문의 안위에 대한 걱정에서 기인한다. 자랄수록 이 장애는 남들에게 들킬 여지가 커진다. 결국 부친은 둘째 아들이 김안국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서자 김안국을 가문에서 소거하고자 한다. 차마 자식을 죽일 수는 없지만 죽이고 싶을 정도로 김안국을 미워하여 결국 안동의 사촌동생 집으로 김안국을 쫓아보내며 죽을 때까지 서울 근처에 얼씬하지 말도록 당부한다. 아버지에 의해 존제를 부정당하고 살해 위협을 받은 안국은 이를 아무 저항 없이 수용하는 데 안국 역시 자신의 장애가 어떤 의미인지 인식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부분이다.

김안국이 하필 문장으로 이름을 날린 가문에 장자로 태어난 것이 서사에서는 가장 큰 문제가 되는 부분이다. 김안국이 만약 평범한 백성의 집에 태어난 남성이거나 혹은 사대부 가문이라 하더라도 여성으로 태어났다면 김안국의 장애가 이 정도로 문제가 되진 않았을 것이다. 장애가 그가 처한 시공간과 사회의 호명에 의해 장애로 인식되기 시작한다는 사회적 관점의 장애의 개념을 여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서사에서 가문의 존속이라는 당위성 앞에서 핏줄은 의미가 없다. 사대부 남성

162) 정창권, 『역사 속 장애인은 어떻게 살았을까: 사료와 함께 읽는 장애인사』, 글항아리, 2011, 정창권·윤종선 외, 『한국 장애인사』, 숲대, 2014.

에게 요구되는 공동체에서의 역할이 개인의 고통과 생명보다 중시되는 이러한 서사적 흐름은 하나의 삶의 방식 외에는 여지를 두지 않는 사회적 역할 규정의 폭력성을 보여준다. 한 사람에게 주어진 역할이 부자(父子)라는 인간적 관계나 인물이 가진 여타의 장점, 인간의 생명보다 중요하게 여겨지는 서사는 일률적으로 삶의 방향성과 방식을 규정하고 이를 벗어난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편협하고 억압적 사회의 분위기를 보여준다. 그리고 사회가 요구하는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제거하거나 배제하여 선(線) 밖으로 이탈된 삶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의 폭력성은 자식에 대한 증오와 제거 욕망을 죄책감 없이 표출하는 부친과 부친의 폭력적 처사를 저항 없이 수용하는 안국을 통해 구현되고 강화된다.

영웅소설 속 주인공이 겪는 출가나 가출은 영웅성 발현을 위한 시련의 단계이다. 하지만 여기에 장애라는 요소가 들어간 순간 서사는 그 이면에 장애인에 대한 불공정한 시선, 장애인이 가족 공동체를 넘어 사회 공동체에서 불완전한 인간의 상징이자 은폐되거나 차별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시선을 형성한다. 다수의 장애 인물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작품들에서도 출가하거나 가출한 인물들은 이후 수많은 멸시와 차별, 폭력과 배제를 겪게 된다.

박씨는 그 추한 외모로 인해 혼인 직후부터 남편과 시모로부터 박대와 미움을 받는다. 이런 주인공들의 태도를 보고 집안의 비복들 역시 박씨를 미워하고 박대한다. 박씨를 박대해도 된다는 암묵적 태도의 내리물림이자 사회적 담론이 형성되는 과정이 소설 서사의 면면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 또한 그는 사람이되 사람으로 존중받지 못하여 사람들은 그를 보고 침을 뱉고 멸시한다. 또 그는 가정의 일원이되 그 공동체에서 배척되어 아무런 역할을 부여받지도 수행하지 못하고 고립된다. 구성원들은 그를 물리적으로는 방치했을 뿐이지만 정신적 · 사회적으로는 폭력을 가했다. 〈박씨전〉은 이러한 서사는 다시 한번 장애인을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사회제도와 공동체 테두리 밖으로 밀어내는 현재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배제가 고전 서사 내부에서도 존재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지점이며, 장애 그 자체가 차별과 배제

의 근거가 되는 또 하나의 서사이기도 하다.

이렇듯 박씨는 며느리로 들어갔으나 추모라는 장애로 인해 자신의 역할을 박탈당하고 고독한 상태로 방에서 먹고 자는 일 외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유춘 역시 성불구라는 기형이 있을 뿐 신체적·지능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유교 사회가 요구하는 장부의 업을 수행하지 못하고 집안과 산 속에 은거하는 인물이다. 장애로 인해 온전한 장부 즉 사회적 남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낮은 자존감은 그의 사회적 위치를 주장할 수 없도록 하고 자발적으로 스스로를 타자화시키도록 만든 기제가 된다. 후원에 갇힌 김원 역시 어떤 인간적 관계도 맺지 못하고 그저 먹고 크는 사육에 가까운 상황에서 성장하며 손기도 장모에 의해 더러운 것 취급받으며 새 식구의 눈앞에 들 수 없는 존재라 가족 공동체의 거처 밖으로 밀려나간다.

김안국은 안동으로 쫓겨난 후 이씨와 혼인했지만 늘 별당에 머물며 장인이나 처가 식구들과 교류하지 않고 고립을 자처한다. 이씨 부인이 매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말도 하지 않고 혼자 방안에 드러누워 있는 안국에게 ‘사람이 어찌 매일 그러고 살 수 있냐’고 걱정할 정도로 그는 그 누구와도 사회적 관계를 맺지 않는다. 특히 안국의 혼인은 그의 집안과 외모만을 보고 실행된 가치교환적 혼인¹⁶³⁾인지라 스스로에 대한 자괴감이 무엇보다 클 수밖에 없었다. 그는 혼인 과정에서 비범한 외모에 서울 명문가의 자제가 굳이 지방의 한미한 집안의 여식을 찾아 혼인하는 이유를 의심한 장인 앞에서 고자가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하체를 드러내는 굴욕을 겪기도 한다. 안국은 특히 다른 작품 속 장애 인물보다 더 사회적 가치 증명이 중시되는 인물로 서사에서 형상화되고 있다. 가문 존속을 위해 사대부 남성에게 요구되는 능력 증명의 굴레가 그 자신의 개성이나 주체성을 소거하고 그를 향한 폭

163)김준형, 앞의 책.

유신은 마음속으로 계산해 보았다. ‘안동 좌수의 딸이 지금 대제학의 아들에게 시집가면 그것도 만족스러운 일이 아닌가? 어떻게 글 잘하는 것까지 바랄 수 있겠는가. 또 비록 쫓겨났다 해도 내가 거두어서 돌보면 되지. 그러면 해로울 것도 없지 않은가?’ 마침내 혼인을 허락했다. (213쪽) : 有臣心自計較曰: “以安東座首之女, 嫁得時任大提學之子, 斯亦滿足. 又安敢望其能文, 且其雖見逐, 吾當率育, 亦何有妨?” 遂許婚. (565쪽)

력적 처사에 당위성을 부여한다. 그래서 난독증으로 인해 사회적 역할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안국은 가정적으로는 사망에 준하는 취급을 받고, 스스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기를 기피하는 인물로 성장한다.

이러한 일련의 서사들은 장애인이 자신의 정체성을 스스로가 아닌 타자에 의해 규정된 자아로 인식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다. 이야기 내 장애 인물의 장애는 일반과 다르기에 눈에 띄고 이탈된 그들의 특성이 공동체 내에서 수용되지 못할 때 이들은 그 다름으로 인해 고립되고 배제된다.

그리고 장애인들의 사회적 관계의 단절은 그들의 삶을 지지대 없이 해체되도록 만든다. 현실 속 장애인들의 사회 관계는 친구, 이웃, 가족 공동체 등을 들 수 있다. 하지만 고전소설 속 장애인들의 사회적 관계를 살피면 이들은 가족 외에는 사회적 관계랄 것을 형성하지 못하고 사회와 단절되거나 고립된 상태로 산다.

이런 관계 단절은 당연히 대인관계에 두려움과 위축감을 가지게 하는 기저가 된다. 박씨의 피화당, 김원의 누각, 심봉사의 집안, 유춘의 산 속 수련과 처가의 후당, 손기의 후원, 김안국의 십 년간의 칩거 등 고전소설 속 모든 장애를 가진 주인공들은 자신의 장애를 기꺼이 대면하는 일부 가족과만 소통할 뿐 고립된 공간에 숨어 들어가 단절된 삶을 살아가는 외롭고 고독한 존재이다. 이는 당대 장애인들이 생애 과정 전체에서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지속적으로 배제된 경험들의 반영이다.

이렇게 배제와 고립은 공간적 차원의 배제로 확장되고 그로 인한 장애인의 사회적 관계의 배제 현상으로 이어진다. 장애인의 이동의 부자유 혹은 공간적 고립은 사회적 관계의 단절을 필연적으로 낳는다. 이 단절은 서사 내에서 이들을 돌보는 가족 구성원 부재 시 장애인에 대한 지지체계가 해체되고 이들을 더욱 곤란한 상황으로 몰아가는 상황의 발생을 통해 제시된다.

심봉사는 심청 부재 시 밖으로 나갔다가 물에 빠져 죽을 위기에 처하고 유춘 역시 부모의 돌봄과 방어를 벗어난 처가에서 장애가 발각된 후 수치를 당하고 쫓

겨나며, 후릉과 허영 역시 집을 벗어난 길 위에서 목숨이 위협당하는 위험을 몇 번이고 겪게 된다. 심청을 재물로 산 장사꾼들이 심봉사를 구완하기 위해 기증한 재산은 심봉사의 감시가 부재한 상황에서 뺨덕어미에 의해 전부 사라지지만 공동체의 누구도 이러한 경제적 파산 상황을 심봉사에게 경고하거나 알려주지 않는다. 심봉사는 오로지 집안 내에서 돌봄을 자처하는 여성과만 소통한다. 이러한 장애인의 고립 상황이 그의 경제적 파산과 빈곤을 유발시키는 한 원인이 된다는 서사적 흐름은 공동체의 삶으로부터 장애인들이 배제되거나 고립되어있는 상황의 형상화라 하겠다.

현대의 장애인이 자신의 능력과 별개로 능력을 펼칠 기회를 얻기조차 힘든 것, 여전히 가정 내에서 은거하다시피 지내는 경우가 많다는 것, 장애인의 사회 활동이나 이동이 일반인만큼 보장되지 못하거나 배제되는 등의 현실과 고전소설 속 장애인 주인공의 현실은 별반 다르지 않다. 그리고 현재 우리 사회가 가진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배제의 의식이 비록 우생학과 의학의 발달이라는 근대성에 의해 폭발되고 가시화되었을지언정 이미 그 이전에 우리 사회 내부에 존재하는 의식이었다는 것을 고전 서사에서 발견할 수 있다.

장애를 다름이 아니라 틀린 것으로 규정하는 사회적 편견은 장애를 부정하고 터부시하는 관념을 강화했다. 사회적 배제 경험을 통해 장애인의 정체성은 타인에 의해 규정된다. 이러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서사 내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주변인 특히 부모를 통해 드러난다.

장애인으로 태어난 자식을 괴물이나 괴이한 것으로 지칭(〈금방울전〉〈김원전〉)한 다거나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자식을 가엾고 불쌍히 여기는(〈영이록〉〈유화기연〉) 태도에서는 이미 예견된 자식이 가진 본질에 대한 인식은 소거된 상태이다. 현재 목도하고 있는 자식의 장애가 부모에게 주는 정신적 충격과 공포, 두려움은 장차 큰 인물이 될 것이라는 예언 즉 자식의 본질보다 그 외형만을 주목하게 한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장애인을 대하는 사회적 관계에서 대부분 발생하는 태도이기도

하다. 장애인을 그 내면의 자질과 품성을 보기 전에 그 외적인 신체적 기형과 장애만으로 판단하는 사회적 편견은 장애인의 주체성을 소거하고 이들을 사회적으로 타자화하고 사회가 정의한 틀 안에서 이들을 판단하는 태도를 형성한다.

이 타자화의 문제는 장애인 당사자에게도 영향을 미쳐 이들은 손상되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신체나 상태를 비정상화하는 사회적 규범 방식에 의해 스스로를 비참히 여기고 괴로워하며 우울한 존재로 규정한다. 이는 장애에 대한 왜곡된 규범이 어떠한 사회적 배제 현상을 야기시키고 이에 따라 누적된 비가시적 배제 경험들이 이들의 자아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여주는 부분이다.

유준과 손기, 김안국은 누적된 사회적 배제의 경험으로 스스로 고립을 자처하는 인물들이다. 유준은 우울함을 떨치기 위해 가출하고 손기는 후원에 숨어 살다가 손아랫동서로부터 받은 모멸감으로 인해 집을 떠나기도 한다. 유준과 김안국은 거듭된 은폐와 배제의 경험으로 객관적인 외형의 아름다움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제대로 된 장부나 사대부 노릇을 하지 못할 것이라 정의하고 사회적 관계와 역할 수행을 거부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이들이 가진 낮은 자존감과 배제의 충격은 장애를 치유한 후에도 배제의 경험이 누적된 대상을 기피하게 하는 두려움으로 여전히 그들에게 남아 스스로 그 앞에 나서기를 주저하게 한다. 결국 서사는 이들의 치유가 사회적으로 공인받는 것을 먼저 배치하여 이들 스스로 나서 자신을 배제하고 소외했던 집단에서 스스로 자신의 치유를 증명하지 않도록 안배한다.

이렇듯 고전소설 속에서 장애인들은 생애과정에서 누적된 배제 경험으로 인해 스스로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며 아무런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로 자신을 정형화한다. 또한 이런 정체성을 가진 상태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사회적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갈등을 빚거나 지역사회 한 구성원으로 결속감이나 소속감을 가지지 못하는 모습도 드러난다.

2) 개인의 희생과 자선으로 은폐한 사회적 책무

과거부터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의 돌봄의 책무는 가정 단위로 부여됐다.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가진 가족을 돌본다는 것은 실상 육체적·정신적 괴로움을 동반하는 일이 분명하기에 조선 세종 때에는 가정 내에게 거동이 불편한 병인이 있는데 돌볼 가족이 없다면 그를 전담하여 돌봐줄 수 있는 장정을 뽑아 붙여주도록 하였으며, 만약 붙여줄 장정이 없다면 그 장애인 혹은 가정이 장애 가족을 돌볼 수 있게 곡식이나 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는 장애인 복지 정책을 실시하기도 했다¹⁶⁴⁾. 하지만 앞서 살펴보았듯 이러한 장애복지 정책도 시대가 변하고 전란을 겪으며 유명무실해졌거나 사라지거나 해서 조선 후기 장애인들의 삶은 이전보다 피폐할 수밖에 없었다.

병자를 돌보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더군다나 서사 상에서 드러나듯 남성이 장애가 있어 거동이나 사회적 활동이 용이하지 않을 때, 그 집안은 가난과 장애라는 이중고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조선 시대 장애인에 대한 구휼로 조세 및 부역 면제 및 시기별로 곡식 등을 내리는 수혜 등이 존재했다지만¹⁶⁵⁾ 알다시피 사회와 제도는 완

164) 박현주, 「조선 영·정조 시대의 구빈정책에 관한 연구: 길버트와 테렐의 정책분석틀에 적용하여」, 『사회복지역사연구』 1권 1호, 한국사회복지역사학회, 2018. 조선 시대 의창은 공민 구제기관으로 평상시 양식을 저장했다가 흉년에 생산 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폐질자에게 곡물을 지급하였다(159쪽).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난 국왕별 진휼, 구휼 관련 기록을 보면 숙종>영조>세종=정조 순으로 많은데(164쪽). 가족공동체의 상호부양을 전제로 한 조선에서는 환과고독, 장애인(폐질자), 노처녀까지 사회적 약자로 간주하여 구휼 범주에 넣었다.(165쪽)

165) 『태조실록』 3권, 태조 2년(1393) 4월 19일: 임금이 가뭄을 근심하여 우승지(右承旨) 한상경(韓尙敬)에게 명해서 네 가지 일로써 도평의사사에 전지(傳旨)하였다. 환과고독(鰥寡孤獨)과 늙고 쇠약하며 폐질(廢疾) 등으로 가난하여, 스스로 생존하지 못할 사람은 잡다(雜多)한 요역(徭役)을 면제하고, 불쌍히 여겨 구휼(救恤)하게 할 것이며; 上憂旱, 命右承旨韓尙敬, 以四事傳旨都評議使司: 鰥寡孤獨, 老弱廢疾等, 貧乏不能自存者, 蠲免雜泛徭役存恤

『태조실록』 15권, 태조 7년(1398), 좌정승 조준 등이 시무(時務) 3조목을 면대(面對)하여 진술하였다. … 여러 도(道)의 남녀로서 나이 80세 이상이 된 사람과 효자·순손(順孫)·의부(義夫)·절부(節婦)와 빈궁하고 폐질(廢疾)이 있어 능히 스스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은, 지위의 높고 낮은 것을 묻지 않고 잡역(雜役)을 면제하고 우대하여 긍휼(矜恤)할 것이며; 左政丞趙浚等面陳時務三條. … 一. 諸道男女年八十已上者及孝子, 順孫, 義夫, 節婦, 貧乏廢疾不能自存者, 無問尊卑, 蠲免雜役, 優加矜恤.

『정종실록』 5권, 정종 2년(1400) 7월 2일: 나라에서 가진 편민 사의(便民事宜)를 조목별로 나열하기를 다음과 같이 하니…환과 고독(鰥寡孤獨)·노유(老幼)·폐질자(廢疾者) 가운데 산업(產業)이 있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자를 제외하고, 궁하여 스스로 생존할 수 없는 자는 소재지

벽하지도 투명하지도 않아 제대로 모든 장애인과 그 가정이 이 수혜를 입었다고 확신할 순 없다. 결국 장애인을 돌보는 책무는 그 가정 특히 가정의 여성에게 부과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이러한 조선 후기 장애인과 돌봄 노동을 하는 여성의 삶을 잘 보여주는 것이 〈심청전〉이다.

가난한 홀아비 맹인과 어린 딸의 생활을 해결해주는 실질적인 국가 제도나 구휼은 서사 상 드러나지 않는다. 이는 조선 후기 장애인을 위한 실질적인 국가 및 사회제도의 부재를 반영한 것이다. 심봉사의 짓동냥과 구걸, 심청의 구걸을 통한 생활의 연명은 공동체의 인정에 기댄 삶이다. 공동체가 제도적으로 이들을 돌본 것이 아니라 따뜻한 연민의 정으로 그들을 돌본다. 이는 일시적이고 즉흥적인 구제이지 국가적 제도 안에서 이뤄진 것이 아니다. 이는 단순한 사회적 책무의 회피를 넘어 여전히 지금도 지속되는 장애와 그 돌봄 노동을 장애자 개인 혹은 가족에게 책임 지우고 개인적으로 극복해야 할 문제로 국한시키는 공동체의 담론이 형상화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심봉사는 그 장애로 인해 스스로의 노동으로 생계를 연명할 방법이 없어 구걸을 통해 공동체의 자비에 기대어 생계를 유지해야 했다. 또 심청 성장 후에는 자식인 심청의 봉양에 기대야 했고, 심청을 제물로 사가는 벻사람들은 인정이라는 자비심으로 심봉사의 이후 생활을 책임지는 자선을 베푼다. 그리고 마을 공동체는 가족 없이 혼자가 된 장애인인 심봉사를 돌봐주는 돌봄 공동체를 구성한다. 즉 심청 부녀의 전 반부의 삶은 사람들의 자선에 기댄 삶이었다.

자선은 기존 사회 구조를 고착화하는 역할을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선을 베풀고자 하는 경향이 있고 이야기 속 자선 행위는 장애에 대한 불평등한 사회 전반적

관사에서 우대하여 진휼 구제하여 살 곳을 잃지 말게 하라. 一, 鰥寡孤獨老幼廢疾, 除有產業可以自養者外, 窮而不能自存者, 所在官司, 優加賑濟, 毋致失所.

『세종실록』 2권, 세종 원년(1418) 11월 3일: 환과고독(鰥寡孤獨)과 피음(疲癯)·잔질(殘疾)068)은 왕자(王者)의 정치에서 마땅히 불쌍히 여겨야 될 바이니, 안으로는 한성부(漢城府)의 5부(部)와 밖으로는 감사(監司)와 수령이 상세히 심문(審問)하여, 환상(還上)과 진제(賑濟)를 우선 나누어 주어 그들의 처소를 잃지 말게 할 것이다: 鰥寡孤獨, 疲癯殘疾, 王政所當哀矜. 內而漢城府五部, 外而監司守令, 詳加審問, 還上賑濟, 爲先分給【國俗, 義倉所貸, 謂之還上】毋致失所.

인 경제 및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는 노력에 관심을 보이지 않음으로써 현실에서도 이 문제의 해결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도록 한다. 이러한 장애인과 그를 둘러싼 인물들의 자발적 희생이나 자선의 서사는 국가와 사회의 책무에 대한 의문과 요구를 은폐하는 서사이다.

이런 서사에서 장애인을 돌보는 가족은 필연적으로 장애인과 운명공동체로 엮인다. 그래서 그 장애가 해소되지 않는 한, 장애인의 가족 역시 장애인과 같이 선(線) 밖의 삶을 살 수밖에 없으며 온전한 독립적 자아로 존재할 수 없다. 그래서 돌봄을 감당하는 가족에게도 장애는 어떠한 대가나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극복해야 할 자신의 문제가 된다. 이렇게 장애인 가족 개인의 고통은 그를 돌보는 가족에게 전이되고 이 과정에서 결핍의 주체는 개인이 아닌 가족 공동체로 확대된다. 그리고 이때 치유는 한 개인의 문제가 가족의 문제가 되었기에 더욱더 당위성을 확보된다.¹⁶⁶⁾

이제 장애를 극복하는 것은 장애 당사자인 심봉사뿐 아니라 그 가족인 심청에게도 절박한 문제가 된다. 사회는 장애에 대한 돌봄의 책임을 가족과 공동체의 희생과 자비에 미뤘다. 그뿐 아니라 장애인을 돌보거나 회복시켜 사회로 귀환시킬 책무를 장애를 가진 개인뿐 아니라 그 가족에게도 동일하게 부여해 가족은 장애인 가족을 포용하여 치유시키거나 가족공동체 밖으로 내쳐 가족 구성원에서 소멸시키는 양자택일의 선택을 해야 한다.

죽음을 불사하면서까지 기적에 기대어 부친의 장애를 극복하고자 하는 심청의 절박함이나 가족의 거주공간인 방을 부술 것 같아 김원을 후원 누각으로 옮긴 김원의 부모, 돌봄 노동과 자식의 장애를 마주할 용기가 없어 후룡의 가출을 용인하고 돌봄을 포기한 후룡의 모친은 결국 이렇듯 개인에게 지워진 치유의 책무를 해결하거나 포기한 삶의 형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부친의 치유를 위해 죽음을 불사하는 심청의 행위는 효 이데올로기로 포장되고 김원의 고립의 고통은 배제한 채 날마다

166) 김은정, 『치유라는 이름의 폭력』, 후마니타스, 2022. 김은정은 이러한 장애인의 치유를 열망하는 가족 공동체의 희생과 헌신을 통한 치유의 서사를 '대리치유'로 설명하고 있다. 135-196쪽.

후원에 있는 ‘그것’으로 인해 전전긍긍하는 김원 부모의 모습에만 주목한다든가 자식을 죽을지도 모르는 길로 내친 후룡의 모친에게 죄업에 대한 징벌의 두려움을 덧입혀 모진 모성이라 질타하는 것은 이데올로기와 기이성 그리고 모성이라는 본성으로 장애인의 장애를 진지하게 고민할 여지를 소거하는 서사적 장치이다. 이것들은 장애인과 그 장애에 대한 사회의 대응체계의 부재 및 제도적인 고민의 서사가 부재한 상황을 은폐하는 것이며, 실제로 서사를 읽는 독자에게도 장애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사회 제도에 대한 문제 의식을 가지지 못하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게다가 이러한 은폐가 더욱 문제가 되는 이유는 고전소설에서는 이러한 은폐와 동시에 치유에 대한 강한 지향성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은혜와 치유 지향성은 함께 상호작용하여 장애 당사자와 가족을 더욱 사회로부터 고립시키고 좌절시키는 힘으로 작용한다. 한편 고전소설에서 나타나는 치유 지향성이 가지는 의미는 양면적이기도 하다. 이에 치유의 의미를 보다 자세히 다음 장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2. 치유 서사에 담긴 치유의 양면적 의미

1) 반드시 치유되어야 할 장애

고전소설은 이전 시대의 사람들이 세상을 설명하는 방법이자 그들의 관습과 믿음을 기반으로 하늘이나 운명과 같은 힘이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을 자신들에게 만들어주리라는 희망, 그리고 그를 통한 공동체의 화합을 보여주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대부분의 고전소설 속 주인공의 장애는 기적에 의해 치유되어 그 외형이 사회가 규정한 선(線) 안에 맞게 변하는 과정을 겪는다. 앞서 II장에서 다룬 고전소설 속 장애를 가진 주인공들은 모두 그 장애를 기적과 업보의 종결로 극복 즉 치유되는 서사를 보여줬다. 이렇듯 고전소설 속 장애는 모두 결국은 치유된다.

예비된 치유는 독자로 하여금 치유 이전에 장애인들이 겪는 고통과 고난, 배제와 차별을 가볍게 여기도록 만든다. 오히려 그 차별과 배제가 심할수록 이후 이어질 치유의 영광이 강화된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치유된 몸이 가지는 부귀영화와 사회적 인정은 실제 현실 속 치유되지 못한 장애의 고통을 무시하고 은폐한다. 소설과 현실은 다르다. 소설의 기적과 행복한 결말은 일시적으로 서사 안에서 희망과 즐거움을 전달하지만 현실과 괴리된 치유의 기적은 도리어 현실 속 장애의 괴로움을 진지하게 고민하지 못하도록 만든다. 기적에 기대게 하는 도피적 돌파구나 현생의 착한 삶을 통해 장애 없는 내세를 기약하도록 하는 현실 회피적 태도를 형성케 한다. 이는 결과적으로 현실의 장애를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도록 하는 기제로 작용하고 사회적 치유와 구제의 방식을 도모하거나 요구하는 힘을 약화시킨다.

더군다나 이 치유 지향의 서사가 폭력적인 것은 주인공들이 장애 치유 서사 전후에 그려지는 주변인의 반응과 주인공들의 활동 영역이 극명한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서사는 자연스럽게 실제 현실의 장애인들과 언중들에게 사회가 만든 틀에 맞게 온전해질 것, 아름다워질 것 더 나아가 사회에 어울리는 사람이 될 것을 요구한다.

서사 내에서 어떤 식으로든 바뀌어야 하는 것은 사회가 아니라 이야기 속 주인공이다. 서사 속 사회는 변하지 않으며 장애 인물에게 사회가 요구하고 인정하는 형상에 맞게 변화할 것을 요구한다. 이로써 서사 속 기적은 장애를 가진 자가 좀 더 편하게 어울리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로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의 요구를 약화시키고 이미 형성된 사회 구조와 관습을 강화한다. 또한 장애를 벗고 온전한 몸으로 귀환한 그들을 맞이하고 수용하는 세상의 대응을 통해 이 세상에서 장애 없는 몸을 갖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이러한 치유 이후의 환상적 삶은 치유의 당위성, 온전한 몸일 때 가질 수 있는 것들의 의미를 강화한다.

이에 이야기 속 장애인들은 모두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무언가 대가를 내놓는다.

그것이 자신 혹은 가족의 희생을 담보로 한다 해도 그것은 당위적인 일이므로 당연히 실행된다. 이를 위해 서사는 왜 장애는 극복되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은 소거한 채, 이야기 속 장애인과 그 가족 및 사회 구성원의 입을 통해 당연히 극복되어야 할 장애, 치유의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서술한다.

기이함은 두려움과 숭배 그리고 혐오라는 상반되고 복합적인 감정을 포함한다. 인간은 목격한 대상의 차이가 만들어내는 두려움의 해소를 위해 그 기이함의 대상을 숭배하거나 혹은 기피, 제거하는 방식의 행동을 하는데, 전자가 긍정적 반응이라면 후자는 부정적 반응이다.¹⁶⁷⁾ 기이한 아름다움은 숭배받고 찬양받으며 주변인들이 그를 희구하는 원천이 된다. 하지만 기이한 추모나 장애는 조롱과 천시와 혐오와 배제 받는 원인이 된다. 회복되지 못하는 추모를 가진 허씨와 뺨덕어미는 이야기 속 악인으로 그려진다. 반면 추모를 벗어난 박씨는 비로소 이야기 속 본래 자신의 위치를 회복하고 비로소 서사의 주인공으로서 주도적 활약을 펼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대상화와 능동성의 부여가 인물의 미추에 의해 나뉘는 현상은 <박씨전>의 박씨의 탈각 전후 상반된 주변 인물들의 태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남편 이시백은 박씨가 추모인 상태에서는 박씨를 혐오하고 기피하며 그녀와 동침하지 않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하지만 박씨가 아름다운 외모로 변하자 그녀와 동침하기를 희구하고 애원하는 태도의 변화를 보여준다. 실로 박씨의 내면은 탈각 이전과 이후가 동일하지만 단지 그 외모의 미추에 따른 남편의 태도 차이는 여성의 추모가 어떻게 장애를 가진 신체로 호명되고 사람들에게 의해 차별받았는지 보여준다. 그리고 박씨는 장애의 상태를 벗어난 후 남편의 사랑, 시모의 인정, 가솔들의 인정을 획득하여 비로소 사회적 자아를 발휘할 기회를 얻게 된다. 장애를 가진 상태와 치유된 상태에서의 사회적 대응과 가져오는 기회 부여의 차이를 서사를 통해 생생하게 구현하는 이러한 치유 지향의 서사는 사람들 안에서 장애를 치유되고 극복해야 할 것으로 규정하고 치유를 소망하고 당연시하는 무의식을 내재화시킨다. <영이록>에서

167) 조현설, 「남성지배와 「장화홍련전」의 여성형상」, 『민족문학사연구』 15, 민족문학사학회·민족문학사연구소, 1999. 113쪽.

도 손기가 천서 수련 후 언어 장애를 극복하고 귀환해 능력을 증명하자 이전에 손기를 조롱하고 천대하던 처가 식구들이 그를 예찬하는 모습으로 바뀐다. 그리고 이런 치유의 폭력성이 가장 극명히 드러나는 인물이 <유화기연>의 유춘이다.

내 한번 모진 일을 행하여 보리라. 만일 여의치 못한들 관계하라? 하고 단도를 리(利)하게 갈아가지고 피 씻을 수건을 가지고 생의 누운 곁에 나아가...그 구멍 있는 곳의 가죽을 집으나 가죽이 늘어져 따로 드리거늘 날랜 칼끝으로 한번 버히고 손을 놓으니 가죽이 좌우로 갈라지며 남자의 신(腎)과 낭(囊)이 일제히 빠져지며 유혈이 낭자하는지라.¹⁶⁸⁾

유춘과 평생의 연이라 생각한 옥낭은 기생의 자리도 접고 유춘에게 일신을 의탁한다. 그런데 그런 낭군이 성기가 없어 남녀 간 인륜을 행치 못하고 자신의 일생은 매몰될 위기에 빠졌다는 생각에 옥낭은 며칠을 고민하다 유춘을 대취하게 한 후 유춘의 성기를 꺼내는 위험한 일을 시행한다.

옥낭의 조치는 고전소설에서 보기 드문 근대 외과 의술에 가까운 치료 방법이다. 하지만 그 가죽을 베어내 남성의 상징인 신낭을 드러내기 전 옥낭의 발언과 행동에 주목해 보자. ‘만일 여의치 못한들 관계하라? 하고 단도를 리(利)하게 갈아가지고 피 씻을 수건을 가지고’ 당사자인 유춘의 동의도 없이 그를 잠들게 한 후, 임의로 그 피부를 절개하는 행위는 가히 폭력적이고 일방적인 행위이다. 옥낭은 이 조치의 성공에 대한 확신도 없이, 유춘의 현 상태가 유지된다면 자신의 여인으로서의 일생이 매몰될 것이라는 두려움과 공포로 이 행위를 실행한다. 이 행위가 잘못된다면 유춘은 과도한 출혈로 죽을 수도 있고, 설혹 살았다 하더라도 장애의 치유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결과라면 옥낭은 함부로 신분 높은 남성의 신체를 훼손한 죄로 벌을 받을 수도 있었다. 그 행위의 결과가 치유된 완인이라는 행복한 서사로 마무리되었다는 이유만

168) 이운석, 김경미 교주, 앞의 책, 81쪽.

으로 이러한 모든 불안한 가능성과 유춘의 고통은 서사 이면으로 배제되고, 옥낭의 폭력적인 조치는 기이함과 치유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된다.

〈심청전〉의 심봉사는 무능력한 가장이자 양반을 상징하는 인물이기도 하다. 심봉사의 이러한 모습을 정신분석학적 입장에서 회피성 전환 장애로 진단¹⁶⁹⁾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사대부적 전형에서 벗어난 남성상의 형상화로도 인식할 수 있다. 〈심청전〉은 주지하다시피 유교적 이데올로기가 매우 강하게 드러나는 작품이다. 현전하는 다른 판소리 작품에 비해서도 그러하다. 그런데 장애와 인신공희라는 강렬한 서사적 장치가 표면적 주제를 드러내는 이면에는 유교에서 요구하는 가장과 사대부의 책무를 탈피하려는 남성과 그 남성의 그늘 아래 자식된 죄로 효의 화신(化身) 역할을 수행하던 여성이 죽음을 불사한 탈출을 감행한 이야기로도 볼 수 있다. 즉, 이러한 전형과 의무에서 일탈적 행보를 보이는 두 인물의 서사로 〈심청전〉을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심청의 안맹한 부친을 구완하는 서사를 통해 구현된 효녀 심청의 형상이 빛이라면 돌봄의 고통은 그늘이다. 비이성적인 자기희생적 효의 실천에 대한 예찬은 이데올로기의 빛에 은폐된 돌봄의 고통을 소거할 뿐 아니라, 한 여성의 개인적 자아도 소거한다.

그런 의미에서 심청의 공양미 삼백 석에 자신의 몸을 파는 서사는 매우 중요하다. 이것이 자기희생적 효 실천의 정점을 표면적으로 보여준다면, 이면적으로는 심청이 비로소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라는 억압과 돌봄의 의무에서 탈출할 수 있는 기제가 되기 때문이다.

한편 부모의 치유를 목적으로 자신의 목숨을 건 자식으로 〈적성의전〉의 주인공이 있다. 다만 성의의 치유 지향에 따른 결과는 도리어 그가 장애를 얻고 목숨을 잃을 위험에 처한다는 점에서 심청의 경우와 다르다. 그리고 장애를 얻은 몸으로 성의는 바다를 건너 다른 나라로 넘어가 그곳에서 자신의 삶을 일굴 기회를 얻는다.

169) 윤인선, 「심봉사의 안맹과 전환 장애」, 『한국융합학회논문지』8-4, 한국융합학회, 2017.

두 작품 속 주인공은 바다를 건너 다른 세계로 가는데 이때 바다는 그 자체로 새로운 세계인 동시에 주인공의 이동 통로요, 이쪽 세계와 저쪽 세계를 구분하는 지표¹⁷⁰⁾로 작용한다. 그러므로 바다를 건너간 주인공의 행적이 어떠한지에 따라 바다의 의미가 구분될 수밖에 없다.

〈적성의전〉의 적성의에게 있어 바다는 고난의 공간이면서도 그에게 자립과 성장의 공간적 의미를 가진다. 이는 성의가 바다를 건넌 후 공주와 인연을 맺고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기회를 얻을 뿐 아니라 부모의 그늘을 벗어나 스스로 한 사람의 남성으로 자신의 자리를 마련하는 서사가 이후에 이어지기 때문이다.

한편 심청의 바다(인당수)는 일차적으로는 현세의 심청의 삶과 육체가 죽는 죽음의 공간이라는 측면에서 적성의의 바다와 유사한 속성을 가지면서도 가난과 부친의 안맹이라는 현실적 문제를 극복하게 하는 용궁이 존재하는 환상의 공간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심청에게 있어 바다는 죽음과 삶이 공존하는 공간이자 절박한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의 의미를 가진다. 이 점에서 심청의 바다는 낭만적 결구가 갖는 현실적 토대¹⁷¹⁾로서의 의미가 〈적성의전〉보다 강하게 나타난다. 심청이 가진 절대적 가난과 효의 실천을 강요하는 유교 이데올로기의 억압을 해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시된 것이 바닷속 용궁을 통한 환생과 기적이기 때문이다.

왜 성의의 바다와 심청의 바다는 같으면서도 다른가. 장애를 가진 남성인 성의에게 바다는 일차적으로는 고난이지만 결국 그를 성장과 자립으로 이끌고 새로운 질서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케 하는 장소이다. 또한 성의의 바다는 이전 부모에게 귀속된 세계로부터 벗어나 자신의 가정과 힘을 만드는 계기를 마련하게 한다. 본국으로 돌아가 악을 응징하고 능력에 합당한 자리를 정당하게 차지하게 되는 이후 서사는 결국 바다라는 장소를 통과한 덕분이며 이때의 성의는 그 자신이 새로운 질서의 주인으로 자리한다. 이런 의미에서 성의의 바다는 성의가 자신의 것을 찾게 하

170) 이승은, 「고전소설 속 바다 형상과 근대적 변모」, 『고전과 해설』 27, 고전문학한문학회, 2019, 95쪽.

171) 정출현, 「고전소설에서의 현실성과 낭만성: <심청전>의 민중정서와 그 형상화 방식」, 『민족문학사연구』 9, 민족문학사학회, 1996, 140-170쪽.

는 성장의 공간이자 통과의례의 의미를 지닌다. 하지만 동시에 그를 죽음에 직면케 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육지에서 장애를 얻은 후 죽음의 바다를 통과해 결국 또다른 육지에서 치유를 얻는 서사의 과정은 육체적·사회적 치유를 위한 투쟁 서사이기도 하다.

반면 심청의 바다는 부친의 장애를 딸인 심청이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걸어 들어간 죽음의 공간이다. 이 죽음은 심청 스스로 선택했다고 믿지만 실은 가난이라는 현실과 유교적 효 이데올로기에 의해 이루어진 타살에 가까운 죽음이다. 기이한 죽음엔 기이한 상황이 대응될 수밖에 없다. 용궁이라는 환상적 공간은 심청을 환생시켜 전혀 다른 존재로 태어나게 해준다. 그럼에도 효녀 심청은 적성의와 달리, 부친의 개안 여부를 알 수 없기에 슬픔에 빠져 기적처럼 얻은 두 번째 삶의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인물이다. 죽음이라는 통과의례적 바다를 지나서도 여전히 부친이라는 가부장과 장애라는 고난을 전이 받아 짊어지고 치유에 매달린 채, 현재가 아닌 과거의 삶에 매달린 형국이다.

이렇듯 서사적으로 심청이라는 인물에게 내재화된 효 이데올로기는 가부장의 그늘 아래로 심청을 계속 귀속시키고 결국 황후라는 심청의 자리는 모든 맹인을 개안시키는 은혜로 발현된다. 모든 장애인들의 장애를 그 자신의 희생과 헌신으로 구원하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심청은 <심청전> 서사 전개 내내 타인을 위해 존재하는 인물이다.

바다라는 공간을 건너 자신의 자리를 마련하고 성장하는 장애 남성이었던 성의와 대별되는, 비장애인이면서도 스스로 끊임없이 장애인 아버지의 치유에 방점을 두고 행동하는 심청의 지향점의 차이는 고전소설 속 남성 장애인의 장애라는 고난의 서사를 경미하게 느끼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되는 동시에 치유라는 것을 얻기 위해 목숨을 던지는 서사이기도 하다. 치유는 그럴만한 가치로 그들에게 서사적으로 보상한다. 그렇게 치유된 이후 성의는 본래의 자기 자리를 찾고 복수를 완수하며, 심봉사는 아름다운 여인과 재혼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 자식까지 낳아 가문을 영속시킨다.

이렇게 고전소설 속에서 그려지는 인물들의 치유 지향성은 치유 이후에 행복한 여생으로 강화되면서 치유를 위해 스스로의 목숨이나 현실적 한계도 불사하는 서사로 나타난다. 현실의 고됨과 불가능을 벗어나 환상으로의 도피를 통한 위안이라는 문학적 기능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환상과 기적의 서술 이면에 숨겨진 장애 있는 몸체에 대한 부정적 담론과 완전한 몸체에 대한 지향이 낳는 폭력성, 환상과 기적으로 은폐해버린 실재적 · 현실적 구제 방안에 대한 고민의 부재는 분명히 고전소설의 치유 지향담의 부정적 부분이라 할 것이다.

더불어 고전소설 속 장애 인물들이 장애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가정 밖으로 나가 다양한 고난을 통한 성장의 서사가 있어야 한다. 이것은 유춘, 손기, 김안국처럼 고통을 감내한 끝에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거나 후릉과 허영, 심청처럼 자신을 희생하거나 선한 일을 수행하는 모습 등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이러한 가정 밖 활동이 불가능한 상황이면 김원, 박씨처럼 가정 내 고립으로 인한 고독감과 같은 차별적 처사를 감당하는 것으로 치유에 이르게 된다.

그리고 서사 안에서 치유 이후 그들에게 주어지는 사회의 인정과 부귀영화와 행복한 결말은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기형 없는 온전하고 아름다운 몸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얻으려고 노력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규범화된다.

서사가 가지는 이러한 치유 지향성은 프로프(v.propp)의 ‘결핍-결핍의 제거’의 서사구조로도 설명할 수 있다. 서사에서 결핍의 상태는 장애이며 서사 상 결핍이 제거된 온전한 몸을 향해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불완전을 완전함으로 바뀌는 투쟁의 서사가 전개되고, 결국 주인공은 결핍을 제거하고 완전성을 획득한다. 이러한 민담적 구조가 장애와 치유 지향의 서사에서도 그대로 적용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만 문제는 그 결핍의 자리에 사람이 놓인다는 지점이다. 제거되어야 할 결핍이 사람의 몸 그 자체에 존재한다면 제거되어야 할 장애와 함께 그 사람의 존엄도 함께 제거된다. 그리고 그 자리에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치유를 위치시키는 고전소설 속 서사는 그래서 그 자체로 현실의 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폭력적 의미를 가진다.

2) 내적 자질에 대한 역설적 인식과 공동체적 삶의 긍정

조선시대에는 장애의 유무보다 그 사람의 능력을 더욱 중시해서 능력만 있다면 높은 관직에 오를 수도 있었다. 그 대표적인 인물로 세종 대 1품 정승에 올랐던 허조가 있다. 허조는 어려서부터 체격이 깎은 듯이 여위고 파리하며, 어깨와 등이 굽어 있어 수응재상이라 불렸는데 수응이란 움크린 매라는 뜻으로 선천적 척추 장애자(뽀추)인 허조의 외관을 비유한 말이다. 그는 예학(禮學)의 대가로 조선의 예법을 정비하고 『국조오례의』를 편찬했다.¹⁷²⁾ 중종 대 우의정을 지냈던 권균도 뇌전증 즉 간질 환자였는데, 간질은 조선시대 가장 고약한 병으로 여겨진 병이었다. 그러나 권균의 벼슬 생활에 간질은 문제 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가 병을 이유로 사직서를 여러 번 청했지만 매번 왕이 반려하고 그의 병을 배려해 다양한 편의를 봐주기도 했다.¹⁷³⁾

조선시대에 장애나 질병을 이유로 신하가 사직을 요청해도 왕이 이를 반려한 기록이 또 존재하는데 선조 때 좌의정까지 오른 심희수의 기록이 그것이다. 심희수는 나이 육십에 넘어져 다리에 병이 들어 앉은뱅이가 되었다. 이때부터 광해군에게 여러 번 사직을 요청했는데 광해군은 늘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

우상 심희수의 다섯 번째 정사(呈辭)에 답하였다.

“경의 사장(辭章)을 살펴보고서 경의 병이 아직 낫지 않은 것을 알고는 매우 우려하였다. 경이 다리를 절어 걸을 수가 없다는 것으로 말하고 있으나, 이는 다리의 관절에 드러난 증상에 불과하고 그 마음은 실로 병들지 않았을 것이다. 국가에서 정승을 두는 것은 그 목적이 오직 도를 논하고 나라를 경영하는 데 있을 뿐이니, 다리 힘의 강약은 본디 따질 필요가 없는 것이다. 경은 다시 생각하기 바란다. ... 오늘날 국사가 어렵고 위태로워 변방의 근심이 매우 심하니, 지금이 어찌 대신이 병으로 사직하고 문을 닫고 집에 박혀 있을 때인가. ... 다시 사직하지 말

172) 정창권, 『한국 장애인사』, 숲대, 2014, 60-63쪽.

173) 정창권, 위의 책, 71-73쪽.

고 조리하고서 출사하라.”¹⁷⁴⁾

위 인용문의 심희수의 사직 요청에 내린 광해군의 답이다. 그의 신체적 고통을 걱정하면서도 다리의 질병이 정승의 일을 수행하지 못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면 필요한 것은 노신의 총명과 어진 마음이며 이를 통해 국가를 위해 일하라는 왕의 명은 장애 유무가 아닌 사람의 자질로만 판단하고 등용하던 가치관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이후 심희수의 병이 깊어지자 왕은 중관(내시)에게 명하여 그를 부축해서 궁궐의 계단을 오르내리도록 하기도 했다¹⁷⁵⁾. 숙종 대 소론의 영수이자 청백리에 오른 윤지완은 후천적 질병으로 다리 하나를 잃은 장애인이다. 부모 3년 상을 지내다가 무릎이 동상이 걸렸지만 시묘 지키는 것을 그만두지 않아 결국 이로 인한 풍증이 도져 왼쪽 다리를 자르게 된다. 하지만 이 일 이후 명망이 더욱 드러나 우상(右相)이 되고 청백리에 뽑혔다.¹⁷⁶⁾ 이 외에도 조선 시대에는 장애와 별개로 능력을 발휘했던 역사적 인물들이 다수 존재한다.

이를 볼 때 조선 시대에는 그 사람의 장애보다 능력 유무를 기준으로 자질을 평가하는 사회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시대에 나온 고전소설은 그러면 사회적 가치관과 어떻게 조응하고 있는가.

문학이 그 시대의 반영이라면 가치관 역시 그 안에 담길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껏 고전소설에 나타난 장애 형상을 살폈다. 그 안에는 장애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들이 공존했다. 장애를 두렵고 기이한 것으로 보고 그로 인해 배제하거나 차별하는 시선이 존재했고 한편으로는 장애에 대한 연민과 포용의 시선도 공존했다. 그리고 장애를 둘러싼 공동체의 자비와 돌봄 공동체의 모습도 발견할 수 있었다.

174) 『광해군일기【중초본】』 13권, 광해 1년 2월 18일. 答右相沈喜壽五度呈辭曰: "省卿辭章,知卿病尚未瘳,深用憂慮。卿以跛躄不能行步爲辭,是不過肢節表症而其心則固不病矣。國之置相,唯在於論道經邦,則其脚力之強弱,固不足計也。願卿更思焉。… 卽今國事艱危,邊虞孔棘,此豈元老大臣謝病杜門之秋也? … 宜勿更辭,調理出仕。" 정창권, 앞의 책, 91-98쪽 참조.

175) 『광해군일기』 66권, 광해군 5년 5월 18일, 영부사 심희수가 임시하였으나 앞은뱅이 증세가 있었으므로 왕이 중관(中官)에게 명하여 그를 부축해서 오르내리도록 하였다. 정창권, 『역사 속 장애인은 어떻게 살았을까: 사료와 함께 읽는 장애인사』, 글항아리, 2011. 181쪽.

176) 정창권, 위의 책. 78-82쪽.

또 소설 속 장애인들은 가출 혹은 고립된 상황에서 과업을 수행하고 능력을 성취하거나 인고의 시간을 견디는 등 각자의 방식대로 장애를 견딘다. 그 결과 고전소설 속 장애는 그 인물이 선인(善人)이거나 주인공인 경우 모두 치유에 이른다. 다만 악인으로 그려지거나 전생의 응보를 갚기 위해 태어난 설여주와 같은 인물의 경우에만 치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소설 속 치유에 이르는 서사를 살펴보면 치유를 전후로 서사가 일변하는 구조를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치유 이전에 공동체 밖으로 축출되거나 공동체 안에 함께 머물러도 가정 구성원으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스스로 고립을 자처하는 등 장애 인물이 다양한 심리적·육체적 고난을 겪고 이를 인내하고 극복하는 시간이 존재한다. 이를 우리는 접힌 시간, 유예된 시간으로 명명했다. 이 시기의 장애 인물은 생물학적 삶을 살고 있지만 사회적 삶은 영위하지 못하는 상태이다. 이들은 하늘의 기적, 본인의 노력 등으로 장애가 치유되어 완인(完人)이 된 후 본격적인 사회적 활약을 통해 능력 인정과 지위 획득 등의 사회적 인정을 얻고 비로소 사회적 인간의 삶을 살아간다.

치유 전후의 서사는 장애와 치유에 대한 조선시대의 관념을 드러내고 있다. 앞서 인용한 『광해군 실록』의 기록을 다시 보자. 장애가 있는 다리의 고통을 호소하며 관직을 사양하자 왕은 ‘다리의 관절에 드러난 증상에 불과하고 그 마음은 실로 병들지 않았을 것이다. 국가에서 정승을 두는 것은 그 목적이 오직 도를 논하고 나라를 경영하는 데 있을 뿐이니, 다리 힘의 강약은 본디 따질 필요가 없는 것이다.’라고 답한다. 신체적 질병이나 장애는 신체의 문제일 뿐 그가 맡은 직임은 다리와 상관없는 도(道)를 논하고 나라를 경영하는 정신적인 업무이니 관직을 사임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논리이다. 이 답은 조선의 장애관에 대해 많은 것을 시사한다. 장애가 생활에 불편을 일으킬 수는 있지만 사회적 업무나 직임을 맡지 못할 하등의 이유가 되지 못한다는 것, 중요한 것은 소임을 할 수 있는 자질이나 능력이라는 것이다. 조선 후기 실학자인 홍대용 역시 앓은뱅이, 맹인 등의 장애인들도 각자 자신의 신체 능력이 허락하는 한 직업을 가지고 일해야 한다고 주장했듯이¹⁷⁷⁾ 조선의 사대부들에게 장애는

무언가를 할 수 없는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 육체의 상태일 뿐 그 자체로 배제와 차별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여기지 않았다.

영조 대에 도승지 이덕수는 후천적 귀머거리였는데 영조는 이덕수의 능력이 높아서 여러 편의를 봐주며 관직 생활을 이어가도록 했다. 이덕수가 청나라 사신으로 가게 되자 몇몇 신하들은 그의 장애를 이유로 그를 보내는 것을 반대했다.

“동지정사(冬至正使) 이덕수(李德壽)는 문학과 지조에 있어서 비록 당세에 제일가지만, 다른 나라에 가서 전대하는 일은 아마도 그 책임이 아닐 듯합니다…” 대개 이덕수는 귀가 어둡기 때문이었는데, 임금이 이르기를, “한어(漢語)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모두 귀머거리인데 어찌 이를 병폐로 여길 것이 있겠는가마는 이미 대관의 말이 나왔으므로 반드시 가지 않으려고 할 것이니, 아뢴대로 하라.”¹⁷⁸⁾

이 기록은 장애를 바라보는 양가적 시선을 보여준다. 이덕수의 귀머거리를 근거로 그가 청나라 사신으로 가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신하들은 반대한다. 영조는 이를 듣고 어차피 모두가 한어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귀머거리나 마찬가지인데 이덕수만이 신체적으로도 귀머거리라는 이유로 적임자가 아니라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론한다. 장애를 근거로 그를 사회적으로 배제하고 차별할 수 있으리라 하는 신하들의 기대와 상황의 본질을 지적하는 영조의 답변에서 장애를 가진 사람을 대하는 두 가지 대응 태도와 시선을 읽을 수 있다.

다시 소설 속 치유된 인물들의 서사로 돌아가 보자. <한후룡전>의 후룡과 허영은 자신들의 장애가 부모께 근심만 주니 차라리 나가서 무엇이랴도 하겠다며 가출한다. 후룡과 허영은 맹인과 앓은뱅이지만 효성 깊고 선한 인성을 갖췄다. 이들은 가출 후

177) 홍대용, 『담헌서(湛軒書)』 「내집(內集)」 4권, (보유(補遺)), 소경은 점치는 데로, 궁형(宮刑) 당한 자는 문 지키는 데로 돌리며, 심지어 병어리와 귀머거리·앓은뱅이까지 모두 일자리를 갖도록 해야 한다. 瞽者以卜。宮者以闔。以至於啗聾跛躄。莫不各有所事。

178) 『영조실록』 47권, 영조 14년 10월 15일, 冬至正使李德壽, 文學志操, 雖是當世之最, 異國專對, 恐非其任… "蓋以德壽重聽故也。 上曰: "漢語人人皆聾, 豈可以此爲病? 臺言既發, 必不肯去, 依啓." 정창권, 『한국장애인사』, 숲대, 2014, 99쪽.

호랑이를 잡은 공으로 고을 원에서 상을 받고 위험한 호랑이를 잡게 해준 데 대한 감사로 마을 사람들의 보살핌을 받지만 오래 폐를 끼칠 수 없다며 받은 상금도 마을 사람들에게 주고 떠나며, 금덩이를 발견하고도 욕심내지 않다가 결국 절을 재건하는데에 시주한다. 이들은 선하고 욕심 없는 본성을 타고났고 여행하며 덕업을 쌓은 결과 현세의 장애를 벗어나 본래의 완인의 몸으로 돌아간다.

이런 서사에서 주목할 것은 두 인물의 내적 본질이 전혀 변치 않는다는 것이고 이들을 치유로 이끈 것이 결국 그들의 선한 본성이라는 것이다. 완인의 몸이 된 후 그들은 본래 자리인 천상 신관으로 돌아갈 수 있었으나 부모에게 돌아가 효성을 다하고 혼란에 빠진 인세를 구하기 위해 천상으로 바로 돌아가지 않고 남아있기를 택한다.

〈박씨전〉의 박씨도 추모를 벗은 전후의 그의 내적 본성이나 자질은 전혀 다르지 않다. 장애의 시기에도 박씨는 현명한 아내이자 숨씨 좋은 며느리로 남편의 과거 시험을 신이한 예지몽과 신물로 돕고 시부의 조복을 지어 임금의 인정도 받았다. 하지만 가정 내에서 이런 박씨의 재주는 시부와 계화에게만 인정될 뿐이고 그 외의 인물들에게는 어떤 인정도 받지 못한다. 심지어 남편의 과거급제를 도왔음에도 장원급제한 남편이 금의환향한 잔칫날 그녀는 추모로 인해 부인이면서 잔치에 참석도 하지 못한다. 그런데 박씨가 전생 죄업의 응보를 현세에서 다 하고 탈각하여 미인으로 변하자 이전까지 박씨를 인정하거나 애정하지 않던 남편은 그때부터 박씨가 자신을 받아주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며 허락을 기다리다 병이 드는 등 급격한 태도 변화를 보인다. 시모와 노복, 일가친척 역시 소식을 듣고 놀라 확인 후 박씨를 이전처럼 박대하지 않는다. 박씨가 달라진 것은 오로지 외모 뿐인데도 남편과 가족 구성원들의 태도가 일변하는 서사가 나타나는 것이다.

〈영이록〉의 손기도 애초부터 내면에 신선의 도가 있지만 때가 이르지 않았기에 자신의 내적 본성을 숨기고 드러내지 않는 인물이다. 그리하여 주변인은 그를 치(痴)공자, 말 못 하는 고깃덩어리 등으로 부른다. 하지만 손기는 실상 겉모습만 그러할

뿐 그의 내적 본질은 언제나 동일한 인물이었다. 그래서 손기를 사랑과 배려로 대하는 부인과 자식 곁에서는 스스럼없이 아이들과 놀아주고 편안하게 살아가는 손기를 확인할 수 있다. <유화기연>의 유춘도 성기 분별이 없지만 그 장애 외에 그의 아름다운 모습과 총명함은 늘 동일했다. <김안국전>의 안국도 그가 명문장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내 이씨의 인내와 인도 덕분이었지만 본래 가진 총명한 암기 능력과 그의 노력이 없었다면 난독증인 그가 문장을 익히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금송아지전>의 금우태자야말로 겉모습만 기형적인 소의 외피일 뿐 내적 본질은 금우태자 본인이었다. <방한림전>의 방관주는 내적 본성과 외적 육체의 불일치고 고통받는 삶을 살았다. 그런 그의 내적 본성을 인정해주는 영혜빙 곁에서 비로소 사람다운 애정의 교류와 가정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었지만 실로 그는 죽을 때까지 자신이 원하는 남성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 사회가 그에게 요구하는 과제에 응하여 이를 완수하기 위해 노심초사하며 애를 써야 했다. 이러한 그에게 정신적 지기이자 이해자인 영혜빙은 그 자체가 그의 장애를 치유하는 치유자이자 조력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인물이다. 실상 방관주가 갈등하는 남성과 여성의 성 역할의 갈등의 문제는 방관주 자신이 가진 내적 자질에 대해 인정해주는 사회였다면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을 갈등이라는 점에서 <방한림전>의 방관주는 ‘여성’이라는 장애를 견어낸 후 방관주의 활약을 통해 사람의 내적 자질의 중요성을 반증하는 이야기라 할 수 있다.

이렇듯 소설 속 장애 인물들의 내적 본성은 늘 같았다. 치유로 달라지는 것은 단지 타인이 인식하는 외양 혹은 모습일 뿐이다. 정확히 말하면 장애 있는 몸에서 장애 없는 몸으로 외형이 변한 것뿐이며 내적 본성은 변함이 없다. 장애를 벗어나 치유되어 완인의 몸이 되자 이들은 그제야 사회로 나갈 용기를 얻고 사회 진출 후엔 남보다 월등하게 능력을 발휘해 빠른 시기에 놀라운 사회적 인정을 얻는다. 장애는 이들 서사에서 하나의 통과의례이고 영웅소설 속 주인공의 비범성과 기이한 출생의 다른 방식의 문학적 형상화로도 읽힌다.

이들의 장애가 그들의 비범함과 기이한 출생의 문학적 형상화의 한 방식이라면 장

애와 치유에 담긴 시선은 더욱 확실히 역설적이다. 장애를 가진 인물이 본래 영웅이라는 것, 그것을 사람들이 알아채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겉으로 드러난 그들의 장애라는 것, 치유 전후에 일변하는 당사자와 주변인의 태도 및 대응의 변화 등은 문헌 기록에 남아있는 장애를 바라보는 시선을 역설적으로 서사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어(漢語)를 모르는 것은 모두가 일반’인데 유독 귀머거리이기에 자격이 없다는 신하들의 차별적 시선을 논박하는 영조는 이덕수의 장애가 아닌 이덕수의 자질을 먼저 고려하고 차별받을 이유가 없음을 말한 것이다. 이것을 소설로 본다면 박씨의 시부와 계화이고 장애 인물 서사에서 이들의 본질과 치유를 암시한 조력자들이며, 김안국의 아내이고, 방관주에겐 영혜빙이고, 적성의에겐 채란공주이다. 즉 고전소설은 겉으로 드러난 장애에 가려진 주인공의 내면이 전혀 변하지 않고 오로지 겉모습만 변화하는 서사를 통해 겉으로 드러난 장애 유무로 인간의 가능성을 판단하고 제어하는 일련의 차별과 배제적 시선에 대한 비판을 함의하고 있다. 동시에 그러한 시선이 잘못이란 것, 사람은 그 내재적 자질과 본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치유라는 기적의 서사를 통해 역설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그러므로 치유 이후 그들이 드러내는 영웅적 행보는 그들을 차별하고 배제했던 인물들에게 보여주는 통쾌한 자기 증명인 동시에 그들의 부끄러웠던 지난 행적을 반성케 하는 계기가 된다. 이러한 고전소설의 장애와 치유의 서사는 조선시대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태도와 시선을 투영하여 서사 이면적으로 드러내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심성을 중시하던 태도와 더불어 당대의 공동체 의식과 인본주의적 사고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장애인을 돌보는 돌봄의 공동체와 그 속에서 장애를 견디고 이겨내는 장애 당사자의 서사에서 나타나는 삶에 대한 의지이다.

아픈 몸은 고통을 수반한다. 동시에 아픈 부위는 이전엔 지각하지 못했던 신체 일부의 존재와 기능을 실감케 한다. 사고로 일시적으로 신체가 부자유하거나 다친 경

힘이 있는 사람들은 그제서야 아픈 몸의 부자유와 불편을 지각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소설 속 모든 인물들은 치유의 가능성조차 확인할 수 없는 장애를 안고 사는 인물들이다. 장애를 안고 산다는 것은 고통을 감내하며 산다는 것을 의미한다. 각각의 장애가 다르고 그로 인한 고통이 다를지언정 이들에게는 단 하나 공통점이 존재한다. 그 누구도 스스로 생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그들이 치유의 가능성을 믿기 때문에 그러한 것도 아니라는 점이 더욱 흥미롭다.

일반적으로 당대 현실에서 그들의 장애는 치유가 불가능한 것들이었으며 삶의 지속은 그 장애를 인정하고 그로 인한 부자유, 고립, 심리적 자괴감, 불시에 다가오는 외부의 위협 등을 견디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런 장애와 장애로 인해 겪는 다양한 아픔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본래의 성정을 변치 않고 삶을 지속하는 주인공들의 성향은 서사 내에서 치유를 완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

대표적으로 맹인이자 남성인 심봉사는 자신을 돌봐주는 딸 심청이 없으면 ‘그 스이 물 한 술 썬 드릴 스름이 업서 나를 기다리’는 부자유하고 무능력한 형상으로 그려진다. 그러나 심청이 자신으로 인해 죽고 나자 ‘이런 병인이 남의게 신세만 지고 스라 이셔 평생 고상홀 일룰 싱각하고 득고 시부나 정흔 턴명이 길미 능히 여의치 못흐’다며 딸 없는 삶을 견뎌낸다.

심현은 부인이 죽은 뒤 슬픔이 극에 달해 질병에 걸리다 못해 안질을 얻어 맹인이 되는 인물이다. 그는 비록 무능한 남편이자 가장이지만 부인과 딸에 대한 애정이 지극하며 애통함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인물이기도 하다. 심청 역시 이런 부친에 대해 ‘우리 부녀의 정니는 남의게서 심비느 더오미 잇는’ 사이라는 구술을 통해 부녀지간의 끈끈한 정을 강조한다. 비록 가난과 안맹으로 딸을 제대로 구완하지 못한 부친이지만 딸은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고 한없는 애정과 돌봄으로 아버지의 내면의 상처를 채우기 위해 노력한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심청의 돌봄의 고통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적어도 작중 심청의 언사에서는 가난한 생계에 대한 한탄은 있을지언정 부친을 돌보는 노고에 대한 토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심청은 죽기 전까

지도 부친을 걱정하며 자신의 부재 시 부친의 생활 전반을 두루 살피고 떠난다.

현이 불계듀야 호고 흘노 익통하다가 스스로 위로하여 더드며 보니 청의 비러 모든 양식이오 두로 더드며 보니 마른 육찬과 익은 음식이 그릇마다 담겨거늘 만 지이는 족쥬〃 흥격이 막히이고 간강이 녹는 듯하여 아모리 슬프를 강잉코져 호 는 능히 엇지 못 흘지라 다시곰 녀으를 부르지져 왈 불상하다 너는 병신 아비를 이갓치 먹여 살니고져 호엿거늘 나는 너를 독을 곳의 보너고 턱연하니 이 엇진 인정이라 호리오¹⁷⁹⁾

심청을 보내고 주야로 울기만 하던 심현의 손에 만져지는 딸이 마련해놓고 간 음식들은 가슴을 막히게 하고 간장을 녹일 정도의 슬픔을 불러일으킨다. 자식을 사지로 보낸 부모의 고통은 짐작하기 힘들다. 주야로 애통하기를 그치지 않으며 자신이 살아서 무엇하냐는 생각을 하면서도 심현이 끝내 삶을 놓지 않는 이유는 '정해진 천 명이 길어 여의치 못하기 때문'이라고 서술되고 있지만 자신으로 인해 사지로 간 자식을 생각하면 차마 죽지도 못했을 그의 심정을 추측하기란 어렵지 않다. 자식을 먼저 보냈기에 죽고 싶은 마음과 힘들지만 살아내는 마음 사이에서 그는 후자를 택했고 끝내 살아 개안이라는 치유를 얻는다.

이렇게 장애의 고통과 자식을 잃은 슬픔, 부자유한 몸으로 주변인들의 신세를 져야 하는 생활은 그에게 죽고 싶은 생각만 들게 하지만 끝내 생을 포기하지 않은 심현의 고통과 슬픔, 외로움을 감내하고 인내하는 힘은 이 서사에서 치유의 중요한 기저가 된다.

작품 속 심봉사와 심청은 모두 죽음의 충동과 실제적 죽음을 이기고 살아남은 인물들이다. 어느 한순간 견디기 힘든 삶의 고통으로 인해 살아가기를 포기한다면 그들은 끝내 개안도 부귀영화도 얻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심청전>의 치유의 서

179) 경판 24장본 <심청전>.

사는 여성들의 돌봄과 고난의 전이를 통해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를 내면화하고 장애의 고통과 제도적 구제를 희석하는 지점도 있지만 동시에 본래 이 이야기를 만들고 향유했던 민중들의 강한 생명력이 생생히 드러나는 부분이기도 하다.

극심한 가난, 질병에 걸린 몸은 실상 조선후기 많은 사람들이 겪었을 현실적 고난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심청전>은 상처(喪妻)의 고통으로 안맹이 될 정도의 슬픔에도 자식을 위해 끝내 살아가는 아버지 그리고 그러한 아버지의 상처와 아픔을 이해하며 아버지의 부족을 채우고자 했던 딸의 연대, 가련하고 불쌍한 이웃을 돌봐주는 이웃의 선함, 생면부지의 장애인에게 자비를 베푸는 선인들의 인정의 서사를 통해 실제 민중들의 삶의 원동력을 형상화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한 부자유하고 돌봄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장애인 할아버지가 끝내 살아서 개안이라는 치유의 기적에 도달할 수 있게 해주는 서사적 장치들이기도 하다.

<한후룡전>의 후룡과 허영도 자신의 장애를 한탄하는 부모를 보기가 힘들어 죽기를 각오하고 가출했지만 마주친 목숨을 위협하는 고난이나 폭력에도 굴하지 않고 선한 본성을 지키며 선행을 거듭하여 결국 전생의 죄과를 모두 치르자 장애가 치유되는 서사가 나타난다. 그리고 이들이 호랑이에게 습격당하고 도움을 요청했을 때 이들에게 도움을 준 마을 사람들은 후룡과 허영을 살린 이들이면서 그 대가로 후룡과 허영이 호랑이를 잡아 받은 상금으로 보은하는 대상이기도 하다. 서로가 서로를 살리는 이러한 연대의 서사는 장애인과 보통의 몸을 가진 일반인들이 한데 어울리는 공동체적 삶의 형상을 보여준다.

김안국 역시 자신의 상처를 배려해주고 지혜로운 방식으로 글을 깨우치도록 십년간 인내하며 이끌어준 여인이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자신을 받아준 숙부가 아니었다면 부친으로부터 버림받고 사대부 남성으로 살아가는 모든 길이 막힌 막막한 삶을 극복할 수 없었다. 장애인을 가족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더불어 사는 것에 대해 고민하고 배려하는 이러한 주변인들의 대응은 서사 속 장애인 살아갈 수 있는 지지체가 되어 그를 치유로 이끄는 가장 큰 힘이다.

이러한 지점에서 고전소설에서 치유는 다양한 상징체로 자리한다. 고전소설에서 치유는 구조적으로 마련된 반드시 이뤄질 행복한 삶의 완성으로서의 기본 요소이다. 완전한 몸에 대한 희구는 불완전한 몸으로서의 장애를 개념화해야 완성되는 서사이며 장애를 극복하고 치유를 달성한 주인공들의 행복과 기쁨은 장애를 불행과 동일한 위치에 놓는다. 이는 장애에 대한 불안과 편견을 내재화하는 서사적 상징이다. 하지만 동시에 이러한 온전한 몸의 실현으로서의 치유의 서사는 당대 가난하고 질병과 장애로 고통받는 민중들에게 서사 내에서 잠시 동안이라도 행복한 환상을 경험하는 기회를 부여한다. 또 선한 본성을 지키며 끝까지 살아 결국 행복한 삶을 쟁취하는 이 서사는 이야기의 향유층에게 비록 힘겨운 삶이지만 살아가다 보면 자신들도 만날 지도 모를 기적 같은 행복에 대한 염원을 가지게 하는 힘을 내포한다. 서사를 통한 이러한 대리만족과 살아가는 원동력 형성은 당대 향유층이 이 작품을 만들고 형성한 가장 큰 이유였을 것이다.

IV. 장애 인식의 근대적 전환

1. 근대 단형서사 속 장애 형상화

1890년대는 서구 문명과 외세가 조선에 들어와 이권을 다투고 기존의 문화와 충돌하며 다양한 혼란과 갈등의 요소가 일어나던 시기이다. 이런 시대를 배경으로 등장한 단형 서사는 근대문학의 출발을 알리는 과도기적인 양식이자 근대소설의 초석이 되는 문학 양식으로 당시의 가치관과 태도를 살피기에 유의미한 자료이다.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태도는 시기별로 조금씩 달라졌는데 근대전환기에는 서구문명의 도입과 민족주의, 계몽주의의 영향 아래 이전 시기와는 다른 의미로 몸을 인식하고 구분하는 경향이 강화되었다. 특히 우생학과 국가주의, 민족주의의 결합

은 노동하는 몸 즉 진보된 사회의 일꾼이 될 수 있는 몸을 중시하고 노동할 수 없는 질병과 장애가 있는 몸을 구분해 사회공동체 내부에서 배제하는 경향을 보인다. 장애인과 장애에 대한 이러한 배제 의식은 국가 주도하에 공고화되면서 사람들의 내면에 장애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강화되는 상황을 야기한다. 이러한 근대전환기의 변화된 장애 인식을 살피기 위해 근대 단형서사 속 장애인의 형상화를 자세히 살피도록 하겠다.

1) 장애 인물이 등장하는 근대 단형 서사와 특징

우선 본고에서 선정한 장애 인물이 등장하는 근대 단형 서사 작품 4편의 대략적인 내용과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① 「장수와 난장이」: 『독립신문』, 1898. 7. 20.

서양의 재밌는 이야기를 소개하는 란에서 실린 이야기이다. 대략적은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장사와 난쟁이가 함께 세계를 유람하는데 난쟁이는 자신이 나약하기에 장사의 강한 신체적 능력을 흠모해 먼저 동행을 청한 것이다. 유람하던 도중 난쟁이는 나약한 자신의 능력을 생각도 안 하고 무분별하게 도적과 싸우다 팔 하나를 잃고, 참지 못하고 싸움을 하다 한쪽 다리를 잃고, 대낮에 도적들에게서 한 처녀를 구하겠다고 달려들었다가는 눈 하나도 잃는다. 구출된 처녀는 장사와 혼인한다. 장사는 난쟁이가 싸움을 벌이고 장애를 얻을 때마다 나서 난쟁이를 구하고 치료해줬지만 결국 난쟁이는 자기가 장사만 좋은 일을 했다며 그에게 이별을 청한다.

이를 신문에 실은 필자는 다음과 같은 말로 이야기를 마무리하는데 이를 통해 단형 서사 문학이 가진 현실 비판적·우의적 성격을 짐작할 수 있다.

우리 집안이 불행하야 가업이 흥치 못하고 빅폐가 구형흔 식둠에 집안 사름의
 막음이 흥휴하야 난을 싱각하는 이가 만흔드하나 이것은 집안 일든 잘 되면 즈
 연히 침식되려니와 동리 사름들이 혹 우리집안에 즈중지란이 나기를 볼오는 일
 이 잇서서 흥번든 무슴 일이 잇스면 그 기회를 타서 우리 집을 씨져서 저의 욱
 심을 치우고져 하야 우리 집안 사름을 연유하야 말과 편지로 혹 씨우며 혹 욱하
 며 혹 비우스며 혹 놀너며 혹 위로하야 아모쪼로 무슴 작경을 너여 집안이 요란
 하도록 하니 일이 그러케 되고 보면 동리 장스들의게는 므오 쪼흔 일이어니와
 그 씨우는데 씨져서 집안이 요란하게 하는 난장이들은 필경 병신 구실이나 하
 고 집안만 망하게 홀터이니 엇지 경계치 아니하리오

② 「소경과 안증방이 문답 속」¹⁸⁰⁾:『대한매일신보』, 1905.11.17-1905.12.13.

이 이야기는 점복사인 소경과 망건 장인인 앓은뱅이의 대화로 이루어진 대화체 소
 설이다. 소경은 점복사였지만 점치는 행위를 금지한 대한제국의 미신타과정책¹⁸¹⁾으로
 점복을 그만두게 되었고, 망건 제작을 하던 앓은뱅이는 단발령의 시행으로 망건이
 폐기되자 수입이 줄어든 상태이다. 두 사람은 나라가 힘을 잃은 것이 지도자들 때문
 이라 비판하며, 일제와의 조약, 외교권의 박탈 등 당대 사회적 문제를 논한다. 두 인
 물의 대화를 통해 대한제국 말 가난한 조선의 현실, 부패한 정치, 무리한 근대적 개
 혁의 여파로 직업을 잃은 낭패감 등을 두 인물의 대화를 통해 전개한다. 두 장애 인
 물을 내세워 당대 세태와 국가 정치의 부정부패, 무리한 세금정책 등에 대한 비판을
 하는 세태 소설에 가깝다.

180) 이하 「소경과 앓은뱅이 문답」으로 지칭한다.

181) 주운정, 「자선(慈善)과 자혜(慈惠)의 경합(競合): 식민지기 ‘盲人’ 사회사업과 타자화 과정」,
 『사회와 역사』 80, 한국사학회, 2008, 167쪽. 경무청에서는 1897년 5월 무당·판수의 미신 행
 위를 본격적으로 금지하고 이런 행위가 발각될 때에는 중죄에 처한다는 법령을 반포했다.(『독
 립신문』, 잡보, 1897년 5월 27일) 또한 판수가 흑세무민하며 민간에서 재물을 빼앗는 폐단에
 등 정부의 문명개화정책에 역행하고 있다는 논의가 전개되었다.(『독립신문』, 잡보, 1897년 5월
 21일) 재인용.

③ 「병인간친회록」¹⁸²⁾: 『대한민보』, 1909.8.19.(제58호)-1909.10.12.(제101호)

이 작품은 다른 이야기들과 달리 공소생이라는 정체미상의 필명으로 연재된 글이다. 1910년 한일합병 직전 개화 지식인들의 고뇌를 장애인들의 고충을 통해 드러내고 있으며, 나라가 위급한 상황이니 성 안팎의 장애인들이 모여 협력을 하자는 취지서를 발송하자 해당 날짜와 장소로 다양한 장애인들이 모여 회의를 개최한다.

전반부 서술자의 회의 필요성 역설, 회의 취지서 발송까지는 서술자의 목소리가 직접적으로 드러나고 병인들이 모여 본격적인 회의를 하는 후반부는 연극적 서술로 주로 이어진다.

우선 회장으로 청맹과니를 다수의 거수와 찬성으로 선출하고, 서기 등 회의 진행에 필요한 자리도 추천과 거수로 결정하는 등 근대적 회의 절차와 순서를 소설 내에서 재현해 보여준다. 후반부에서는 절름발이, 애꾸눈, 언청이, 곰배팔이, 앓은뱅이, 난쟁이, 귀머거리, 배불뚝이, 흑부리, 판수, 곱사등이 등 11명의 인물이 차례로 단상에 올라와 각자 자신의 사연과 고충을 토로하며 사회를 비판하는 연설을 하는데 이때 연설을 듣는 다른 장애인들의 반응들도 함께 서술된다.

각 연설은 거의 동일한 구성으로 진행되는데 각 장애인들이 자신의 장애에 대한 편견과 오해에 반박하며 자기 장애의 장점을 밝힌 후, 현재 장애를 가지지 않은 사람 혹은 국가가 사회에서 벌이는 행적을 비판하는 방식으로 연설이 진행된다. 이런 등장인물의 기능이나 서술의 내용을 보건대 이 작품은 우화 소설적 성격을 가진 작품으로 우화 속 동물 대신 장애인으로 하여금 현세의 부정과 모순을 드러내는 역할을 대치하도록 하는 특징을 보인다.

이야기 중 눈에 띄는 부분은 현재에는 장애의 범주로 구분하지 않는 기형적인 큰 배를 가진 배불뚝이가 장애인의 범주로 구분되고, 곱추 등장 장면에서 그 우스꽝스런 모습에 웃음을 참지 못하고 박장대소하는 장애인 일동과 이런 행위에 자성적 비

182) 『대한민보』, 「病人懇親會錄」, 1909년 8월 19일~ 1909년, 10월 12일, 회장체, 연설체 소설. '풍자소설(諷刺小說)'로 신문에 게재되었다.

관, 장애인 스스로 자신들을 비하하는 표현이나 언사를 하는 경우 좌중의 장애인들에 의해 비난받고 사과하는 등 장애인들 스스로 자기검열을 통한 장애 인권에 대한 자각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결국 「병인간친회록」은 각 장애인들을 통해 신체적 장애보다 심각한 마음의 장애를 가진 세상 사람들의 도덕적 타락, 부정부패, 윤리의식의 부재를 비판하기 위한 세태 소설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앞서 소개한 「소경과 앓은뱅이 문답」과 유사한 주제 의식이기도 하다.

④ 「모르는 것이 곳 소경」: 『경향신문』, 1910.1.7~2.25. [소설(小説)]¹⁸³⁾

이 작품은 8회에 걸쳐 매주 연재된 소설로 김한선이 친구 이춘갑이 소경이라는 점을 이용해 속이고 놀리는 에피소드로 구성된 이야기이다. 이춘갑은 소경이라는 장애를 가졌을 뿐 아니라 사리판단이 미숙한 어리석은 인물로 사리에 밝고 지체 있는 집안 출신의 아내 최씨가 바느질로 집안 살림을 돌보고 남편이 극진히 봉양한다. 김한선이 이춘갑이 소경인 것을 이용해 그를 속이고 사라진 후 아내 최씨가 우스꽝스러운 상태의 남편을 발견하고 이춘갑이 그제야 속은 것을 알고 분하게 여기는 것으로 모든 일화가 마무리되는 특징을 보인다. 총 8회로 연재된 각 회의 일화를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1909년 1월 7일 : 김한선과 이춘갑의 관계 소개, 이춘갑이 스물에 소경이 되고 지혜롭고 지체 있는 아내 최씨를 배필로 맞아 아내가 살뜰하게 집안과 남편을 돌봤으나 자식이 없어 슬퍼함

(2-3) 1910년 1월 14일-21일: 춘갑의 집에서 술자리를 할 것을 약속한 한선이 찾아와 안주가 변변치 않다며 건넌집 닭장의 닭을 훔쳐 오자고 하고선 눈먼 춘갑을 속

183) 김영민, 구장률, 이영미, 『근대계몽기 단형 서사문학 자료전집』 상·하, 소명출판, 2003.

여 춘갑이 자기 집 닭장의 닭을 모조리 죽여 술안주로 삼도록 한다..

(4) 1910년 1월 28일: 남편과 한선의 술자리를 준비해둔 후 지난밤을 남편의 요청에 따라 다른 집에서 자고 돌아온 아내는 닭장의 닭이 몽땅 사라진 것과 남편이 닭을 잡아먹은 것을 탓하니 그제야 춘갑이 자신이 속은 것을 알고 분해하면서 도리어 늦게 돌아온 아내를 탓한다.

(5) 1910년 2월 4일: 갑오년 난리에 피란 갈 곳이 없어 고민하던 춘갑에게 한선이 찾아와 피란 갈 곳을 미리 알아뒀다고 말하고 춘갑은 한선에게 가졌던 분한 마음도 잊고 자신도 함께 데려가달라고 사정하고, 한선은 집 곁에 움을 파 숨어야 한다고 말하며 함께 피란에 동행시켜주겠다고 한다.

(6) 1910년 2월 11일-2월 18일: 피란길의 추위를 걱정하며 한것을 걸치고 옆어지고 기며 한선을 따른 춘갑을 한선은 춘갑 집 아궁이 앞에 데려다 놓고 다른 사람들이 숨은 장소를 알면 안 되니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있으라고 당부한다. 얼마 후 귀가한 아내 최씨는 아궁이 앞에서 검댕이를 묻힌 채 있는 웅크리고 있는 남편을 발견하고 또 남편이 한선에게 속았음을 안다. 춘갑은 아내가 큰 소리를 내자 장소가 들켜 목숨이 위험할 것을 우려해 아내를 탓하는 말을 하고 결국 아내가 말해주어 자신이 또 한선에게 속았음을 알고 분하게 여긴다.

(7) 1910년 2월 18일: 집 마당 평상에서 세 알의 달걀을 까먹던 춘갑은 분명히 있던 달걀이 자주 사라지자 고양이가 가져갔다고 생각하는데 실은 한선이 춘갑의 집에 들어와 달걀을 몰래 먹고 고양이 소리로 속인 것이다.

(8) 1910년 2월 25일: 한선이 춘갑을 찾아와 춘갑의 발을 찌르고는 독사가 있다고 속인다. 이에 춘갑이 독사를 쫓는다고 지팡이를 휘둘러 집 파발을 모두 망가뜨리고 한선은 독사에게 물린 상처를 치료할 약을 가져오겠다고 하고 도망간다. 집에 돌아온 아내 최씨는 독사에게 물렸다면 다리를 동여매고 있는 남편과 엉망이 된 파발을 발견하고 춘갑이 한선에게 또 속았음을 일깨워준다.

작가는 8회의 마지막에 논평을 덧붙이고 있는데,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을 문명에

개화되지 못해 시대 현실에 어두운 상태로 비유하여 계몽 의식을 고취라는 연재 목적을 보여준다.

전근대 시기 병자, 병인으로 불리던 장애인들은 1920년대부터 신체적 결함을 가진 이들은 불구자, 특이한 신체적 특징을 가진 자들은 기형아로 명명되며 병자와 병인의 개념에서 분리된다. 이는 신문에 실린 기사에서 확인되는 바이다.¹⁸⁴⁾

1890년대는 서구 문명과 외세가 조선에 들어와 이권을 다투고 기존의 문화와 충돌하며 다양한 혼란과 갈등의 요소가 일어나던 시기이다. 이런 시대를 배경으로 등장한 서사적 논설은 근대문학의 출발을 알리는 과도기적인 양식이자 근대소설의 초석이 되는 문학 양식으로 근대 단형 서사라는 명칭으로 불리기도 한다. 이는 근대 계몽기 신문 논설란에 발표된 단형의 이야기 문학을 지칭하는 용어로, 『매일신문』 『독립신문』 『황성신문』 『제국신문』 등 대부분의 1890년대 신문에서 쉽게 발견될 뿐 아니라 이 시기 대표적 신문인 『대한매일신보』에서도 적지 않게 발견된다.¹⁸⁵⁾

이 양식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첫째 지은이 미상인 작품이 대부분이며 둘째 우회적이거나 비현실적 소재를 통해 현실 문제를 깊이 다루고 있으며 셋째 표기상 한글로 쓰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간혹 국한문 혼용으로 된 경우도 있다. 넷째 액자 구성 기법, 토론체, 문답체, 대화체 등 소설의 기법을 다양하게 활용하였다. 다섯

184) 『매일신보』, 1914년 1월 31일, [동서남북: 괴이한 불구자] : 독일의 손가락 기형으로 태어난 소녀와 관련된 기사로 사진과 기형의 정도, 외과 수술의 추이 등을 기록했다.

『중외일보』, 1928년 8월 30일, [의술의 발달은 불구자를 업게 한다]

『조선신문』, 1927년 3월 27일, [기형아를, 불구자가 낳다]: 평안도에서 3척 5촌(약 105cm)의 신장을 가진 부인이 아이를 낳았는데 10달을 채웠지만 아이 역시 기형일 정도로 작아, 결국 병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사망하고 모체는 살렸다는 기사가 실림. 기사 제목에서 기형아를 강조하는 편집으로 주목하는 부분이 의술과 관련된 사항임을 알 수 있다.

『조선신문』, 1926년, 3월 20일, [불구자에게 일대복음, 의수족의 대발명]

185) 이 시기 근대계몽기 단형 서사문학 자료는 김영민·구장률·이유미 편, 『근대계몽기 단형서사문학 자료전집』, 소명출판, 2003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영민 『한국근대소설사』, 솔, 1997, 정선태, 『개화기 신문 논설의 서사 수용 양상』, 소명출판, 1999. 한기형, 『한국 근대소설사의 시각』, 소명출판, 1999에서는 서사적 논설을 ‘단편서사물’이라 칭하고 그것을 다시 ‘시사토론체 단편’ ‘우의체 단편’ 등으로 세분화 해 다루고 있다. 현대 한국문학 100년 기념 대산문화재단 기획 심포지움에서 조남현의 「한국근대소설 형성과정과 작가의 초상」(『현대한국문학 100년』, 민음사, 1999. 57-100면)에서도 이에 대한 언급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졌다.

째 초기에는 대부분 한 회에 완결되는 것으로 그 길이가 매우 짧았으나 점차 연재 발표되는 작품(『독립신문』 1899년 4월 15-17일 「적미있는 문답」)도 나타난다.¹⁸⁶⁾ 마지막으로 어떤 형태로든 글쓴이 혹은 편집자의 목소리가 서사 표면에 직접 노출된다.

신문의 논설이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서사로 채우는 경우, 즉 신문 논설이 곧 문학 작품으로도 읽힐 수 있는 예는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한국 근대 문학사에서만 발견되는 독자적 현상으로 이는 조선 후기 서사문학 양식의 시대적 변용물로 볼 수 있다. 특히 이야기의 끝에 나오는 필자의 해설은 담고 있는 의미에 대한 재해석이나 교훈에 대한 확인이 주종을 이룬다. 이를 통해 이 장르가 서사의 완성 그 자체보다 서사를 통한 교훈 전달과 계몽 성취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근대 서사 문학에서 장애인은 현실의 모순을 폭로하거나 비판하는 주체로 등장한다. 그들의 장애는 일제와 함께 조선에 도래한 근대의 폭력성을 보다 뚜렷하게 드러내는 구실을 하는 장치가 될 뿐 아니라 서사 문학 표면에서 근대 시기 장애인에 대한 시각의 변화를 읽어낼 수도 있기에 중요하다. 이에 근대 계몽기 단형 서사 문학을 살핍으로써 근대 전환기에 나타난 장애 상징의 변화를 살피고자 한다. 이는 고전 소설만이 가진 장애 서사의 특이점을 드러내는 한 방법으로서 의미가 있다.

2) 사회 밖 타자화: 기형적 사회와 장애

인간을 사회의 한 기능 요소로 규정하고 국가와 민족의 발전이라는 지향을 향해 달려가던 근대전환기,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없는 무능력과 오점으로 낙인찍히는 근거가 되었다. 과거 병인, 병자로 인식되던 장애인을 있어야 할 것이 없는 불구의 존재로 규정하고, 전대의 각 질병과 장애를 개

186) 한 회 형식으로 끝나는 형태의 이야기는 단편, 단편소설로 표시된 채 신문에 실렸고 이때 '신소설'은 신문 장편 연재사설의 개념으로 사용되는 명칭이었다. 이유미, 『한국 단편소설의 출현과 근대 신문·잡지』, 소명출판, 2019. 22쪽 참조.

별적으로 호명하던 가치에서 불구자, 병신이라는 편견과 비하의 개념 아래 귀속시키는 호명과 함의의 전환은 근대전환기가 형성한 장애와 병자들에게 드리운 어두운 근대의 그늘이다. 그리고 현재 우리 사회가 가진 장애와 병자 담론 역시 진보적·민족주의적 이념 아래 형성된 근대전환기의 장애인 호명의 영향 아래 형성된 담론이라 할 것이다.

특히나 서양 의료 기술 도입은 장애가 치유될 수 있다는 현실적 가능성을 보여주었고, 일제에 의해 근대 의료 기술의 위대함을 광고하는 기사들이 신문과 잡지 지면을 장식¹⁸⁷⁾하면서 극복될 수 있고 치유될 수 있는 장애에 대한 관념이 형성되고 치유에 대한 가치 지향이 강화되었으며, 근대 의술로 치유될 수 있는 것과 치유될 수 없는 것 간의 위계를 만들었다.

근대 문명의 일부인 전차나 자동차 등의 신문물이 도입되면서 물리적 사고로 인한 후천적 장애나 죽음이 증가했음¹⁸⁸⁾에도 이런 사실에 대한 지적은 배제된 채, 근대의 모든 것은 긍정적인 것, 지향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고 이 범주 안에 부합되지 않거나 설명되지 않는 것은 은폐되고 배제되는 담론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이러한 담론은 자연스레 장애를 어두운 것, 부정해야 할 것, 사라져야 할 것으로 치환하는 자연스러운 전제를 형성한다.

근대전환기 단형 서사에서 나타나는 기형의 조국을 장애로 은유하는 모든 비유, 굳이 장애인들이 비판의 주체로 등장해 국가의 혼란, 부정부패, 쇠약한 국력, 근대화되지 못한 국가 체제에 대해 말하는 아이러니를 통한 풍자성의 강화는 모두 장애에 대한 차별적 시선을 전제로 한 서사적 형상화이다. 먼저 기형의 조국을 장애인으로 비유한 서사적 형상화를 살피도록 한다.

187) 「중외일보」, 1928년 8월 30일, [의술의 발달은 불구자를 업게 한다]

「조선신문」, 1926년, 3월 20일, [불구자에게 일대복음, 의수족의 대발명]

188) 정창권, 『근대장애인사』, 사우, 2019, 19-21쪽 참조. 1899년 5월 서울에 전차가 가설된 후 교통사고가 자주 일어났으며 특히 시각장애인이 자주 당했다. 또한 외상 후 주사 치료 후 염증으로 인해 상박을 절단하는 의료사고로 장애를 입는 경우도 있었으며, 1900년 11월 철도 개통 이후 청각장애인의 철도 사고도 빈번하게 일어났다.

(1) 사회 비판의 은유적 장치로서의 장애

「장수와 난장이」는 1898년 7월 독립신문에 [명담]란에 서양 이야기라며 소개 형식으로 게재된 작품이다. 가냘프고 연약한 난쟁이가 힘세고 용맹한 장사를 흠모해 그와 동행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된다. 부당한 일을 볼 때마다 난쟁이는 자기의 힘을 헤아리지 않고 분을 내거나 성급히 덤비다 다쳐 외팔이, 절뚝발이, 애꾸눈이 된다. 반면 장사는 난쟁이를 구하면서 함께 구출한 아름다운 처녀와 부부가 된다. 본래 먼저 나서 장사와 함께하기를 청했던 난쟁이는 장사와 동행하며 도리어 자신은 몸만 상하고 장사 좋은 일만 했다고 결국 이야기의 마지막에 장사에게 이별을 청한다. 그리고 이야기가 마무리된 후, 신문의 필자는 다음과 같은 논평을 덧붙인다.

이 이야기는 본디 누가 지어낸 말이라 한번 웃고 그문 둘 일이어니와 우리 집안이 불행하야 가업이 흥치 못하고 빚폐가 구렁헌 식둠에 집안 사름의 밋음이 흥휴하야 난을 상각하는 이가 만흔듯하나 이것은 집안 일문 잘 되면 즈연히 침식되려니와 동리 사름들이 혹 우리집안에 즈중지란이 나기를 볼오는 일이 잇서서 한번은 무슴 일이 잇스면 그 기회를 타서 우리 집을 찌져서 저의 욕심을 취우고져 하야 우리 집안 사름을 연유하야 말과 편지로 혹 썩우며 혹 욱하며 혹 비우스며 혹 놀너며 혹 위로하야 아모쥬로 무슴 작경을 너여 집안이 요란하도록 하니 일이 그러케 되고 보면 동리 장수들의게는 밋오 죠흔 일이어니와 그 썩우논디 싸져서 집안이 요란하게 하는 난장이들은 필경 병신 구실이나 하고 집안만 망하게 홀터이니 엇지 경계치 아니하리오¹⁸⁹⁾

이야기 속 힘없고 가냘프면서도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여 성내기를 잘하고 모든 일에 성급히 덤벼 결국 반신불수의 장애마저 얻는 난쟁이를 열국과 동

189) 『독립신문(獨立新聞)』, 「장수와 난장이」, 1898년 7월 20일.

행하다 불구가 된 조선에 비유했다. 그리고 난쟁이와 동행하며 옆에 있다 난쟁이를 구하는 과정에서 이익을 얻은 장사를 열강에 비유한다. [명담]란에 타국의 재미있는 이야기를 게재하여 이를 통해 현재의 조선을 진단하고 권고하는 계몽과 교화의 목적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이야기가 『독립신문』에 게재된 1898년은 청일전쟁과 아관파천 이후 일본의 조선에 대한 지배력이 강화되고, 갑오개혁과 함께 창간됐던 『독립신문』의 주필이었던 서재필이 정부에 대한 비판적 논조로 인해 파직되어 미국으로 돌아가는 사건이 일어난 시기이다. 또 러시아의 영향력이 줄고 이에 양심을 품은 반역자에 의해 고종 황제와 세자의 암살 사건이 일어나고 왕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 용병을 고용했다가 독립협회를 중심으로 한 시민운동에 의해 철회하는 등의 사건이 일어난 시기이기도 하다. 즉 이 이야기는 열강의 싸움에 휘둘리며 자신의 능력을 가늠치 못한 왕실로 인해 백성은 고통받고, 개화와 계몽, 민족독립을 주장하던 개화파들의 운동이 펼쳐지던 당대의 혼란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당시 무력하고 힘없이 열강에 휘둘리며 국가적 능력을 상실하던 조선을 힘 없는 난쟁이가 자신의 능력을 가늠하지도 않고 선불리 나서다가 반신불수마져 되는 상황에 비유하고, 이런 난쟁이 옆에서 이득을 취하는 장사를 조선을 둘러싼 열강에 비유하고 있다. 힘없고 무너져가던 조선이라는 나라의 상태를 난쟁이가 반신불수라는 장애가 더해지는 과정에 비유하는 장애에 대한 시선이 드러난다. 장애를 약하고 부족하고 완전치 못한 상태로 비유하는 서사적 맥락은 장애에 대한 차별적 시선을 드러낸다. 특히 ‘췌우논덕 싸져서 집안이 요란하게 흐는 난쟁이들은 필경 병신 구실이나 흐고 집안만 망하게 홀터이니’에서 국내의 분란을 조장하는 무리들을 난쟁이로 지칭하기도 하는데 이때 ‘병신 구실’이라는 구절에서 문맥적으로 병신이 비속어적인 멸시의 시선을 담보한 용례로 이용되고 있어 이미 조선에서 사용했던 병자(病者)의 의미로 사용됐던 병신의 의미가 부정적 의미로 변질되어 사용되고 있는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소경과 앓은뱅이 문답」에서 소경과 앓은뱅이인 주인공의 대화에서도 장애를 국

가적 위기 상황에 비유하는 대화가 등장한다. 시각 혹은 청각 장애 즉, 세상을 인식하는 신체 기관에 장애를 가진 상태를 문명개화 하지 못한 몽매(蒙昧)의 상태로 비유하고, 더불어 신체적 자유가 없는 앓은뱅이 상태를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되지 못한 혼란기의 조선인들의 모습에 비유하기도 했다.

두눈이 발근 놈도 학문이 업고 보면 나와 갖흔 소경이오 사지박히가 멀정허다 허나 주유활동 못하고 보면 주네와 갖흔 병신이라 전국 인민 평론허면 등신은 아즉 살아 세상에 잇다허나 마암은 발셔 죽어 황천에 갖다홀지니 가위 말허는 귀신이라 홀 만 허고 (...) 귀와 눈이 잇다흔들 무어시 유조훈가 귀먹어리 소경이라 홀만하고 소위 학즈니 산림이니 허는 분네들은 공즈왈 텅즈왈 허며 시문을 구지 닷고 산고곡심을 벽쳐에 초당을 지어노코 (...) 벌노빅리 밧글 나가보지 못허고 무정세월을 허송하니 가위 씨근 선빅라 홀만하야 안증방이나 다름이 무엇인가¹⁹⁰⁾

안맹과 앓은뱅이라는 장애를 어두운 상태의 마음과 안목을 비유하는 데에 사용하는 발상은 「모르는 것이 곳 소경」에도 동일하게 적용된 사고로 빛은 문명, 안맹은 몽매(蒙昧), 앓은뱅이는 부자유라는 도식을 형성하고 있다.

사람이 눈이 어두우면 속을밧게 업습과 곳히 사람이 범에 어두우면 못된 관리 의게나 놈의게 속을밧게 업스니 모든 사람은 히턱와 도치 못흔 넷 성질을 속히 고치고 학교에 가 브즈런히 공부허야 문명흔 나라의 도흔 본을 밧아 모든 일에 눈이 어둡지 말 것이로다.¹⁹¹⁾

위의 인용문은 친구 사이인 김한선과 맹인 이창협 사이에 벌어지는 속고 속이는 이야기가 반복되는 민담적 소화(笑話)를 8회 연재하고 8회 말미에 작가가 실은 논평

190) 『대한매일신보(大韓每日申報)』, 1905년 12월 10일~12일, 「소경과안증방이문답 속」.

191) 「모르는 것이 곳 소경」, 1910. 2.25

이다. 눈이 어두우면 속을 수밖에 없다는 전제로 시작해 모든 사람 즉 글을 읽는 조선 백성들이 서양의 좋은 것을 본받아 눈이 어둡지 말기를 바란다는 계몽과 개화를 권고하는 내용이다. 계몽되지 않고 나쁜 행실에 젖어있는 상태를 눈이 어두운 상태로, 계몽과 서구 근대 교육을 눈이 밝은 상태로 상정한 시선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근대 전환기 안맹을 계몽되지 못한 것으로 치환하는 은유가 강하게 답습되고 있는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지점이기도 하다.¹⁹²⁾

「병인간친회록」은 다소 다른 방식으로 이런 관념을 전개한다. 이 작품에서는 각각 다양한 장애를 지닌 인물들이 연달아 단상으로 올라와 연설하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모든 연설은 공통된 구조를 보이는데, 우선 자신의 장애에 대한 세상의 편견과 폄하에 반박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오히려 장애 있는 자신이 장애 없는 사람보다 낫다는 내용과 현 세대에 대한 비판,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당부나 진단으로 연설이 마무리된다. 연설 초반의 자신의 장애에 대한 편견에 반박하며 정상인과 비교해 나은 점을 이야기하는 것은 물질적 몸의 장애를 가졌지만 정신은 올바른 장애인이 정신적·이념적 장애를 가진 조국과 이런 현실을 유발한 온전한 몸을 가진 사람들을 비판하도록 함으로써 현실과 집권층, 지식인에 대한 비판의 강도를 강화하는 서술 효과를 추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설의 구성에 내재된 전제는 온전치 못한 장애인과 온전한 몸을 지닌 정상인의 대비적 구도이다. 사회 밖의 존재인 장애인들에 의해 도리어 폭로되는 모순적인 현실은 사회 내부의 구성원인 정상인들에게 더 큰 경각심과 깨달음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이러한 미개하고 부정적인 조국의 상태의 장애 은유는 장애에 대한 차별적 시선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그리고 서사 속에 함의된 장애에 대한 차별적 시선은 이를 향

192) 『대한매일신보(大韓每日申報)』, 1908년 11월 13일. 「聾盲世界」라는 사설에서도 당대 선비들을 농맹과 다름이 없다고 비난하며 개명하여 세상을 위해 일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濟濟韓國多士들이 導率責任是誰런고 靑靑子衿이아닌가 外樣으로 불작시면 無非聰俊豪傑이나 實地檢査하랴면 盡是聾盲而已로다 悠悠我心엇지홀쏘 非攻擊則勸告일세 … ▲聾盲들이 聾盲들이耳目實病잇더리도 冤痛하다하깃논디 善良天賦聰明으로 自作病身하단말가 諸公들만 差病하면 二千萬衆만타하나 不久自至開明이니 勉哉어다 勉哉어다

유하는 언중들에게 자연스레 장애에 대한 부정적 편견을 형성하는 데 기여한다.

(2) 고립된 타자로서의 장애

「소경과 앓은뱅이 문답」은 점복사인 소경과 망건 일 하는 앓은뱅이의 대화로 이루어진 대화체 소설이다. 이 작품은 둘의 대화를 통해 대한제국 말 사회의 혼란과 조선 백성들의 가난으로 인한 생활고를 그리고 있는데 특히 직업을 가지고 자립해 살아가던 장애인들이 직업과 경제적 자립을 상실한 괴로움을 직접 토로하는 부분에서 근대 전환기 장애인들이 경제적 자립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거리에서 구걸하거나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았던 이유를 짐작케 한다.

“그전에는 너가 문슈소리를 질고 도라다니며 이집저집에서 불너들려 하로 못 버러도 솜스십량이더니 근일에는 다리에 가쌌토시가 셔도록 다여도 솜스폰을 구경치 못허니 춤 살슈업셔.”

“... 나도 이왕에는 망건이 솜기만 맞허도 밋일 스오십 량 오륙십 량을 버러 고기도 스먹고 술도 먹엇더니 근일 당허여는 돈도 귀홀 쏘아니라 머리작는 슝만어셔 제각금 망건을 파라먹으려드느 까닭에 싱이 업셔 죽겠네.”¹⁹³⁾

1895년 대한제국의 단발령과 미신타과정책이 시행됐으나 그 과정에서 장애인들은 직업을 잃었다. 이 작품 속 점복사인 소경과 망건장(網巾匠)인 앓은뱅이 역시 이 과정에서 생계의 위협을 겪는다. 이는 비단 이들만의 일이 아니었다. 작품에서는 ‘우리 보담 십 벱 잘별고 잘쓰던 궂상고들도 전문을 닳친다 도망을 혼다허니 돈은 춤 귀홀’ 시대로 많은 이들이 생계수단을 잃고 도망하는 등 조선 전체가 가난한 처지가 되었다. 작품이 처음 게재된 1905년 11월 17일은 일본이 조선으로부터 외교권을 박

193) 『대한매일신보』, 「소경과안증방이문답」, 1905년 11월 17일.

탈하는 을사늑약을 체결한 날이다. 이 작품은 조선이 내우외환에 시달리며 국가의 존립이 위협받고 백성들은 개혁 정책에 의해 파급된 지나친 조세 부담으로 극도의 빈곤으로 떨어진 시기를 배경¹⁹⁴)으로 그 시대의 역풍에 의해 생활고를 겪는 백성 중 장애로 인해 현재의 직업 외에 다른 생계 방식을 도모하기도 어려운 장애인을 소설의 서술자이나 주인공으로 내세워 그들이 몸담은 현실의 정황을 풀어놓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근대전환기 혼자 움직이는 것이 어려웠던 지체장애인은 노동 경쟁력에서 밀려나 직업을 가지지 못하고 결국 거리에서 구걸로 연명하는 이가 다수였고, 이마저 어려운 중증 장애인은 가족과 지인에게 방치되거나 유기¹⁹⁵)되고 그 과정에서 죽거나 범죄 행각을 벌이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발생했다. 이처럼 근대전환기 조선의 국력 상실과 빈곤의 강화는 제일 먼저 약자인 장애인들이 공동체 밖으로 축출되거나 배제되는 사회 현상을 낳았다. 즉 근대의 도입과 함께 불구자로 명명된 자립 가능성이 없는 병자와 장애인들은 사회와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없는 존재로 지명되어 사회 밖으로 밀려나 고립¹⁹⁶)되거나 배제되었다.

이 소설이 취하고 있는, 현실적 맥락 안에서 있을 만한 인물을 내세워 현실의 문제를 나열하는 방식은 인물과 사회 사이의 갈등을 효과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방식이

194) 『고종실록』 33권, 고종 32년(1895) 3월 22일, … 지난 번 낭묘(廊廟)의 여러 신하와 방백(方伯), 수령(守令)들이 보답할 책임은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제 배만 불릴 욕심을 부리면서 무겁게 거둬들이고 포악한 짓을 계속하여 원칙에 어긋나게 빼앗고 명색 없는 형벌을 가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넉넉한 사람은 스스로 보존하지 못하고 가난한 사람은 떠돌아 다니지 않을 수 없게 한 결과 우리 조종(祖宗)들이 500여 년 간 길러온 백성들로 하여금 위를 그르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즐거움이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동도(東徒)에 이름을 걸기도 하고 남학(南學)이라고 거짓으로 부르기도 하면서 한 사나이가 떨어져나서 부르짖으면 만 사람이 일제히 호응하니 어찌 위태롭지 않으며 어찌 통분하지 않겠습니까? …; … 而向者廊廟諸臣、方伯、守宰，不思報答之責，專肆肥己之慾，加以重斂，繼以暴虐，奪之非義，刑之無名。富者不能自保，貧者未免流離。使我祖宗朝五百餘年培養之赤子，有非上之心，無生世之樂。於是乎或託名‘東徒’，或假稱‘南學’，一夫奮呼，萬人同聲，豈不危哉，豈不痛哉?… 『고종실록』 45권, 고종 42년(1905) 1월 17일, … 간쟁하는 길이 오히려 막혔고 백성들을 자애롭게 보살피려고 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가혹하게 조세를 거두는 정사는 끝이 없었습니다. … : … 諫諍之路尙壅; 非不欲愛養生民，而掎克之政無藝。 ….

195) 정창권, 윤종선 등, 『소설로 장애읽기 1』, 2018, 지성인, 31쪽.

196) 일레로, 일제강점기 소록도에 설치된 자혜의원은 한센병 환자를 분리 수용하기 위한 시설로 설립되어 전국의 한센병 환자들이 강제 수용됐다.

다. 여기서 인물 간 대화는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현상들에 대한 인식을 심화시켜 나가고 그 의미를 폭로하는 역할¹⁹⁷⁾을 수행한다. 하지만 이들이 아무리 현실의 문제를 비판한들 그들의 말은 한낱 푸념에 그칠 뿐 실제로 현실을 개혁할 만한 힘을 가지지 못한다. 이에 이 작품의 말미에 앓은뱅이가 소경에게 함께 단체를 만들어 이 현실을 타파해보자고 권유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이는 「병인간친회록」에서 세상에 무수한 단체가 있는데 유독 병인, 즉 장애인들만 단체가 없으니 이 기회에 병인 단체를 만들어 힘을 합해보자는 맥락과 유사한 발상이다.

“(…)나는 눈이 잇스나 다리가 부실하고 즈네는 다리가 성허나 눈이 업셔 피츠에 낭퓌 되는일이 만은즉 우리두리 일신단체되여 이전에 못하던 일 허게드면 그아니 쾌홀손가.”

“말인즉 대단이 감격흐 말이나 우리갓흔 병신들이 제아모리 단체된들 무엇을 혼다하리오 가위 지이불형인 즉가석홀 쏜이로세.”

“... 즈네가 단체의 뜻을 모르는 말인가 보네 즈네가 나를 업고보면 눈도 잇고 다리도 잇셔 어긋을 가지못 혼다허며 무엇을 허지못 혼다 허리오 그러케만 허고보면 단체가 아니되나.”¹⁹⁸⁾

장애를 가진 상황에서 사회적 활동의 어려움을 장애인 간 결속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는 생각이 나타나고 있다. 각자 개인적 실행에 대한 의식을 진술한 대목일 뿐 아니라, 장애를 가진 사람들 간의 협동을 통해 부자유의 탈피를 도모하여 새로운 활동의 길을 모색하고자 하는 발언은 현재 외세의 위협으로 제대로 된 자주 국가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대한제국의 현실에서 대중이 취할 억압적 상황을 탈피할 방법

197) 조낙현, 「『소경과 안증방이 문답』의 시사비평과 알레고리에 대하여-알레고리의 소설적 발전」, 『국어교육』 90, 한국어교육학회, 1995. 290쪽. 조낙현은 이 작품이 본격적인 소설이 시작되기 전 당대 유행하던 시사적 논설에 소설적 구성인 인물 형상을 끌어들이는 소설적인 변화를 발견할 수 있는 작품으로 이해했다.(297쪽)

198) 1905년 12월 12일. 「소경과안증방이문답 속」. 인용문의 문장부호는 본고가 임의적으로 표기한 것이다. 이하 인용문도 같은 방식으로 띄어쓰기와 인용문을 표기한다.

에 대한 주체적 모색을 은유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장애인들의 연합에 대한 의식이 직접적으로 언급된 작품이 「병인간친회록」이다.

1907년 신문지법과 보안법을 계기로 군중집회와 공중회동이 일제에 의해 금지되면서 개화파 지식인들은 계몽과 교화의 목적을 지닌 연설과 회의의 현장을 작품 내로 끌어들이며 연극적 소설¹⁹⁹⁾이라는 형식의 소설을 창작했다. 「병인간친회록」이 연극적 소설에 속하는 서사이다.

「병인간친회록」의 서두에서 서술자는 독자를 향해 결사의 필요성을 설파하고 병인 역시 회가 필요함을 이야기한다.

각색 명목으로 회를 조직하여 밤에도 모이고 낮에도 모여 잇고 업는 것도 서로 분배하고 알고 몰오는 것도 서로 밋고야 호올로 셔잇셔 혈연히 외로움을 면히니 장하도다 사회의 업지 못홀 것이여²⁰⁰⁾

작품은 이렇게 중요한 회(會)가 오로지 병인들만 없다는 문제 의식을 설파한 후, 병인 모임의 개최를 알리는 취지서를 발송한다. 이때 서술자는 ‘조상의 유전이나 본인의 죄로 하늘이 명하신’ 게 장애라는 것, ‘그 벌을 감수하고 다만 죽기를 기다릴 뿐으로 회과자신(悔過自新)할 길이 막히고 동병상련의 의가 없으니’ 병신들의 간친회를 열고자 한다는 내용이 나온다.²⁰¹⁾

고전소설에서 장애를 질병과 사고의 결과나 업보의 결과로 인식하는 사고만 존재했다면 근대에 들어 유전이라는 요소가 더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근대 시

199) 이정옥, 「근대 초기 ‘연극적 소설’과 계몽담론의 서사화 전략」, 『대중서사연구』 20권 3호, 대중서사학회, 2014., 571쪽. 이정옥은 그동안 토론체 소설, 대화체 소설로 언급되던 근대개화기 작품들인 안국선 『금수회의록』, 『경세종』, 『병인간친회의록』, 『금수재판』, 『자유종』, 『천중가절』 등을 당대 일제의 식민 정책과 연극부흥이라는 사회문화현상이 결합된 독특한 문학 서사 갈래로 보고 이를 ‘연극적 소설’이라는 칭하며 분석하고 있다.

200) 광소생, 「병인간친회록」, 『대한민보』 1909년 8월 19일.

201) 광소생, 「병인간친회록」, 『대한민보』 1909년 8월 19일. …조상의유전이나 본인의죄일로 하늘이명하심이니 박절헌심각지못하는 말로하면 그벌을 감수하고 다만죽기를 기대일뿐이라 홀지나 그리고보면 회과자신홀길이 막히고 동병상련의의가 없슬지라 이에 성태성외에잇는 각색 「병신들이 간친회를발귀하고…」

기 우생학과 연관된 발상으로 실제 장애가 유전될 수 있다는 관점 아래 비인도적 치료가 강제²⁰²⁾되기도 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근대 들어 새롭게 형성된 장애인이라 할 수 있다.

근대전환기에 새롭게 서사에 등장한 유전이라는 장애 원인 요소는 실제 장애에 대한 거부감과 배제를 강화하는 심리적 원인이 된다. 과거의 업보로 치환되는 장애는 장애 당사자 자신이 감당할 몫이라는 현재적 시간성만을 가지지만 여기에 유전이라는 요소가 들어오는 순간 미래라는 시간성과 후손의 몫이라는 요소가 담보되면서, 그 죄업의 강도는 커지고 가정 공동체의 후대까지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장애 유전의 화두는 앞서 살핀 「소경과 앓은뱅이 문답」에도 나타나는데, 관리들의 전반적인 부정부패의 행태를 비판하면서 새우는 대대 곱사등이라는 속담에 대해 맹인이 ‘자네는 자식 낳으면 앓은뱅이 낳고, 나는 눈먼 놈 낳겠’²⁰³⁾라며 반박하는 부분에서 「병인간친회록」보다 조금 앞선 이 시기에는 장애의 유전성 담론이 비교적 확고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취지서의 내용 중에는 서양의 근대 병원과 장애인 학교 등의 시설을 거론하고 조선에는 맹아원조차 없는 현실을 비판하는 내용이 있다. 이를 통해 1913년 제생원 설립 이전에도 서양 문화를 확인하고 온 근대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근대적인 장애인 시설에 대한 인식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²⁰⁴⁾

202) 이방현, 「식민지 조선에서의 정신병자에 대한 근대적 접근」, 『의사학』, 22권 2호. 대한의사학회, 2013. 529-578쪽. 일제감점기 총독부가 길거리에서 배회하는 정신병자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신문과 협력하여 이들에게 ‘충동성’, ‘위험성’의 표상을 부여하면서 정신병자들을 위생경찰과 근대 보건 의료진에 의해 감시·감독을 받아야 하는 존재로 전환하였으며 이들을 위한 수용시설을 마련하고 일반 대중에게 정신병을 일종의 ‘일탈’이라는 관념과 공포심을 조장하는 방식으로 정신병자에 대한 감시와배제의 관념을 식민지 조선인들에게 내제화 했다. 이 시기 총독부 의원의 격리병사는 감금 및 수용 시설에 가까웠으며, 이때 정신병의 원인을 열성인자를 물려받은 사람이 생활의 자극을 이겨내지 못한 결과 일어난 것으로 규정하고 이 유전적 소인이 후세대에 전달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장차 민족 위생과 사회방위, 범죄방지를 위한 길이므로, 정신병자에게 ‘단종법’을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을 공고화한다. 이에 따라 일제 시기 수용소에 격리된 정신질환 여성들을 대상으로 강제불임수술이 실행된다.

203) 『대한매일신보』, 「소경과안증방이문답 속」, 1905년 11월 22일.

204) 이러한 논조는 서재필의 논설에서도 확인된다. 서재필, 『독립신문』, 1897년 06월 05일. 병 있는 사름들은 그 병원에 와서 병치료를 호고 상등 의원들과 상등 약과 음식과 거처를 병인에게 유요하도록 마련하여 주는 이도 있고 … 돈이 그러케 만춘한 사름들은 조금문치라도 되려

「병인간친회록」의 전반부 서사는 회의 직책을 맡을 인물을 선발하고 구성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후반부는 열한 명의 병인들이 자신들을 향한 편견에 대한 반박과 정신적으로 불구인 사람들의 비행에 대해 비판하는 연설을 펼친다. 형식적으로 여러 등장 인물들의 연설이 동일한 패턴으로 반복되는 병렬구조로 진행되며, 내용적으로 병인들을 향한 일반 대중의 편견을 반박하며 현세를 비판하는 논증 구조이다. 그 대략적 내용과 등장하는 장애인을 순서대로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²⁰⁵⁾.

	인물	일반적 편견에 대한 반박	비판 내용 및 대상
1	절름발이	다리는 절지언정 행세는 절지 않는다.	벼슬을 애걸하는 관리들 비판
2	외눈박이	외눈이지만 정당한 것만 보니 오히려 낫다	사익만 탐하는 관리 비판
3	언청이	찢어진 입술로 안의 것이 다 보이니 남을 속이지 않는다	무능하고 횡령만 일삼는 관리 비판
4	곰배팔이	팔이 몇 개든 나라를 위협하는 범과 사자를 힘써 막고자 한다	국권과 백성 보호도 못하면서 제대로 항거도 하지 못하는 국가 비판
5	안진방이	한 곳에 앉아있지만 오히려 경륜과 배포를 갖추었다	허황된 언설로 사람을 속이고 좁은 소견으로 진보만 외치는 지식인 비판
6	난쟁이	키가 작아 오히려 남에게 허리를 굽히지 않으니 비루하게 살지 않는다.	지조와 개념없이 자리를 얻기 위해 아부를 일삼는 관리 비판
7	귀먹어리	귀가 어두워 오히려 더러운 것을 듣지 않으니 해를 입히지 않는다	비밀운동과 협잡, 허탄한 일에만 귀가 밝은 청년자제들 비판
8	배부장이	배는 크나 밥은 많이 축내지 않는다	부정한 방식으로 재물과 부를 축적하는 관리와 허황된 모임만 일삼는 무리 비판
9	흑부리	남에게 없는 흑이 있어 좋다.	나라의 부국강병을 위해 세계 각처의 영지 확보에 힘쓰자
10	장님	장님에 대한 경멸와 오해에 대한 원통함과 눈이 멀었어도 마음은 멀지 않았다	눈뜬 소경처럼 눈앞의 이익만 취해 세상을 위태롭게 하는 동포
11	곱사등이	남보다 고생은 곱절이지만 밝은 눈으로 세상을 제대로 살아가고 있다.	눈치보며 허리를 굽히지도 펴지도 못한 채 제대로 행동하지 못하는 정부대관 비판

밍아원을 몬드려 판슈와 병어리들을 모혀 그 사름들을 학문을 별다르게 골으쳐 세상에 버러 먹고 살게 흐여 주며 ... 지금 몇 천년을 내려와도 공립 공원 디룬다던지 병원이룬다던지 학교 이룬다던지 밍아원이 이룬다던지 도셔원이 이룬다던지 무 부모 무 친척헌 오히들을 길너 주디 이룬다던지 심지어 공립 목욕간 이룬것도 업논지라 이걸 보거드면 동양서 쇼위 착흐게며 의있게며 레있게며 지혜 잇게며 효도롭게며 충심 잇게며 밋봄이 잇게며 자비지심이 잇다논거시 외국 문명화헌 나라에 비유 흐거드면 감히 비교 홀슈 업논지라

205) 이정옥, 위 논문, 400쪽의 표 형식을 바탕으로 본고가 내용을 추가 변형하였다.

여기서 언청이의 발언 중 근래 서양 의사가 언청이 고치는 수술을 잘해서 제중원, 대한의원 등의 병원에 들어가 며칠만 치료하면 이 병신을 면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온다. 실제 이 시기 언청이 수술이 이미 활발히 이뤄졌음은 다음 신문 기사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결순자의 감읍(缺唇者의 感泣), 이십년 언청이를 곱져

중부중곡(中部中谷)스십삼통륙호에사는, 장동호(張東浩)는, 빅안의언청이로, 이십이세가되도록, 가세가빈한흙을인하야, 곱질싱의를못하나, 미양한이되야, 하로밭비죽기를, 원하더니인의날은, 그이웃집상념에, 안젓는되 남부구리기, 성인당의원, 장귀무진찰소(南部銅峴誠仁堂醫院,張基茂診察所)에잇논의스가, 지너가다가 장동호를 보고, 대단히불상히녀어, 즈기쳐소로다리고가셔, 불과십일동안에, 완전흔사름이, 되얏습으로, 장동호는, 그은혜를무수감읍흔다더라²⁰⁶⁾

위 기사는 가난 때문에 결순 즉, 언청이 수술을 하지 못한 장동호라는 스무살 남성이 우연히 성인당 의원에서 일하는 의사의 눈에 띄어 언청이 수술을 받을 수 있었는데, 십 일만에 완전한 사람이 되어 감격하며 고마워했다는 기사이다. 1912년에 게재된 이 기사의 내용으로 볼 때 이미 이전 시기부터 언청이 수술이 이뤄지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외에도 서양의료기관의 치료 상황과 의술에 대한 기사나 광고가 신문에 빈번히 등장해 근대 의료 기술의 가치를 높이는 작업을 수행했다.

광제원에서 작년도 병인치료흔슈효 도샤흔것을 거흔즉 돈밭고약준 병인이 일천칠백 칠십구인이오 감옥셔죄슈 치료인이 삼천칠백 오십오인이오 간란흔 사름에게 돈밭지 아니하코 약준 병인이 구천이백 육십팔인이오 침주어 치료식힌 병인이 오백십이인이니 도합 일만륙천 스백십스인인데 밧은약감은 도합이 스백 삼십 구원

206) 매일신보, 1912년 6월 23일.

육십이전이라더라.²⁰⁷⁾

광제원에서 거월 일삭늑에 치료흔 병인슈효가 병남녀호야 함이 발빅륙십인이다
라.²⁰⁸⁾

신문의 논조에서도 드러나거니와 장애가 없는 몸을 완전한 사람으로 지칭하는 언설(言說)을 통해 근대전환기 장애와 비장애, 불완전함과 완전함이라는 이분법적 사고가 보다 직접적이고 표면적인 방식으로 강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부자유와 활동성은 근대에서 인간을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관념이다. 그러므로 자유로운 활동이 힘든 장애를 가진 몸은 점차 불완전한 몸, 가치미달의 형상, 치료될 수 없다면 생활력의 부재를 상징하는 은유가 되었다.

그리고 이런 부정적으로 상징화된 장애인을 현실 비판의 장으로 끌어들여 비판의 주체로 규정한 서사적 맥락은 자명하다. 사회에서 가장 무력한 존재의 현실에 대한 신랄한 비판은 그 자체로 현실의 문제에 대한 실제성의 획득에 기여할 뿐 아니라, 비판의 강도가 비판 주체와 대상의 전복적 대비를 통해 강화되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소경과 앓은뱅이 문답」과 「병인간친회록」은 우화적인 소설이다. 우화란 사람의 곁에 살면서 사람이 아닌 동물의 입을 빌어 세태를 비판하는 성격이 강한 장르이다. 애초에 문학적 기법을 통해 현실적 제약이나 처벌을 회피하기 위해 발생한 이 장르에서 동물 대신 장애인이 비판 주체의 자리를 차지하고 인간 세계를 비판한다는 발상은 근대전환기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시선을 짐작케 한다.

근대전환기 서사에서 장애인은 사람이되 현실의 삶에서 배제된 채 그 밖에서 현재를 지켜보는 타자로 자리한다. 즉 장애인을 현실 비판의 주체로 등장시키는 이러한 일련의 작품들의 서사 구조는 도리어 근대에 들어 장애인이 인간 사회에서 배제되고 비장애인과 구분되고 타자화하던 시선을 보여주는 지점이 된다.

207) 제국신문, 1901년 1월 21일.

208) 제국신문, 1902년 3월 26일

(3) 어리석음과 무능으로 표상된 장애

「모르는 것이 곳 소경」은 속고 속이는 이야기의 반복을 통해 속이는 인물 김한선과 속는 인물 이창협, 반목과 혐의, 장난과 실존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속고 속이는 이러한 유형은 민담에서 소화(笑話)로 전승되던 형태와 유사하다.

작품의 서두에는 이창협의 현숙한 아내 최씨가 바느질로 맹인 지아비를 극진히 보살핀다는 서술이 나온다. 이창협은 가장이지만 스물이라는 나이에 얻은 안맹으로 경제적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며 늘 집안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이창협의 인물 형상은 〈심청전〉 속 심봉사와 유사하다.

그가 집안이라는 공간에 묶여있는 인물이라면 반대로 정상의 몸을 가진 친구 김한선은 법률 관리로 재직하며 외부에서의 활동 영역이 넓은 인물이다. 그는 창협과 달리 관직에 진출했고, 창협을 속이는 장난을 치면서도 아래 인용문에서 보듯 자신이 맡은 관직 일을 게을리하지 않는다.

나 | 별대부(伐大釜) 동리에 ㄱ 공전을 슈봉하여...저녁에 와서 둘이 먹으며 담화나 혼 후 자고 톨일 갈 터이니 그러케 알고 예비호소 호고 간 후에²⁰⁹⁾

김풍현이 이 모양을 보고 우슴을 이기지 못하여 ㄱ만ㄱ만 밧게 나와 웃고 광천너로 가서 동학군이 괴순호거든 죽이지 말나하신 령을 등셔하여 붓치라 호고 삼슈동 돈여오는 길에 춘갑이 집에 와 츠즌즉²¹⁰⁾

반면 이춘갑은 한선의 장난에 당한 걸 안 후에도 ‘이놈 한선이 맞나는 날이면 둥갑

209) 『경향신문』, 「모르는 것이 곳 소경」, 1910년 1월 14일 2회. 인용된 본문의 띄어쓰기는 본고에서 임의로 한 것이다. 이하 동일 작품의 인용문은 게재 일자만 표시한다.

210) 1910년 2월 18일.

스르 츠즈리라 호고 든 든이 벼르논딕²¹¹⁾ 등 한선이 찾아와 다시 만나기를 기다릴 뿐 스스로 그를 찾거나 잡으러 갈 능력이 없이 집안에 갇혀 있다시피 사는 인물이다. 집 안만이 이창협에게 유일하게 허락된 공간이라는 서사적 제한은 김한선이 창협에게 남의 집이라 속여 닭을 훔치는 닭장도 사실은 창협 집의 닭장이요, 갑신년 청일전쟁이라는 병란을 피해 피란시켜준다며 데려간 곳도 사실 창협 집안 부엌 아궁이 앞이라는 서사에서 드러난다.

이 에피소드들은 작품이 가진 소화로서의 미덕인 해학적 우스개를 목적인 것이지만, 이면에는 당대 장애인들의 생활 환경의 한계를 보여준다.

또한 창협이 한선에게 속을 때에는 늘 단둘만 집 안에 있는, 민담의 일 대 일의 법칙이 적용돼 창협을 돌보는 아내가 부재했을 때 외부에서 침입한 존재인 한선에 의해 창협이 조롱당하거나 집안의 재산이 축나는 부정적 상황이 발생한다. 장애인의 공간과 그를 돌보는 여성의 부재라는 안전망에서 어느 하나가 상실됐을 때 장애 남성이 겪는 고난의 서사는 <심청전>에서도 유사하게 드러나는 것으로 하나의 장애 서사의 형태를 고정화하여 보여주는 서사적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맹인 창협이 한선의 장난에 농락당하는 장면에서는 장애와 탐욕, 장애와 나약함, 장애와 어리석음이 결합하여 맹인 친구를 농락하는 한선이라는 인물의 고약한 장난과 심성은 서사 맥락 상 뒤로 밀리고 장애인인 창협의 탐욕과 나약함, 어리석음이 부각되어 창협이 풍자와 해학의 대상이 되는 전개가 이루어진다.

또한 '직산 성환서 일청이 접전호여 청진이 패호여 도망호여 느려오고 뒤에는 일병 수천 명이 쪼차오며 무인디경긔히 쳐드러오네 엇지 하려나'²¹²⁾나 '갑오년을 당호매 일청전청이 낫다 동란이 낫다 호며 온 동리가 요호지라'²¹³⁾ 등 당대 국가적 위기 상황을 그대로 반영한 서술이 등장하여 현세의 반영이라는 단형 서사 문학의 특징을 드러내는데 이러한 변란과 혼란에서 장애인 창협의 부자유성은 곧 피란 갈 곳을 스

211) 1910년 1월 28일.

212) 1910년 2월 4일.

213) 1910년 1월 28일.

스로 탐문하거나 방법을 도모하지 못하는 무능력으로 이어진다. 결국 원수같이 여기던 한선에게 목숨을 의탁하며 창협이 사정하는 장면에 와서는 왜 소경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장난과 굴욕을 당하는 것이 당연하게 서술되는가라는 의문이 든다.

춘갑이가 김풍헌의 허리를 썬안고 울며불며 흐는 말이 엇더튼지 스싱을 혼가지로 흐세 김풍헌이 흘일 업서 흐는 말이 이 사름 춘갑이 즈네가 성인 말숨을 흐니 엇지 측은지심이 업슬손가 그러코 말고 우리 늑외를 살녀주오 풍헌 말이 그러면 나ㅣ가 시기는 대로 흐려는가

속고 속이는 맹인 서사는 야담 중 소화(笑話)에 유독 많이 등장하며 꽤 많은 맹인 점복사가 상대를 속이는 이야기²¹⁴⁾나 맹인인 남편을 속여 통간하는 남녀 이야기²¹⁵⁾ 등이 있다. 그리고 유독 다른 근대 단형서사에 비해 전대의 이야기 구조를 그대로 답습한 듯한 이 작품에서 맹인 이창협은 속임의 대상이자 풍자의 대상으로 구현되고 있다. 맹인 이창협은 아무 이유 없이 불쑥 찾아오곤 하는 김한선의 고약한 장난에 속아, 집안의 닭을, 텃밭의 파를 자신의 손으로 없애고, 자신이 먹으려 까둔 계란을 빼앗기고도 모르고, 갓 지은 한옷을 입고 더러운 부엌 아궁이 앞에서 떨어야 했다. 맹인인 이창협의 어리석음과 탐욕, 나약함이 김한선의 악의 어린 장난에 걸려

214) 시귀선, 유화수, 이월영 역, 『고금소총(古今笑叢)』, 한국문화사, 1998. 송세림 편, 『어면순(禦眠楯)』에 수록. 자석 동티(「程景善ト」) 이야기에서 양반 부부가 음탕한 행위를 하다 근경에 처하자 소경 점복사를 불러 해결방안을 묻는데, 소경이 해결해주겠다며 이들을 속여 가진 재산을 다 바치게 한 후, 그들의 눈을 감긴 상태에서 손쉽게 문제를 해결해주며 그들을 조롱한다. 또 재주없는 맹인 점복사 두타비(頭他非)가 연속된 행운으로 왕실로부터 신통한 점복사로 인정받는 이야기도 전해진다(이민수 역, 『어우야담·계서야담』, 명문당, 1992)

215) 김준형, 『조선 후기 성 소화 선집』, 문학동네, 2010. 이 책에 소개된 야담집 『소낭(笑囊)』에는 소경 점복사 남편을 속이고 조롱하며 통간하는 남녀의 이야기가 소개되었다. 이 책에 소개된 『성수패설(醒睡稗說)』에도 유사한 이야기가 소개됐는데 차이는 『소낭(笑囊)』에 비해 소경 남편을 속이는 셋서방과의 대화 장면이 보다 상세히 서술되었다. 부목자 편 『파수록(破睡錄)』(작자 미상, 이원걸 역, 『역주 파수추』, 이화문화사, 2008)에도 「장님 점괘」라며, 아내의 간통 상대 남성이 장님 문복사 남편인 장님에겐 거짓말로 다른 여인과 간통할 장소로 장님의 집을 빌리겠다고 청하는데, 장님 문복사인 남편은 점괘로 여자의 남편이 문에 바로 당도할 꾀라며 신속이 일을 마치라는 조언마저 하는 유사한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다.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은 국가에 침입한 외부의 적에게 속는 줄도 모르고 스스로의 어리석음과 탐욕²¹⁶⁾, 무능력과 나약함으로 자신의 것을 잃어버리는 근대 전환기의 조선 그 자체를 상징한다. 집안에만 거주하고 외부로 나가지도 못하는 이창협²¹⁷⁾의 부자유²¹⁷⁾도 당시 억압되고 고립된 조선의 처지 그 자체를 상징하는 것이다. 반면에 불쑥 허락도 없이 찾아 들어와 창협을 속이고 그의 재산과 자존감을 잃어내는 한선은 바로 당대 조선에 허락도 없이 들어와 흔드는 외세를 상징한다. 그가 창협과 달리 자유롭게 집안과 집 밖을 왕래하며 땅에 대한 세금을 걷고, 동학민의 처리를 공시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것도 이를 상징하는 행위라 할 것이다.

아내 최씨 역시 한선과 마찬가지로 집 안팎을 자유롭게 왕래하며 생계를 위해 자주 밖에 나가는 인물이다. 이 작품 속 등장인물 중 맹인인 창협만이 집안에 갇혀 있다. 몸의 부자유는 곧 생활력과 인지의 부족, 무력감으로 확대되고, 아내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발견되고 이로 인해 아내로부터 한심하다는 평가마저 받고 마는 창협의 자존심은 일화가 반복될수록 깎여나갈 뿐이다. 결국 분이 난 창협은 도리어 아무 죄없이 남편과 친구의 술상을 마련하고 남편 말에 따라 자리까지 비워준 아내에게 성을 내는 소인배의 모습마저 드러낸다²¹⁸⁾.

이때 아내의 언행이 흥미로운 것은 아내 최씨가 <심청전>의 심봉사 아내의 형상을 그대로 답습한 듯한 초반 서술과 달리 이야기 전개 과정에서 창협의 어리석음을 폭

216) 흐 머리는 도로 너흐라 훈족 춘갑이가 흐는 말이 문을 열고 보나 틈으로 보나 훈가지라 하며 괴어히 세 머리를 잡아주거늘

217) 내가 흐눈 눈이 어두우니 엇더케 갈 수 있나

218) 춘갑이가 분이 엇더케 나든지 더 녀편네 보고 누가 리약이시켰나 어디 가서 엇던 농과 무슨 질알을 흐다가 인제야 왔나 조금 일즉 왓스면 한선이란 농 잇슬 때에 둥갑술 좇지 흐니 안해가 흐 분이 엇더케 낫든지 아츰 술길에 흐는 말이 잘 좇갓다 잘 좇갓다 제 둥 제가 자바먹고 뉘게 둥갑술 초질고 흐는지라 춘갑이가 그가 막혀 흐는 말이 이 녀편네야 밤이나 늦이나 산림 흐는 녀편네가 집구서글 모르고 어디가 잤바져 잇다가 둥썻지 노쳤나 빌어도 못 먹으리라 흐니 안해 이 언제 밤을 마을에 가 지내엿던가 친구가 왔다고 오지 마라 흐기에 아니 왔지 못된 일은 모도 내 툷인가 더러케 야단하게 훈족 춘갑이가 둥 일허버린 것은 곱히 먹엇스니 앓갑지 안커니와 계집이 부화 도도는 것은 춤 리웃집만 업스면 당석냥 흐 개 짝 그어 집을 밧짝 티와 브리면 도켓다 흐는지라 안해 말이 집에 불은 잘 늦나보다 흐며 석냥 주스가 흐며 석냥통을 더지니 춘갑이가 이것 더것 심각홀 것 업시 석냥 흐 개를 썸혀 박그으니 약잇는 편에로 석냥통에 불이 다아 불이 왓각 이러나며 춘갑이 손을 모도 데힌지라 쓰리고 쓰거움을 견디기 어려운지라

로하고 지적하며 가장인 그와 대등하게 언쟁하며 반박하는 인물이라는 점이다. 이는 〈심청전〉의 심봉사를 측은지심으로 안타까워하고 도리어 그의 고난을 자신에게로 전이해 감당하던 심청모나 심청과 대비되는 성격이라 할 수 있다. 가정 내에서의 전복된 위계는 근대 전환기 추락한 가부장의 권위를 반영한 것이기도 하겠지만, 생활하는 생활인이자 자유로운 몸을 가진 여성에 대한 근대적 인식과 자립할 수 없고 부자유한 장애인에 대한 편하의 시선을 반영한 것이기도 할 것이다. 더불어 생활력 강하고 온전한 몸을 가진 여성이 무능하고 고립된 맹인 남편을 어리석음을 지적하는 서사적 결구는 정상과 비정상의 대비를 넘어 비장애인의 입장에서 무능하고 고립된 조건을 장애인 창협에 비유하고 이를 비판하는 서사적 상징이기도 하다.

2. 고전소설과 단형서사의 장애 및 치유 서사 비교

세계보건기구(WTO)는 장애를 손상, 활동, 제한, 참여 제한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용어²¹⁹⁾로 정의하며 장애는 단순히 건강 문제가 아닌, 한 개인의 몸이 지닌 특성과 그 개인이 살아가는 사회가 지닌 특성이 상호 작용하는 모습을 반영하는 복잡한 현상이라고 정의한다.

이는 장애가 상대적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한 신체적 특성이라는 점에서 기인한다. 개인의 장애는 사실 육체적인 제한 상태 그 자체보다 장애를 둘러싼 사회의 인식과 개념화에 의해 강화되고 호명된다. 또한 당사자마다 장애를 인식하는 이유와 강도도 다르다. 이러한 장애의 의미의 상대성은 시기별 문학 속 장애와 치유 서사의 형상화에도 영향을 끼쳤다. 이에 이를 바탕으로 고전소설과 근대 전환기 속 장애와 치유 서사의 양상 및 차이를 살펴 고전소설의 장애와 치유 서사의 특징을 도출하고

219) 손상은 몸의 형태와 구조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활동 제한은 개인이 과제나 활동을 할 때 겪어야 하는 어려움이며, 참여 제한은 일상생활을 하는 상황에서 개인이 겪을 수 있는 문제를 의미한다.

자 한다.

1) 고전소설과 단형서사의 장애 형상화 차이

장애를 다루거나 장애인을 내세우는 서사에서 장애인의 장애는 장애인 자신이 인식하는 육체적 현실과 별개로 타자에 의해 규정되어 존재하는 상징적 표상이며, 장애인의 존재는 비장애인에겐 자신도 언제든지 부자유하고 완전하지 않은 육체가 될 수 있다는 불안과 공포, 두려움을 표상하는 상징이 된다.

어둠과 불안, 공포, 두려움의 표상으로서의 장애는 고전소설 내에서 영웅적 인물의 수난기의 요소로 기능하거나 악인의 표상 혹은 징벌적 표지로 형상화되어 나타난다.

특히 고전소설에서 장애 인물이 서사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경우 대부분 그의 영웅성 발현 이전의 고난 시기에 장애를 겪는 공통점을 보인다. 다만 심봉사의 경우 심청에게로 장애가 전이되어 심청이 부친의 대리자로서 장애를 치유하는 과정에서 영웅성을 획득하는 서사로 전개되는 차이를 보인다. 심봉사가 장애를 겪는 당사자로서의 고통과 고립성을 보여주며 치유 지향을 강하게 표출한다면, 심청은 치유 실천의 대리자로서 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물의 서사적 역할이 가정 내의 효녀에서 벗어나 현세의 맹인들을 모두 치유하는 기적을 일으키는 영웅적 인물로 확장되기 때문이다.

장애 상태에서 인물들은 가정과 사회 내에서 멸시와 고립을 감내하는 서사가 대부분 전개되는데, 이러한 서사 전개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배제의 내재화와 당위성을 형성시키는 기저가 될 수 있기에 문제라 할 수 있다.

그렇기에 이 장애 시기의 장애 인물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미비한 자존감, 고립과 배제의 양상, 생명의 위협과 저항적 대응의 부재, 운명론적 가치관과 자탄적 태도 등은 서사 내의 문제만이 아닌 실제 장애인들이 겪을만한 상황의 서사적 형상화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장애 양상은 당대 장애인들의 현실을 서사적으로 형상화했다는 것 외에도 그들을 대하는 사회적 태도와 담론을 도출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서사는 장애 인물에 대한 주변인들의 차별적 언행과 폭력을 거듭 묘사하거나 가정 내에서 은폐되는 장애의 문제, 장애인 가족들의 돌봄의 고됨, 장애로 인한 당사자들의 신체적·심리적 고통을 보여준다. 물론 장애 인물에 대한 주변인들의 차별적 언행과 폭력은 그의 장애가 치유된 후 극적 카타르시스를 예비한 서사적 장치로서의 의미도 가지기에 실제 장애인들에 대한 공동체의 구완 및 돌봄에 비해 서사적으로 강화되었으리라는 가능성을 무시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사회적 약자인 그들을 부당하게 구타하는 상인(〈한후룡전〉)이나 자식의 장애를 은폐하기 위해 부당한 처사를 하거나(〈유화기연〉, 〈김안국전〉)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멸시와 배제를 일삼는(〈박씨전〉, 〈한조삼성기봉〉, 〈영이록〉) 서사는 현재 현실에서도 심심치 않게 드러나는 상황이므로 서사적 장치만으로 이를 치부하기 힘든 것도 사실이다.

이뿐 아니라 장애의 시기를 인생의 암흑기로 형상화하고 인물이 능력을 발휘하거나 발휘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서사 구조는 장애를 무능와 어둠으로 상징하는 차별적 편견을 반영한 결과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시기 인물들이 사회적 역할을 전혀 수행하지 않거나 못하는 서사는 현실에서 장애를 가진 이들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배제하고 그들의 타고난 본성과 별개로 사회적으로 무능하고 열등한 존재로 만드는 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서사이기도 하다.

이러한 고전소설 속 장애인을 둘러싼 가족과 공동체의 대응은 결국 당대 장애에 대한 언종의 시선과 담론의 양상이라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이 시기부터 장애인을 일반으로 규정된 사람들과 다른 존재로 구분하고 차별적 존재로 인식했을 뿐 아니라 그들을 사회적으로 무능한 존재로 여겼던 시선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시선과 담론들은 이야기를 통해 언종들에게 내재화되어 당대는 물론이고 이후의 장애인관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쳤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

근대 단형서사에 이르러 장애에 대한 차별적 담론은 더욱 강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적어도 고전소설에서는 장애 인물들이 적게나마 이야기의 주인공이나 유의미한 인물로 등장하던 것과 달리 근대 단형 서사에서는 장애를 근대 전환기 조국의 무능과 부패, 구조적 모순과 나약함을 상징하는 것으로 차용하여 장애인을 상징적·관념적 인물로 타자화시킨다.

근대 단형서사에서 장애인은 무능하고 부패한 조국 그 자체를 상징(〈장사와 난쟁이〉)할 뿐 아니라 이를 비판하는 사회 밖 존재로 등장한다. 이러한 타자화는 공동체 밖에 존재하는 것이 분명한 장애인들을 서사적으로 등장시켜 그들을 통해 통렬히 조국의 현실을 비판하는 우화적 기법을 통해 전개된다. 안국선의 〈금수회의록〉에서 금수들의 자리에 장애인이 위치하며 그들은 자신들이 속하지 못한 인간 세계를 비판하는 공동체 밖 존재로서 비판에 객관성과 풍자적 성격을 부여하는 서사적 기능을 수행한다.

주변인들과 갈등할지언정 사람들의 거주 공간에서 함께 거주하며 삶을 영위하던 고전소설 속 장애 인물과 다르게 사람들의 거주 공간 밖에서 그들끼리 모여 그들끼리 대화하거나(〈소경과 앓은뱅이 문답〉 〈병인간친회록〉) 설혹 비장애인과 교류하더라도 자신의 공간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모르는 것이 곧 소경〉) 단형서사 속 장애인물들의 고립적 상황은 근대 전환기 이래 장애인과 질병인을 수용소와 병원으로 보내 실제 삶의 공간으로부터 분리하게 한 상황의 시발점을 서사적으로 확인케 한다.

지금도 현실에서 장애인들은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적 배제를 경험한다. 직업의 기회나 이동의 방법에서도 그들은 배제되거나 차별받는다. 이러한 배제와 차별의 시선은 실상 서사에서도 드러나듯이 이전 시기부터 시작됐고 지금껏 강화되어왔다. 그러므로 장애 문제는 사회적 배제와의 상호 관련성 하에 이해될 수밖에 없다. 사회적 배제는 주류 사회에 의해 권리와 자원, 기회 접근으로부터 체계적으로 배제되는 과정이다. 또한 억압과 차별을 경험하는 개인과 집단에 불이익과 빈곤이 고착되는 방식뿐만 아니라 이들이 지속적으로 생성되고 유지되는 과정이기도

하다. 장애인에 대한 권리의 박탈, 기회 및 접근의 배제는 그러므로 장애의 가장 큰 문제가 된다. 장애인은 장애보다도 사회적 배제에 의해 더 빈곤과 약자의 자리에 위치할 가능성이 커진다.

그러므로 단형 서사 속에서 특히 사회적으로 타자화된 장애인이 등장하고 그들이 사회에서 융화되지 못한 채 그들끼리 고립된 대화를 반복하는 과정과 대화 속에서 드러나는 빈곤과 고독의 문제는 근대 전환기 조선의 현실을 투영한 결과일 뿐 아니라 그들의 신세에 대한 독백이기도 하다.

2) 고전소설과 단형서사의 치유 형상화 차이

치유와 관련해서 고전소설과 단형 서사문학은 서로 상반된 양상으로 발전한다. 먼저 고전소설의 치유 서사를 살피도록 한다.

(1) 고전소설의 치유 지향 서사의 양면성

고전소설에서 장애의 치유는 선(善)의 상징이자 속죄, 보응의 방식으로 실현되며 절대적 성취의 대상이자 서사의 귀결로 명시된다. 그러므로 장애 인물이 서사 상 악인일 경우 그의 장애는 치유되지 않는 그 자체가 그에 대한 징벌적 의미를 가지게 된다.

서사 속에서 장애인을 돌보는 가족은 장애를 은폐 혹은 배제하거나 장애인의 고통을 공유하여 대리자로서 치유를 갈망하는 등의 다양한 대응 방식을 보여준다. 이들의 이러한 은폐, 배제, 전이와 치유 지향은 그 자신의 내재적 성향보다 사회적으로 각자에게 요구되는 역할에 순응하거나 저항하는 과정에서 나타난다. 근대 이전 고전소설 속에서는 치유에 대한 현실적 가능성이 부재하기에 운명론적 순응과 좌절, 신

과 하늘의 섭리에 기대는 맹목적 치료 지향의 태도로 드러난다.

고전소설의 장애는 반드시 치유를 향해 나아가는 서사적 양상을 띤다. 치유에 대한 지향은 서사 도입부터 제시된 태몽이나 예언을 통해 이미 서사 내부적 당위성을 획득하며 이야기는 과연 장애의 치유가 어떤 시점에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는가에 초점을 맞춰 흥미와 몰입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구현된다. 당연히 치유의 카타르시스를 강화하기 위해 장애 상태에서 주인공은 박대와 멸시, 추방, 고립 등 다양한 고난을 견디며 이들은 불안하고 힘들고 고독한 상태에서 주변인과 갈등하고 수난을 당한다.

장애 인물의 치유는 대부분 인물의 선행에 대한 응보와 죄업 완수의 형태가 주를 이루며 꿈 혹은 선인(仙人)의 수행을 통해 장애를 벗어나거나 여성 인물과 밀접하게 연결된 장애 인물인 유춘, 심봉사, 김안국, 적성의의 경우 여성 인물의 희생적 헌신 혹은 기원을 통해 치유를 달성한다. 장애를 가진 인물이 서사 상 치유되지 않는 경우는 그 인물이 뺨덕어미나 <장화홍련전>의 계모 허씨처럼 악인이거나 <한조삼성기봉>의 설씨녀처럼 과거 업보로 인한 징벌적 성격을 띤 경우이다.

그러나 이러한 당연히 치유될 장애라는 서사 지향은 장애를 그 자체로 수용하지 못하는 태도를 언중들에게 내재화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이러한 서사는 장애는 왜 치유되어야만 하는가라는 질문을 소거한 채 언중들에게 치유되어야만 하는 장애를 내재화하여 장애를 부정적이고 소거되어야 할 무엇으로서의 상징화한다.

주인공의 완인됨이 곧 그의 행복이라는 인식과 치유를 위해 자신 혹은 가족의 목숨을 걸거나 인간이라면 당연히 지닐 욕망이나 미움도 배제한 채 오로지 선과 의리와 고된 역경의 극복을 통해 장애를 극복하고 완전한 몸을 얻는 일련의 고전소설 속 장애인 혹은 그 대리인인 가족의 치유 지향의 서사는 도리어 기적을 만날 수 없는 현실의 장애인에 대한 실제적 관심과 사회적 구제 방안에 대한 요구를 언중들의 관심 밖으로 지워버리는 역할을 한다. 곧 치유라는 고전소설 속 기적의 서사는 현실 속 장애를 직면하는 것을 방해하고 환상으로 현실의 고통을 지우고 없는 것으로 치

부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 이로써 현실에 실재하는 장애인과 장애 구제 방안에 대한 고민의 부재는 이야기에 묻혀 고려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은폐되며 장애를 가진 존재에 대한 소거와 배제의 의식을 강화함으로써 오히려 실제 장애인들의 삶의 향상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치유 전후의 변화된 주변인들의 대응은 역설적으로 치유 전후 정작 장애 당사자의 내적 본질은 동일하다는 사실을 부각시켜 장애없는 몸과 장애있는 몸을 대하는 사회적 편견을 폭로라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전복은 역설적으로 소설을 향유하는 계층에게 중요한 것은 장애 유무 즉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내적 본질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교훈적 기능을 수행한다. 이는 조선의 인간관을 반영한 서사라 할 수 있다. 인간의 외양보다 내적 심성을 중시한 당대의 가치관은 이렇게 소설 속에서 내면화되어 공동체가 취할 올바른 태도를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2) 근대 단형 서사의 치유 부재에 나타난 장애인식

그렇다면 근대전환기 문학 속에서 장애의 치유는 어떠한 양상으로 전개되었는가. 근대 의학의 도입은 질병에 대한 외과적 치료가 가능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과거 치료가 불가능했던 장애와 질병 중 일부는 의술을 통해 완치되어 장애 없는 신체를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오히려 치료 가능한 장애와 불가능한 장애를 구분하여 치료가 불가능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배제 및 타자화의 경향의 강화라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발생시킨다.

게다가 노동하는 몸, 생산하는 몸에 대한 긍정은 반대로 생산과 노동이 힘들거나 불가능한 신체에 대한 부정으로 연결됐다. 이러한 장애인과 병자의 신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설상가상으로 근대전환기 조선의 극심한 가난과 사회적 혼란과 맞물려 이들에 대한 차별과 부정적 인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된다.

.서사 문학에 투영됐던 서사의 신성성과 비현실성은 후대로 갈수록 사라지고 점차

현실성과 사실성의 획득이라는 인과적 논리가 그 자리를 대체했다. 근대전환기 조선의 문학도 이전 시기 고전문학의 비현실성으로부터 탈피, 문학적인 근대를 이루기를 원했고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 근대 단형 서사 문학에서는 모든 기적에 의한 치유 서사가 사라진다.

물론 이는 당대 실제 조선인들의 의식과는 괴리된, 개화 지식인들 혹은 근대 문명 국가가 주도하는 사상 운동에 가깝다. 여전히 당대 조선인들은 무당과 점복사와 독경사를 찾아가 굿을 하고, 점을 보면서 현재의 문제 해결을 도모했다. 이는 대한제국과 일제에 의해 이뤄진 미신타파 정책 이전까지 공고히 유지된다²²⁰).

그럼에도 근대 단형서사 문학에서는 계몽과 개화라는 목적 의식이 분명했기에, 그 이전 시기 고전소설에서 기적과 시간성으로 이루어진 치유 대신 그 자리에 현실에서 설명되고 증명되는 근대 의학 기술이 자리한다. 이는 앞서 살핀 『병인간친회록』의 언청이의 연설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바이다.

이러한 의술에 대한 신뢰와 선망은 근대전환기 각종 신문과 잡지를 통해 서양으로부터 유입된 근대 의료 기술과 병원 광고를 통해 의도적으로 주입된 내재화 과정과 미신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형성한 결과이기도 하다.

일례로 「매일신보」에 ‘병자의 호기회’라는 제목으로 일반 병인들의 온갖 질병을 정신과적 최면술로 치료할 수 있다는 설명과 함께 ‘정신학회장 령목추옥(鈴木樞翁)의 최면술’로 뇌신경병, 중풍, 치통, 자궁병, 이명증, 심장병, 신경통 등을 신호하게 치료할 수 있다며 시기를 놓치지 말고 신청하라²²¹)는 광고 기사가 실려 근대 서양 의술

220) 김난주, 「문화전통의 계승과 시각장애인 직업재활 측면에서 본 맹인점복업」, 『장애와 고용』 9권 1호,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2009. 43쪽. 맹인 점복을 위시한 민간신앙이 대중들의 일상생활과 밀착되어 있었던 현실과 달리 20세기 초 거세게 일기 시작한 서구 근대화, 과학 문명화의 기치는 우리의 전통적 민간신앙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었다. 또한 한국 근대 시기와 함께 시작된 일제 식민지 시대를 통하여 조선의 고유 민간신앙은 범사회적이고도 국가적 차원의 타파 대상으로 전락하게 된다. 1912년에 공포된 「경찰범처벌규칙」에서는 조선 내 유사종교에 대한 단속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22항 망령되이 길흉화복을 설하고 또는 기도, 주술행위를 하거나 부적류 등을 수여해서 사람들을 현혹하는 자, 23항 병자에 대하여 금압(禁壓), 기도, 주술, 또는 정신요법 등을 시행하거나 부적, 신수(神水) 등을 수여하여 의료를 방해한 자, 24항 함부로 최면술을 행한 자. 이 중 하나라도 저촉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구류 혹은 과료에 처한다(조선총독부, 1940: 71)”는 것이었다.

에 대한 맹종에 가까운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 시기부터 질병인과 장애인에 대한 구분과 육체적 두려움을 가시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해, 전통 사회에서는 가족과 지역 사외 내에서 함께 살며 자유롭게 거주하던 병자를 격리해 수용시설로 넣는 사회 현상이 나타났다.²²²⁾

이러한 서양 의술에 대한 분별없는 맹종과 과도하게 강화된 장애와 질병에 대한 공포심은 역으로 이미 존재하는 장애에 대한 소외와 배제 의식으로 확장된다. 그리고 이들과 대비해 비장애인을 중심으로 한 정상인이라는 범주를 규정하고, 그 안에 들지 못하는 존재들을 정상인들의 시야 밖으로 몰아 그들을 보며 정상인들이 느낄 유전적, 현실적 공포를 사라지게 하는 것이 문명화를 지향하는 국가가 실행한 정책이다.

이는 조선시대와 크게 다른 사회적 현상이다. 조선의 사대부 문인들은 장애를 후천적 질병이나 노화로 누구나 얻을 수 있는 것이라는 육신의 유한성에 대한 인식을 기반으로 이에 더해 유교적 긍휼과 인간적 연민 등의 태도로 장애를 바라봤다. 그래서 그들은 신체 장애인을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장애인들과 공존하기 위한 지속적인 논의와 태도를 보였다. 또 『조선왕조실록』의 여러 곳에서 장애인이면서 고위 관리로 활동한 신하들의 기록이 발견될 뿐 아니라 그 외에도 화가, 문인 등 각자의 분야에서 성취를 이룬 인물들도 있었다.²²³⁾ 이러한 시각은 고전소설 속 장애인들이 고립되든 돌봄의 대상이 되든 가족이 거주하는 공간 내에서 함께 살아가며 누군가는 그들을 연민과 애정으로 지지해주는 서사에도 나타난다.

고전소설에서 업보의 해소, 기적 등에 의해 구현되던 치유 서사는 단형 서사문학에서 소거된다. 치유 서사의 소거는 근대 단형 서사 문학 속 타자화된 장애인의 형상으로 인한 것이다.

221) 매일신보, 1912년 6월 23일

222) 이방현, 「식민지 조선에서의 정신병자에 대한 근대적 접근」, 『의사학』, 22권 2호. 대한의사학회, 2013. 529-578쪽 참조.

223) 관련하여 정창권 외 3인 저, 『한국장애인사:역사 속 장애인물』, 숲대, 2014. 정창권, 『세상에 버릴 사람은 아무도 없다: 역사 속 장애인 이야기』, 문학동네, 2005. 심승구, 「조선시대 장애의 분류와 사회적 처우」, 『한국학논총』 38, 국민대 한국학연구소, 2012 참조.

근대 단형 서사에서 장애인은 서사 전면에 등장하되 정작 현실의 공간에 살지 않으며 현실 밖에서 이를 지켜보고 논하는 역할을 한다. 이들은 서사의 주된 갈등 상황에서 배제된 타자에 불과하다. 이들의 장애는 현실을 은유하고 비판하기 위해 호출되고 장애인과 장애 그 자체는 서사의 주된 관심 대상이 아니기에 그들의 심리나 처지, 치유 욕망은 서사 내에서 약화되거나 소거된다. 심지어 당대 도입된 근대 의술로 치료와 재건이 가능한 신체 불구자가 현실에 대한 비판 의도를 강화하겠다고 의학적 치료를 자진해서 받지 않는 연술을 등장시켜 장애인들의 현실적 장애의 고통, 치유의 욕망을 소거하는 서사도 나타난다. 이는 고전소설에서 장애 인물을 통해 드러낸 장애를 지닌 삶의 고통조차 소거된 것으로 근대 단형서사가 장애를 어떻게 관념적 상징화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는지 드러나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사회 밖 존재로 하여금 사회 내부의 문제를 폭로하는 우화적 기법을 장애인에 적용했다는 것, 이전 동물 우화를 통해 성취하던 비판의 기법에서 동물의 자리를 대신한 것이 장애인이라는 것, 'A(비판의 대상 혹은 현실)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지금의 장애인인 내 상태가 낫다'라든가 '이런 장애를 가진 나도 아는 것을 모르는 정상 의 몸을 한 사람들, 그리고 장애로 인해 알면서도 행할 수 없는 자신'이라는 각각의 인물에게서 나타나는 유사한 연술이 그 공동체에 결코 속할 수 없는 존재로서의 거리감이 전제된 서술이라는 점에서 치유담의 부재는 결국 몸에 대한 가치 판단과 장애 있는 몸에 대한 배제의 의식 그리고 이들을 타자화해 바라본 시선의 결과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현실적이고 과학적인 사고관이 지배하는 근대 전환기에 이르러서 고전 소설 속 하늘의 감응이나 기적을 배제하자 치료될 수 없는 장애의 강도는 강화되고 치유는 소거되었다.

그리고 장애는 기형의 조국을 상징하거나 이러한 조국의 상황을 공동체 밖에서 비판하는 우화적 서사에서 비판의 주체로 상징화되는 기능적 인물로 장애인들이 등장하는 방향으로 서사가 변이되었다. 근대 전환기 단형 서사 속 장애인의 기능적 역할

은 단순히 그가 서사의 주된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해서 문제인 것이 아니다. 이러한 장애의 서사적 차용은 장애인들의 공동체 밖으로 배제된 삶과 타자화되어 공동체의 구성원 혹은 온전한 인간의 자격을 박탈당한 장애인들의 위치를 서사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러한 근대 전환기 단형 서사 속 장애인의 모습은 이후 2,30년대 근대소설 속에서 병에 대한 기형적 집착과 낭만성의 부여로 변환하여 식민지 조선의 그들과 지식인의 사회 통찰과 고뇌를 드러내는 데에 동원된다. 이러한 일련의 사적 전개는 장애와 질병이 깃든 몸을 통한 병든 정신과 조국을 상징화하는 경향이 강화되어가는 것이며, 현대의 부정적이고 무능하며 사회적으로 고립되거나 배제된 차별받는 장애인의 삶의 연원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V. 결론

본고의 논의는 장애와 치유에 중점을 두고 고전소설 속 장애인의 형상화를 미시적으로 살피는 작업이었다. 장애에 대한 시선은 중세와 근대, 현대에 이르기까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16세기까지는 대등한 의식 아래 장애인을 바라보고 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정했다면 16세기 이후부터 차별의 시선이 강화되어 조선 후기에 이르러서는 병신의 개념에 비하적 시선이 더해지고 근대에 이르러서는 무능, 보통의 일반과 다른 존재로 보는 시선이 형성되었다. 이러한 장애의 개념 변화는 서사에서도 나타나 고전소설에서는 장애인과 함께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당사자와 주변인들의 고민과 치유를 향해 나아가는 서사를 통해 장애의 고통, 장애인 가족의 돌봄의 고통과 연대와 연민의 자세를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단형서사에서는 타자화된 장애인이 사회를 비판하는 기능적 인물로 등장하거나 고립되고 무능한 조국을 상징하는 도구적 기능을 수행한다.

고전소설 속에서 장애인은 그 장애로 말미암아 차별과 배제, 멸시 등을 받거나 고립되는 등 현실적 삶에서 수많은 고통을 받지만 동시에 그들의 고통을 연민하고 연대하는 존재로 말미암아 삶을 유지하고 생의 의지를 다질 수 있기도 했다. 이렇듯 서사 속에서 동일한 장애에 대해 주변인들이 드러내는 서로 다른 대응과 시선은 실제 장애를 대하는 일반적 시선의 다양성과 상대성을 반영한 결과이다. 현대적 의미로 장애라 할 수 없는 추한 외모의 여성 역시 이러한 상대성으로 말미암아 타인에 의해 장애인과 유사한 시선을 감당하며 고립되고 멸시받는 모습을 서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장애인이 주인공인 소설의 경우 대부분 영웅소설류에 속해 이들이 가진 장애가 영웅성의 발현을 막는 억압적 기제로 작용한다. 이에 주인공은 치유 이전과 이후에 자신을 불완전한 사람과 완전한 사람으로 구별하여 인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도 했다.

치유 이전의 남성 장애 인물의 경우 그들의 장애의 고통을 나누고 돌보는 여성 인물이 등장해 대리자 혹은 치유자의 역할을 수행하여 그들의 고통을 경감시킨다. 그리고 이러한 돌봄과 치유의 역할이 여성에 고정되는 서사는 돌봄의 책무를 가정 특히 여성에게 부여하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치유의 서사는 기적이라는 환상성으로 돌봄 여성의 고통을 희석시키고 선의(善意)와 덕(德)의 결실로 탈바꿈시키는 것이기도 하다. 이는 장애의 돌봄과 구제의 사회적 책무에 대한 질문을 지우는 서사적 허구라 할 수 있다.

치유된 완인(完人)에 대한 장애 인물의 지향은 결함 없는 몸과 그렇지 않은 몸을 구분하는 차별적 시선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결함 있는 몸으로는 영웅이 될 수 없다는 서사적 전제는 필연적으로 결핍을 채우기 위한 서사, 즉 치유 지향 서사로 진행되는 양상을 드러낸다. 그리고 영웅소설로 분류되는 장애인이 등장하는 소설 속의 장애를 가진 주인공은 반드시 치유되는 서사로 전개되는 특징을 보인다. 왜 장애는 반드시 치유되어야 하는가? 장애 있는 몸 그대로 영웅이 될 수는 없는지에 대한 의문은 드러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들 소설에서는 하늘의 섭리에 기대어 모든 영웅적 장애 인물들은 결국 사회적으로 완인의 몸을 얻는 치유를 쟁취한다. 이러한 치유의 서사는 현실 속 장애인들의 장애 없는 몸에 대한 희구를 반영한 서사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에서 이뤄질 수 없는 치유의 기적은 현실의 장애인들에게 폭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 전생 죄업에 대한 인과응보적 시선은 다름 아닌 현실 장애인들이 자신의 장애를 자조하는 시선인 동시에 소설과는 다르게 계속 장애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기 몸에 대한 혐오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장애에 대한 차별적 인식은 근대전환기를 거치며 사회적으로 실행된 제도에 의해 좀더 구체화되고 의식화되면서 공고해진다. 이런 시선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근대전환기 단형서사 문학 속에서 타자화되고 고립된 장애인들의 형상이라 할 수 있다. 근대전환기 단형 서사에서 장애인들은 비장애인과 구분되어 살아가며 사회적 고립과 배제, 타자

화를 거쳐 서사 내에서 몰락해가는 국가의 상징으로 표상되거나 부정적 현실 사회를 비판하는 도구적 기능을 수행하는 하나의 상징체계로 전환된다. 또한 단형서사는 치유가 소거되어 이전 시기의 고전소설과 다른 장애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치유의 서사는 고전소설만의 특성을 드러내는 중요한 서사이다.

고전소설 속 치유의 서사는 표면적으로는 치유의 폭력성을 드러내지만 이면적으로는 장애를 바라보는 조선시대의 가치관을 드러낸다. 소설은 서사적으로 변치 않는 인물의 내적 자질 및 내적 본성과 이들의 치유를 전후로 바뀌는 사회적 대우, 주변인들의 반성과 반응을 통한 서사적 카타르시스를 마련한다. 이는 이전과 다른 주인공의 상황을 목격하는 대리만족뿐 아니라 인간의 외적 형상이 아닌 내적 본질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전달한다. 이러한 치유 서사의 의미는 인간의 겉모습보다 내적 자질과 본성을 중시했던 조선시대 심성론적 인간관을 반영한 결과물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고전소설 속 치유 서사는 실상 표면적으로는 치유 지향의 서사를 통해 장애를 가진 주인공이 덕업과 수행을 거치며 자신의 업보를 감당한 후 치유되는 기적의 환상을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즐거움으로 서사적 흥미를 끌고 그 안에 인간의 내적 본질을 중시하는 심성론적 교훈성을 내포한 서사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고전소설 속 장애인 형상화와 치유의 서사는 그래서 현대에 많은 생각을 던져준다. 소설은 실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나 편견이 없었다고 말하지 않는다. 다만 현대와 다른 점은 사회 구성원이 장애인을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 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주변인들의 연민이나 애정은 물론이고 멸시와 차별조차도 실제 함께 살아가기에 가능한 대응이기 때문이다. 이는 장애인을 일정한 시설이나 기관으로 격리하거나 활동을 제한하는 현대와는 다른 방식이다. 또한 치유의 서사가 보여주는 이면적 의미는 존재의 내적 심성에 주목하는 가치관을 드러내 보여주는 서사이다. 그러므로 현대적 시각에서는 비현실적이라고 치부되는 기적에 의한 치유 서사가 실상은 오히려 지금보다 편견 없이 인간을 바라보고자 노력했던 선조

들의 상생과 인간애적 가치관이 내포된 서사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본고는 여타 고전문학에 비해 미비했던 고전서사 문학 속 장애 인물의 장애와 치유에 초점을 맞춘 연구를 시도했다는 의의가 있다. 지금껏 서사문학 속 장애인물은 다른 연구에 비해 다양한 연구가 시도되지 못했다. 이 연구가 서사문학 속 장애와 장애인물 연구의 한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

그리고 현실에서도 장애와 장애인의 문제는 사회과 공동체 안에서 제대로 소통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고전소설 속 장애인에게 가해졌던 억압과 차별, 배제의 그들은 현대의 장애인에게도 여전히 드리워져 있다. 소설 속 가족공동체의 돌봄에 기댄 장애의 구제 역시 현대에도 여전하다. 경제적 효율화와 다수를 위해 맞춰 설계된 사회에서 소수로 치부되는 장애인들은 스스로가 자신의 장애를 인식하기 이전에 사회 구조와 체계로 인한 장애 경험을 통해 자신의 장애를 인식하게 된다.

고전소설 속 장애 인물의 곁에는 그들에게 조력하거나 이끌어주는 인물들이 늘 등장한다. 그 사람의 장애보다 그 사람의 본질을 알아봐 주는 사람, 그를 장애라는 프레임을 통해 보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존재로 보는 사람이 장애의 고통과 외로움에 있던 주인공을 살게 하고 치유의 기적이 오기까지 버티는 힘이 되어 준다. 눈부신 과학과 의술, 경제와 제도의 발전을 이룩하기까지 우리는 전진을 위해 약자를 등한시켰고 그 결과가 현재의 갈등과 차별이 팽배한 사회이다. 이러한 사회에서 일어날 치유의 기적은 다름 아닌 나와 다른 존재에 대한 편견 없는 대등한 이타적 시선일 것이다. 그것이 모두가 상생하는 공동체를 꿈꾸며 사람을 있는 그대로의 본질로 보고자 했던 고전소설 속 치유의 의미가 현실에서 실현되는 첫 시작일 것이다.

참고문헌

1. 자료

- 『고소설관각본전집 5: 장화홍년전(파리동양어학교본 26장본)』, 김동욱 편, 나손서옥, 1975.
- 『구활자본고소설전집 19:금방울전』, 인천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은하출판사, 1984
- 『구활자본고소설전집 31:적성의전』, 인천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은하출판사, 1984
- 『금송아치전』, 신구서림본, 1923
- 『녕이록』, 임치균,허원기 교주,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0
- 『동상기찬』, 김준형 역주, 휴머니스트, 2021
- 『심청전 전집』 3, 김진영 외, 박이정, 1998
- 『라손본 필사본 고소설자료총서 54』 「적성의전」, 보경문화사, 1993
- 『유화기연·숙녀지기』, 이윤석·김경미 교주, 경인문화사, 2008
- 『필사본고전소설전집 21: 한후룡전』, 김기동 편, 아세아문화사, 1983
- 『한국고전문학전집 15: 박씨전·임장군전·배시황전』, 김기현 역주,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15
- 『한국고전문학전집 20: 방한립전』, 이상구 교주, 문학동네, 2017
- 『한조삼성기봉』 교주본, 임치균 외 교주, 한국학 중앙연구원 출판부, 2013
- 김연수(동초제) 판소리 다섯 마당 〈심청가〉, 신나라 뮤직, 2007
- 국립중앙도서관 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 DB (<https://www.nl.go.kr/newspaper/>)
-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DB(<https://sillok.history.go.kr/main/main.do>)

2. 단행본

- 『어우야담·계서야담』, 이민수 역, 명문당, 1992
- 『역주 파수주』, 작자 미상, 이원걸 역, 이화문화사, 2008
- 『육미당기』, 이강욱 교주, 『한국고전소설작품론』, 1990
- 『청구야담』 상, 하, 이강욱 역주, 문학동네, 2019
- 『해동야언(海東野言)』, 허봉(許篈) 저, 이민수 역, 올재 클래식스. 2022
- 권영민. 『한국근대소설의 형성과정』, 소명출판, 2005
- 김영민, 『한국근대소설사』, 솔, 1997
- 김영민·구장률·이영미, 『근대계몽기 단형 서사문학 자료전집』 상·하, 소명출판, 2003
- 김은정 저 강진경·강진영 옮김, 『치유라는 이름의 폭력』, 후마니타스. 2022
- 김준형, 『조선 후기 성 소화 선집』, 문학동네, 2010
- 동아대학교 젠더 어팩트 연구소 저, 『약속과 예측』, 산지니. 2020
- 성현경, 『한국옛소설론』, 새문사, 1995
- 신동훈, 『서사 문학과 현실 그리고 꿈』, 소명출판, 2002
- 장석규, 『심청전의 구조와 의미』, 박이정, 1998
- 재호식, 『한국 근대문학과 계몽의 서사』, 소명출판, 2002
- 정선태, 『개화기 신문 논설의 서사 수용 양상』, 소명출판, 1999
- 정창권, 『역사 속 장애인은 어떻게 살았을까』, 글항아리, 2011
- _____, 『근대장애인사』, 사우, 2019,
- 정창권·윤종선 외, 『한국 장애인사』, 숲대, 2014
- 정창권·윤종선 등, 『소설로 장애 읽기』 1, 지성인, 2018
- 최은주, 『질병』, 은행나무, 2022
- 한기형, 『한국 근대소설사의 시각』, 소명출판, 1999
- 한원영, 『한국 신문연재소설의 사적 연구』 1, 푸른사상. 2010.

어맨다 레덕 저, 김소정 역, 『휠체어를 탄 소녀를 위한 동화는 없다』, 을유문화사,
2021

케이트 본스타인 저, 조은혜 역, 『젠더 무법자』, 바다출판사, 2015,

3. 논문

〈학위논문〉

강서후, 「〈방한립전〉에 나타난 성(性) 정체성」, 목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2015

김미리, 「〈한후룡전 연구〉」, 한국교육대학원 국어교육과 석사, 2001

김미순, 「한국소설에 나타난 장애자관」,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특수교육과 석사
1990

조성열, 「문학작품을 통해서 본 한국인의 장애자관」, 단국대학교 대학원,
특수교육학과 석사, 1985

〈학술지〉

강상순, 「괴물은 무엇을 표상하는가-한국 고전서사문학 속의 괴물」, 『우리어문연구』
55, 우리어문학회, 2016

강혜종, 「신체장애에 대한 조선후기 문인의 인식과 형상화」, 『한국문학논총』 80,
한국문학회, 2018

구선정, 「〈유화기연〉을 통해 본 군자(君子)의 조건과 그 이면」, 『한국고전연구』 32,
한국고전연구학회, 2015.

- _____, 「장애인 간 연대를 통한 치유-〈한후룡전〉을 중심으로-」, 『문학치료연구』 34, 한국문학치료학회, 2015
- _____, 「〈한후룡전〉·〈유화기연〉·〈영이록〉에 나타난 ‘장애인’의 양상과 그 소설사적 의미」, 『고소설연구』 42, 한국고소설학회, 2016
- _____, 「조선 후기 고소설에 나타난 罪罰을 통해 본 소수자 혐오 양상과 그 의미 -醜貌·鬼物·幼蟲·病身の 형상화를 중심으로-」, 『온지논총』 69, 온지학회, 2021
- 권선경, 「무당굿놀이에 등장하는 맹인의 성격과 의미」, 『한국무속학』 21, 2010
- 김난주, 「문화전통의 계승과 시각장애인 직업재활 측면에서 본 맹인점복업」, 『장애와 고용』 9권 1호,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2009
- 김종균, 「고소설 유형의 형성과 변이양상-남녀결연서사를 중심으로-」, 『어문연구』 54, 어문연구학회, 2007
- 김태영, 「〈유화기연(柳花奇緣)〉에 나타난 결핍해소의 방식과 그 의미」, 『한국고전연구』 46, 한국고전연구학회, 2019
- 김안나, 「한국의 사회적 배재실태에 관한 실증적 연구」, 『사회이론』 32, 한국사회이론학회, 2007
- 김용기, 「고소설의 못난 사위담을 활용한 자기 서사 글쓰기-‘이경작,소대성,손기’를 중심으로」, 『한국문학과 예술』 38, 숭실대학교 한국문학과 예술 연구소, 2021
- 박희병, 「병신에의 視線」, 『고전문학연구』 24, 한국고전문학회, 2003.
- 서경희, 「성 정체성에 대한 인식과 유동의 징후, 그리고 서사의 반동 - 〈유화기연〉의 ‘유춘’을 중심으로」, 『열상고전연구』 55, 열상고전연구회, 2017
- 서신혜, 「개인의 아픔으로 읽는 〈방한립전〉」,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0,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10
- 신호림, 「소경과 앓은뱅이 서사의 불교적 의미와 구비문학적 수용 양상」, 『구비문학연구』 37, 한국구비문학학회, 2013.

- 손찬식, 「『영이록』의 민담수용양상」, 『국어교육』 49, 한국국어교육연구회, 1984
- 신유리·김경미·전정식, 「생애사를 통해 본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에 관한 연구-세대의 영역별 배제 경험을 중심으로-」, 『한국장애인복지학』 19, 한국장애인복지학회, 2012
- 심승구, 「조선시대 장애의 분류와 사회적 처우」, 『한국학논총』 38, 국민대 한국학연구소, 2012
- 심치열, 「〈금방울전〉에 나타난 주인공의 조력적 면모와 의미」,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8,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14
- _____, 「『유화기연』, 기이성과 대중성의 서투른 결합」, 『인문과학연구』 36, 성신여대 인문과학연구소, 2017
- 양혜란, 「〈柳花奇緣〉의 構造的 性格 檢討-꿈의 서사적 기능을 中心으로-」, 『이화 어문논집』 11, 이화어문학회, 1990
- 엄태웅, 「세책본 영웅군담소설의 서사 지향-기존 연구 고찰을 중심으로-」, 『민족문화연구』 65, 고려대민족문화연구원, 2014
- 윤인선, 「심봉사의 안맹과 전환 장애」, 『한국융합학회논문지』 8-4, 한국융합학회, 2017
- 이경하, 「장애인과 보호자의 관계로 다시 읽는 〈심청전〉-영화 〈코다〉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국문학연구』 46, 국문학회, 2022
- 이경희, 「필사본 〈적성의전〉 이본연구」, 『한민족어문학』 75, 한민족어문학회, 2017
- 이방현, 「식민지조선에서의 정신병자에 대한근대적 접근」, 『의사학』 22권 2호, 대한의사학회, 2013
- 이승은, 「고전소설 속 바다 형상과 근대적 변모」, 『고전과 해석』 27, 고전문학한문학연구학회, 2019.
- 이정옥, 「근대 초기 ‘연극적 소설’과 계몽담론의 서사화 전략」, 『대중서사연구』 20-3, 대중서사학회, 2014
- 임치균, 「영이록 연구」, 『고전문학연구』 8, 한국고전문학회, 1993

- 정출현, 「고전소설에서의 현실성과 낭만성:〈심청전〉의 민중정서와 그 형상화 방식」, 『민족문학사영연구』 9, 민족문학사학회, 1996
- 조낙현, 「『소경과 안증방이 문답』의 시사비평과 알레고리에 대하여 -알레고리의 소설적 발전」, 『국어교육』 90, 한국국어교육연구회, 1995
- 조현설, 「남성지배와 『장화홍련전』의 여성형상」, 『민족문학사연구』 15, 민족문학사학회·민족문학사연구소, 1999
- 조현우, 「〈방한림전〉에 나타난 ‘갈등’과 ‘우울’의 정체 - 젠더 규범의 균열과 모순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33,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6
- 주윤정, 「자선(慈善)과 자혜(慈惠)의 경합(競合): 식민지기 ‘盲人’ 사회사업과 타자화 과정」, 『사회와 역사』 80, 한국사학회, 2008
- 최기숙, 「성장소설로 본 〈금방울전〉,〈김원전〉」, 『연민학지』 7, 1999
- 허용호, 「움직이는 전통, 변화하는 시선-밀양백중놀이의 장애 표현과 그 형상화 시선 연구-」, 『공연문화연구』 28, 한국공연문화학회, 2014

Abstract

The meaning of disability narratives and healing narratives in Korean classical novels

Choi. Ji-seon

Majored in Classical Literature

Dept. of Korean Language & Literature

Graduate School of Sung-Shin Univ.

This paper sought to examine the specific embodiment of the disabled and the disabled in classical novels and the meaning of the healing-oriented narrative, and to see how literature internalized the perception and discourse of disability in the process of narrating these disorders.

Chapter I revealed the bias of research on the discourse and shape of the disabled in classical literature, which had been studied mainly in oral literature and lyric literature, and revealed the purpose of research to expand the scope of classical literature research by focusing on the meaning of the disabled and the disabled in classical novels. In addition, this study not only derived various perspectives on the disability contained

in the narrative imagery of the disabled, but also sought to understand the meaning of healing orientation in classical novels. Accordingly, beyond physical deficits in the general sense, the shape of disability expressed in literary symbols was also included in the research category, and classical novel works were selected and confirmed based on this. In addition, in order to reveal the characteristics of disabled narratives in classical novels, a single-type narrative work featuring disabled people during the modern transition was selected and presented as a comparative group. Unlike the Joseon Dynasty, the comparison between the modern monolithic narrative featuring the disabled and the disabled, which were converted into a symbol during the modern transition period, and the disability shape of classical novels is easy to reveal the characteristics of the disability and healing shape in classical novels.

Prior to the full-fledged discussion, Chapter II examined how the concept of disability has been formed and changed from the Joseon Dynasty to modern times, revealing the differences and changes in views and discourse on the disabled and the disabled by era. Through this, it was confirmed that the view of the disabled and the disabled was a relative concept that changed as it led to the medieval, modern, and modern times. And the concept of disability to be used in this study was embodied.

Second, in order to examine the shape of the disability narrative in selected classical novels, the types of disabilities were divided into physical, mental, physical, and mental disabilities. And based on this, in the analysis of the shape of the disability narrative, the narrative development of each type of disability was examined by dividing the female disability narrative and the

male disability narrative. This is because the pattern of disability shape in classical novels differs in narrative development depending on men and women. After classifying the types in this way, each chapter examines the specific narrative expression and shape centering on the characters. To this end, the relationship, response method, and comparison between works between the disabled and the surrounding characters in the novel are performed. Through this, it derives a view of the meaning and obstacles contained in the narrative imagery.

As such, examining the diversity of the meaning of disabilities in different novels and the difference in the way families and communities treat the disabled is a way to guess the socio-cultural perspective of the time through literature. It is also a way to understand how a discourse and gaze are internalized through narrative.

Chapter III examines the meaning of disability discourse and healing discourse in a full-fledged narrative based on the narrative imagery examined in the previous chapter. In the era of novels without modern meaning, the narrative meaning and discourse given to the disabled and the disabled were examined, and the consciousness inherent in the healing narrative arranged as a practical and realistic self-fulfilling and narrative result was examined. Even within a similar structure between works in which disability, a state of deficiency, fills the deficiency, each work shows various kinds of views and responses to disability and healing. The same and different character behavior patterns between these works are attributed to the relativity of disability. If literature plays a role in showing different aspects of life through various characters, examining various aspects

surrounding disability and healing can be a way to understand and know the lives of the disabled and the disabled through literature.

It is true that the meaning of the disabled, who were living with the community in the Joseon Dynasty, as objects of distinction and exclusion has been strengthened in modern times. In Chapter IV, we tried to approximate the clues of the changed view of the disabled by comparing the shape of the disabled in classical novels with the short narrative in the modern transition period. Accordingly, among modern monotypic narratives, which are transitional literary genres of the modern transition period, works in which disabled characters appear as leading roles were selected to examine the differences from disabled narratives in classical novels.

This discussion was discussed as a character type that combines unique interesting elements in classical novels and tried to derive its meaning by paying attention to disabilities by supplementing the deficiencies of existing research that have been relatively insensitive to the life of people living with disabilities. In addition, by expanding the concept of the disabled in classical novels, we attempted to explore the literary shape of various disabilities. In addition, not only classical novels but also the shape of the disabled in the narrative of the modern transition period were examined piecemeal to confirm the modern transformation of views and attitudes surrounding the disabled and the disabled. The shift in the meaning of modern values for the disabled has had a clear impact until modern times, so this search can serve as a basis for considering the desirable views and attitudes toward the disabled and the disabled we should have now.